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ww.kicce.re.kr

한국아동패널 이슈 오피니언

제12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21.10.1.(금) 13:10-17:30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송출 및 Zoom 웨비나로 진행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ww.kicce.re.kr

한국아동패널 이동패널 제12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COVID-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6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에 본 조사를 수행하여, 2010년 제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 어느덧 올해 열 두 번째의 학술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올해 패널 아동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생애주기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종단으로 추적하여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부터 2027년까지 20년 동안을 추적하는 조사로써, 우리나라 아동에 대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친 인생초기 전반의 중요한 시기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아동의 성장과 발달, 양육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어, 아동의 발달과 육아정책에 관심있는 학계의 연구자들과 정책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을 통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육아정책연구소 또한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발달 및 성장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시기까지의 데이터가 제공됨으로써, 영유아기와 초등기를 아우르는 많은 종단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심각한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학술대회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께서 보여주신 꾸준한 열정으로 연구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 공동주최로 참석해주시고 축사를 해주신 한국아동학회 심미경 회장님,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정익중 회장님, 한국가족관계학회 조은숙 회장님,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진숙 회장님,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변미희 회장님, 김희곤 의원님, 윤재옥 의원님, 고영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연구를 학술대회에서 공유해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여

러 교수님과 박사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축사

한국아동학회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전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오늘 이렇게 '제 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영아부터 초등 5학년까지 12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있는 연구논문들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 이하 한국아동패널연구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2008년생 2,150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조사가 2027년까지 20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아동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선물입니다.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성장 및 발달특성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영향, 그리고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 초등이후의 학교 경험, 또래 영향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공공데이터로 무제한 제공한다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다각적인 육아환경을 모색하는데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수준에서 육아·가족·교육·사회 정책의 영향 등을 다면적으로 축적한 종단자료는 아동학·교육학·사회학·경제학·의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는 미래인재육성에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미있는 학술 및 정책 연구가 활발히 교류되는 학술의 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한국아동학회 회장 심미경

축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정익중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육아정책연구소가 제 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발달궤적, 개인적 차이, 환경의 역할 등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 모델 개발을 시작하고, 2008년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차년도 자료수집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장기 종단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어 새로운 정보를 얻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학술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찬에서 우수한 논문들을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다시 환류되어 향후 육아 및 아동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가 되고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학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말이 많지만 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차려놓은 귀한 밥상에 수저 하나를 얹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저도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토론자, 좌장으로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축된 자료를 관련 전문가에게 먼저 공개하여 다양한 교류와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패널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 패널의 추적과 유지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이런 귀한 자료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박상희 소장님, 책임연구자 김지현 박사님을 비롯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그리고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과 삶에 대해 생각과 열정을 나누는 진지하고 열띤 학술연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육아정책연구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정익중

축사

한국가족관계학회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에 12번째 개최되는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가 그 풍성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패널데이터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부모환경, 가족환경과 기타 생태적 환경과의 관련성을 분석해낼 수 있는 횡단 및 종단 자료로서 저희 가족관계학 연구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료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이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관련 연구자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본 패널데이터의 존재가치를 드높이며 향후 수집될 데이터의 발전 방향과 활용방안을 제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원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가장 밀접한 환경인 부모와 가족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본 학술대회에서 귀한 논문발표를 해주시는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분들 간에도 생산적이면서 상호격려가 되는 학문적 교류가 일어나는 기쁘고 행복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장 조은숙

축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이진숙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학술대회에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육아정책연구소에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에 의해 자행된 아동학대사건들은 다른 어떤 범죄사건들보다도 전 국민들의 공분을 유발하였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들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동학대 외에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초저출산현상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사회가 아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돌본다는 것은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한국사회가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존재의미를 재평가하고, 아동과 가족을 더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사회가 아동에 대해 관심을 더욱 키워야 할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가 12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간 아동패널을 통해 조사된 데이터들은 아동의 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 해에는 학술대회가 아동발달, 부모양육,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만큼, 발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들도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육아정책연구소와 대회참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이진숙

축사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인 우리나라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육아정책연구소 및 11 관련 학회들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여러 연구위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05년 설립된 이후에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 영유아가족연구, 국제교류데이터연구 등 일반 영유아, 아동과 가족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다양한 문제 및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본 학회 회원들과 함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도록 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으로 연구보고서가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과 가족들에게 단순히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행복한 일상을 경험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며, 더불어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아동가족정책 및 육아정책방향이 수립되고, 실천현장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회장 변미희

축사

국회 정무위원회

안녕하세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옥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본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Covid-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를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생아 대상 종단연구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육아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조사가 계획되어 신생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성장까지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내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값진 고견들이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 12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회위원 윤재옥

축사

국회 정무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 김희곤 의원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 해주신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기초적인 인성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아교육과 보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육아지원 인력양성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의 육아부담이 커진 시기에 그 어느때 보다도 영유아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육아환경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는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회의원 김희곤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먼저,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 이하 모든 연구진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아이의 성장·발달, 양육환경 등 관련 분야 종단 자료를 전국에서 축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생아 패널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 본 학술대회는 매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공유될 수 있는 유의미한 행사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수 년간 지속된 패널 연구와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정책 연구의 기틀은 더 견고해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 아동 연구 발전과 아동의 권리 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육아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할 과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데이터 수집, 분석, 연구로 육아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 사회에 던져진 아동 복지와 안전, 그리고 아동의 행복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동발달, 학교생활 및 적응, 부모양육과 미디어와 관련된 논문 발표로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야 말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자료수집을 토대로 알찬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아동패널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패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기를, 더 나아가 아동과 부모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회의원 고영인

프로그램

1부 | 13:10~14:20

개회식 - 유튜브 송출 사회자: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13:10 - 13:30	개회사: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축 사: 한국아동학회 심미경 회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정익중 회장 한국가족관계학회 조은숙 회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이진숙 회장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변미희 회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옥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김희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고영인 의원
13:30 - 13:4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3:40 - 13:50	한국아동패널 소개(한국아동패널 연구책임자 김지현)
13:50 - 14:20	초등시기 추이분석 발표(한국아동패널 연구진 김동훈)

2부 | 14:30~17:30

논문발표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참여	
14:30 - 15:50	세션 1: 아동발달 1 1.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계적 및 특성과 예측 효과 검증: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분석과 부모 요인의 예측효과 2.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 3. 초등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세션 2: 학교생활 및 적응 1 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2.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 3.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

논문발표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참여

14:30 - 15:50	세션 3: 부모양육 1.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심으로 2. 부모의 심리적특성과 양육적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3.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15:50 - 16:00	휴식
16:00 - 17:20	세션 1: 아동발달 2 1. 식품알레르기과 아동 행동 및 정서발달의 연관성 2. 초등학교 4학년 아동 화용언어 능력 예측 변인으로서 학령전 사회적 기술의 역할 3.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과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세션 2: 학교생활 및 적응 2 1. 아동의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 2.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3.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 분석
	세션 3: 미디어 1.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2.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 및 영향 요인 3.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
17:20 - 17:30	폐회

목 차

세션 1: 아동발달

Ⅰ 아동발달 1 | 좌장: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 및 특성과 예측 효과 검증: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분석과 부모 요인의 예측효과 5
 - 발표자: 장희선(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토론자: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 28
 - 발표자: 손수민(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 토론자: 권연희(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초등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58
 - 발표자: 박하연(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은선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토론자: 조미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Ⅰ 아동발달 2 | 좌장: 신나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1. 식품알레르기와의 아동 행동 및 정서발달의 연관성 85
 - 발표자: 정성수(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소연(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오혜영(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윤지선(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홍수종(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 토론자: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가족연구실장)
2. 초등학교 4학년 아동 화용언어 능력 예측 변인으로서 학령전 사회적 기술의 역할 .. 100
 - 발표자: 이은주(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자: 김수진(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3.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과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 125
 - 발표자: 박원정(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정하은(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김선영(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 토론자: 오소정(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교수)

세션 2: 학교생활 및 적응

Ⅰ 학교생활 및 적응 1 Ⅰ

좌장: 박혜원(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전공 교수)

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153
 - 발표자: 김혜란(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토론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 178
 - 발표자: 이은정(고려대학교 대학정책연구원 연구교수), 최현주(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토론자: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 196
 - 발표자: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윤예린(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곽나람(서울잠원초등학교 교사)
 - 토론자: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Ⅰ 학교생활 및 적응 2 Ⅰ

좌장: 이희선(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아동의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 ... 221
 - 발표자: 김형석(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정호(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홍혜영(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토론자: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247
 - 발표자: 이귀옥(을지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토론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
3.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 분석 268
 - 발표자: 이경희(호서대학교 혁신융합학부 조교수), 박혜영(호서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조교수)
 - 토론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세션 3: 부모양육

■ 부모양육 ■ 좌장: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1.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심으로 287
 - 발표자: 정윤미(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오세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현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가족지원연구팀장)
2. 부모의 심리적특성과 양육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 314
 - 발표자: 김현주(대구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 수료), 임영진(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토론자: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3.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333
 - 발표자: 성정혜(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 김춘경(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 토론자: 강수정(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세션 3: 미디어

■ 미디어 ■ 좌장: 조성연(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361
 - 발표자: 홍예지(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 토론자: 이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 및 영향 요인 385
 - 발표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윤미라(대전대흥초등학교 교사)
 - 토론자: 김경은(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3.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 410
 - 발표자: 조민규(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김춘경(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 토론자: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제12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한국 아동 패널 리

아동발달

아동발달 1

좌장: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 및 특성과 예측 효과 검증: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분석과
부모 요인의 예측효과

발표자: 장희선(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토론자: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

발표자: 손수민(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권연희(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초등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발표자: 박하연(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은선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조미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 및 특성과 예측 효과 검증: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분석과 부모 요인의 예측효과

장희선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집행기능곤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성격,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를 분석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예측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자료 가운데 2015년 초등학교 1학년(8차)부터 초등학교 5학년(1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관계, 성장혼합모형, 분산분석 및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은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형',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형',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형' 3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저수준-유지형'의 경우 친화성, 개방성의 성격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수준-유지형'과 '저수준-상승형'의 경우 신경성의 성격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수준-상승형'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미디어중독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 잠재집단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잠재집단곤란 고수준-유지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성장에 따른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의 특성과 예측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 중재 방안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 성장혼합모형, 성격,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 부모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1. 서론

집행기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신경심리학 분야에서 아동 청소년의 집행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심각한 발달장애, ADHD 혹은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Hughes & Graham, 2002). 그러나 최근에는 집행기능의 결함이 특정 장애를 진단 받은 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발견된다는 연구에 따라 일반 아동의 집행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기능 하위요소의 발달과 집행기능곤란 및 이와 관련된 수행능력 등을 다루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Best, Miller & Jones, 2009). 아동의 집행기

1)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능은 만 5세 이후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급속하게 발달한다(Best & Miller, 2010).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에 주의집중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고 규칙에 따르는 집행기능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Espy et al., 2004). 초등학생의 집행기능은 이들의 지속적인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Espy et al., 2004). 초등학교 입학에서 부터 4학년까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요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은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인지과정들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McCloskey, Pekins, & Van Divner, 2009)이다. 집행기능은 계획 및 조직화(planning and organization), 작업기억(working memory), 정서·행동통제(emotional and behavioral control), 주의집중 및 충동통제(inhibitory control)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Carlson, Moses, & Claxton, 2004). 한국 상황에 적절하게 타당화한 연구에(송현주, 2014) 의하면 집행기능의 하위요인은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곤란, 정서통제곤란, 부주의 등 4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아기와 아동기에 급격히 발달하는 집행기능은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지적 조절과정이다(맹세호, 정윤경, 권미경, 2014). 집행기능 곤란의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반 개입이 요구된다.

초등학생의 집행기능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과정 결과로 학교적응이나(송현주, 2011; Espy et al., 2004; Gathercole, Brown, & Pickering, 2003),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경, 2020; 연은모, 최효식, 2019, 최지수, 박유미, 최나야, 2020). 초등학교 시기에는 집행기능의 하위요소 중 충동통제 및 작업기억, 계획 및 조직화가 급속하게 발달하게 된다(이명주, 홍창희, 2006). 특히 초기의 정서조절능력은 이후 교실에서의 적절한 행동 조절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학업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aziano, Reavis, Keane & Calkins, 2007).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초등학교 초기에 급격히 발달하는 집행기능은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 뿐 아니라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시기의 집행기능곤란의 발달적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학업실패 등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격형성 같은 내적 문제 뿐 아니라, 규칙 위반, 따돌림, 괴롭힘 같은 학교폭력이나 온라인 게임 중독 같은 비행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최근 그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권혜진, 2014; 서재화, 김현경, 2018; 이귀옥, 이미리, 2013; 최은아, 2019). 특히 우울 불안과 공격성의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 반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부적응 문제와 관련되는 위

험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Barkley, 2006; Giancola, Martin, Tarter, Pelham & Moss, 1996). 또한, 집행기능곤란은 미디어기기 중독과도 관련되었다. 미디어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주의집중 및 충동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전두피질 활동을 손상시킴으로써 집행기능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udo & Zabielska-Mendyk, 2019). 스마트폰과 미디어기기 이용이 급증하는 초등학교 중학년 시기에 집행기능곤란의 부적응 상태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미디어기기에 대한 의존을 오히려 높이는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집행기능이 어떠한 곤란 정도를 겪게 되는 지 발달궤적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에서의 성격형성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미디어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집행기능곤란의 종단적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격형성과 학교부적응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미디어 중독으로 연결되는 아동기의 집행기능 곤란을 조기에 발견하며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한 노력과 집행기능 곤란 수준에 따른 적절한 중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우울, 양육스트레스 등 부모 요인을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은향, 2020). 먼저, 부모의 심리적 변인이 자녀의 집행기능곤란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의 우울과(장영은, 2020) 양육스트레스(최은아, 2019, 제희선, 채혜경, 2019)는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쁘다, 2020; 박서이, 이강이, 2020). 부의 심리적 변인, 양육스트레스도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길희, 문소라, 2019).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도 자녀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모-자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높은 지원일수록 집행기능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제적 양육은 부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임양미, 2020, Lam, Chung, & Li, 2018; Valcan, Davis, & Pino-Pasternak, 2018). 특히 모의 적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의집중과 인지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되며, 부의 적대적 양육행동은 작업기억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m, Chung & Li, 2018).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문명화, 2021)이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집행기능곤란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횡단 연구로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밝혀온 연구가 다수이다. 다만, 종단연구로는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탐색한 연구(서재화, 김현경, 2018)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집행기능곤란의 잠재성장을 살펴본 연구(문명화, 2021)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재화, 김현경(2018)의 연구는 5세 자녀의 어머니 활동참여가 6세 아동의 사회기술의 매개에 의해 7세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종단 관계를 확인한 연구이다. 문명화(2021)는

초1에서 3까지 학생 전체집단의 집행기능곤란은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개인차에 따른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양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와 담임교사의 평가에 의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집행기능곤란의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연은모, 최효식, 2019).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집행기능곤란의 잠재프로파일만 분류하여 시간적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적 접근방법(Person-centered approach)에 의한 집행기능곤란의 잠재집단 분류와 시간적 변화양상의 잠재성장모형이 혼합된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을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간에 흐름에 따른 개인차를 반영한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궤적을 분류하고, 이러한 변화궤적 집단별 성격 차이, 학교부적응의 일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미디어 중독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요인, 양육행동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의 발달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부모 변인(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예측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곤란의 종단적 발달궤적의 특성을 밝히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중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초등학교 집행기능곤란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곤란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별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초등학교 집행기능곤란수준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행동의 예측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nel Study of Korea Children) 조사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총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전국규모(제주도 제외)의 종단연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령기인 1학년 8차년도(2015년)부터 4학년까지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의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발달궤적이 초등학교 5학년의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8차년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행동의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8차)에서 초등학교 4학년(11차) 학생의 집행기능 곤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4개 년도에서 3개 년도 이상 응답한 자료만 종단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모집단은 2015년(8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총 2,050명의 자료였다. 그러나 집행기능곤란의 4년의 걸친 종단자료에서 1회 이상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1,412명이었다. 이 자료에서 본 연구의 차이분석과 예측분석의 주요변수인 12차년도 성격유형(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학교폭력 피해경험(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미디어중독과 8차년도 부모관련 변인(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행동) 문항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1,40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709명(50.2%), 여학생 695명(49.2%)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		N(%)		M(SD)
성별	남학생	709(50.2)		
	여학생	695(49.2)		
부모 교육수준	모	고졸 이하	298(29.9)	
		초대졸 이상	1,004(71.1)	
	부	고졸 이하	369(26.1)	
		초대졸 이상	1,013(71.7)	
부모 취업/학업상태	모	취업중(휴직중 포함)	564	(39.9)
		학업중(휴학중 포함)	3	(0.2)
		취업/학업 병행 중	48	(3.4)
		미취업/미학업	771	(54.6)
	부	취업중(휴직 중 포함)	1227	(86.9)
		취업/학업 병행 중	19	(1.3)
		미취업/미학업	71	(5.0)
가정	월평균(2015년)			462.99(201.46)
	모 근로소득 월평균(2015년)			185.84(117.74)

2. 측정도구

가. 집행기능곤란

한국아동패널에서 활용한 집행기능곤란 문항은 송현주(2014)에 개발한 어머니 대상 지필식 설문으로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문항을 개발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집행기능곤란은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계획-조직화 곤란 문항 11개, 행동통제곤란 11개, 정서통제 곤란 문항 8개, 부주의 문항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1점)’ ~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집행기능곤란의 년도별 Cronbach α 신뢰도는 .85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집행기능곤란 문항구성과 신뢰도(N=1,404)

하위요인	문항수	내용(예시)	Cronbach α			
			초1	초2	초3	초4
계획·조직화 곤란	11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	.875	.885	.882	.891
행동통제 곤란	11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 한다	.857	.850	.829	.854
정서통제곤란	8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892	.904	.935	.900
부주의	10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897	.899	.938	.912

나. 차이요인: 성격유형,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

NEO 성격 5요인은 아동의 성격특성과 신경증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으로 구성되며 19개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안현아, 안창규(2017)의 NEO 성격 전문가 지침서에서 제시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외향성은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며 활발한 대인관계의 양과 강도를 의미하고,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정도, 친화성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 견지하는 친화적 태도와 관련되며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정도를 의미하고,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며 걱정이 많고 충동적인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 응답 형식은 전혀 아니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유형간 비교를 하기 위해 T점수를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성격요인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외향성 .699, 개방성 .735, 친화성, .761, 성실성,

.820, 신경증 .874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은 Olweus(1993)의 “Bully/Victim Questionnaire(1991)의 ‘Junior Questionnaire’를 안정만(2001)이 재구성한 것을 김옥귀(2013)에 활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학교폭력 문항은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욕설이나 폭언, 협박이나 위협, 괴롭힘, 집단 따돌림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유형은 ‘경험의 유무와 빈도의 정도에 따라 ‘없다(0점)’, ‘1년에 한 두번(1점)’, ‘1달에 한 번(2점)’, ‘한달에 2~3번(3점)’, ‘일주일에 1번(4점)’, ‘일주일에 여러 번(5점)’의 6점 누적 척도로 측정하게 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903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묻는 문항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한 것으로 피해 경험, 1번의 ①,⑥번 문항이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피해를 당한 경험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사이버 언어폭력 문항으로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와 사이버 따돌림 문항으로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응답의 척도 수준은 ‘전혀없음(1점)’, ‘지난 6개월간 한 두번 (2점)’, 한달에 한 두번(3점), 일주일에 한 두번(4점), 거의 매일(5점)의 5점 누적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많을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795로 양호하였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K-척도) 청소년 관찰자용(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자녀의 미디어기기 의존 정도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미디어기기 중독은 일상생활장애 5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 3개 하위요인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장애는 미디어 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기본생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이다(예, PC·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금단 문항은 미디어 기기 사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안, 우울, 초조감과 같은 정서적 상태가 발생하고 다시 사용하면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된 문항이다(예, PC·스마트폰 사용을 할 때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내성 문항은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면서 점차 더 오랫동안 사용하여 의존하게 되는 증상에 관한 문항이다(예,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 사용한다).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미디어기기 중독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64로 양호한 편이었다.

다. 예측요인 : 부모의 심리적 요인, 양육행동 변인

부모의 심리적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우울과 양육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8차 년도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부모 변인을 중심으로 예측요인을 설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 강희경 (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한국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원문항에서 예비조사 결과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되어 1문항을 제외하고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와 같은 1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 α 신뢰도는 모양육스트레스 .898, 부양육스트레스 .889 이다.

부모의 우울 측정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Kessler 외(2002)가 일반인의 정신건강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와 같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방식은 '전혀 안 느낌(1점)', '별로 안 느낌(2점)', '종종 느낌(3점)', '대체로 느낌(4점)', '항상 느낌(5점)'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모 우울 .919, 부 우울 .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양육 행동은 Baumrind(1991)가 제시한 부모 양육방식을 권위주의적, 허용적, 권위 있으므로 유형화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조복희 외(1999) 한국의 부모 상황에 맞게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으로 구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온정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 양육을 수행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통제적 양육은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이라 할 수 있다. 온정적 양육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와 같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적 양육은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와 같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측정하도록 하였다. 문항내적 일관성신뢰도 Cronbach α 는 모온정적 양육 .873, 모통제적 양육, .763, 부온정적 양육, .885, 부통제적 양육 .794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Mplus 7.0과 SPSS 25를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집행기능곤란의 변화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장혼합모형의 잠재집단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 시점에서의 성격,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의 잠재집단 분류를 예측하는 부모 요인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자료의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PSS 25를 활용하였으며, 초1 ~ 초4시점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양상의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위해 Mplus 7.0을 활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의 잠재집단 분류의 적합도 지수로 BIC, AIC, Adjusted BIC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분류된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엔트로피(Entropy) 값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LMR-LRT 등의 적합도지수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지수는 하나씩 집단수를 늘려가면서 이전의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의값을 토대로 k개 유형의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다(Lo, Mendell & Rubin, 2001).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의 잠재집단별 초등학교 5학년에서의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 중독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집행기능곤란의 성장혼합모형에 따른 잠재집단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부모 심리적 요인, 양육행동 효과를 승산비를 통해 확인하고자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의 시간 흐름에 따른 발달궤적의 잠재집단 분류와 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수들에 대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집행기능관련				성격			학교		사이버		미디어		모			부				
	초1	초2	초3	초4	외향성	개방성	친절성	성실성	신경증	포락피해	포락피해	중독	6	7	8	9	10	11	12	13	
집행 기능 관련	초1	1																			
	초2	.704**	1																		
	초3	.702**	.738**	1																	
	초4	.613**	.676**	.750**	1																
성격 (초5)	1	-0.054	-.094**	-.073*	1																
	2	-.057*	-.056*	-.035	-.062*	1															
	3	-.145**	-.178**	-.145**	-.155**	.335**	1														
	4	-.139**	-.170**	-.151**	-.193**	.608**	.601**	1													
	5	.122**	.170**	.145**	.150**	-.239**	.032	-.681**	-.391**	1											
학교포락(초5)	.090**	.061*	.058*	.083**	.017	.043	-.076**	-.004	.119**	1											
사이버포락(초5)	.071*	.077**	.058*	.102**	-.039	.018	-.034	-.003	.064*	.060*	1										
미디어중독(초5)	.302**	.354**	.331**	.355**	-.085**	-.109**	-.184**	-.211**	.151**	.024	.097**	1									
모 (초1)	6	.498**	.418**	.379**	.323**	-.044	-.104**	-.168**	-.105**	.100**	.038	.276**	1								
	7	.359**	.315**	.295**	.253**	-.035	-.059*	-.129**	-.089**	.101**	.004	.017	.233**	.587**	1						
	8	-.352**	-.245**	-.257**	-.223**	.038	.093**	.141**	.115**	-.115**	.000	.000	.218**	-.503**	-.301**	1					
	9	-.077**	-.025	-.024	-.032	.023	.013	.025	.034	.003	-.063*	-.040	-.090**	-.018	-.033	.255**	1				
	10	.220**	.207**	.155**	.151**	-.112**	-.102**	-.104**	-.111**	.033	.024	.011	.168**	.421**	.320**	-.279**	-.046	1			
부 (초1)	11	.106**	.130**	.104**	.088**	-.041	-.065*	-.056	-.038	.057	.028	.015	.119**	.279**	.355**	-.146**	-.012	.498**	1		
	12	-.183**	-.122**	-.133**	-.128**	.092**	.101**	.107**	.113**	-.030	-.020	.024	-.125**	-.274**	-.205**	.322**	.068*	-.583**	-.323**	1	
	13	-.069*	-.039	-.027	-.042	.073*	.078**	.050	.060*	.029	-.041	-.044	-.076**	-.030	-.070*	.073**	.267**	-.081**	-.064*	.254**	1
	M	1.44	1.47	1.48	1.43	51.53	47.13	51.90	47.06	47.82	1.40	1.10	1.88	2.41	1.83	3.70	3.57	2.19	1.89	3.59	3.42
SD	0.31	0.31	0.33	0.32	9.55	9.41	9.29	8.77	8.62	0.74	0.46	0.42	0.68	0.73	0.58	0.52	0.62	0.68	0.62	0.57	
외도	0.85	0.72	0.93	0.93	0.01	0.06	0.14	0.21	0.29	5.94	6.49	0.23	0.24	0.83	-0.43	-0.39	0.02	0.67	-0.18	-0.09	
첨도	0.81	0.22	0.90	0.69	-0.05	0.60	0.13	0.19	-0.05	40.08	47.09	-0.44	0.07	0.69	1.32	1.55	-0.47	0.89	0.38	0.27	

1= 외향성, 2=개방성, 3= 친절성, 4=성실성, 5=신경증, 6= 포스트레스, 7=모양, 8=부동제지, 9=모양제지, 10=부스태스, 11=부양, 12=부동제지, 13=부양제지, 14=모양, 15=부동제지, 16=부양제지, 17=모양, 18=부동제지, 19=부양제지, 20=모양, 21=부동제지, 22=부양제지, 23=모양, 24=부동제지, 25=부양제지, 26=모양, 27=부동제지, 28=부양제지, 29=모양, 30=부동제지, 31=부양제지, 32=모양, 33=부동제지, 34=부양제지, 35=모양, 36=부동제지, 37=부양제지, 38=모양, 39=부동제지, 40=부양제지, 41=모양, 42=부동제지, 43=부양제지, 44=모양, 45=부동제지, 46=부양제지, 47=모양, 48=부동제지, 49=부양제지, 50=모양, 51=부동제지, 52=부양제지, 53=모양, 54=부동제지, 55=부양제지, 56=모양, 57=부동제지, 58=부양제지, 59=모양, 60=부동제지, 61=부양제지, 62=모양, 63=부동제지, 64=부양제지, 65=모양, 66=부동제지, 67=부양제지, 68=모양, 69=부동제지, 70=부양제지, 71=모양, 72=부동제지, 73=부양제지, 74=모양, 75=부동제지, 76=부양제지, 77=모양, 78=부동제지, 79=부양제지, 80=모양, 81=부동제지, 82=부양제지, 83=모양, 84=부동제지, 85=부양제지, 86=모양, 87=부동제지, 88=부양제지, 89=모양, 90=부동제지, 91=부양제지, 92=모양, 93=부동제지, 94=부양제지, 95=모양, 96=부동제지, 97=부양제지, 98=모양, 99=부동제지, 100=부양제지, 101=모양, 102=부동제지, 103=부양제지, 104=모양, 105=부동제지, 106=부양제지, 107=모양, 108=부동제지, 109=부양제지, 110=모양, 111=부동제지, 112=부양제지, 113=모양, 114=부동제지, 115=부양제지, 116=모양, 117=부동제지, 118=부양제지, 119=모양, 120=부동제지, 121=부양제지, 122=모양, 123=부동제지, 124=부양제지, 125=모양, 126=부동제지, 127=부양제지, 128=모양, 129=부동제지, 130=부양제지, 131=모양, 132=부동제지, 133=부양제지, 134=모양, 135=부동제지, 136=부양제지, 137=모양, 138=부동제지, 139=부양제지, 140=모양, 141=부동제지, 142=부양제지, 143=모양, 144=부동제지, 145=부양제지, 146=모양, 147=부동제지, 148=부양제지, 149=모양, 150=부동제지, 151=부양제지, 152=모양, 153=부동제지, 154=부양제지, 155=모양, 156=부동제지, 157=부양제지, 158=모양, 159=부동제지, 160=부양제지, 161=모양, 162=부동제지, 163=부양제지, 164=모양, 165=부동제지, 166=부양제지, 167=모양, 168=부동제지, 169=부양제지, 170=모양, 171=부동제지, 172=부양제지, 173=모양, 174=부동제지, 175=부양제지, 176=모양, 177=부동제지, 178=부양제지, 179=모양, 180=부동제지, 181=부양제지, 182=모양, 183=부동제지, 184=부양제지, 185=모양, 186=부동제지, 187=부양제지, 188=모양, 189=부동제지, 190=부양제지, 191=모양, 192=부동제지, 193=부양제지, 194=모양, 195=부동제지, 196=부양제지, 197=모양, 198=부동제지, 199=부양제지, 200=모양, 201=부동제지, 202=부양제지, 203=모양, 204=부동제지, 205=부양제지, 206=모양, 207=부동제지, 208=부양제지, 209=모양, 210=부동제지, 211=부양제지, 212=모양, 213=부동제지, 214=부양제지, 215=모양, 216=부동제지, 217=부양제지, 218=모양, 219=부동제지, 220=부양제지, 221=모양, 222=부동제지, 223=부양제지, 224=모양, 225=부동제지, 226=부양제지, 227=모양, 228=부동제지, 229=부양제지, 230=모양, 231=부동제지, 232=부양제지, 233=모양, 234=부동제지, 235=부양제지, 236=모양, 237=부동제지, 238=부양제지, 239=모양, 240=부동제지, 241=부양제지, 242=모양, 243=부동제지, 244=부양제지, 245=모양, 246=부동제지, 247=부양제지, 248=모양, 249=부동제지, 250=부양제지, 251=모양, 252=부동제지, 253=부양제지, 254=모양, 255=부동제지, 256=부양제지, 257=모양, 258=부동제지, 259=부양제지, 260=모양, 261=부동제지, 262=부양제지, 263=모양, 264=부동제지, 265=부양제지, 266=모양, 267=부동제지, 268=부양제지, 269=모양, 270=부동제지, 271=부양제지, 272=모양, 273=부동제지, 274=부양제지, 275=모양, 276=부동제지, 277=부양제지, 278=모양, 279=부동제지, 280=부양제지, 281=모양, 282=부동제지, 283=부양제지, 284=모양, 285=부동제지, 286=부양제지, 287=모양, 288=부동제지, 289=부양제지, 290=모양, 291=부동제지, 292=부양제지, 293=모양, 294=부동제지, 295=부양제지, 296=모양, 297=부동제지, 298=부양제지, 299=모양, 300=부동제지, 301=부양제지, 302=모양, 303=부동제지, 304=부양제지, 305=모양, 306=부동제지, 307=부양제지, 308=모양, 309=부동제지, 310=부양제지, 311=모양, 312=부동제지, 313=부양제지, 314=모양, 315=부동제지, 316=부양제지, 317=모양, 318=부동제지, 319=부양제지, 320=모양, 321=부동제지, 322=부양제지, 323=모양, 324=부동제지, 325=부양제지, 326=모양, 327=부동제지, 328=부양제지, 329=모양, 330=부동제지, 331=부양제지, 332=모양, 333=부동제지, 334=부양제지, 335=모양, 336=부동제지, 337=부양제지, 338=모양, 339=부동제지, 340=부양제지, 341=모양, 342=부동제지, 343=부양제지, 344=모양, 345=부동제지, 346=부양제지, 347=모양, 348=부동제지, 349=부양제지, 350=모양, 351=부동제지, 352=부양제지, 353=모양, 354=부동제지, 355=부양제지, 356=모양, 357=부동제지, 358=부양제지, 359=모양, 360=부동제지, 361=부양제지, 362=모양, 363=부동제지, 364=부양제지, 365=모양, 366=부동제지, 367=부양제지, 368=모양, 369=부동제지, 370=부양제지, 371=모양, 372=부동제지, 373=부양제지, 374=모양, 375=부동제지, 376=부양제지, 377=모양, 378=부동제지, 379=부양제지, 380=모양, 381=부동제지, 382=부양제지, 383=모양, 384=부동제지, 385=부양제지, 386=모양, 387=부동제지, 388=부양제지, 389=모양, 390=부동제지, 391=부양제지, 392=모양, 393=부동제지, 394=부양제지, 395=모양, 396=부동제지, 397=부양제지, 398=모양, 399=부동제지, 400=부양제지, 401=모양, 402=부동제지, 403=부양제지, 404=모양, 405=부동제지, 406=부양제지, 407=모양, 408=부동제지, 409=부양제지, 410=모양, 411=부동제지, 412=부양제지, 413=모양, 414=부동제지, 415=부양제지, 416=모양, 417=부동제지, 418=부양제지, 419=모양, 420=부동제지, 421=부양제지, 422=모양, 423=부동제지, 424=부양제지, 425=모양, 426=부동제지, 427=부양제지, 428=모양, 429=부동제지, 430=부양제지, 431=모양, 432=부동제지, 433=부양제지, 434=모양, 435=부동제지, 436=부양제지, 437=모양, 438=부동제지, 439=부양제지, 440=모양, 441=부동제지, 442=부양제지, 443=모양, 444=부동제지, 445=부양제지, 446=모양, 447=부동제지, 448=부양제지, 449=모양, 450=부동제지, 451=부양제지, 452=모양, 453=부동제지, 454=부양제지, 455=모양, 456=부동제지, 457=부양제지, 458=모양, 459=부동제지, 460=부양제지, 461=모양, 462=부동제지, 463=부양제지, 464=모양, 465=부동제지, 466=부양제지, 467=모양, 468=부동제지, 469=부양제지, 470=모양, 471=부동제지, 472=부양제지, 473=모양, 474=부동제지, 475=부양제지, 476=모양, 477=부동제지, 478=부양제지, 479=모양, 480=부동제지, 481=부양제지, 482=모양, 483=부동제지, 484=부양제지, 485=모양, 486=부동제지, 487=부양제지, 488=모양, 489=부동제지, 490=부양제지, 491=모양, 492=부동제지, 493=부양제지, 494=모양, 495=부동제지, 496=부양제지, 497=모양, 498=부동제지, 499=부양제지, 500=모양, 501=부동제지, 502=부양제지, 503=모양, 504=부동제지, 505=부양제지, 506=모양, 507=부동제지, 508=부양제지, 509=모양, 510=부동제지, 511=부양제지, 512=모양, 513=부동제지, 514=부양제지, 515=모양, 516=부동제지, 517=부양제지, 518=모양, 519=부동제지, 520=부양제지, 521=모양, 522=부동제지, 523=부양제지, 524=모양, 525=부동제지, 526=부양제지, 527=모양, 528=부동제지, 529=부양제지, 530=모양, 531=부동제지, 532=부양제지, 533=모양, 534=부동제지, 535=부양제지, 536=모양, 537=부동제지, 538=부양제지, 539=모양, 540=부동제지, 541=부양제지, 542=모양, 543=부동제지, 544=부양제지, 545=모양, 546=부동제지, 547=부양제지, 548=모양, 549=부동제지, 550=부양제지, 551=모양, 552=부동제지, 553=부양제지, 554=모양, 555=부동제지, 556=부양제지, 557=모양, 558=부동제지, 559=부양제지, 560=모양, 561=부동제지, 562=부양제지, 563=모양, 564=부동제지, 565=부양제지, 566=모양, 567=부동제지, 568=부양제지, 569=모양, 570=부동제지, 571=부양제지, 572=모양, 573=부동제지, 574=부양제지, 575=모양, 576=부동제지, 577=부양제지, 578=모양, 579=부동제지, 580=부양제지, 581=모양, 582=부동제지, 583=부양제지, 584=모양, 585=부동제지, 586=부양제지, 587=모양, 588=부동제지, 589=부양제지, 590=모양, 591=부동제지, 592=부양제지, 593=모양, 594=부동제지, 595=부양제지, 596=모양, 597=부동제지, 598=부양제지, 599=모양, 600=부동제지, 601=부양제지, 602=모양, 603=부동제지, 604=부양제지, 605=모양, 606=부동제지, 607=부양제지, 608=모양, 609=부동제지, 610=부양제지, 611=모양, 612=부동제지, 613=부양제지, 614=모양, 615=부동제지, 616=부양제지, 617=모양, 618=부동제지, 619=부양제지, 620=모양, 621=부동제지, 622=부양제지, 623=모양, 624=부동제지, 625=부양제지, 626=모양, 627=부동제지, 628=부양제지, 629=모양, 630=부동제지, 631=부양제지, 632=모양, 633=부동제지, 634=부양제지, 635=모양, 636=부동제지, 637=부양제지, 638=모양, 639=부동제지, 640=부양제지, 641=모양, 642=부동제지, 643=부양제지, 644=모양, 645=부동제지, 646=부양제지, 647=모양, 648=부동제지, 649=부양제지, 650=모양, 651=부동제지, 652=부양제지, 653=모양, 654=부동제지, 655=부양제지, 656=모양, 657=부동제지, 658=부양제지, 659=모양, 660=부동제지, 661=부양제지, 662=모양, 663=부동제지, 664=부양제지, 665=모양, 666=부동제지, 667=부양제지, 668=모양, 669=부동제지, 670=부양제지, 671=모양, 672=부동제지, 673=부양제지, 674=모양, 675=부동제지, 676=부양제지, 677=모양, 678=부동제지, 679=부양제지, 680=모양, 681=부동제지, 682=부양제지, 683=모양, 684=부동제지, 685=부양제지, 686=모양, 687=부동제지, 688=부양제지, 689=모양, 690=부동제지, 691=부양제지, 692=모양, 693=부동제지, 694=부양제지, 695=모양, 696=부동제지, 697=부양제지, 698=모양, 699=부동제지, 700=부양제지, 701=모양, 702=부동제지, 703=부양제지, 704=모양, 705=부동제지, 706=부양제지, 707=모양, 708=부동제지, 709=부양제지, 710=모양, 711=부동제지, 712=부양제지, 713=모양, 714=부동제지, 715=부양제지, 716=모양, 717=부동제지, 718=부양제지, 719=모양, 720=부동제지, 721=부양제지, 722=모양, 723=부동제지, 724=부양제지, 725=모양, 726=부동제지, 727=부양제지, 728=모양, 729=부동제지, 730=부양제지, 731=모양, 732=부동제지, 733=부양제지, 734=모양, 735=부동제지, 736=부양제지, 737=모양, 738=부동제지, 739=부양제지, 740=모양, 741=부동제지, 742=부양제지, 743=모양, 744=부동제지, 745=부양제지, 746=모양, 747=부동제지, 748=부양제지, 749=모양, 750=부동제지, 751=부양제지, 752=모양, 753=부동제지, 754=부양제지, 755=모양, 756=부동제지, 757=부양제지, 758=모양, 759=부동제지, 760=부양제지, 761=모양, 762=부동제지, 763=부양제지, 764=모양, 765=부동제지, 766=부양제지, 767=모양, 768=부동제지, 769=부양제지, 770=모양, 771=부동제지, 772=부양제지, 773=모양, 774=부동제지, 775=부양제지, 776=모양, 777=부동제지, 778=부양제지, 779=모양, 780=부동제지, 781=부양제지, 782=모양, 783=부동제지, 784=부양제지, 785=모양, 786=부동제지, 787=부양제지, 788=모양, 789=부동제지, 790=부양제지, 791=모양, 792=부동제지, 793=부양제지, 794=모양, 795=부동제지, 796=부양제지, 797=모양, 798=부동제지, 799=부양제지, 800=모양, 801=부동제지, 802=부양제지, 803=모양, 804=부동제지, 805=부양제지, 806=모양, 807=부동제지, 808=부양제지, 809=모양, 810=부동제지, 811=부양제지, 812=모양, 813=부동제지, 814=부양제지, 815=모양, 816=부동제지, 817=부양제지, 818=모양, 819=부동제지, 820=부양제지, 821=모양, 822=부동제지, 823=부양제지, 824=모양, 825=부동제지, 826=부양제지, 827=모양, 828=부동제지, 829=부양제지, 830=모양, 831=부동제지, 832=부양제지, 833=모양, 834=부동제지, 835=부양제지, 836=모양, 837=부동제지, 838=부양제지, 839=모양, 840=부동제지, 841=부양제지, 842=모양, 843=부동제지, 844=부양제지, 845=모양, 846=부동제지, 847=부양제지, 848=모양, 849=부동제지, 850=부양제지, 851=모양, 852=부동제지, 853=부양제지, 854=모양, 855=부동제지, 856=부양제지, 857=모양, 858=부동제지, 859=부양제지, 860=모양, 861=부동제지, 862=부양제지, 863=모양, 864=부동제지, 865=부양제지, 866=모양, 867=부동제지, 868=부양제지, 869=모양, 870=부동제지, 871=부양제지, 872=모양, 873=부동제지, 874=부양제지, 875=모양, 876=부동제지, 877=부양제지, 878=모양, 879=부동제지, 880=부양제지, 881=모양, 882=부동제지, 883=부양제지, 884=모양, 885=부동제지, 886=부양제지, 887=모양, 888=부동제지, 889=부양제지, 890=모양, 891=부동제지, 892=부양제지, 893=모양, 894=부동제지, 895=부양제지, 896=모양, 897=부동제지, 898=부양제지, 899=모양, 900=부동제지, 901=부양제지, 902=모양, 903=부동제지, 904=부양제지, 905=모양, 906=부동제지, 907=부양제지, 908=모양, 909=부동제지, 910=부양제지, 911=모양, 912=부동제지, 913=부양제지, 914=모양, 915=부동제지, 916=부양제지, 917=모양, 918=부동제지, 919=부양제지, 920=모양, 921=부동제지, 922=부양제지, 923=모양, 924=부동제지, 925=부양제지, 926=모양, 927=부동제지, 928=부양제지, 929=모양, 930=부동제지, 931=부양제지, 932

1= 외향성, 2=개발성, 3= 친절성, 4=성실성, 5=신경증, 6= 모스트레스, 7=모우울, 8=모통제적 양육, 9=모언정적 양육, 10=부스트레스, 11=부우울, 12=부통제적 양육, 13=부언정적 양육

*, **, *** p<.05, .01, .001

집행기능곤란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1과 초4학년 시기가 초2와 초3학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초1에서 초4까지의 학년에 따른 집행기능곤란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었다. 그리고 초1 ~초4의 집행기능곤란은 초5 때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나, 신경증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과도 정적인 상관이었다. 부모 스트레스, 부모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이었다.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온정적 양육행동 모두 집행기능곤란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2에서 초4까지 집행기능곤란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도 절대값이 모두 10이하로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었고, 변수들 간 상관이 .80이상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양상에 따른 성장혼합모형분석결과

가. 잠재계층 수 결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으로 2개의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5개의 프로파일까지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 비교검증,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의 순서를 따랐다.

<표 4>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 모형 적합도와 분류비율

집단 수	AIC	BIC	SSA-BIC	LMRT	Entropy	집단간 분류비율(%)				
						1	2	3	4	5
2	-439.557	-376.524	-414.644	157.490	.790	39.07	70.93			
3	-495.949	-417.158	-464.807	59.650**	.803	10.0	82.3	7.8		
4	-489.949	-395.400	-452.579	60.990**	.856	9.96	82.27	0.00		
5	-483.949	-373.641	-440.351	-85.401	.840	7.57	0.00	7.76	74.70	9.96

* $p < .05$, ** $p < .01$

AIC, BIC, SSA-BIC 적합도지수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3개 이후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었다. Entropy 값은 4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개부터 감소하고 있었다. LMRT 지수가 3개와 4개 계층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1$)을 보였으며, 5개 계층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4개 계층의 집단간 분류 비율에서 0.00으로 분류 사례수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집행기능곤란의 잠재계층은 분류 사례수가 적절히 분포된 3개의 잠재계층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보준거 적합도 지수, 분류된 사례수의 적절성, 해석의 용

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수는 3개 계층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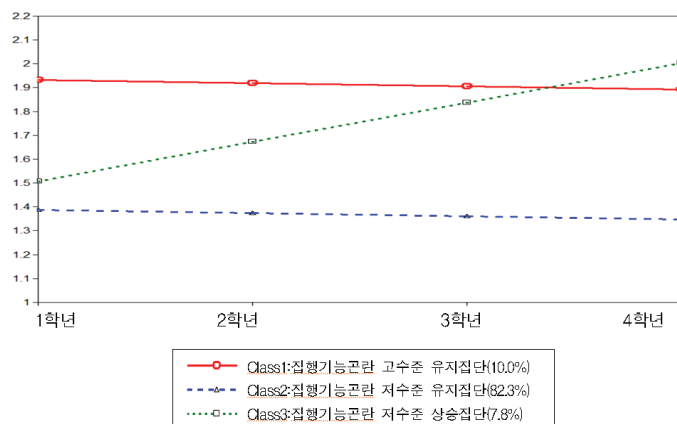
나. 집행기능곤란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 유형

분류된 초등학교 집행기능곤란의 3개 계층의 잠재계층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초기치와 평균 선형변화율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집행기능곤란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별 초기치와 변화율

모수 추정치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class1, 10.0%)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class2, 82.3%)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class3, 7.8%)
평균 초기치	1.932***	1.387***	1.508***
평균 선형변화율	-.013	-.014***	.165***

* α .05, ** α .01



[그림 1] 집행기능곤란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

<표 5>와 [그림1]과 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의 잠재계층 특성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초등학생 중 약 10.00%가 분포하고 있고, 1학년부터 높은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행기능곤란 고수준 유지집단의 경우, 집행기능 곤란은 평균 초기치가 1.932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013의 선형변화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초등학생 약 8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으로 다른 잠재집단유형에 비해 집행기능곤란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다소 낮아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어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의 경우, 평균 초기치가 1.38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014의 선형변화율을 보여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초등학생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집행기능곤란 수준의 초기치는 저중수준을 보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즉,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508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평균 선형변화율이 .165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2.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양상을 통해 나타난 잠재집단별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 분석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초1에서 초4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궤적 잠재집단 유형별로 초등학교 5학년 시점에서 형성되는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사이버폭력 피해), 미디어중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집단별 특성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해 변량분석과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집행기능곤란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별 특성의 차이

결과변수		M	sd	F	사후검증
외향성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49.37	10.00	5.50***	b)a=c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51.90	9.39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49.41	10.55		
개방성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44.94	7.80	3.11**	b)a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47.27	9.35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47.92	11.40		
성격 친화성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49.35	8.73	5.10**	b)a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52.23	9.24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50.75	9.96		
성실성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43.55	8.18	10.46 ***	b)a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47.49	8.64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45.66	10.06		
신경증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50.36	7.75	6.47***	a)b, c)b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47.47	8.61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49.27	9.12		

결과변수		M	sd	F	사후검증
학교폭력 피해경험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1.45	0.46	1.77	-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1.39	0.74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1.53	0.97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1.14	0.47	6.20***	c>b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1.09	0.43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1.26	0.73		
미디어중독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2.13	0.44	49.33***	c>b, a>b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1.83	0.40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2.19	0.47		

a: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b: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집단, c: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

* $p < .05$; ** $p < .01$; *** $p < .001$

〈표6〉과 같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 학생들의 성격 5요인에서 집행기능곤란 세 변
화양상 잠재집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외향성에서는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집단’이 ‘저수준-상
승집단’과 ‘고수준 유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에서는 ‘집행
기능곤란 저수준 유지 집단’이 ‘고수준 유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경증에
서는 ‘집행기능곤란의 고수준-유지집단’과 ‘저수준-상승집단’이 ‘저수준 유지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에서는 세 집단별 차이가 없었으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이 ‘저수준 유
지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중독에서도 세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
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과 ‘고수준 유지집단’이 ‘저수준 유지집단’보다 높은 수
준으로 미디어 중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은 향후 학생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이버폭력이나 미디어 중독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하는 선행연
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
승집단’의 경우 ‘집행기능곤란 고수준-유지집단’ 등 다른 집단보다 사이버폭력 피해경
험이나 미디어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에 대한 집
행기능곤란을 줄일 수 있는 우선적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양상에 미치는 부모 변인 예측효과 검증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부모의 심리적 요인(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행동(통제적, 온정적)의 예측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예측요인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유지 집단(참조 집단) vs					
	Effect	b	SE	Exp(B)	p value
집행기능곤란 고수준- 유지집단	모양육스트레스(초1)	1.169***	.42	3.22	.000
	모우울(초1)	1.106***	.34	3.02	.000
	모온정적양육(초1)	-.074	.45	.93	.868
	모통제적양육(초1)	-.364	.41	.70	.373
	부양육스트레스(초1)	.607	.42	1.83	.148
	부우울(초1)	-.441	.36	.64	.221
	부온정적양육(초1)	.562	.44	1.75	.197
	부통제적양육(초1)	-.045	.38	.96	.905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고상승집단	모양육스트레스(초1)	.783	.41	2.19	.056
	모우울(초1)	-.716	.42	.49	.089
	모온정적양육(초1)	-.065	.46	.94	.888
	모통제적양육(초1)	.430	.44	1.54	.327
	부양육스트레스(초1)	-.903*	.45	.41	.044
	부우울(초1)	-.055	.38	.95	.887
	부온정적양육(초1)	-.759	.42	.47	.070
	부통제적양육(초1)	-.052	.38	.95	.891

* α .05, ** α .01, *** α .001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계층 간의 비교를 위해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집단’을 참조집단(reference class)으로 설정하였다. 제시된 추정치는 준거집단에 비해 각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의미한다.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모 양육스트레스, 모우울이 높을수록 ‘집행기능곤란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보다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8차)부터 4학년 학생(11차)까지 종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집행기능곤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궤적의 잠재집단 유형을 확인하고, 이러한 잠재집단의 발달궤적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성격형성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변화되는 잠재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의 예측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자료 8차(2015년), 9차(2016년), 10차(2017년), 11차(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잠재집단 결과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 경험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잠재집단분류를 예측하는 초1 시기의 부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기능곤란의 성장혼합모형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궤적은 ‘집행기능곤란 고수준 유지집단’,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집단’,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의 세 가지 유형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집단’은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었다. 이 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선형변화율을 보였으나 ‘고수준-유지집단’은 유의한 통계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저수준 상승집단’은 초등학교 1학년에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행기능곤란이 상승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가 집행기능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과정(Espy et al., 2004)에 있으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행기능곤란의 수준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저수준 상승집단’의 발달궤적이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행기능곤란이 상승하는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에서는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 집단’이 ‘고수준 유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경증은 ‘집행기능곤란의 고수준 유지집단’과 ‘저수준 상승집단’이 ‘저수준 유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으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서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이 ‘저수준 유지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중독의 경우에도 ‘저수준 상승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상승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나 미디어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의 잠재집단유형을 예측하는 부모요인을 확인한 결과 모 양육스트레스, 모 우울이 높을수록 ‘집행기능곤란 고수준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집행기능곤란 저수준-상승집단’보다 ‘집행기능곤란 저수준 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중에서 모 우울, 모 양육스트레스가 부의 심리적 요인과 부모 양육행동보다 크게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주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것이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5년의 초등학교 1학년 자료(8차)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집행기능곤란의 시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설문조사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성장에 따른 코호트 집단을 전체 초등학교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초등학교 학생의 대상과 범위의 수집과 분석 자료를 확대하여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곤란 변화를 확인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집행기능곤란 변화 프로파일을 지속적으로 밝혀 보다 폭넓은 학년 대상의 발달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변인(부모 양육스트레스, 우울, 양육행동)은 한국아동패널조사에 활용한 문항으로 문항 구성에 한계가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부모 변인에 국한하여 예측 효과를 확인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초2, 초3, 초4의 각 학년별 성장에 따른 부모변인과 유아기의 부모변인의 예측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이 시간에 따른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발달궤적에 따른 성격, 학교폭력 피해 경험,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고, 집행기능 곤란 잠재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의 예측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집행기능곤란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시사하는 바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경 (2020). 잠재계층성장분석과 머신러닝에 의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업수행능력의 중단 유형 예측,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18), 1211-1230.
- 권혜진 (2014). 아동의 정서문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3), 1-18.
- 기쁘다 (2019).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예측변인과 결과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2), 177-192.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옥귀(201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 응집력의 조절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귀(201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가족 응집력의 조절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향 (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 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능력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 맹세호, 정운경, 권미경(2014). 한국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과 수학능력의 관련성: 측정과 그래프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7(1).
- 문명화(202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유아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 유아기 놀이상호작용, 아동기 집행기능 곤란 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1(1#). 379-394.
- 박서이, 이강이(2020). 어머니의 우울과 초등 1학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부모연구, 7(3), 107-123.
- 서재화, 김현경 (2018).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및 집행기능의 종단적발달경로: 어머니의 활동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 유아교육연구, 38(5), 107-130.
-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국심리학회지:임상, 33(1), 121-137.
- 송현주(2011).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2), 31-39.
- 안현아, 안창규(2017). NEO 성격검사 전문가 지침서. (주)인싸이트.
- 연은모·최효식 (20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효능감, 자녀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61-285.
-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명주, 홍창희(2006). 실행기능의 차원과 영역별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6), 587-602.
- 임양미(2020).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 강압적 양육행동, 초등학교 자녀의 미디어기기 의존 및 집행기능 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 학부모연구, 7(4), 77-97
- 장영은(2020) 어머니의 우울이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15), 507-528.

- 정은화, 이현아, 이지영, 이강이(2019). 초등학교 3학년의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4), 523-534.
- 제희선, 채혜경 (2019).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한 매개효과. *육아 정책연구*, 13(1), 123-146.
-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최은아(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이 초등학교 자녀의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1179-1203
- 최지수, 박유미, 최나야(2020). 학교의 정서적 환경과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중요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집행기능 곤란, *초등교육연구* 33(3), 259-282.
- 하대현, 황해익, 남상인(20).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학업, 적응, 진로 관련 준거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3), 609-629.
-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홍길희, 문소라(2019).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집행기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아동권리연구*, 23(3), 497-519.
- Barkley, R. A. (2006).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3rd). New York: Guilford.
- Best, J. R., & Miller, P. H. (2010).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executive function. *Child Development*, 81(6), 1641-1660
- Best, J. R., Miller, P. H., & Jones, L. L. (2009). Executive functions after age 5: Changes and correlates. *Developmental Review*, 29(3), 180-200.
- Calson, S. M., Moses, L. J., & Claxton, L. J.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ing and theory of mind: An investigation of inhibitory control and planning 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7, 299-319.
- Cudo, A., & Zabielska-Mendyk, E. (2019). Cognitive functions in Internet addiction - a review. *Psychiatria Polska*, 53(1), 61-79.
- Espy, K. A., McDiarmid, M. M., Cwik, M. F., Stalets, M. M., Hamby, A., & Senn, T. E. (2004). The contribution of executive functions to emergent mathematics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1), 465-486.
- Executive cognitive functioning and aggressive behavior in preadolescent boys at high risk for substance abuse/depend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6), 352-359.

- Gathercole, S. E., Brown, L., & Pickering, S. J. (2003). Working Memory assessments at school entry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National Curriculum attainment levels.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0(3), 109-122.
- Giancola, P. R., Martin, C.S., Tarter, R. W, Pelham, W.E., & Moss, H.B.(1996). Executive cognitive functioning and aggressive behavior in preadolescent boys at high risk for substance abuse/depend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 352-359.
- Graziano, P. A., Reavis, R. D., Keane, S. P., & Calkins, S. D. (2007).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udent teacher relationship in children'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3-19
- Hughes, C., & Graham, A. (2002). Measuring executive functions in childhood: Problems and solution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7, 131-142.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am, C. B., Chung, K. K. H., & Li, X. (2018). Parental warmth and hostility and child executive function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Chinese families. *Frontiers in Psychology*, 9, 1063.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Marshall, M.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McCloskey, G. Pekins, L., & Van Divner, B. (2009),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Routledge, NY: Taylor & Francis Group.
- Olweus(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Blackwell Publishers.
- Valcan, D. S., Davis, H., & Pino-Pasternak, D. (2018). Parental behaviors predicting early childhood executive functions: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0(3), 607-649.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characteristic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the related Predictors and Outcom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from 1st to 4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PSKC(Pannel Study of Korea Children) data,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differences by groups and the predicted effect of parent factors. Growth mixed model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logistical analysis were used with data of 1,404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groups for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from 1st to 4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three group types each with 'high level-maintaining type', 'low level-maintaining type', 'low level-rising type'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econd, the 'low level-maintaining type' showed high affinity and openness personality but the 'high level-maintaining type', and 'low level-Rising type' showed high neurotic personality. Especially, 'Low level-rising type' als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victims and high media addiction. Third, as factors predicting the latent group type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were foun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high-level-maintaining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measures to mediate the difficulties of executive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ver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edictive factors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 Key word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owth mixed model analysis, media addiction, parental factors.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과 차이 및 예측 분석

학습동기, 성격, 학교폭력피해경험 차이와 학습준비도, 부모 요인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최근 연구에서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관심이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과 유아 뿐 아니라 학령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비해 초등학교 시기는 학업, 대인관계, 규칙적응 등 다양한 과업과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규칙에 적응하는 집행기능의 발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을 대상으로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을 통해 시간적 변화양상을 살펴볼 뿐 아니라 잠재집단 분석을 함께 시도하여,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의 발달방향을 이해하고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논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발달궤적의 잠재집단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한 변수들에 대해 몇가지 논의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론에서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으로 성격, 학교폭력피해, 미디어 중독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다.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의 연구필요성은 집행기능이 학령기 초기에 급격히 발달하며 학교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에 반해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집단별 특성, 즉 성격, 학교폭력, 미디어중독 등이 집행기능곤란과 어떠한 상관을 가지는지 설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세 변수를 선정한 근거가 논리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특히 성격과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이 어떠한 상관을 가지는지에 대해 좀 더 논리적인 근거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격의 다양한 측면 중 어떤 측면과 집행기능곤란이 상관이 있는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상관을 가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횡단연구로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밝혀왔으므로, 이 연구에서 의도하는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과 성격이 어떠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격의 경우 5학년 1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집행기능곤란 발달궤적의 결과요인으로 해석되는데, 집행기능곤란의 시간에 따른 종단적 발달궤적이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5학년 시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잠재집단별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논의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칫 집행기능곤란의 문제를 겪는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이 있는 듯 해석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집행기능 ‘저수준 상승집단’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가 섬세하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현재 논의에서는 집행기능 ‘저수준 상승집단’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더 노출되므로 중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만 제시되어 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추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집행기능곤란의 상관계수도 매우 낮은 편(표 3)이라는 점과 서론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과 집행기능곤란의 상관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떨지 재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연구방법의 측정도구 부분에서, 집행기능곤란의 점수의 의미를 분명히 기술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연구결과에서도 고수준과 저수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기술할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집행기능곤란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 중 학년에 따라 집행기능곤란의 정도가 상승하는 ‘저수준 상승집단’이 나타났습니다. 해당집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집행기능이 발달하기보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집단이며 이 집단의 유형을 발견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저수준 상승집단”의 뚜렷한 예측요인에 대한 발견이 부족한 점, 아울러 논의도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궤적을 추적하고 잠재집단별 특성과 예측요인까지 살펴보는 큰 규모의 분석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변수선정의 논리적 근거와 연구결과에 대한 추론과 논의를 추가하셔서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

손수민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수집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차년도부터 1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1,315명에 대한 응답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 노출군은 전체의 3.8%(n=50)이었고, 가정폭력에 노출될수록 전반적인 내재화 문제 및 공격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가정폭력 노출은 내재화 문제, 그리고 공격행동의 초기값에 순차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공격행동의 변화율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내재화 문제는 공격행동 초기값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내재화 문제 및 공격행동의 변화율이 학교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오직 공격행동의 초기값을 통해서만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예방 및 공격행동 완화를 위한 조기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 내재화 문제, 공격행동,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종단적 매개효과

1. 서론

오늘날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양상은 저연령화로 요약되며(조주영, 오인수, 2014; 조은겸, 선혜연, 2016; 오소정, 박주희, 2020), 그 수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교육부(2021)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피해 유경험자 응답률은 1.8%로서 중학생(0.5%) 및 고등학생(0.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 피해 유형의 경우 초등학생일수록 다른 교급에 비해 언어폭력(34.7%)과 집단 따돌림(26.8%)뿐만 아니라 신체폭력(8.7%)의 비중도 높아 아

2)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bokjigirl@kakao.com

동기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예측요인은 다분화될 수 있으나, 영유아기³⁾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Voisin & Hong, 2012; Chen, Cheung, & Huang, 2020), 그 중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영유아기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다분화된 폭력 유형을 아우르는 광의로 사용되나, 부부 간의 폭력을 특정짓는 협의로도 혼용된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 정의에 따르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부부 상호 간의 폭력,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학대, 노인학대 등을 모두 포괄하는 "family violence"의 의미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는 이른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t violence, IPV), 즉 부부 간의 폭력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협의의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예: 김효정, 2020; 박언주, 김효정, 2015),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여성가족부, 2021) 상에서도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의 81.7%(84,782명)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과거)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점차 증가추이⁴⁾를 보이는 부부 간의 폭력을 지칭하는 협의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아가 영유아기 자녀는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언 및 고함소리를 듣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선행연구(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3)를 근거로 삼아 영유아기에 경험한 가정폭력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모두 아울러 '가정폭력 노출'이라고 정의한다.

가정폭력 노출은 만 18세 이전에 발생하여 생애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적 여파를 미치는 "아동기 역경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으로 구분되며(김준범, 손수민 2020; Lipscomb et al, 2021) ACE의 하위범주인 "가정 역기능(household dysfunction⁵⁾)"에 속한다. 실제로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같은 2-3개 이상의 ACE에 노출된 4-5세 어린이는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행동화 문제와 발달지연 문제가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rie-Mitchell & O'Connor, 2013). 이러한 메커니즘은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이 모와의 애착 문제를 매개로 심리

3) 본 연구에서는 정옥분(2018, pp.26-27)이 제시한 근거에 의해 영유아기는 1~5세, 그리고 아동기는 6세 이후로 정의한다.

4) 가정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 총 234,688건으로 2013년 142,134에 비해 약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5) "가정폭력을 당한 모(having battered mother)"(Anda et al., 2006), "폭력적으로 취급된 모(mother treated violently)"(Finkelhor et al, 2015)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간접경로로 설명이 가능하다.

영유아는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적 모델을 발달시키며 이는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Bowlby & Ainsworth, 1962). 특히 어머니는 영유아의 심리발달의 “공생적 조직자(symbiotic organizers)”(Mahler & Bergman, 1975: 오오현, 2010에서 재인용) 이자 “안전기지(secure base)”(Ainsworth, 1989)라고 불릴만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노출된 어머니는 자녀에게 민감한 반응과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부모-자녀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곤 한다(Taillieu, Brownridge, & Brownell, 2021). 그리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노출 여파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Ravi, 2021; Clark et al., 2021),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어머니의 우울감은 영유아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재화 및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 수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다(Barnett, 2021; Piotrowski, & Cameranesi, 2018; Ahlfs-Dunn, Benoit, & Huth-Bocks, 2021). 이러한 이유로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에 대하여 “양육 시스템에 대한 공격(an assault on the caregiving system)”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Levendosky, Bogat, & Huth-Bocks, 2011).

한편,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모두 초래하는 가운데 순차적 선행성에 관한 이슈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동화 모델(acting out model)”(Blain-Arcaro & Vaillancourt, 2017)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영유아의 내재되어있는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적 어려움이 외현화된 문제 행동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이다(Meeus et al., 2016). 이러한 주장은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된다(Chhabra, McDermott, & Li, 2020). 영유아기나 아동기에는 우울한 감정의 표출양상이 성인과 다르게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으므로 부정적인 감정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파괴적 행동에 의해서 내재화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Luby et al., 2018). 실제로 영유아기의 내재화 문제는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신체적 증상이나 관계적인 문제로 나타나므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때 까지 발견이 되지 않거나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Burdayron et al., 2021). 그리고 가정폭력 노출이 행동화로 더욱 부각되는 시기는 “만 4세”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El-Sheikh et al., 2008), 이를 우리나라 나이로 환산하면 아동기인 5세-6세 정도이다. 이 시기에는 영유아기와는 달리 점차 가정폭력과 같은 갈등 상황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자신의 불안감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정서적 안정(emotional security)”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행동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Davies et al., 2002). 그리고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대표적인 정서조절 전

락 중 하나는 바로 공격적 행동이다(Davies et al., 2002; DeJonghe et al., 2011, p. 13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영유아기의 가정폭력 노출은 부모와의 애착 등의 문제를 매개로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기 누적된 내재화 문제는 아동기 진입 이후 공격행동의 증가 등 행동화 문제로 발현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이 공격행동이라는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내재화된 문제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재화 문제는 외현화된 공격행동을 높이는 주요 기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행동 성향이 높은 아동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다(Mangold & King, 2021; Piotrowski, Tachie, & Cameranesi, 2021). 일반적으로 공격행동은 피해보다는 가해 양식과 연관되는 변수로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공격행동 증가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 비행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예: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이승주, 정병수, 2015; 최은희, 황미영, 2017). 하지만 외현화된 공격행동 양식은 동일할지라도, 그 이면의 의도, 목적 등에 따라 공격성은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된다(Dodge & Coie, 1987). 주도적 공격성은 상대방의 신체 및 심리적 손상을 위한 도구적 목적성을 띠고 해를 가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Salmivalli & Nieminen, 2002), 이는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가해 양식과 연관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응성 공격성은 외부 위협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 및 보복 목적의 일환으로 유발되는데, 높은 수준의 충동 및 적대감(Dodge et al., 1997) 뿐만 아니라 강렬한 좌절감(Berkowitz, 1989), 정보 처리 결함(Raine et al., 2006)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별 아동에게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공존할 수 있으나(Card & Little, 2006; Smeets et al., 2017), 공격성 유형과 또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들로부터 통솔력을 발휘하고 관계가 양호한 반면,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소외되고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rice & Dodge, 1989). 또한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도 반응적 공격성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일관되게 보고한다(Dickson et al., 2015; Dijk et al., 2021). 따라서 외현화 문제로서 공격행동의 발현 경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가정폭력 노출, 외현화 문제, 그리고 공격행동이라는 순차적 관계에 따른 결과는 가해보다 피해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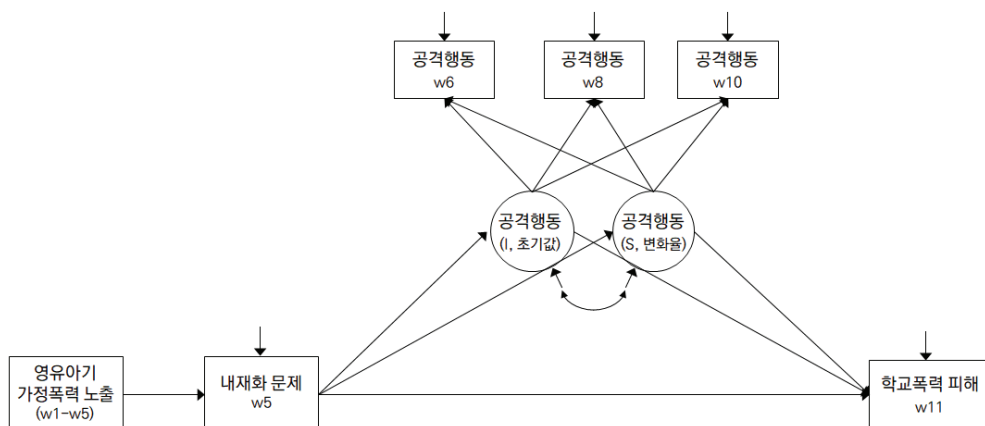
앞선 논의를 근거로 모든 학교폭력 피해자가 공격성향이 높다는 논리는 결코 타당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유아 및 학교폭력 피해 아동 중 일부의 주

요 특성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 및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Erwin, 1998). 이는 ‘공격적 외톨이 유아(aggressive-rejected child)’, 그리고 ‘학교폭력 가피해자(bully-victim)’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공격적 외톨이 유아는 발달적 관점에서 애착의 결핍에 따른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애착이 불안정하거나 결핍된 영유아는 이후 사회성에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정서조절력(emotional regulation)과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율미, 최지현, 조광현, 2019; 나현주, 최수미, 2019). 그리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Greening, Lee, & Mather, 2014), 이로 인해 또래 거부를 당하여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어 재차 공격행동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공격적 외톨이 유아가 될 수 있다(Duffy, Gardner, Zimmer, & Gembeck, 2019). 그리하여 공격행동 경향이 높은 아동은 집단 내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또래로부터 괴롭힘, 따돌림, 신체 폭력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Godleski et al., 2015; Ladd & Troop-Gordon, 2003; Erwin, 1998). 이러한 공격적 외톨이 유아에 대한 개입이 조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초등학교 입학 후 공격성향이 높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아동기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해를 당하는 아동의 특성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특히 반응적 공격성이나 비효과적 공격성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이 “가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아동”일수록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mith, Shu, & Madsen, 2001; Reavis, Keane, & Calkins, 2010. p.12에서 재인용). 이처럼 공격성향이 높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개념이 바로 “가피해자(bully-victims)”인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피해만 당하는 “순수 피해자(pure victims)”과 구별되는 집단이다(Yang & Salmivalli, 2013). 가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충동적이고 반응적인 공격행동 양상이 강하여 또래로부터 거부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로 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Kallman, Han, & Vanderbilt, 2021), 이들은 가해자보다도 더 높은 공격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김재엽, 성신명, 김준범, 2015; Georgiou & Stavrinides, 2008). 이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은 학교폭력 피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피해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노출과 내재화 문제, 공격행동,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모델링을 통해 그 경로를 검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예: 김재엽, 이순호, 2011; 이승철, 2012; 김은숙, 정현희, 2017; 조민경, 조한익, 2019). 따라서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나 공격행동적 외현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 현 시점의 개인 및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

단적 모델링을 통한 영유아기 노출 환경의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아동복지적 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이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을 매개로 이후의 학교폭력 피해를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토대로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이 중장기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심리적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영유아기의 가정폭력 노출은 아동기 내재화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영유아기의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아동기 내재화 문제는 공격행동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은 이후의 학교폭력 피해를 예측하는가?
- 넷째,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은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로 이후의 학교폭력 피해를 예측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PSKC는 2008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아동 및 부모에 관한 다양한 특성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에 부합하는 차년도인 1차

년도(2008년, 이하 w1)부터 11차년도(2018년, 이하 w11)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공격행동의 경우 9차년도(2017년, 이하 w10)에 측정되지 않아 2개년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w6, w8, w10년도 응답치만을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w1-w5의 가정폭력 노출 여부, w5의 내재화 문제, 그리고 이후의 공격행동과 종속변수인 w11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무응답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315명에 대한 응답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McCubbin과 Patterson, Wilson (1982)가 개발한 '가족생활사건 변화 척도'를 이재립과 옥선화(2001), 최연실(1996)이 수정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재구성하여 w1에서 w5까지 매년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경험했던 경제적 어려움, 이사, 승진 등의 규범적 생활사건과 가족 질환, 사망, 가정폭력 경험 등 비규범적 생활사건을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범주형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1~w5에 비규범적 생활사건 중 '가정폭력 경험'에 '유경험'으로 응답한 대상자를 '1'로 코딩하고, 그 외 경험이 없는 대상을 '0'으로 재코딩하여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나. 내재화 문제(w5)

내재화 문제는 Achenbach와 Rescorla(2000)이 개발한 '유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이하 CBCL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타당화한 'CBCL 1.5-5'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일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정서적 반응성' 9개 문항, '불안/우울' 8개 문항, '신체증상' 11개 문항, 그리고 '위축' 8개 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측정한다. 응답범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나 많이 그렇다(2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이며 분석 시에는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내재화 문제의 T점수를 산출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양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7$ 로 나타났다.

다. 공격행동(w6, w8, w10)

공격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 2001)이 개발한 CBCL 1.5-5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이하 CBCL 6-18)'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 2010)가 타당화한 '한국판 CBCL 1.5-5'와 '한국판 CBCL 6-18'을 한국 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일부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동일 척도이나 연령에 맞도록 버전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w6는 한국판 CBCL 1.5-5내 총 19개 문항이 활용되었고, w8, w10은 CBCL 6-18 내의 총 1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6, w8, w10까지의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를 다루기 때문에 두 버전이 모두 사용되었다. 세부적으로, 척도 상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 중 '공격 행동⁶⁾'을 측정한 문항에 대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T점수를 산출한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행동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라. 학교폭력 피해(w11)

학교폭력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Olweus(1993)의 Bully/Victim Questionnaire와 Olweus (1991)의 Junior Questionnaire을 김옥귀(2013)가 사용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일부 수정한 '집단괴롭힘(피해)' 척도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아동의 피해경험을 물음에 있어 가해자를 '다른 학생(친구)'라고 표현하여 집단으로 가정하지 않았고, 세부 항목은 교육부(2021)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유형인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등의 7개 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논리상 공격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성폭력 피해 문항을 제외한 총 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학교폭력 피해로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1년에 1-2번 (1점)', '1달에 1번 (2점)', '한달에 2-3번 (3점)', '1주에 1-2번 (4점)', '일주일에 여러번 (5점)'이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6) 한국판 CBCL 1.5-5에서 외현화 문제는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으로 구성된 반면 CBCL 6-18에서는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으로 상이하게 구성된다. 이는 연령 차이에 따른 외현화 문제 양상이 상이함을 척도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①두 척도 상의 공통 요인이 공격행동일 뿐만 아니라 ②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의 매개를 하는 공격행동 양상은 주의집중 문제나 규칙을 위반하는 외현화 문제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인 대상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 및 적대적 태도와 보다 유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고(Price & Dodge, 1989), 또한 논리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모형 검증을 위한 통계적 분석은 SPSS 25.0와 Mplus 7.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 모형을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활용한 상호작용모형(reciprocal model)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에 따른 우울의 종단적 매개 결과 이후의 재피해를 예측함을 검증한 Kim & Lee(2013)에서 사용한 모형을 차용 및 응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이로 인한 내재화 문제에 따른 공격행동의 종단적인 변화가 이후의 학교폭력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여 아동기의 부정적 환경 노출에 따른 공격행동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동태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김준범, 박성훈, 2018). 따라서 공격행동의 w6 시점의 값이 아동기 내재화 문제의 w5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격행동 w10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기상관(autoregressive)을 가정하였다.

한편, 공격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격행동이 낮아진다는 부적 감소를 가정하였다. 이는 앞서 공격행동 척도인 한국판 CBCL 6-18 설명에서 다룬 바와 같이, Achenbach, Dumenci, & Rescorla(2001)이 설명한 ‘공격행동 증후군’과 ‘규칙위반 증후군’의 발달 양상에 근거한다. 공격행동 증후군은 집이나 학교에서 반항적이거나, 또래를 선제적으로 괴롭히거나 잔인함, 자기물건 파괴 행동 양상을 보이며 주된 정서는 분노, 좌절, 기분 급변, 의심, 위협 등으로 요약되는 반면, 규칙위반 증후군은 흡연, 음주, 가출, 성적문제, 방화 등 지위비행과 같은 행동 양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 발달적 특성상, 공격행동 증후군은 만 4-18세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규칙위반 증후군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Achenbach, Dumenci, & Rescorla, 2001). 이에 본 연구에서 공격행동의 종단적 흐름을 다룬 시기인 w6~w10에서 공격행동의 부적감소를 가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는 유경험자에 비해 무경험자의 비중이 높은 과산포(overdispersion) 특성으로 강건성(robustness)이 높아 비정규 분포를 띄는 변수의 추정에 용이한 MLR(maximum likelihood robust)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Muthen, & Muthen, 2010).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이변량 상관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로서 노출군은 전체의 3.8%(n=50), 그리고 비노출군은 96.2%(n=1,265)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전체 비중은 남자 51.4%(n=676), 여자 48.6%(n=639)로 노출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재화 문제(w5)'의 경우 노출군의 T점수는 53.48점으로 비노출군 50.0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으며($t=2.097$, $p<.05$) 효과크기(d)를 의미하는 Cohen's D 값은 0.32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공격행동'의 T점수는 전반적으로 증감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노출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는 w6에서 0.33에서 w8에는 0.44, 그리고 w10에는 0.37로 산출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점차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집단별 차이 검증

변수		전체 (n=1,315, 100.0%)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		t or χ^2	Cohen's D
			노출군 (n=50, 3.8%)	비노출군 (n=1,265, 96.2%)		
		M (SD)	M (SD)	M (SD)		
성별 (N, %)	남자	676 (51.4)	26 (52.0)	650 (51.4)	.007	-
	여자	639 (48.6)	24 (48.0)	615 (48.6)		
내재화 문제(w5)		50.21 (9.58)	53.48 (11.30)	50.08 (9.49)	2.097*	0.32
공격행동(w6)		52.67 (4.79)	54.38 (5.92)	52.60 (4.73)	2.559*	0.33
공격행동(w8)		53.82 (5.34)	56.52 (6.47)	53.72 (5.27)	3.504***	0.44
공격행동(w10)		53.18 (5.15)	55.32 (6.82)	53.09 (5.06)	2.789**	0.37
학교폭력 피해(w11)		.15 (.37)	.15 (.42)	.15 (.38)	.034	0.0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변수인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 내재화 문제, 공격행동,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상관계수의 분포가 최저 .005에서 최대 .556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발생에 대한 절단점인 .80(Katz, 2011)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은 '내재화 문제(w5)($r=.068$, $p<.01$)', '공격행동(w6)($r=.072$, $p<.01$)', '공격행동(w8)($r=.110$, $p<.01$)', '공격행동(w10)($r=.072$,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학교폭력 피해(w11)'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재화 문제(w5)'도 공격행동 모두와 유의미한

7) Cohen's D의 경우 Cohen(1988)은 그의 저서에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0.20'은 작은 효과크기(small effect size), '0.50'은 중간 효과크기(medium effect size), 0.80은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를 뜻한다고 임의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효과크기는 기본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하는 '표준화된 지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0.20이라는 수치를 단순히 효과크기가 작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남상진, 2015).

정적 상관성을 보여 내재화 문제와 공격행동이 상호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w11)'의 경우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 '내재화 문제(w5)'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격행동(w6)($r=.077$, $p<.05$)', '공격행동(w8)($r=.079$, $p<.01$)', '공격행동(w10)($r=.094$, $p<.01$)'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공격행동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폭력 피해와 상관성이 높은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표 2〉 주요변수의 이변량 상관분석

	1	2	3	4	5	6
1	1					
2	.068*	1				
3	.072**	.365***	1			
4	.110**	.334***	.488***	1		
5	.072*	.269***	.446***	.556***	1	
6	.005	.042	.077*	.079**	.094**	1

* $p<.05$, ** $p<.01$, *** $p<.001$

주. 1.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 (w1-w5), 2. 내재화 문제(w5), 3. 공격행동(w6), 4. 공격행동(w8), 5. 공격행동(w10), 6. 학교폭력 피해(w11)

2. 시간에 따른 공격행동의 변화와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w1~w5)로 인한 내재화 문제(w5)가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w11)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공격행동(w6, w8, w10)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이에 매개변수인 시간에 따른 공격행동 초기값 및 종단적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 1'은 w6부터 w10까지의 공격행동이 일정 비율로 감소 추이를 보인다는 선형변화를 가정하였고 '모형 2'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나 그 변화량이 일정치 않다는 비선형변화를, '모형 3'는 변화가 없는 무변화를, 마지막으로 '모형 4'는 결국은 감소추이를 보이나 변화 과정 중 세부적인 변화량을 알 수 없음을 가정한 자유모수를 적용하였다. 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표 3〉 참조) 모든 지표에서 고정모수를 적용한 '모형 1, 2, 3'보다 자유모수를 적용한 '모형 4'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4의 CFI는 .953, SRMR는 .051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TLI=.858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RMSEA는 모든 모형에서 .1보다 커 부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Hu&Bentler(1998, p.447, 449-450; 1999⁸⁾)가 제안한 '2-지수 제시 전략(two-index presentation

8) Hu&Bentler(1999, p.24)에서는 CFI<.96이면서 SRMR>.09(혹은 .10)인 경우 1종 및 2종 오류가 가장 감소하여 가장 선호되는 기준이라고 보고하였다.

strategy)' 상의 조합 중 하나인 CFI와 SRMR만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기 때문에 최적모형을 '모형 4'로 선택하였다.

〈표 3〉 공격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비교

구분	χ^2	df	CFI	TLI	RMSEA	SRMR	AIC	BIC
모형 1	52.397**	1	.937	.811	.198	.073	21604.130	21645.583
모형 2	61.444***	1	.926	.778	.214	.081	21613.178	21654.630
모형 3	92.676***	4	.891	.918	.130	.155	21638.409	21664.317
모형 4	39.729***	1	.953	.858	.172	.051	21591.462	21632.915

주. 모형(요인부하량): 모형 1=선형변화(0→1→2), 모형 2=비선형변화(0→1→4), 모형 3=무변화(1→1→1), 모형 4=자유모수 적용(0→a→1)

'모형 4' 기준으로 공격행동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공격행동의 초기값은 53.103, 변화율은 0.353로 나타나 공격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0.353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경우 초기값(11.787, $p < .001$)과 분산(-3.771, $p < .001$)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행동의 초기값(절편, I)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기울기, S)에 모두 개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0.726, $p < .05$) 역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공격행동에 대한 자유모수 적용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b	S.E.	t
평균(mean)			
초기값(I)	53.103	.117	453.210***
변화율(S)	.353	.074	4.775***
분산(variance)			
초기값(I)	11.787	.724	16.281***
변화율(S)	-3.771	.742	-5.086***
공분산(Covariance)	.726	.357	2.037*

* $p < .05$, ** $p < .01$, *** $p < .001$

이는 공격행동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변화율이 빠르게(가파르게) 증가하고, 반대로 초기값이 낮을수록 변화율이 서서히(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 내재화 문제와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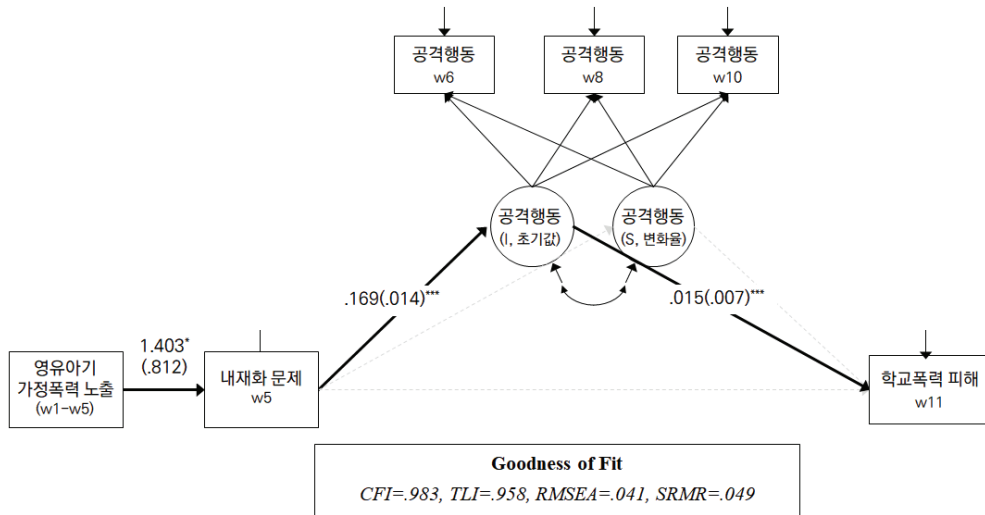
〈표 5〉 가정폭력 노출, 내재화 문제와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모형

	b	S.E.	t
내재화 문제(w5)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	2.077	.812	2.558*
공격행동 초기값(I, w6)			
내재화 문제(w5)	.169	.014	12.197***
공격행동 변화율(S, w6-w10)			
내재화 문제(w5)	-.006	.007	-0.847
학교폭력 피해(w11)			
내재화 문제(w5)	-.001	.001	-.652
공격행동 초기값(I, w6)	.015	.007	2.021*
공격행동 변화율(S, w6-10)	.001	.025	.032
Goodness of Fit			
$\chi^2(df)$		19.072(6)***	
CFI		.983	
TLI		.958	
RMSEA		.041	
SRMR		.049	

* $p < .05$, ** $p < .01$, *** $p < .001$

공격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매개변수로 하는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CFI=.983$, $TLI=.958$, $RMSEA=.041$, $SRMR=.049$). 세부적인 경로를 분석하면, 우선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은 ‘내재화 문제(w5)’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2.077$, $p<.05$). 이는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공격행동의 초기값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행동 초기값(I, w6)’에는 ‘아동기 내재화 문제(w5)’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행동 초기값이 유의미하게 높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른 공격행동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w11)’에는 오직 공격행동 초기값($b=.015$, $p<.05$)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 ‘아동기 내재화 문제(w5)’ 및 ‘공격행동 변화율(S, w6-10)’은 ‘학교폭력 피해(w1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오직 공격행동의 초기값을 통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요약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이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로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아동기의 학교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세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w1-w5)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4.0%(n=54)였으나, 이들의 내재화 문제(w5), 그리고 공격행동(w6, w8, w10)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영유아 일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arnett, 2021; Piotrowski & Cameranesi, 2018; Ahlfs-Dunn, Benoit, & Huth-Bocks, 2021; Camacho, Ehrensaft, & Cohen, 2012.; Bair-Merritt et al.,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가정폭력 노출 시기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발현 시기를 횡적으로 다룬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영유아기 노출 이후 아동기의 발현이라는 종단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공격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분산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공분산 역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아동의 공격행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공유하나, 각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기초선과 변화양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노출이라는 위험한 양육환경에 노출된 영유아일수록 공격행동의 기초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아동기가 되어도 공격행동이 비노출군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와 감정적으로 동기화되어있는 영유아기 시기에 가정폭력 노출로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경우 심리적 결핍으로 인해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으며(Bayarri, Ezpeleta, & Granero, 2011; Miranda et al. 2011; Harden et al., 2021), 이러한 시기에 발생한 부정적 정서는 자기통제력 저하를 유발하여(Granat et al., 2017) 이후 아동기 또래와의 관계에서 욕구가 좌절되거나 사소한 자극에 지각왜곡이 일어날 경우 공격행동으로 발현되는 경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한성희, 2002; Brown et al., 2021).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어머니는 영유아 시기의 자녀에게 민감하고 따뜻한 양육을 제공해주기 어려우며, 어머니의 민감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은 영유아의 정서 및 행동 조절 발달 억제 및 외현화 문제를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Haselschwerdt, 2014; Levendosky et al., 2006).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Supplee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결혼 갈등을 겪고 있는 6개월 영아는 노출되지 않은 영아에 비하여 아동기에 정서 조절 능력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기에 정서 조절 능력의 저하로 우울, 분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중이라는 내재화 문제의 누적은 외부의 실제 위협 또는 인지된 위협에 과도하게 경계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되며, 이는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아동기에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iotrowski & Cameranesi, 2018). 이를 통해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가정폭력의 노출로 인해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잃지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동기 행동화문제 예방에 가지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모형 검증 결과,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은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초기값을 매개로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공격행동의 변화율은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오직 공격행동의 초기값을 통해서만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폭력 노출과 이에 따른 내재화 문제를 바탕으로 공격행동 역시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후의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되는 일종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 공격행동의 발현에 있어 종단적 변화량 보다는 영유아기 형성된 초기값이 학교폭력 피해를 더욱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높은 공격행동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종단적으로 공격성향이 안정적인 변화궤적을 보이며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을 검증한 Murray, Close, Ostrov(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공격행동의 높은 기초선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유발된다는 것은 Olweus(1997)가 주장한 “공격적 피해자”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공격적 피해자는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갖고 있으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격적 피해자의 경우 감정기복이 심하고 행동 통제가 어려워 또래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므로 또래간의 갈등과 긴장감을 더 빈번히 유발할 수 있다(김재엽, 성신명, 김준범, 2015). 그리하여 높은 공격행동 성향을 보이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배제되고, 학교폭력 피해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의 가정폭력 노출 예방 및 초기 아동기의 공격행동 완화를 위한 조기개입을 통해 향후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임상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지역사회적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영유아기의 가족 내에서의 초기 경험은 아동기 등 향후 학교, 지역사회 등의 체계에서 또래, 교사, 이웃 등과 상호 작용을 통한 발달과업 달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에 인간 발달 상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있어 영유아기의 가정폭력 노출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나(Van Berkel, Tucker, & Finkelhor, 2018), 이와 같은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이해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 노출이라는 간접 폭력 노출 역시도 영유아기 및 이후의 아동기 발달 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후 우울증, 낮은 양육효능감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겪거나 정신질환을 겪고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와 같이 가정폭력 발생에 취약한 가정을 초점으로 하여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노출의 여파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최정원, 박한선, 2021).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된 이후, 혹은 이전에도 부모로서의 가치관, 자녀양육 지식 등 관련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서 사업 중 하나로 부모교육을 채택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윤진, 이정립, 임준범, 2017).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의 대유행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족내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의 노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최지옥, 2021). 평소에 원만히 기능하던 가정일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가족관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양육 과정에서 받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가족의 기능과 역동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간의 지지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전화 중재나 온라인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중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처럼 영유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같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부모교육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영유아 및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공격행동 완화를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공격행동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선에 대한 개입, 즉 미취학 시기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공격행동의 조기 징후를 보이는 어린 아동의 가족들의 경우 양육기술훈련, 부모-자녀 상호작용치료, 인지적 문제 해결기술 훈련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기술과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취학 시기의 아동은 다른 외부의 영향에 노출되는 학령기의 아동보다 부모를 통한 개입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개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더 자주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특히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는 3~6세의 영유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Prados & Aguayo, 2021; Stone, 2021). 다른 치료와의 주요한 차별점은 주 양육자인 부모가 치료에 참여하며, 치료자의 코칭을 통해 부모가 치료자가 되어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Zisser & Eyberg, 2010). 이는 애착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애착이론에서는 부모의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이 자녀로 하여금 필요할 때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하는 기초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치료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더 따뜻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민감함을 보이며 자녀는 점차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agner, Fernandez, & Eyberg, 2004). 실제로 PCIT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한 Timmer et al.(2005)의 연구 결과, PCIT 실시 이후 아동의 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학대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CIT와 같이 아동들의 공격행동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규명하는데 있어 어머니가 보고한 응답을 토대로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영유아가 가정폭력을 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다룬 대다수의 선행연구(Coe et al., 2021; Harden et al., 2021; Martinez-Torteya et al., 2021)에서는 본 연구에서 변수를 다룬 바와 같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보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DeJonghe et al., 2011; Kobayashi et al., 2021)에서는 더 나아가 자녀가 부모의 가정폭력을 실제로 목격했는지를 다루어 논의를 보다 확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가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는지 여부까지도 추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종단적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 발현 및 학교폭력 피해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공격행동의 유형이 상이할 수 있으며(Chan, 2011; Caldwell, Swan, & Woodbrown, 2012; Ahmadabadi et al., 2021).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mith, Mitchell, & Jin, 2021; Jung et al., 2019).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재화, 외현화 문제의 수준 및 학교폭력 피해의 양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moe.go.kr>
- 김수정, 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옥귀(201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 응집력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숙, 정현희(2017).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7), 141-166.
- 김재엽, 성신명, 김준범.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자기통제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가해, 피해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83-109.
- 김재엽, 이순호(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109-137.
- 김재엽, 조학래, 양혜원(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김준범, 박성훈(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

- 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77-100.
- 김준범, 손수민(2020). 아동기 역경경험과 생애 자살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41(2), 27-39.
- 김효정(2020). 코로나 19 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여성연구, 5-29.
- 나현주, 최수미(2019). 이중체계모델에 근거한 외상사건 스트레스와 부정정서의 관계: 자기조절력과 반추적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217-242.
- 남상건(2015). 효과크기의 이해. Hanyang Med Rev, 35, 40-43.
- 박언주, 김효정(201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경제적 폭력의 경험과 탈폭력 가능성 확장의 양면적 구성. 페미니즘 연구, 15(2), 71-106.
- 배율미, 최지현, 조광현(2019).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정서지능의 관계: 스트레스 다루기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3(2), 311-331.
- 여성가족부(202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http://www.mogef.go.kr>
- 오경자, 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오경자, 김영아(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오소정, 박주희(2020).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공감 및 사회적 지지의 다중가산조절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41(6), 81-93.
- 오오현(2010). 대상관계이론의 목회상담 적용에 관한 소고: 대상관계이론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187-225.
- 이승주, 정병수(2015).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7(3), 223-250.
- 이승철(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9, 116-135.
- 이윤진, 이정림, 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림,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5), 49-63.
- 정옥분(2018).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보호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4), 79-100.
- 조민경, 조한익(2019).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7-38.
- 조은겸, 선혜연(2016). 초등학교 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7.
- 조주영, 오인수(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5(4), 301-323.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희, 황미영(2017).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불안과 공격

- 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97-609.
- 최정원, 박한선(2021). 부모의 정신질환이 자녀의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개입 방안에 대한 고찰.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1), 44-52.
- 최지옥(2021). 코로나 19 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1), 2-10.
- 통계청(2021).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상담결과. <https://www.index.go.kr>
- 한성희(2002). 아동기 외상의 정신과적 개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3-14.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Vol. 30).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chenbach, T. M., Dumenci, L., & Rescorla, L. A. (2001). Ratings of relations between DSM-IV diagnostic categories and items of the CBCL/6-18, TRF, and YSR.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1-9.
- Ahlfs-Dunn, S. M., Benoit, D., & Huth-Bocks, A. C. (202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rauma from mother to infant: the mediating role of disrupted prenatal maternal representations of the chil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3.
- Ahmadabadi, Z., Najman, J. M., Williams, G. M., Clavarino, A. M., & d'Abbs, P. (2021).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current and prior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915-937.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nda, R. F., Felitti, V. J., Brown, D. W., Chapman, D., Dong, M., Dube, S. R., ... & Giles, W. H. (2006). Insights into intimate partner violence from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The physician's guid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abuse*, 77-88.
- Bagner, D. M., Fernandez, M. A., & Eyberg, S. M. (2004).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d chronic illness: A case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1(1), 1-6.
- Bair-Merritt, M. H., Ghazarian, S. R., Burrell, L., Crowne, S. S., McFarlane, E., & Duggan, A. K. (2015). Understanding how intimate partner violence impacts school age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 secondary analysis of Hawaii Healthy Start Program evaluation data.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8(4), 245-251.
- Barnett, W. C. (2021). Intergenerational effects: child and maternal outcomes related to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trauma in a South African community. *Faculty of Health Sciences, Department of Psychiatry*

- and Mental Health*.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1427/33431>
- Bayarri, E., Ezpeleta, L., & Granero, R. (2011).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pathology, and functional impair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Moderator effect of sex and ag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6(7), 535-543.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73.
- Blain-Arcaro, C., & Vaillancourt, T. (2017).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5), 959-970.
- Bowlby, J., & Ainsworth, M. D. S. (1962). *Deprivation of maternal care: A reassessment of its effects*. Schocken Books.
- Brown, S. M., Rhoades, G. K., Marti, C. N., & Lewis, T. (2021). The Co-Oc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Families: Effects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Child maltreatment*, 1077559520985934.
- Burdayron, R., Butler, B. P., Béliveau, M. J., Dubois-Comtois, K., & Pennestri, M. H. (2021). Perception of infant sleep problems: the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and matern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17(6), 1279-1285.
- Caldwell, J. E., Swan, S. C., & Woodbrown, V. D. (2012).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outcomes. *Psychology of violence*, 2(1), 42-57.
- Camacho, K., Ehrensaft, M. K., & Cohen, P. (2012).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peer relations, and risk for internalizing behaviors: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 125-141.
- Card, N. A., & Little, T. D. (2006).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sis of differential relations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5), 466-480.
- Chan, K.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2), 167-175.
- Chhabra, J., McDermott, B., & Li, W. (2020). Risk factors for paternal peri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1(4), 593-611.
- Clark, H. M., Galano, M. M., Grogan-Kaylor, A. C., Stein, S. F., & Graham-Bermann, S. A. (2021). Treating Attention Problems in Children Expos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Evaluating the Preschool Kids' Club.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6138.

- Coe, J. L., Huffhines, L., Gonzalez, D., Seifer, R., & Parade, S. H. (2021). Cascades of risk link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o less sensitive caregiving during infancy. *Child maltreatment*, 10775595211000431.
- Davies, P. T., Harold, G. T., Goeke-Morey, M. C., Cummings, E. M., Shelton, K., Rasi, J. A., & Jenkins, J. M.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27.
- DeJonghe, E. S., von Eye, A., Bogat, G. A., & Levendosky, A. A. (2011). Does witn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contribute to toddler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5(3), 129-139.
- Dickson, D. J., Richmond, A. D., Brendgen, M., Vitaro, F., Laursen, B., Dionne, G., & Boivin, M. (2015). Aggression can be contagious: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roactive aggression and reactive aggression among young twins. *Aggressive behavior*, 41(5), 455-466.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dge, K. A., Lochman, J. E., Harnish, J. D., Bates, J. E., & Pettit, G. S. (1997).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and psychiatrically impaired chronically assaultive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37-51.
- Duffy, A. L., Gardner, A. A., & Zimmer-Gembeck, M. J. (2019). Peer rejection and dislike. *The encyclopedia of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3.
- El-Sheikh, M., Cummings, E. M., Kouros, C. D., Elmore-Staton, L., & Buckhalt, J. (2008). Marital psychological and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direct,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138-015.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Routledge.
- Finkelhor, D., Turner, H. A., Shattuck, A., & Hamby, S. L. (2015). Prevalence of childhood exposure to violence, crime, and abuse: Resul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JAMA pediatrics*, 169(8), 746-754.
- Georgiou, S. N., & Stavrinides, P. (2008).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Psychosocial profiles and attribution styl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9(5), 574-589.
- Godleski, S. A., Kamper, K. E., Ostrov, J. M., Hart, E. J., & Blakely-McClure, S. J. (2015). Peer victimization and peer rejection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4(3), 380-392.
- Granat, A., Gadassi, R., Gilboa-Schechtman, E., & Feldman, R. (2017).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synchrony, and infant regulation of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Emotion*, 17(1), 11-27.
- Greening, S. G., Lee, T. H., & Mather, M. (2014). A dual process for the cognitive control of emotional significance: implications for emotion regulation and disorders of emotion.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8, 253.
- Harden, B. J., Martoccio, T. L., Berlin, L. J., & Parra, L. J. (2021). Intimate Partner Violence, Parenting, and Toddler Behavior among Low-Income Latinx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7), 1675-1684.
- Harden, B. J., Martoccio, T. L., Berlin, L. J., & Parra, L. J. (2021). Intimate Partner Violence, Parenting, and Toddler Behavior among Low-Income Latinx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7), 1675-1684.
- Haselschwerdt, M. L. (2014). Theorizing children's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using Johnson's typology.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6(3), 199-221.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ung, H., Herrenkohl, T. I., Skinner, M. L., Lee, J. O., Klika, J. B., & Rousson, A. N. (2019).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 predictive analysis of IPV by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exposure during early childhood. *Violence against women*, 25(8), 903-924.
- Kallman, J., Han, J., & Vanderbilt, D. L. (2021). What is bullying?. *Clinics in Integrated Care*, 5, 100046.
- Katz, M. H. (2011). *Multivariable analysis: a practical guide for clinicians and public health resear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 & Lee, J. (2013). Prospective study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99, 42-48.
- Kobayashi, J. E., Bernard, N. K., Nuttall, A. K., Levendosky, A. A., Bogat, G. A., & Lonstein, J. S. (2021).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ositive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Comparing self-reported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Online advance].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evendosky, A. A., Bogat, G. A., & Huth-Bocks, A. C. (2011).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young child. *Psychoanalytic Psychology, 28*(4), 512-527.
- Levendosky, A. A., Leahy, K. L., Bogat, G. A., Davidson, W. S., & Von Eye, A. (2006). Domestic violence, maternal parenting, maternal mental health, and infant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4), 544-552.
- Lipscomb, S. T., Hatfield, B., Lewis, H., Goka-Dubose, E., & Abshire, C.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early care and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2*, 101218.
- Luby, J. L., Barch, D. M., Whalen, D., Tillman, R., & Freedland, K. E. (2018).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parent-child psychotherapy targeting emotion development for early childhoo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5*(11), 1102-1110.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Mangold, A. C., & King, A. R. (2021).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ces of sibling physical aggression and lifetime aggression using statistical controls for poly-victimiz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6*(2), 235-247.
- Marie-Mitchell, A., & O'Connor, T. G. (2013).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ranslating knowledge into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for poor outcomes. *Academic pediatrics, 13*(1), 14-19.
- Martinez-Torteya, C., Donovan, A., Gilchrist, M. A., Marshall, H., & Huth-Bocks, A. C. (2021). Neighborhood disadvantage moderates the effect of perinatal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exposure on disorganized attachment behaviors among 12-month-old infants. *Psychology of violence, 11*(1), 101-111.
- McCubbin, H. I., Patterson, J. M., & Wilson, L. R. (1982).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Family inventories, 69-87*.
- Meeus, W., Van de Schoot, R., Hawk, S. T., Hale, W. W., & Branje, S. (2016). Direct aggression and generalized anxiety in adolescence: heterogeneity in development and intra-individual chan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2), 361-375.
- Miranda, J. K., de la Osa, N., Granero, R., & Ezpeleta, L. (2011). Maternal

- experiences of childhood ab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pathology and functional impairment in clinical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35(9), 700-711.
- Murray-Close, D., & Ostrov, J. M. (2009). A longitudinal stud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ve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0(3), 828-842.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0).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17(17), 411-448.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Facts and interven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2(4), 495-510.
- Piotrowski, C. C., & Cameranesi, M. (2018). Aggression by children exposed to IPV: Exploring the role of child depressive symptoms, trauma-related symptoms, & warmth in family relationship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9(3), 360-371.
- Piotrowski, C. C., Tachie, R. M., & Cameranesi, M. (2021). Aggression in children expos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 comparison of maternal, sibling, and observer perspectiv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3-4), 1308-1329.
- Prados, A. C., & Aguayo, L. V. (2021). Application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to two girls with behavioural problems. *Psicología Conductual*, 29(1), 145-165A.
- Price, J. M., & Dodge, K. A. (1989).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hood: Relations to peer status and social context dimens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4), 455-471.
-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Reynolds, C., ...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2(2), 159-171.
- Ravi, K. E. (2021). Exposure to IPV among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System and an Emotional-Behavioral Disability: the Role of Maternal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1-11.

- Reavis, R. D., Keane, S. P., & Calkins, S. D. (2010). *Trajectories of peer victimization: The role of multiple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56(3), 303-332.
- Salmivalli, C., & Nieminen, E. (2002).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mong school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8(1), 30-44.
- Smeets, K. C., Oostermeijer, S., Lappenschaar, M., Cohn, M., Van der Meer, J. M. J., Popma, A., ... & Buitelaar, J. K. (2017). Are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meaningful distinctions in adolescents? A variable-and person-based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5(1), 1-14.
- Smith, M., Mitchell, C., & Jin, H. R. (2021).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adolescent maltreatment victimization on subsequent sexual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19.
- Smith, P. K., Shu, S., & Madsen, K. (2001). Characteristics of victims of school bullying.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332-351.
- Stone, J. R. (2021). *Examining the Efficacy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on Insecurely Attached Infants with Depressed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Azusa Pacific University).
- Supplee, L. H., Skuban, E. M., Shaw, D. S., & Prout, J. (2009).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later externalizing behavior among Europ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2), 393-415.
- Taillieu, T. L., Brownridge, D. A., & Brownell, M. (2021). Screening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social outcomes from birth to 5-years post-delivery. *Child Abuse & Neglect*, 111, 104865.
- Timmer, S. G., Urquiza, A. J., Zebell, N. M., & McGrath, J. M. (2005).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pplication to maltreating parent-child dyads. *Child abuse & neglect*, 29(7), 825-842.
- Van Berkel, S. R., Tucker, C. J., & Finkelhor, D. (2018). The combination of sibling victimization and parental child maltreatment on mental health problems and delinquency. *Child maltreatment*, 23(3), 244-253.
- Van Dijk, A., Hubbard, J. A., Deschamps, P. K., Hiemstra, W., & Polman, H. (2021). Do distinct groups of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exist? A confirmatory latent profile approach.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1-15.

- Voisin, D. R., & Hong, J. S. (2012). A meditational model linking witn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bullying behaviors and victimization among yout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4), 479-498.
- Yang, A., & Salmivalli, C. (2013). Different form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Bully-victims versus bullies and victim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0(6), 723-738.
- Zisser, A., & Eyberg, S. M. (2010).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d the treatment of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Abstract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IPV in infancy and toddlerhood and later school victimization in childhood: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aggressive behaviors caused by internalizing problems

Sumin S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in infancy and toddlerhood and later school victimization in childhood. We hypothesized that school victimization would be affected by the serial effect of exposure to IPV, internalizing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this regard. A total of 1,315 data from the wave 1 to wave 11 which were collected b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ere utilized.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3.8% (n=50) of sample were exposed to IPV in infancy and toddlerhood, and showed higher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childhood than those who had not been exposed. Second, exposure to IPV in infancy and toddlerhood, internalizing problems, and baseline of aggressive behaviors were associated in a serial fashion. Third, only baseline of aggressive behaviors had a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between internalizing problems caused by IPV exposure and school victimization. Based on findings,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early intervention for preventing IPV and alleviating aggressive behaviors were discussed.

- Key words: IPV in infancy and toddlerhood, internalizing problems, aggressive behaviors, school victimization,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종단적 매개효과

권연희(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의 1차년도~1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선행요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이 아동기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나타내고 이것이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어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 된다는 연구가설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적절한 종단적 연구설계를 마련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무엇보다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의 기초가 된다는 “행동화 모델”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간 관계의 매개변인으로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을 살펴보는 연구자의 시선이 흥미로웠으며, 이러한 부분을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보고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론적 근거와 연구설계 및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의 풍성한 해석을 위하여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 연구자의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증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1>, <표4>의 연구결과에 의거하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의 공격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격행동의 도구 설명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공격행동에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격행동이 낮아진다는 부적 감소를 가정하였다.”는 연구자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나 해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CBCL을 사용한 선행연구(Achenbach 등, 2001)나 연구자의 가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한 아동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표 5>, [그림 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 가정폭력 노출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나타내고, 이는 공격행동의 초기값을 매개로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에 유

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공격행동의 변화량은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이에 대하여 ‘공격적 피해자’ 개념 및 ‘높은 공격행동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종단적으로 공격 성향이 안정적 변화궤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고 또한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 관계가 있음에도 매개변인으로 공격행동의 초기값만이 유의하고 변화율은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과 논의가 궁금해집니다.

셋째, 앞서도 밝힌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결과 중 하나로 “행동화 모델”에 근거하여 매개변인을 선정한 부분으로, 내재화 문제가 공격행동을 야기한다는 부분이오나, 이론적, 정책적 제언에서도 이 결과에 따른 논의나 제언이 충분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언에서는 영유아가 가정폭력 노출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주를 이루어, 본 연구설계에서 돋보이는 “행동화 모델”에 근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정책적 제언 혹은 앞서도 의문을 제기한 것과 같이 내재화 문제가 공격행동의 초기값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보이거나 공격행동의 변화율과는 관련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연구 제목에서 보듯이 내재화 문제가 공격행동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하여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으로 변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변인 간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변인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에서 본 연구 결과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는 제언(예,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이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등)은 본 연구의 결과 초점을 맞춘 제언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가 가정폭력 노출이 아동기 내재화 문제를 통해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예측 요인을 종단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토론자의 몇 가지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면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박하연⁹⁾ 은선민¹⁰⁾

요약

이 연구는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12차년도(2019) 자료를 사용하여 총 549쌍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그 어머니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여학생의 성숙시기는 한국 여학생의 평균 초경연령과 선행연구의 기준점 등을 고려하여 규범성숙과 조기성숙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규범성숙 여학생은 412명, 조기성숙 여학생은 137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전반적 양상을 여학생의 성숙시기에 기준하여 살펴본 결과, 규범성숙 여학생보다 조기성숙 여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 적합도 지수가 산출되었으며, 여학생의 성숙시기는 불안·우울에 유의한 간접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학생의 성숙시기와 불안·우울의 관계에서 신체적 자아상 및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기성숙 여학생의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의 불안·우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사춘기, 조기성숙,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 스트레스, 내면화문제

1. 문제제기 및 선행연구 고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향한 사회적 관심의 추구와 더불어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다각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최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25.2%가 지난 1년 동

9)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10)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 또한 2011년 이후 지난 9년간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비단 중·고등학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초·중학생을 비롯한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지난 5년간 불안장애, 우울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10세 이하 아동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박진우, 허민숙, 2021). 더욱이 개인 정신건강의 문제는 구조화된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여(조현하, 문소현, 2017)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Hankin, 2006)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불안,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는 성장 후에도 지속적인 부작용을 낳아 대인관계 해체, 자살 시도 등의 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Luby, Gaffrey, Tillman et al., 2014)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불안 및 우울 문제는 빈도나 강도, 발현 증상의 측면에서 성인의 양상과는 다르고, 발견이 더 어렵다는 점(조현하, 문소현, 2017)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의 아동이 경험하는 고유한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업적 부담이 본격화되는 초등 고학년 학생에게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시기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으로도 빠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제 2차 성징의 단계이자 초기 청소년기의 진입 시기로서 아동의 취약성이 두드러질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학생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외현화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은 남학생에 비해 우울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지애, 김옥진, 2018). 이는 최근 수행된 조사에서도 확인 가능한 현상으로, 여자 청소년의 우울(30.7%)이 남자 청소년(20.1%)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 따라서 초등 고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우울의 문제행동이 어떻게 예측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성숙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 성숙시기(pubertal timing)란 개인의 신체적 발달 수준이 동일한 연령, 동일한 성별의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Dhillon & Kanwar, 2020). 사춘기 시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성장과 생물학적 변화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 시점이 또래와 다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행감을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김예성, 안재진, 2015).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기성숙을 경험하는 여학생들은 규범적인 발달 속도를 경험하는 다른 또래들에 비하여 정

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맞이하면서 내적으로 더욱 취약하고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Rudolph, Troop-Gordon, Lambert et al., 2014). 이들은 또래보다 성숙한 외모와 발달된 신체로 인해 성인과 유사한 역할수행을 요구받기도 하지만(Celio, Karnik, & Steiner, 2006), 적절한 적응 기술이 부족하여 다양한 내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숙도와 사회적 성숙도 간의 부조화(Dhillon & Kanwar, 2020)로 이해될 수 있는데, 성숙도의 격차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 여학생에게 조기성숙은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청소년들의 성숙시기와 불안우울의 관계를 증명하는 국외 선행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음(Crockett, Carlo, Wolff et al., 2013; Graber, 2013; Hamlat, McCormick, Young et al., 2020; Pomerantz, Parent, Forehand et al., 2017)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성숙시기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구체적인 발달 경로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성숙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은 우울 및 불안의 위험에 노출된 조기성숙 여아들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서구권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했을 때, 집단소속감과 외모에 대한 규범에 민감하며 학업 등 경쟁 위주인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성장하는 초등 고학년 여학생에게 조기성숙이라는 사건이 갖는 의미는 보다 복잡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숙시기와 불안우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변인 간 관계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성숙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신체적 자아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체적 자아상이란 자신의 신체구조, 기능 및 외모에 대한 지각과 그로 인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총칭하는 심리적 개념이다(Grogan, 2006; Muth & Cash, 1997). 이는 스스로에 대한 감정, 태도와 연결되어 있어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주요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개념 형성의 핵심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찰하기 시작하며 신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예민해지는 특성을 보인다(임진, 김은정, 2012).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체중 증가와 체형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여아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날씬한’ 몸의 기준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Grower, Ward, & Beltz, 2019), 이러한 변화를 또래보다 더 이른 시기에 경험할 때 신체 만족도가 저하되거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Grower et al., 2019; Mulgrew, 2019; Williams & Currie, 2000). 즉 조기성숙을 경험하는 여학생들은 또래보다 이르게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한 축을 이루며 아동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지각과 같은 신체상의 병리적 발달이 우울, 불안, 섭식장애 등 내면화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arengo, Longobardi, Fabris et al., 2018). 종합했을 때,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는 신체적 자아상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신체적 자아상이 불안우울 등 내면화 문제의 악화로 연결되리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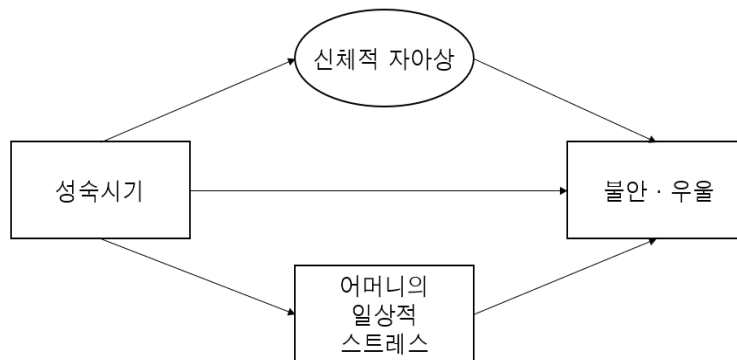
한편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특징되는 사춘기 시기의 심리적 혼란과 변화는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에도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초등 고학년 자녀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의사소통의 주대상이 되는 어머니는 자녀의 성적 성숙으로 인해 새롭게 부여된 과업과 역할수행에 맞닥뜨릴 수 있다. 여아가 제 2차 성장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사춘기와 관련된 보건 및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믿음직한 대상(Afsari, Mirghafourvand, Valizadeh et al., 2017)으로 인식되곤 한다. 즉 어머니는 여아의 사춘기 발달에서 가족구성원 중 가장 책임감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동시에, 자녀의 성숙으로 인한 당혹감과 관련 지식의 부족을 체감하거나,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성(性)을 주제로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느끼는 등(Crichton, Ibisomi, & Gyimah, 2012)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자녀의 성숙이 이른 시기에 찾아온다면, 이는 어머니에게는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변화이자 위기의 사건(Steinberg, 1987)으로 작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조기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가 당사자인 자녀와 유사한 성숙 불안(Pinyerd & Zipf, 2005)을 경험하거나, 자녀가 담배나 술과 같은 물질남용, 또래관계 문제, 위험한 성행위 등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Celio et al., 2006)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도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부모-자녀 간 친밀도의 감소, 갈등의 증가, 통제력과 보상의 감소 등 다양한 가정 내 어려움이 발생함을 고려했을 때(Marceau, Abar, & Jackson, 2015), 조기성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지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은 아동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이끄는 주요 예측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녀의 내면화 문제(Bakoula, Kolaitis, Veltsista et al., 2009; Liu & Merritt, 2018)에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맥락에서 자녀의 정서조절(박윤조, 송하나, 2018)과 스트레스(이진화, 201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조기성숙이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곧 자녀의 불안우울 문제를 악화시키는 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 간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의 불안·우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는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매개로 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에 발현되는 내면화 문제의 발달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불안·우울을 다루는 개입방안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조기성숙을 경험하는 여학생들의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의 불안·우울 간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 12차년도(2019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총 549쌍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만 11세)과 그 어머니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 총 2,150가구를 1차년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단일 코호트의 장기 추적조사이다. 12차년도 기준으로 참여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이며,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

학생과 어머니로 이루어진 전체 응답자 687쌍 중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용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지 않거나, 보호자 방문면접조사로 측정되는 종속변인 응답이 결측된 93명을 제외하였으며, 아동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23.6 이상인 45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49쌍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아의 조기성숙은 비만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므로(Alberga, Sigal, Goldfield et al., 2012) 조기성숙의 심리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만과의 연관성을 통제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BMI를 성별, 연령별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였을 때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로 판단한다(질병관리본부, 2017). 본 연구참여자 여아의 평균 월령은 136.3개월 ($SD = 1.40$)로 나타났으며,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2017)에서 136개월 여아 BMI의 95백분위수가 23.6으로 보고된 점에 근거하여 비만군에 속하는 아동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신체적 특성 중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BMI는 평균 $18.48\text{kg}/\text{m}^2$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18세($SD = 3.78$)이며,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8.6%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 27.9%로 뒤를 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8.1%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이 19.5%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 = 549$)

변수	구분	평균/빈도
아동 월령		136.3개월 ($SD = 1.40$)
신장		148.44cm ($SD = 6.29$)
체중		40.88kg ($SD = 7.16$)
BMI		$18.48\text{kg}/\text{m}^2$ ($SD = 2.45$)
어머니 연령		42.18세 ($SD = 3.78$)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5명 (26.7%)
	전문대 졸업	151명 (27.9%)
	대학교 졸업	209명 (38.6%)
	대학원 졸업	37명 (6.8%)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9명 (28.1%)
	전문대 졸업	104명 (19.6%)
	대학교 졸업	212명 (39.9%)
	대학원 졸업	66명 (12.4%)

변수	구분	평균/빈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명 (1.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1명 (18.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17명 (39.5%)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07명 (19.5%)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0명 (9.1%)
	1000만원 이상	40명 (7.3%)
	모름/무응답	28명 (5.1%)

2. 연구도구

가. 성숙시기

아동의 성숙시기는 한국아동패널에서 보호자 대상으로 조사한 자녀 2차 성징의 발현 여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연구참여자의 사춘기 진입 특성을 반영하여 11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서 ‘OO(이)는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의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로 응답한 경우 조기성숙으로 구분하고,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규범성숙으로 구분함으로써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0: 규범성숙, 1: 조기성숙). 규범성숙에 해당하는 여학생은 412명, 조기성숙에 해당하는 여학생은 137명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최근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경연령을 분석한 연구에서 평균 초경연령이 12.6세로 나타난 결과(Seo, Kim, Juul et al., 2020)와 더불어 여학생의 초경연령에 따라 조기성숙 및 규범성숙으로 집단구분을 실시해온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11세 이하에서 초경을 시작한 여학생들을 조기성숙 집단으로 정의하고, 그 이후 초경을 시작한 경우 규범집단 또는 대응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Gaysina, Richards, Kuh et al., 2015; Mrug, Elliott, Davies et al., 2014). 또한 여학생의 조기성숙은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는 반면, 정시에 성숙하거나(on-time) 심지어 늦게 성숙하는(late maturation) 여학생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Graber, 2013) 조기성숙과 규범성숙의 두 집단으로 대응하여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나. 신체적 자아상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은 Mendelson과 White (1982)가 개발한 ‘Body-Esteem Scal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예시에는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동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지며,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코딩하였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2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다.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부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서,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단일문항의 스트레스 척도는 여성의 일상적 스트레스(Vines, Nguyen, Ta et al., 2011)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업무 스트레스(Elo, Leppänen, & Jahkola, 2003), 노년층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Littman, White, Satia et al., 2006)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되며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 4: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라. 불안·우울

아동의 불안·우울은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의 하위요인 중 불안/우울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1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예시에는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보호자가 응답하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해당 요인의 원점수, T점수, 백분위 점수만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3문항의 합산점수인 원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 통제변인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우울증상(Duchesne & Ratelle, 2014)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어머니의 스트레스(Parkes, Sweeting, & Wight, 2015) 및 자녀의 우울(Eley, Liang, Plomin et al., 2004; Park, Heo, Subramanian et al., 2012)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 및 어머니, 아버지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어머니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원척도를 이정림, 김지현, 이규림 외 (2017)가 타당화한 변안본에 대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1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지며, 모든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

니다 ~ 4: 항상 그렇다)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하도록 코딩하였다. 어머니 애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0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tata Version 1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변인들에 대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M)과 표준편차(SD), t -검정,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해당 변인이 적합한 측정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전체 연구변인들 간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값과 더불어 TLI, CFI, RMSEA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는 결측치가 포함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for Missing Values: MLMV)을 이용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를 설정하였으므로 Sobel 검증을 사용하여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결과

연구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신체적 자아상 평균은 규범성숙과 조기성숙 여학생이 각각 3.09점($SD = .54$), 2.96점($SD = .57$)으로 나타났다. 조기성숙 여아의 신체적 자아상이 유의하게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면서 더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규범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M = 2.87$, $SD = .63$)에 비해 조기성숙 여아를 둔 어머니($M = 3.01$, $SD = .63$)가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자녀가 조기성숙을 경험할 경우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불안·우울은 규범성숙과 조기성숙 여학생에게서 각각 1.39점($SD = 1.92$), 1.55점($SD = 2.18$)으로 보고되어 조기성숙 여학생의 불안·우울 평균점수가 조금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구

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였다(Kline, 2010).

〈표 2〉 성숙시기에 따른 연구변인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인	규범성숙		조기성숙		<i>t</i>	왜도	첨도
	<i>N</i>	<i>M (SD)</i>	<i>N</i>	<i>M (SD)</i>			
신체적 자아상	407	3.09 (.54)	137	2.96 (.57)	2.28*	-.21	2.68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397	2.87 (.63)	129	3.01 (.63)	-2.06*	-.00	2.62
불안·우울	412	1.39 (1.92)	137	1.55 (2.18)	-0.85	2.12	8.92

* $p < .05$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의 불안·우울 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숙시기는 신체적 자아상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가지고,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우울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규범성숙 여학생에 비해 조기성숙 여학생의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학생의 신체적 자아상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불안·우울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불안감과 우울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동의 불안·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동의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 연구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1 성숙시기	-			
2 신체적 자아상	-.10*	-		
3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09*	-.03	-	
4 불안·우울	.04	-.09*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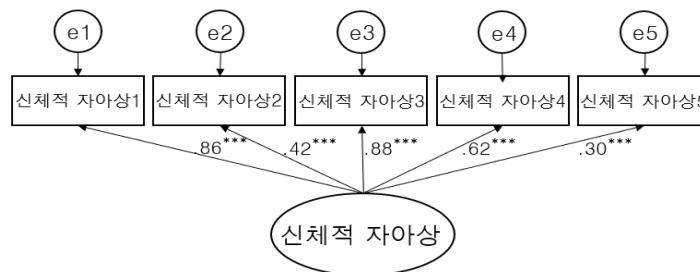
* $p < .05$, *** $p < .001$

2. 측정모형 검증

연구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잠재변인이 측정변인들에 의해 타당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과 함께 TLI, CFI, RMSEA 지수를 확인하였다.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 오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로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하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을 설명하는 하위 5문항이 부하된 모형에 대해 적합도 지수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chi^2 = 29.21$ ($df = 5$, $p < .001$), TLI = .943, CFI = .971, RMSEA = .094로 나타났다. TLI와 CFI 지수를 고려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고, RMSEA 지수는 다소 애매하게 보고되었으나, 전반적인 수치들이 수용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요인부하값들은 .30~.88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신체적 자아상 문항5의 요인부하량($\beta = .30$)이 비교적 낮게 도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에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 분석

3. 구조모형 검증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 불안·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머니와의 애착 및 부모 학력은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chi^2 = 97.70$ ($df = 36$, $p < .001$), TLI = .910, CFI = .934, RMSEA = .056으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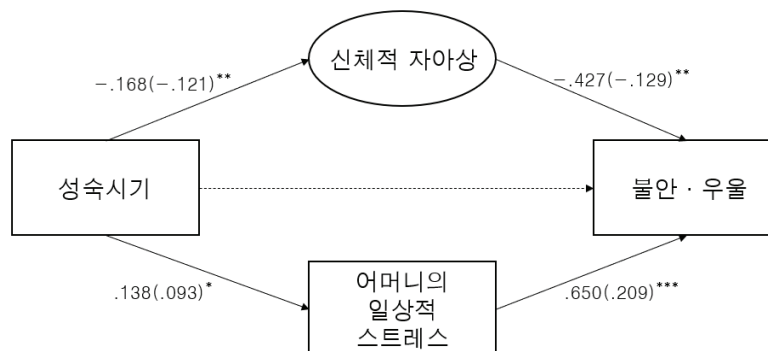
주요 연구변인들의 경로별 모수추정치는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독립변

인인 아동의 성숙시기에서 종속변인인 아동의 불안·우울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숙시기에서 매개변인인 신체적 자아상 및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로 향하는 직접 경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및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아동의 불안·우울과의 직접 경로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을 보고하였다. 변인들 간 경로를 토대로 아동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해한 결과, 아동의 성숙시기는 불안·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유의한 간접효과($\beta = .161, p < .01$)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B	β	SE
성숙시기 → 불안·우울	.000	.000	.193
성숙시기 → 신체적 자아상	-.168**	-.121	.062
성숙시기 →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138*	.093	.064
신체적 자아상 → 불안·우울	-.427**	-.129	.149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 불안·우울	.650***	.209	.13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아동의 성숙시기,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 불안우울 간 관계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in ().

* $p < .05$, ** $p < .01$, *** $p < .001$

4.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에서 간접 경로를 통한 각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

레스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범성숙 여학생에 비해 조기성숙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할 수록 불안과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기성숙을 경험하는 여학생의 어머니는 더 높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아동이 더욱 불안하고 우울한 심리상태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 매개경로의 Sobel 검증 결과

경로	z
성숙시기 → 신체적 자아상 → 불안·우울	1.97*
성숙시기 →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 불안·우울	1.98*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불안·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성숙시기를 규범성숙과 조기성숙으로 구분하여 성숙시기와 불안·우울의 관계를 신체적 자아상 및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검증함으로써 구체적인 발달 기제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 5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 신체적 자아상,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불안·우울 수준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여학생의 성숙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또래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성적 성숙을 경험하는 여학생은 규범적 발달을 경험하는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조기성숙 여학생을 둔 어머니들은 규범적 발달 속도를 경험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이는 사춘기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거나 사춘기 발달이 더 진행된 여아의 경우, 대응집단에 비해 왜곡된 신체적 자아상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Richburg, 2021)와 일치하는 결과로, 사춘기에 나타나는 체중 및 체형의 변화를 또래보다 더 앞서 경험할 때 신체 만족도가 저하되거나 신체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Grower, Ward, & Beltz, 2019; Mulgrew, 2019; Williams & Currie, 2000)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에서의 차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자녀가 8세 이전에 제 2차 성장을 보이며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들의 정서적 어려움

(Pinyerd & Zipf, 2005; Schoelwer, Donahue, Didrick et al., 2017)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자녀의 성적 성숙은 아동만이 아닌 가족 모두의 이정표적 사건으로서(Steinberg, 1987) 조기성숙이 야기하는 어머니의 정서적 파동 역시 규범 성숙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정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비롯한 어머니 심리상태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기성숙 여학생을 둔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사춘기 진입을 앞둔 가족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는 불안·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개인 내적 변인과 어머니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또래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성숙하는 여학생이 위험감수 행동에 관여하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Biro, Huang, & Pinney, 2020), 성숙시기의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Crockett et al., 2013; Graber, 2013; Hamlat et al., 2020; Pomerantz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조기성숙 여학생의 취약성이 조기성숙 경험 그 자체로부터 야기된 것인지, 혹은 일련의 내적, 관계적 경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기성숙이 개인의 의식적 노력과 개입에 따라 변화하기 어려운 현상임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조기성숙으로부터 파생되는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들을 이해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성숙 여학생의 불안·우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성숙시기와 불안·우울의 관계를 각각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기성숙 여학생은 규범적 발달 속도를 경험하는 또래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태도가 내면의 불안·우울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기성숙이 부정적 정서의 발달(Beltz, 2018) 및 과체중 인식(Ge, Elder Jr, Regnerus et al., 2001)을 촉발시킴으로써 우울 증상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특히 조기성숙 여학생이 규범성숙 여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불안·우울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되는 데에는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직된 기준과 또래규범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신체적 자아상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참조하여 발달되는데(Flament, Hill, Buchholz et al., 2012; Thompson, Heinberg, Altabe et al., 1999), 오늘날에는 여성의 마른 체형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강조되면서 이상적인 신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모 관심이 지대한 청소년들은 사회문화적 기대에 부합하는 신체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의식하는 경향이 있으며(Veldhuis, Konijn, & Seidell,

2014), 관심사를 공유하는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의 규준과 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Jones & Crawford, 2006). 주목해야할 점은 제 2차 성징으로 찾아오는 신체의 변화가 특히 여학생에게 체중의 증가나 특정 신체부위의 확장 등을 초래하면서 또래집단이 선호하는 날씬한 체형과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학생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또래 간에 증가한 외모 압력을 지각하며(Helfert & Warschburger, 2011), 또래집단끼리 공유하는 외모 규범과 이상의 준수가 자신에 관한 평가에 영향(Jarman, Marques, McLean et al., 2021)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집단소속감과 대인 간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또래와 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동조하는 것이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Jackson & Chen, 2010), 조기성숙 여학생은 다수의 또래와 구별되면서 사회문화적 이상과 거리가 있는 체형변화를 먼저 경험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하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에 대한 평가는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의 주축이 되어 여학생의 심리정서적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울불안과 같은 병리적 발달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종합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규범성숙 여학생에 비해 조기성숙 여학생이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매개로 더 높은 수준의 내면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자아상 발달을 조력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외적 기준들이 존중받고 수용되는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외모 관련 대화와 비교행위를 지양하고 내면적 가치에 무게를 두도록 지원하는 자기역량강화교육 등의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조기성숙 여학생의 어머니는 규범적 사춘기 발달을 경험하는 또래 여학생의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불안·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숙과 사춘기 진입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관심가지고 관여하는 이슈이지만, 여학생은 초경을 비롯한 성숙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 등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어머니를 훨씬 선호하기에(Sooki, Shariati, Chaman et al., 2016) 사춘기 진입시기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조기성숙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사춘기 발달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함에도 주변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제한적인데다가(박광숙, 이영희, 고성희, 2012)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경험 역시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다방면적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머니로 하여금 역할부담으로 인한 염려, 자신의 자녀가 아직 사춘기를 통과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과 그럼에도 관련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모순으로 인한 긴장(Crichton et al., 2012) 등을 초래함으로써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대상 부모교

육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때는 자녀의 제 2차 성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소통법을 가르치는 등 자녀의 사춘기 발달과 연관된 어머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고안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같은 생물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여학생의 사춘기 호르몬 증가는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심리사회적 영향과 무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Boivin, Piekarski, Wahlberg et al., 2017; Copeland, Worthman, Shanahan et al., 2019)가 보고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호르몬 수치와 같은 생리적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여학생의 성숙시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성숙시기를 구분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여학생의 초경 시작 연령을 지표(Kaltiala-Heino, Koivisto, Marttunen et al., 2011; Stattin, Kerr & Skoog, 2011)로 조기성숙과 규범성숙 집단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 시점에 규범성숙 집단으로 구분되었던 여학생이 이후에 조기성숙 집단으로 재범주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여학생의 조기성숙이 내면화 문제에 누적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면, 조기성숙이 야기하는 심리적, 관계적 취약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시에 앞서 언급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기 청소년기 여학생의 커다란 신체적·생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성숙시기가 아동의 불안과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에 따른 불안·우울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개인 내적 측면에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안과 함께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 김예성, 안재진(2015).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른 여자청소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1, 39-63.
- 박광숙, 이영희, 고성희(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춘기 체험. *질적연구*, 13(2), 79-91.
- 박윤조(2018).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아동의 인지조절 및 정서조절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1), 27-51. <http://doi.org/10.21213/kjceec.2018.18.1.27>
- 박진우, 허민숙(202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오경자, 김영아(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유지애, 김옥진(2018).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241-273.
- 이정림, 김지현, 이규림, 조해주, 임종한(2017). *한국 어린이 성장 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와 행복감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5), 1051-1064. <http://doi.org/10.22143/HSS21.9.5.75>
- 임진, 김은정(2012). 청소년의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9(1), 279-306.
- 조현하, 문소현(2017). 성적 성숙도, 부모양육태도, 성적 성숙 불안이 초등학교 여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3), 329-339.
- 질병관리본부(2017).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집*. 청주: 질병관리본부.
-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 *2021 청소년 통계*. 대전: 통계청, 서울: 여성가족부.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fsari, A., Mirghafourvand, M., Valizadeh, S., Abbasnezhadeh, M., Galeshi, M., & Fatahi, S. (2017). The effects of educating mothers and girls on the girls' attitudes toward puberty healt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9(2), 1-7. <https://doi.org/10.1515/ijamh-2015-0043>
- Alberga, A. S., Sigal, R. J., Goldfield, G., Prud'Homme, D., & Kenny, G. P. (2012). Overweight and obese teenagers: Why is adolescence a critical period?. *Pediatric Obesity*, 7(4), 261-273. <https://doi.org/10.1111/j.2047-6310.2011.00046.x>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Bakoula, C., Kolaitis, G., Veltsista, A., Gika, A., & Chrousos, G. P. (2009). Parental stress affects the emotions and behaviour of children up to adolescence: A Greek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Stress*, 12(6), 486-498. <https://doi.org/10.3109/10253890802645041>
- Beltz, A. M. (2018). Gendered mechanisms underlie the relation between pubertal timing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2(6), 722-728.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7.12.019>
- Boivin, J. R., Piekarski, D. J., Wahlberg, J. K., & Wilbrecht, L. (2017). Age, sex, and gonadal hormones differently influence anxiety-and depression-related

- behavior during puberty in mice. *Psychoneuroendocrinology*, 85, 78-87. <https://doi.org/10.1016/j.psyneuen.2017.08.009>
- Celio, M., Karnik, N. S., & Steiner, H. (2006). Early maturation as a risk factor for agg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 girls: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60(10), 1254-1262. <https://doi.org/10.1111/j.1742-1241.2006.00972.x>
- Copeland, W. E., Worthman, C., Shanahan, L., Costello, E. J., & Angold, A. (2019). Early pubertal timing and testosteron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adolescent depression in girl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8(12), 1197-1206. <https://doi.org/10.1016/j.jaac.2019.02.007>
- Crockett, L. J., Carlo, G., Wolff, J. M., & Hope, M. O. (2013). The role of pubertal timing and temperamental vulnerability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sympto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377-389. <https://doi.org/10.1017/S0954579412001125>
- Dhillon, R., & Kanwar, P. (2020). Pubertal tim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A review of literature. *An International Bilingual Peer Reviewed Refereed Research Journal*, 7(28), 91-96.
- Duchesne, S., & Ratelle, C. F. (2014). Attachment security to mothers and fathers an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Which parent for which traject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4), 641-654. <https://doi.org/10.1007/s10964-013-0029-z>
- Eley, T. C., Liang, H., Plomin, R., Sham, P., Sterne, A., Williamson, R., & Purcell, S. (2004). Parental familial vulnerability, family environment, and their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3), 298-306. <https://doi.org/10.1097/00004583-200403000-00011>
- Elo, A. L., Leppänen, A., & Jahkola, A. (2003). Validity of a single-item measure of stress symptom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29(6), 444-451. <https://doi.org/10.5271/sjweh.752>
- Flament, M. F., Hill, E. M., Buchholz, A., Henderson, K., Tasca, G. A., & Goldfield, G. (2012). Internalization of the thin and muscular body ideal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ce: The mediation effects of body esteem. *Body Image*, 9(1), 68-75. <https://doi.org/10.1016/j.bodyim.2011.07.007>
- Gaysina, D., Richards, M., Kuh, D., & Hardy, R. (2015). Pubertal maturation and affective symptoms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Evidence from a prospective birth cohor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pt1),

- 1331-1340. <https://doi.org/10.1017/S0954579414001448>
- Ge, X., Elder Jr, G. H., Regnerus, M., & Cox, C. (2001). Pubertal transitions, perceptions of being overweight,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4), 363-375. <https://doi.org/10.2307/3090160>
- Graber, J. A. (2013). Pubertal timing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and beyond. *Hormones and Behavior*, 64(2), 262-269. <https://doi.org/10.1016/j.yhbeh.2013.04.003>
- Grogan, S. (2006). Body image and health: Contemporary perspective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523-530. <https://doi.org/10.1177/1359105306065013>
- Grower, P., Ward, L. M., & Beltz, A. M. (2019). Downstream consequences of pubertal timing for young women's body beliefs. *Journal of Adolescence*, 72, 162-166.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9.02.012>
- Hamlat, E. J., McCormick, K. C., Young, J. F., & Hankin, B. L. (2020). Early pubertal timing predicts onset and recurrence of depressive episodes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11), 1266-1274. <https://doi.org/10.1111/jcpp.13198>
- Hankin, B. L. (2006). Adolescent depression: Description, causes, and interventions. *Epilepsy & Behavior*, 8(1), 102-114. <https://doi.org/10.1016/j.yebeh.2005.10.012>
- Helfert, S., & Warschburger, P. (2011). A prospective study on the impact of peer and parental pressure on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Body Image*, 8(2), 101-109. <https://doi.org/10.1016/j.bodyim.2011.01.004>
- Jackson, T., & Chen, H. (2010). Sociocultural experiences of bulimic and non-bulimic adolescents in a school-based Chinese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69-76. <https://doi.org/10.1007/s10802-009-9350-0>
- Jarman, H. K., Marques, M. D., McLean, S. A., Slater, A., & Paxton, S. J. (2021). Social media, body satisfaction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 mediation model of appearance-ideal internalization and comparison. *Body Image*, 36, 139-148. <https://doi.org/10.1016/j.bodyim.2020.11.005>
- Jones, D. C., & Crawford, J. K. (2006). The peer appearance culture during adolescence: Gender and body mass vari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2), 257-269. <https://doi.org/10.1007/s10964-005-9006-5>
- Kaltiala-Heino, R., Koivisto, A. M., Marttunen, M., & Fröjd, S. (2011). Pubertal timing and substance use in middle adolescence: A 2-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0), 1288-1301. <https://doi.org/10.1007/s10964-011-9667-1>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ittman, A. J., White, E., Satia, J. A., Bowen, D. J., & Kristal, A. R. (200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2 single-item measures of psychosocial stress. *Epidemiology*, 17(4), 398-403. <https://doi.org/10.1097/01.ede.0000219721.89552.51>
- Liu, Y., & Merritt, D. H. (2018). Familial financial stress and child internalizing behaviors: The roles of caregivers' maltreating behaviors and social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86, 324-335. <https://doi.org/10.1016/j.chiabu.2018.09.002>
- Luby, J. L., Gaffrey, M. S., Tillman, R., April, L. M., & Belden, A. C. (2014). Trajectories of preschool disorders to full DSM depression at school age and early adolescence: Continuity of preschool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1(7), 768-776. <https://doi.org/10.1176/appi.ajp.2014.13091198>
- Marceau, K., Abar, C. C., & Jackson, K. M. (2015). Parental knowledge is a contextual amplifier of associations of pubertal maturation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9), 1720-1734. <https://doi.org/10.1007/s10964-015-0335-8>
- Marengo, D., Longobardi, C., Fabris, M. A., & Settanni, M. (2018). Highly-visual social media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body image concer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2, 63-69. <https://doi.org/10.1016/j.chb.2018.01.003>
- Mendelson, B. K., & White, D. R. (1982). Relation between body-esteem and self-esteem of obese and normal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4(3), 899-905. <https://doi.org/10.2466/pms.1982.54.3.899>
- Mrug, S., Elliott, M. N., Davies, S., Tortolero, S. R., Cuccaro, P., & Schuster, M. A. (2014). Early puberty, negative peer influence,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Pediatrics*, 133(1), 7-14. <https://doi.org/10.1542/peds.2013-0628>
- Muth, J. L., & Cash, T. F. (1997). Body-image attitudes: What difference does gender mak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6), 1438-1452.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7.tb01607.x>
- Park, H. Y., Heo, J., Subramanian, S. V., Kawachi, I., & Oh, J. (2012).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adolescent depression in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PLoS ONE*, 7(10), e4702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47025>
- Parkes, A., Sweeting, H., & Wight, D. (2015). Parenting stress and parent support among mothers with high and low educ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6), 907-918. <http://dx.doi.org/10.1037/fam0000129>
- Pinyerd, B., & Zipf, W. B. (2005). Puberty—timing is everything!.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2), 75-82. <https://doi.org/10.1016/j.pedn.2004.12.011>
- Pomerantz, H., Parent, J., Forehand, R., Breslend, N. L., & Winer, J. P. (2017).

- Pubertal timing and youth internalizing psychopathology: The role of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2), 416-423. <https://doi.org/10.1007/s10826-016-0598-z>
- Rudolph, K. D., Troop-Gordon, W., Lambert, S. F., & Natsuaki, M. N. (2014). Long-term consequences of pubertal timing for youth depression: Identifying personal and contextual pathways of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4pt2), 1423-1444. <https://doi.org/10.1017/S0954579414001126>
- Schoelwer, M. J., Donahue, K. L., Didrick, P., & Eugster, E. A. (2017). One-year follow-up of girls with precocious puberty and their mothers: Do psychological assessments change over time or with treatment?. *Hormone Research in Paediatrics*, 88(5), 347-353. <https://doi.org/10.1159/000479688>
- Seo, M. Y., Kim, S. H., Juul, A., & Park, M. J. (2020). Trend of menarcheal age among Korean girl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5(49), e406. <https://doi.org/10.3346/jkms.2020.35.e406>
- Sooki, Z., Shariati, M., Chaman, R., Khosravi, A., Effatpanah, M., & Keramat, A. (2016). The role of mother in informing girls about puberty: A meta-analysis study. *Nursing and Midwifery Studies*, 5(1), e30360. <https://doi.org/10.17795/nmsjournal30360>
- Stattin, H., Kerr, M., & Skoog, T. (2011). Early pubertal timing and girls' problem behavior: Integrating two hypothe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0), 1271-1287. <https://doi.org/10.1007/s10964-011-9696-9>
- Steinberg, L. (1987).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51-460. <https://doi.org/10.1037/0012-1649.23.3.451>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312-000>
- Veldhuis, J., Konijn, E. A., & Seidell, J. C. (2014). Negotiated media effects. Peer feedback modifies effects of media's thin-body ideal on adolescent girls. *Appetite*, 73, 172-182. <https://doi.org/10.1016/j.appet.2013.10.023>
- Vines, A. I., Nguyen, T. T. X., Ta, M., Esserman, D., & Baird, D. D. (2011). Self-reported daily stress, squelching of anger and the management of daily stress and the prevalence of uterine leiomyomata: The ultrasound screening study. *Stress and Health*, 27(3), e188-e194. <https://doi.org/10.1002/smi.1360>
- Williams, J. M., & Currie, C. (2000). Self-esteem and physical development in early adolescence: Pubertal timing and body imag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2), 129-149. <https://doi.org/10.1177/0272431600020002002>

Effect of early adolescent girls' pubertal timing on
anxiety and depression: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as mediators

Hayeon Park and Sunmin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ubertal timing o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Korean teenage girls, and to verify the role of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as potential mediators. To achieve these goals, 549 pairs of 5th grade elementary school girls and their mother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rom 12th year (2019)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pubertal timing; early-maturing and normally-maturing.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s of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mpared to normally-maturing girls, early-maturing girls displayed worse body image and higher level of maternal stress. Second, the calculated model fit indic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reasonable. Most interestingly, findings confirmed that girls' pubertal timing had only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nxiety and depress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s of body image and maternal str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vulnerabilities of early-maturing girls.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efforts to support early-maturing girls to develop positive body image and their mothers to manage daily stress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girls going through early maturation from developing anxiety and depression.

• Keywords: Puberty, Early maturation, Body image, Maternal stress, Internalizing problems

초등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조미라(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5학년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불안, 우울이라는 심리상태 미치는 기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연구주제가 시의 적절하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청소년들의 부정적 심리상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하며, 청소년으로 들어서는 초등 고학년 시기에 집중하였다는 점, 주로 건강 영역에서 바라보는 조기성숙 현상을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상태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의 연계까지 분석한다는 면에서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결과로 성숙시기 자체가 불안·우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체적 성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해(신체적 자아상) 그리고 부모님의 태도와 대처를 대변하는 요인(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을 매개하여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양한 외적가치를 존중하고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데에 목표를 둔 자기역량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며 사춘기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 것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경로를 설정하고 증명해 보인 점 또한 본 연구의 장점입니다만, 추가로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분석대상인 초기 여자 청소년들의 성숙시기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이것이 다시 불안·우울로 연결되는 경로를 설정해 자녀와 어머니의 연관성을 보여준 것은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기에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모델 안에 서로 다른 주체의 요인들이 들어갈 때에는 충분한 이론적 배경으로 뒷받침되거나 모델 안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숙시기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모델 안에서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충분히 지각하고 서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자와 관련된 추가 작업을 제안드립니다.

즉, ‘자녀의 성숙시기-->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자녀의 불안우울’의 경로에 추가적 경로와 통제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우선,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에 통제변수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추가하는 것(예를 들어 연령,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변수가 단일문항(‘귀하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의 4점척도)로 측정되어 더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녀의 신체적 자아상’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거쳐 이것이 ‘불안우울’로 연결되는 다중매개모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스트레스가 불안우울로 연결되는 데 대한 이론은 충분히 축적되었기에, 이 경로가 추가됨으로써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자녀의 불안우울’이라는 다른 주체 간의 연계로 점핑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횡단 모델 내에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을 드렸으나, 후속작업으로는 아동패널이 종단데이터라는 장점을 살려, 아동청소년의 성숙시기와 불안우울 등의 상태에 대한 다양한 매커니즘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발달 2

좌장: 신나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1. 식품알레르기과 아동 행동 및 정서발달의 연관성

발표자: 정성수(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소연(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오혜영(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윤지선(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홍수종(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토론자: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가족연구실장)

2. 초등학교 4학년 아동 화용언어 능력 예측 변인으로서 학령전 사회적 기술의 역할

발표자: 이은주(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 김수진(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3.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과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발표자: 박원정(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정하은(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김선영(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오소정(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교수)

식품알레르기와 아동 행동 및 정서발달의 연관성

정성수¹¹⁾, 이소연¹²⁾, 오혜영¹³⁾, 윤지선¹⁴⁾, 홍수종¹⁵⁾

요약

배경 : 알레르기질환이 정신질환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학동기 식품 알레르기와 아동의 행동 및 정서 발달과의 연관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저자들은 일반 인구 기반의 출생코호트에서 식품 알레르기와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 1577명의 7세 소아를 아동패널 출생 코호트에서 모집하였다. 식품알레르기는 보호자 설문지를 통해 출생 후 지금까지 의사에 의해 진단력이 있는 경우(식품알레르기 진단력)와 출생 후 지금까지 식품 알레르기 증상(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경우, 최근 1년 동안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특정 식품을 제한한 경우(특정 식품 제한)로 각각 정의하였고, 7세 아동의 CBC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 7세 아동의 식품알레르기 진단력이 있는 경우는 진단력이 없는 경우보다 내제화, 불안/우울, 신체 증상, DSM 신체화 문제의 T점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내제화, 문제 행동, 신체 증상, 사고 문제, DSM 신체화 문제의 T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특정 식품 제한력이 있는 아동은 없는 아동에 비하여 DSM 신체화 문제의 T 점수가 더 높았다. 식품 알레르기 진단력과 증상, 특정 식품 제한력은 DSM 신체화 문제(준임상)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결론 : 7세 아동에서 식품알레르기는 DSM 신체화 문제의 위험성을 높였다. 식품알레르기는 학동기 아동의 행동과 발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주제어: Children, Food allergy, Mental health, CBCL

1. 서론

알레르기질환은 소아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 질환 중 하나로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 오염으로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식품알레르

11)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12)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13)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14)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15)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기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¹ 알레르기질환은 질병 부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행동 및 사회심리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특히, 소아 알레르기질환은 집중력 등의 정신적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³⁻⁹

국내에서도 알레르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아에서 정신적, 행동학적 문제 및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주로 학동 전기 소아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연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학동기 소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행동평가를 통해 정상 소아들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학동기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행동문제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인 아동패널 참여자 총 2150명 중 2015년도에 7세 아동에게 시행한 아동패널 건강관련 보호자 설문지와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를 완료한 15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식품알레르기의 정의

7세 아동에서 시행한 2015년의 건강관련 보호자 설문지의 정보를 통하여 알레르기 질환이 조사되었다. ‘식품알레르기 진단력’은 식품알레르기는 보호자 설문지를 통해 ‘지금까지 의사로부터 “식품알레르기”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예”로 답한 경우로 하였고, ‘식품알레르기 증상’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예”로 답한 경우로 하였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 “식품알레르기”로 6개월 이상 음식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까?”에 예로 답한 경우 ‘특정 식품 제한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는 Achenbach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아동 행동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부모가 관찰한 바를 통하여 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 1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되고, 9개의 하위 척도(증후군 척도 8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된다. 또한 DSM 진단기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6개의 하위 영역(DSM 정서문제, DSM 불안문제, DSM 신체화문제, DSM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DSM 반항행동문, DSM 품행문제)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고, 문제행동 특수척도와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자가 응답한 것을 그대로 합친 점수인 원점수는 50점을 기준으로 T점수로 환산할 수 있다. 상위 척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척도의 경우 T점수 64 이상인 경우 임상범위, 60 이상은 준임상범위로 판단하며, 하위척도인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DSM 진단 척도 및 문제행동 특수척도는 T점수 70점 이상이면 임상범위, 65 이상이면 준임상범위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7세 아동에서 시행한 CBCL 결과를 분석하였다.

4. 통계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처리는 IBM SPSS ver.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식품알레르기 진단, 특정 식품 제한력에 따른 CBCL T점수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여 비교하였고,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식품알레르기 진단, 특정 식품 제한력이 CBCL 준임상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2015년 건강관련 설문지 작성자 1,577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조사하였다 (표 1). 남자 809명(51.3%), 여자 768명(48.7%) 이었고,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는 61.1%, 부모 알레르기질환력은 67.2% 였다.

〈표 1〉 2015 건강관련설문지 응답자 일반적 특성

		2015 건강관련 설문지 응답자	
		빈도	퍼센트
총 구성원	합계	1577	100
성별	남	809	51.3
	여	768	48.7
모 교육수준	고등학교이하	454	29.8
	전문대(기능대학)	462	30.3
	대학교 이상	608	39.9
수입	100만원 미만	88	5.6
	101~300만원 미만	563	35.7
	301~500만원 미만	610	38.7
	501만원 이상	316	20.0
지역	서울	220	14.0
	경기/인천권	506	32.1
	대전/충청/강원	204	12.9
	대구/경북	184	11.7
	부산/울산/경남	286	18.1
	광주/전라	177	11.2
간접 흡연여부	아니오	614	38.6
	예	963	61.1
부모 알레르기질환	아니오	505	32.8
	여	1033	67.2

2. 식품알레르기의 유병률

7세 아동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표 2). ‘식품알레르기 진단력’이 있는 경우는 5.6%(88/1573),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16.3% (256/1568), ‘특정 식품 제한력’이 있는 경우는 8.8% (40/452) 였다.

〈표 2〉 식품알레르기의 유병률

	빈도./전체수.	(%)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1573	5.6
식품알레르기 증상	256/1568	16.3
특정 식품 제한력	40/452	8.8

3. 식품알레르기군과 정상군의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 T점수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식품알레르기 증상, '특정 식품 제한력'에 따른 CBCL T점수를 비교하였다 (표3, 표 4). 식품알레르기 진단력이 있는 경우는 진단력이 없는 경우보다 내제화, 불안/우울, 신체 증상, DSM 신체화 문제의 T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 보다 내제화, 문제 행동, 신체 증상, 사고 문제, DSM 신체화 문제의 T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특정 식품 제한력이 있는 아동은 없는 아동에 비하여 DSM 신체화 문제의 T 점수가 높았으니 통계적 유의성은 경계였다.

〈표 3〉 식품알레르기군과 정상군 아동행동평가 척도 (CBCL)의 T점수 비교

CBCL 척도 (T점수)	정의	식품알레르기군		비식품알레르기군		p-value
		빈도	점수(m±SD)	빈도	점수(m±SD)	
문제행동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1.2±9.7	1477	49.7±9.3	0.145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1.1±9.2	1305	49.5±9.3	0.013
	특정 식품 제한력	40	50.9±9.5	409	50.1±9.8	0.614
내제화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1.6±9.7	1477	49.5±8.7	0.033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0.8±9.2	1305	49.5±8.6	0.024
	특정 식품 제한력	40	50.3±10.1	409	50.3±8.8	0.981
외현화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1.9±8.1	1477	50.9±8.9	0.313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1.8±8.9	1305	50.8±8.9	0.114
	특정 식품 제한력	40	50.9±7.9	409	51.4±9.2	0.756
불안/우울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4.8±6.1	1477	53.4±5.0	0.049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1±5.8	1305	53.3±5.0	0.174
	특정 식품 제한력	40	54.5±5.9	409	53.9±5.5	0.569
위축/우울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4.0±4.9	1477	53.4±5.0	0.263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3.8±4.9	1305	53.3±5.0	0.190
	특정 식품 제한력	40	53.9±4.7	409	53.3±4.8	0.425
신체증상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4.7±6.5	1477	53.0±4.9	0.018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2±5.9	1305	52.9±4.8	0.001
	특정 식품 제한력	40	55.0±6.0	409	53.8±5.4	0.220
사회적 미성숙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4.5±5.8	1477	54.0±5.3	0.397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4±5.7	1305	53.9±5.3	0.178
	특정 식품 제한력	40	53.8±5.3	409	54.2±5.5	0.597
사고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5.1±6.1	1477	53.9±5.5	0.061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7±6.1	1305	53.8±5.5	0.020
	특정 식품 제한력	40	55.4±6.6	409	54.3±5.8	0.277

CBCL 척도 (T점수)	정의	식품알레르기군		비식품알레르기군		p-value
		빈도	점수(m±SD)	빈도	점수(m±SD)	
주의집중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3.1±4.8	1477	52.7±4.7	0.417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2.9±4.6	1305	52.6±4.7	0.387
	특정 식품 제한력	40	53.3±4.7	409	52.8±4.8	0.519
규칙위반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5.3±5.3	1477	54.8±5.3	0.413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5.3±5.4	1305	54.8±5.3	0.174
	특정 식품 제한력	40	55.2±5.2	409	54.1±5.6	0.946
공격행동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4.0±5.4	1477	53.8±5.5	0.672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2±5.7	1305	53.7±5.4	0.171
	특정 식품 제한력	40	53.2±5.2	409	55.1±5.6	0.319
강박증상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4.9±6.3	1477	53.8±5.5	0.126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2±5.8	1305	53.8±5.5	0.330
	특정 식품 제한력	40	54.0±6.1	409	54.3±5.6	0.761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4.0±5.6	1477	53.3±5.1	0.244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3.7±5.4	1305	53.3±5.1	0.289
	특정 식품 제한력	40	54.4±5.7	409	53.5±5.3	0.280
인지속도부진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2.5±5.0	1477	52.1±4.9	0.443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2.0±4.9	1305	52.1±4.9	0.679
	특정 식품 제한력	40	52.5±4.7	409	52.4±5.1	0.981

〈표 4〉 식품알레르기군과 정상군의 DSM T점수 비교

CBCL 척도 (T점수)	정의	식품알레르기군		비식품알레르기군		p-value
		빈도	점수(m±SD)	빈도	점수(m±SD)	
DSM 정서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3.5±5.1	1477	52.8±5.0	0.256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3.3±5.2	1305	52.8±5.0	0.158
	특정 식품 제한력	40	53.8±5.4	409	52.8±4.9	0.258
DSM 불안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5.4±7.3	1477	53.9±5.9	0.076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6±6.6	1305	53.9±5.9	0.113
	특정 식품 제한력	40	55.3±7.2	409	54.1±6.0	0.316
DSM 신체화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5.8±7.4	1477	52.7±5.2	0.002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4.2±6.5	1305	52.6±5.0	<0.001
	특정 식품 제한력	40	55.8±7.1	409	53.5±5.8	0.056
DSM 주의력결핍/ 과잉행동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3.3±5.1	1477	52.8±4.9	0.363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3.3±5.5	1305	53.6±4.9	0.103
	특정 식품 제한력	40	54.0±7.0	409	53.0±5.2	0.251
DSM 반항행동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3.6±4.9	1477	53.6±5.4	0.251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3.8±5.2	1305	53.0±5.3	0.522
	특정 식품 제한력	40	52.9±4.5	409	53.9±5.4	0.254

CBCL 척도 (T점수)	정의	식품알레르기군		비식품알레르기군		p-value
		빈도	점수(m±SD)	빈도	점수(m±SD)	
DSM 품행문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88	53.3±5.4	1477	53.1±5.3	0.649
	식품알레르기 증상	255	53.2±5.4	1305	53.0±5.3	0.655
	특정 식품 제한력	40	53.9±4.9	409	53.3±5.6	0.758

4. 식품알레르기가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 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 분석

아동 CBCL의 준임상을 질환으로 정의하고 식품알레르기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5, 6).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고 보정변수로 성별, 모성 교육 수준, 알레르기 질환의 부모 이력, 간접 흡연 이력, 거주 지역, 수입을 사용하였다. 식품알레르기 진단력은 내제화의 위험을 증가시켰고 (adjusted OR 1.76. 95% CI 1.02-3.04), DSM 불안문제 (adjusted OR 2.00. 95% CI 1.06-3.79), DSM 신체화문제 (adjusted OR 3.21. 95% CI 1.62-6.33)과 DSM 주의결핍/과잉행동문제 (adjusted OR 2.52. 95% CI 1.11-5.74)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식품알레르기 증상은 DSM 신체화문제 (adjusted OR 2.16. 95% CI 1.28-3.66)과 DSM 주의결핍/과잉행동문제 (adjusted OR 2.12. 95% CI 1.17-3.84)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특정 식품 제한력은 DSM 신체화문제 (adjusted OR 3.68. 95% CI 1.54-8.80)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특징적으로 DSM 신체화 문제는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식품알레르기 증상, 특정 식품 제한력은 모두에서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표 5〉 식품알레르기가 아동CBCL 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

	기준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식품알레르기 증상		특정 식품 제한력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문제행동	65 미만	1423	86	1258	246	395	39
	65 이상	54	2	47	9	14	1
	aOR* (95%CI)	Reference	0.132 (0.557-2.347)	Reference	0.909 (0.436-1.894)	Reference	0.593 (0.068-5.147)
내제화	60 미만	1292	69	1143	214	349	31
	60 이상	185	19	162	41	60	9
	aOR* (95%CI)	Reference	1.759 (1.017-3.043)	Reference	1.331 (0.907-1.955)	Reference	1.595 (0.688-3.864)
외현화	60 미만	1248	70	1107	208	330	33
	60 이상	229	18	198	47	79	7
	aOR* (95%CI)	Reference	1.235 (0.709-2.151)	Reference	1.232 (0.852-1.781)	Reference	0.806 (0.322-2.014)
불안/우울	65 미만	1374	80	1215	234	380	37
	65 이상	103	8	90	21	29	3
	aOR* (95%CI)	Reference	1.162 (0.539-2.507)	Reference	1.145 (0.691-1.897)	Reference	1.391 (0.366-5.291)

	기준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식품알레르기 증상		특정 식품 제한력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위축/우울	65 미만	1412	82	1245	244	392	37
	65 이상	65	6	60	11	17	3
	aOR* (95%CI)	Reference	1.657 (0.685-4.011)	Reference	0.956 (0.490-1.867)	Reference	2.381 (0.593-9.562)
신체증상	65 미만	1425	81	1260	241	388	37
	65 이상	52	7	45	14	21	3
	aOR* (95%CI)	Reference	1.948 (0.838-4.527)	Reference	1.481 (0.790-2.774)	Reference	1.155 (0.304-4.381)
사회미성숙	60 미만	1405	80	1243	238	384	38
	60 이상	72	8	62	17	25	2
	aOR* (95%CI)	Reference	1.744 (0.801-3.796)	Reference	1.344 (0.765-2.360)	Reference	0.506 (0.100-2.569)
사고문제	65 미만	1393	81	1232	237	383	36
	65 이상	84	7	73	18	26	4
	aOR* (95%CI)	Reference	1.231 (0.535-2.748)	Reference	1.168 (0.677-2.015)	Reference	1.784 (0.534-5.965)
주의집중문제	65 미만	1429	86	1263	247	393	39
	65 이상	48	2	42	8	16	1
	aOR* (95%CI)	Reference	0.606 (0.143-2.566)	Reference	0.964 (0.435-2.064)	Reference	0.680 (0.081-5.672)
규칙위반	65 미만	1362	81	1206	233	367	36
	65 이상	115	7	99	22	42	4
	aOR* (95%CI)	Reference	0.872 (0.388-1.958)	Reference	1.118 (0.683-1.830)	Reference	1.076 (0.331-3.500)
공격행동	65 미만	1384	82	1229	232	377	38
	65 이상	93	6	76	23	32	2
	aOR* (95%CI)	Reference	1.089 (0.463-2.561)	Reference	1.603 (0.985-2.609)	Reference	0.620 (0.143-2.689)
강박증상	65 미만	1362	76	1202	232	373	35
	65 이상	115	12	103	23	36	5
	aOR* (95%CI)	Reference	1.870 (0.988-3.539)	Reference	1.157 (0.721-1.857)	Reference	1.480 (0.546-4.014)
외상후스트레스	65 미만	1421	83	1256	243	391	39
	65 이상	56	5	49	12	18	1
	aOR* (95%CI)	Reference	1.529 (0.596-3.970)	Reference	1.266 (0.663-2.415)	Reference	0.557 (0.072-4.285)
인지속도부전	65 미만	1435	85	1268	247	396	40
	65 이상	42	3	37	8	13	0
	aOR* (95%CI)	Reference	0.758 (0.388-3.970)	Reference	1.110 (0.511-2.412)	Reference	-

*성별, 모성 교육 수준, 알레르기질환의 부모 이력, 간접 흡연 이력, 거주 지역, 수입으로 보정됨.

〈표 6〉 식품알레르기가 아동DSM 미치는 미치는 영향

	기준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식품알레르기 증상		특정 식품 제한력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DSM 정서문제	65 미만	1404	83	1239	243	390	38
	65 이상	73	5	66	12	19	2
	aOR* (95%CI)	Reference	1.159 (0.456-2.944)	Reference	0.927 (0.494-1.741)	Reference	1.080 (0.242-4.816)
DSM 불안문제	60 미만	1369	76	1209	231	375	35
	60 이상	108	12	96	24	34	5
	aOR* (95%CI)	Reference	2.001 (1.056-3.794)	Reference	1.308 (0.819-2.091)	Reference	1.576 (0.579-4.286)
DSM 신체화문제	60 미만	1414	77	1253	234	383	32
	60 이상	63	11	52	21	26	8
	aOR* (95%CI)	Reference	3.206 (1.624-6.331)	Reference	2.162 (1.278-3.658)	Reference	3.683 (1.542-8.796)
DSM 주의력결핍/ 과잉행동문제	65 미만	1428	81	1265	239	390	37
	65 이상	49	7	40	16	19	3
	aOR* (95%CI)	Reference	2.519 (1.106-5.735)	Reference	2.117 (1.167-3.842)	Reference	1.664 (0.470-5.888)
DSM 빈항행동문제	65 미만	1404	85	1243	241	382	40
	65 이상	73	3	62	14	27	0
	aOR* (95%CI)	Reference	0.679 (0.210-2.198)	Reference	1.165 (0.642-2.114)	Reference	-
DSM 품행문제	65 미만	1392	83	1229	241	378	38
	65 이상	85	5	76	14	31	2
	aOR* (95%CI)	Reference	0.987 (0.390-2.497)	Reference	0.939 (0.523-1.689)	Reference	0.642 (0.148-2.786)

*성별, 모성 교육 수준, 알레르기질환의 부모 이력, 간접 흡연 이력, 거주 지역, 수입으로 보정됨.

IV. 논의 및 결론

현재 식품알레르기 대한 치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에 대한 제거식이 요법을 하는 것과 우발적으로 알레르기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응급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식품알레르기는 유병률은 낮으나 아마필락시스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불안과 우울과 같은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삶의 질 측면에 대한 식품알레르기의 영향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7세 아동에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이 있는 경우는 진단력이 없는 경우보다 내제화, 불안/우울, 신체 증상, DSM 신체화 문제의 T점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 보다 내제화, 문제 행동, 신체 증상, 사고 문제, DSM 신체화 문제의 T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증상, 특정 식품 제한력은 DSM 신체화 문제(준임상)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식품알레르기는 학동기 아동의 행동과 발달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행동 및 발달 문제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2015 알레르기 설문지로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아동 패널에서는 2013년부터 알레르기 설문지가 포함되어 2016년까지 매년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새로운 설문지로 알레르기질환의 치료력만 간소하게 1 문장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설문문항으로 조사된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이 이전 알레르기 설문지로 조사된 유병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소화된 설문문항을 통하여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할 때,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설문에 응하는 보호자가 질환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경우 부정확한 응답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며, 여러 질환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 집중력이 분산되어 설문에 응답하는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memory loss를 때문에 발생하는 non response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서는 2013-2016년도에 사용된 알레르기 설문지로 조사하고 비교할 것을 제안한다. 알레르기 설문지 문항이 다소 길다고 생각된다면 기존 알레르기 설문지에 있는 질문 중 핵심 질문 몇 가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Ahn K, Kim J, Kwon H-J, Chae Y, Hahm M-I, Lee K-J, et al. The prevalence of symptoms of asthma, allergic rhinoconjunctivitis, and eczema in Korean children: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using complex sampling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1;54:769-78.
2. Jung J-S, Kim K-H, Hong K-E. A study on comorbid psychopathology and parenting attitu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9;10:34-42.
3. Gortmaker SL, Walker DK, Weitzman M, Sobol AM. Chronic conditions, socioeconomic risks,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Pediatrics 1990;85:267-76.
4. MacLean Jr WE, Perrin JM, Gortmaker S, Pierre CB.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asthma: Effects of illness severity and recent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992;17:159-71.
 5. Bender BG, Belleau L, Fukuhara JT, Mrazek DA, Strunk RC. Psychomotor adaptation in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asthma. *Pediatrics* 1987;79:723-7.
 6. O'Connell EJ. The burden of atopy and asthma in children. *Allergy* 2004;59 Suppl 78:7-11.
 7. Feitosa CA, Santos DN, Barreto do Carmo MB, Santos LM, Teles CA, Rodrigues LC, et al. Behavior problems and prevalence of asthma symptoms among Brazilian children. *J Psychosom Res* 2011;71:160-5.
 8. Schmitt J, Buske-Kirschbaum A, Roessner V. Is atopic disease a risk factor for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llergy* 2010;65:1506-24.
 9. Schmitt J, Apfelbacher C, Chen CM, Romanos M, Sausenthaler S, Koletzko S, et al. Infant-onset eczema in relation to mental health problems at age 10 years: results from a prospective birth cohort study (German Infant Nutrition Intervention plus). *J Allergy Clin Immunol* 2010;125:404-10.
 10. Pumphrey RS, Gowland MH. Further fatal allergic reactions to food in the United Kingdom, 1999-2006. *J Allergy Clin Immunol* 2007;119:1018-9.

• 교신저자: 홍수중, 울산의대 서울아산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메일 sjhong@amc.seoul.kr

A study of association between food allergy and mental health in children

Sungsu Jung¹, So-Yeon Lee², Hea Young Oh², Jisun Yoon³, Soo-Jong Hong²

¹Department of Pediatr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angsan, Korea.

²Department of Pediatrics,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There were few studies suggesting that allergic diseases are associated with the mental health in children.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food allergy may affec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 in school age children. Therefore, we aimed to analyze the effect of food allergy on the child Behavior Rating Scale (CBCL) in a general population-based birth cohort study.

Methods : We enrolled 1577 children aged 7 years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Food allergy was defined as ever diagnosis history, ever symptom history, and a specific food restriction history (more than 6 months in recent 1 year) in children aged 7 years through questionnaire. We analyzed the effect of food allergy on CBCL in 7 year-old children in a general population-based birth cohort study.

Results : Children aged 7 years with ever food allergy diagnosis history had higher T scores for internalizing problem, anxiety/depression, somatic symptoms, and DSM somatic problem than those without ever food allergy diagnosis history. And children with ever food allergy symptom had higher T scores for internalizing problem, problem behavior, somatic symptom, thinking problem and DSM somatic problem than those without ever food allergy symptom history. In addition, children with a specific food restriction had higher T scores for DSM somatic problem. Food allergy

diagnosis history, symptom history and a specific food restriction history increased the risk of subclinical DSM somatic problem.

Conclusion : Food allergy increased the risk of DSM somatic problems in children aged 7 years. It suggests food allergy can affect behavior and developmental problems in school aged-children. Therefore, we need to have special attention to mental health in school-aged children with food allergy.

- Key words: Children, Food allergy, Mental health, CBCL

식품알레르기와 아동 행동 및 정서발달의 연관성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가족연구실장)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연구의 큰 틀만 갖추어진 상태로서 선행연구 고찰이나 논의 및 결론 등이 더 구체화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구성이 보다 더 논리적인 설득력과 연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1장. 서론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행동 및 사회심리 발달의 어떤 측면과 구체적으로 연관성이 높은지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이 행동 및 사회심리 발달 측면에서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식품알레르기가 행동 및 사회심리 발달적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어떠한 논리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선행연구 등이 보다 촘촘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식품알레르기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알레르기가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연관성이 높은 선행연구들과의 논리적 연계성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2장 연구방법에서 2절을 연구도구 등으로 하여 식품알레르기 측정 문항이나 아동행동 평가 척도에 대한 소개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3장 연구결과에서 먼저, 표 1의 응답자 특성에서 표에 변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모 교육수준, 수입, 지역 등에 관한 내용도 기술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표 2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증상 빈도수 256명, 표3, 표4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증상 빈도 255명으로 빈도수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데 1명에 대한 불일치는 어디서 발생하였는지를 서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3의 경우에도 4절 결과 제시와 마찬가지로 통계분석 방법인 t검증에 대한 언급 후에 통계 결과가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 3의 경우에 총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문제 행동을 한 그룹으로,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그룹,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그룹 등으로 그룹별로 결과를 제시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통계치는 서술만 하고 통계표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의 경우에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 4에 대한 결과 서술을 별도로 작성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4절의 영향분석에 대한 표도 유의미한 결과 중심으로 제시하고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서술만 해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4장의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진단력, 증상 등이 내재화 문제와 신체적 문제와의 연관성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외현화된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는 이유에 관한 학술적인 논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설문지의 문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어 보인다. 설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본 연구에서의 문제점과 연계하여서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식품알레르기와 아동 행동 및 정서발달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식품알레르기와 아동의 내재화된 행동과의 연계성을 밝힌 것은 많은 학술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논리적 보강이 이루어질 때 연구자가 의도하는 바가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 화용언어 능력 예측 변인으로서 학령전 사회적 기술의 역할

이은주¹⁶⁾

요약

이번 연구에서는 학령전 유아기 사회적 기술이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를, 좀 더 측정 도구의 세부 평가 하위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6세 때 사회적 기술(협력성,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과 10세 때의 화용언어 능력(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관연구 결과 ‘협력성’ 사회적 기술은 상관계수 .21-.27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기술에 비하여 화용언어 능력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 사회적 기술은 화용언어 능력 하위 항목과 .상관계수 33-.37로 유사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화용언어 능력(결과 변수) 네 가지 하위 항목(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 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각각 개별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설명 변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담화관리를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 변수 중 협동성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주장성, 자기 통제, 책임성’의 순으로 담화관리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65.1, p<.001$).

이번 연구는 사회적 기술이 화용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떻게 관련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리고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가 통합된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와 중재 하위 항목에 대한 고민에 이번 연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주제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사회적 기술, 화용언어, 사회적 의사소통

1. 서론

아동기에 또래와 협력하고, 때로는 협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은, 이후 성인이 되어도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 또한 아동기 또래 문제는 이후 학령기의 학업 문제, 심리 문제, 학교 부적응, 비행과 학업 포기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변수이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그리고 의사소통의 결함 또

16)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는 문제는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는 일반아동들은 또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이지 않지만, 언어 사용과 같은 의사소통, 특히 화용언어의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 습득 및 활용에 어려움을 보인다(Gottman, 1983).

이처럼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 능력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 능력의 어떠한 세부 항목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Leyden & Shale, 2012).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일반아동 종단 데이터틀 이용하여 학령전 유아기의 사회적 기술이 이후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 하위 요인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대인 관계를 맺는 행동 기술’로 단순히 정의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신의학, 교육학, 특수교육, 언어병리학, 아동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에 따라서 그 구성 요인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심리적 측면(사회·정서문제), 개인 특성(연령, 성별, 성격, 지능, 언어, 지각, 판단, 태도), 환경(거주지역, 가족 환경, 가정 내 사회경제적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Merrell & Gimpel, 2016). 그러므로 사회적 기술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 능력, 또는 행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문 분야별로 사회적 기술을 다르게 정의하며, 그 구성 요인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보고는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에 대해 공통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 기술은 관찰과 모델링을 통해 주로 학습되며,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술은 구분되며, 맥락에 적합한 개시와 반응 모두가 사회적 기술에 포함된다고 하는 측면이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강화를 통해 가장 잘 형성되는 것이며,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또한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학문 분야와 상관없이 일치하는 정의 특성이다(Michelson, Sugai, Wood, & Kazdin, 1983).

Gresham(1986)은 사회적 기술에 대한 다양한 구성 요인들에 대한 정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또래 수용(peer acceptance), 행동 타당성(behavioral validity), 사회적 타당성(social validity)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하였다. 또래 수용은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와 또래 사이에서의 인기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는 것으로,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상자일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행동 타당성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 상황에 적합한 강화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대상자들은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은 원만한 또래 관계와 다수가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또래 수용도와 행동 타당성이 혼합된 특성으로 인기도로 정의할 수 있

다.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판단에 대해 민감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대상자들은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다.

Caldarella와 Merrell(1997)은 사회적 기술의 다양한 요인 및 차원 분석과 같은 다변량분석 방법의 적용, 그리고 사회적 기술 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크게 다섯 가지 사회적 기술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 영역으로 가장 많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또래 관계(peer relations)이다. 또래 관계는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들과 잘 어울리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술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주변 또래들에게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며, 상황에 적합하게 또래를 돕고, 놀이 활동에 또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작용을 잘 이끌어 가는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사회적 기술은 자기 관리(self-management) 기술이다. 자기 관리 기술은 화난 기분이나 상태를 스스로 잘 조절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타협할 수 있고, 타인의 비판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학업 기술(academic skills)로,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에 적극적이며 독립적으로 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대상자에게 제시된 교실 내 과제를 독립적으로 완수하기, 학업 숙제를 혼자 완성할 수 있는지,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사회적 기술에는 사회적 규율 준수(compliance)로, 이는 규칙 또는 사회적 기대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타인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요청 또는 요구에 잘 따라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술은 주장성(assertion)으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자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상호작용 시도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사회적 기술 요인들은 여러 내용을 포함하여 대상자의 연령 및 측정 내용에 맞는 용어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표 1〉 참조).

〈표 1〉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사회적 기술 5가지 영역

번호	요인	내용
1	또래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친사회적 행동, 또래 관계에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 공감, 사회적 참여, 사회적 리더십, 사회성
2	자기 관리	자기 통제력, 사회적 관습 수용, 사회적 독립성, 사회적 능력, 사회적 책임성, 좌절감에 대한 수용력
3	학업 기술	학교 규칙을 잘 따름, 학업 수행에 대한 책임감, 학급 활동 참여도, 학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는 능력
4	사회적 규율 준수	사회적 협동력, 협동 규칙에 대한 준수
5	주장성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회적 기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참조: Caldarella & Merrell(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 265-279.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언급되며 분류되고 측정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다섯 가지(또래 관계, 자기 관리, 학업 기술, 사회적 규율 준수, 주장성) 차원 분류는 과거 20년 넘게 여러 임상가와 연구자들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경험적 검증을 거친 내용들이다(Bukowski, Lausen, & Rubin, 2018; McGinnis & Goldstein, 1984; McGinnis, 2012; McGinnis, Sprafkin, Gershaw, & Klein, 2012; Merrell & Gimpel, 2016; Walker, Colvin, & Ramsey, 1995).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임상가 및 연구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사회적 행동과 부적합한 사회적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와 증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의 화용적 측면이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실제적인 언어 사용 측면을 화용언어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다(Prutting & Kirchner, 1987). Prutting과 Kirchner(1987)는 화용이란 의사소통에 있어 주제 개시(topic initiation), 주제 유지(topic maintenance), 말 차례 주고받기(turn taking), 맥락의 사용(use of context), 적절하게 끼어들기(interruption), 발화의 양(amount of talk), 발화 음성 강도와 크기(tone and volume), 눈 맞춤(eye contact), 표정 및 몸짓(facial expression and gesture), 신체적 거리(physical proximity)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화용의 결함은 발화 표현의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정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같은 다양한 행동 문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의가 적용되며(Adams, Baxendale, Lloyd, & Aldredge, 2005), 화용에 대한 평가에는 사회와 인지 기능에 대한 평가와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Adams, Green, Gilchrist & Cox, 2002).

화용 언어의 발달은 또래들과의 계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반아동에게서는 아주 어린 영아 시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만 2세 아동은 대화 상대자가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것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달하거나 상대의 질문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다(Furrow, 1984). 그리고 2세 이후부터 아이들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주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만 5세가 되면 말 차례 주고받기 중에 발화 수정 또한 가능하게 된다(Ervin-Tripp, 1979). 그리고 6-7세 아동에게서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메타화용 기술(metapragmatic skills)이 나타나기 시작한다(Andersen-Wood & Smith, 1997).

그리고 이후 학령기 아동들은 더욱 정교한 화용언어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은 다양한 화자나 사회적 교류 환경을 접하면서 대화 기술이 더욱 정교화된다. 즉, 주제 전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주장과 거부, 정보 공유, 타인과의 유대 관계 형성과 같은 화용 기술이 완성된다(Dore, 1974; McLaughlin, 1998; Searle, 1979).

그리고 학교 학업을 완수하는 과정을 통해 묘사, 비교, 대조, 설명, 분석, 가설, 추론, 평가와 같은 다양한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McLaughlin, 1998).

화용언어 기술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협력적 학습 형태인 모둠활동과 또래 간 사회적 교류 활동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Westby & Cutler, 1994). 화용언어 기술이 적절하게 발달한 아동들은 원만한 또래 상호작용을 유지해간다(Bierman, 2004). 그리고 놀이 활동에 주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거나 상호작용에 있어 말 차례를 주고받거나, 자신의 차례에 맞게 말차례를 주고받는 아동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Gottman, 1983). 주변 친구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동은 상황 맥락 필요에 따라, 대화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시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동은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또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Rubin, Bukowski, Parker, 1998).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모두의 공통점은 상호 관계 형성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 또는 능력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은 행동적인 측면을 통해 주로 관찰 가능하며, 화용언어는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발화 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부분 모두를 통해 관찰 및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 발달에 있어 조금 더 일찍 관계의 문제를 파악할 있는 부분은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문제는 화용언어 측면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학령전 유아기 사회적 기술이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를 좀 더 세부 하위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PSKC) 중 2014년 7차(6세)와 2018년 11차(10세)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초기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 2,150명을 초기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여 종단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변인 중 사회적 기술 변인에 대한 조사는 대상자가 6세 유치원 시기에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화용언어능력 변인 조사는 대상자가 10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평가가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의 평가가 모두 이루어진 대상자만을 연구 분석에 적용하였다(〈표 2〉 참조).

대상자에 대한 세부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7차와 11차 패널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들은 원표본 2,150명의 62.23%인 1,338명이 참여하였다. 성별 구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681명(50.89%), 여학생이 657명(49.10%)으로 성별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8년에 태어난 대상자들의 출생 월은 89.09%가 4-6월에 출생하였으며,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86.39%가 첫째(602명, 44.99%) 또는 둘째(554명, 41.41%) 순위였다. 거주지 규모에 있어서는 535명(39.99%)은 대도시에 거주하였으며, 724명(54.11%)은 중소도시, 77명(5.75%)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의 학교설립 유형은 국립이 114명(8.52%), 공립이 1,190명(88.94%), 사립이 20명(1.49%), 국제학교와 대안학교는 4명(.30%), 5명(.37%)이었다.

6세 유아 시기에 ‘사회적 기술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협력성 평균은 12.11, 주장성 평균은 26.15, 책임성 평균은 18.08, 자기통제 평균은 17.64, 사회적 기술 총점 평균은 73.98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10세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화용언어 능력은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담화관리 평균은 39.99점,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 평균은 53.74, 의사소통 의도 평균은 57.24,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균은 29.09, 화용언어 능력 종합 점수 평균은 180.06점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	Sample (n=1,338)		M	SD	Range	Variance
	n	%				
성별						
남학생	681	50.89				
여학생	657	49.10				
2008년 출생월						
4월	310	23.17				
5월	488	36.47				
6월	394	29.45				
7월	146	10.91				
출생순위						
첫째	602	44.99				
둘째	554	41.41				
셋째	131	9.79				
넷째	12	.91				
다섯째 이상	2	.15				

요인	Sample (n=1,338)		M	SD	Range	Variance
	n	%				
결측	37	2.77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535	39.99				
중소도시	724	54.11				
읍/면	77	5.75				
결측	2	.15				
학교설립유형						
국립	114	8.52				
공립	1,190	88.94				
사립	20	1.49				
국제(외국인)학교	4	.30				
대안학교	5	.37				
기타	1	.07				
결측	4	.30				
사회적 기술(K-SSRS)						
협력성(C)			12.11	2.43	6-18	5.89
주장성(A)			26.15	3.95	13-33	15.67
책임성(R)			18.08	2.64	9-24	6.98
자기통제(S)			17.64	2.47	9-21	6.11
SSRS total			73.99	9.64	39-96	92.96
화용언어 능력(CPLC)						
담화관리(DM)			39.99	5.31	10-50	28.16
상황 적용 및 조절(CV)			53.74	6.87	13-65	47.15
의사소통 의도(CI)			57.24	7.30	14-70	53.28
비언어적 의사소통(NC)			29.09	3.69	7-35	13.59
CPLC total			180.06	22.23	45-220	494.26

K-SSRS = Social skills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2. 측정 변인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SSRS, Grasham & Elliot, 1990)’를 국내에서 타당화 한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K-SSRS, 서미옥, 2004)’를 이용하였다. 화용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동 화용언어 체크리스트(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를 이용하였다.

가. 사회적 기술(K-SSRS)

Grasham & Elliot(1990)의 부모평정용 사회적 기술 측정 문항은 본래 39 문항인데 서미옥(2004)의 국내 타당화를 통해 32문항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아동패널(Pana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은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검토/수정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하였다.

한국판 부모 평정용 유아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Parent Form Preschool Level: K-SSRS-PF) 32문항 척도는 모두 3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총 만점은 96점이다. 부모 평정용 K-SSRS는 긍정적인 행동(positive behaviors), 친사회적 기술(prosocial skills),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협력성(Cooperation: C, 6문항), 주장성(Assertion: A, 11문항), 책임성(Responsibility: R, 8문항), 자기통제(Self-control: S, 7문항)와 같은 CARS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1점, 매우 자주 그렇다-3점)에 따라 하위항목별 점수 범위도 차이가 있다. 협력성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6-18점이다. 그리고 주장성은 11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11-33점, 책임성은 8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8-24점, 자기통제는 7문항으로 점수범위는 7-2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 문항 32문에 대한 점수 범위는 32-96점이다. 자세한 K-SSRS-PF의 하위 영역과 문항 예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하위 문항 주요 내용에 대한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다.”, “다른 아이와 다룰 때, 감정을 잘 처리한다.”, “친구를 쉽게 사귀다.” 등을 들 수 있다. 4가지 하위영역 평가 결과(CARS)에 대한 부모평정결과 신뢰도는 .83이었다.

<표 3> SSRS 하위항목과 문항수

SSRS 하위 항목	세부 내용	문항수	점수 범위
협력성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됨.	6	6-18
주장성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동료를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됨.	11	11-33
책임성	놀이를 할 때 규칙과 순서를 지키기, 부모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기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항으로 구성됨	8	8-24
자기통제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됨.	7	7-21
합계		32	32-96

나. 화용언어 능력(CPLC)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는 국내외 화용언어검사 도구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정하고 수정하여 전체 44문항 4개 하위영역(담화관리, 상황·청자·맥락 조건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형 평가도구이다. CPLC는 현재 예비표준화를 거쳐 검사자 간 신뢰도, 문항내적 일치도, 공인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 그리고 일반아동 및 화용언어장애가 있는 아동 간의 대화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대화기술, 의사소통 능력 측정치와 CPLC 결과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화용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소정, 2018a, 2018b).

CPLC 4개 하위 영역의 내용은 대화 시 주제 개시/유지/변경이나 차례 주고받기와 관련된 담화관리(Discourse management, 10문항)와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게 말 내용이나 말투 등을 조정하는 능력인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Contextual variation, 13문항),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의 표현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on function, 14문항), 대화 시 상대방과의 거리, 눈맞춤,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 7문항)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Lee, 2019; Lee & Oh, 2019). 자세한 CPLC의 하위 영역과 문항 예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CPLC 측정에 있어서는 양육자나 아동을 잘 아는 성인이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화용능력을 각 문항에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러하다 3점까지)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SKC에서는 다른 검사도구들과의 측정 호환 편의성을 고려하여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러하다 5점까지)로 변환하였으며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저자의 검수를 거쳐 일부 어휘나 표현을 매끄럽게 수정하였다. 수정한 문장은 7개, 예를 추가한 문항은 3개였으며 대부분 문어체 수정 등의 문항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수정이었다.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러하다-5점)에 따라 하위 항목별 점수 범위도 차이가 있다. 담화관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10-50점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 능력은 13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13-65점, 의사소통 의도는 14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14-70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7문항으로 점수범위는 7-3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 문항 44문에 대한 점수 범위는 44-220점이다(<표 4> 참조).

〈표 4〉 CPLC 하위항목과 문항수

CPLC 하위 항목	세부 내용	문항수	점수 범위
담화관리	주제관리(제시, 유지, 전환), 의사소통 단절 수정, 대화 차례 주고 받기 등 대화 차례나 주제를 조정하고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실패를 수정하는 능력	10	10-50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전제 능력, 언어 사용역, 참조 기술 등 의사소통 상황의 맥락을 이용하여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결정하는 능력	13	13-65
의사소통 의도	의사소통 기능의 다양성, 성숙도(인지적 성숙에 따른 상급 의사소통 기능), 간접적 표현 등	14	14-70
비언어적 의사소통	눈 맞춤, 표정, 몸짓(gesture), 신체적 접촉 및 거리 등 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7	7-35
합계		44	44-220

3. 연구 절차

PSKC 홈페이지(<https://panel.kicce.re.kr/panel/index.do>)에 제시된 2014년 7차(6살) K-SSRS-PF 평가결과 데이터와 2018년 11차(10살) CPLC 평가 결과 데이터를 측정 변인으로 하여, 학령전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학령기의 화용언어 능력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종단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 방법

7차와 11차 연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 아동 패널에 대한, 측정 변수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2가지 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 대상자가 학령전인 6세 때의 사회적 기술(협력성[Cooperation, C], 주장성[Assertion, A], 책임성[Responsibility, R], 자기통제[Self-control, S])과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 10세 때의 화용언어 능력(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결과 간의 관련성에 대해 상관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여 상관계수 값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용언어능력을 예측하는 CARS 사회적 기술 측정 변수는 무엇이며 예측정도는 어떠한지를 중다회기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과정에서 화용언어능력 측정 결과는 4가지 하위 항목(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별 목적변수가 CARS 사회적 기술에 의해 설명되는 계수 값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 능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기술의 4가지 하위 항목인 협력성, 주장성, 책임성, 자기통제와 화용언어 능력 4가지 하위 항목 담화관리, 상황조절,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든 하위 항목들은 유의미 수준 .001 이하로 상관계수는 .21 이상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상관 결과를 세부 하위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기술 하위 항목 중 협력성 부분은 상관계수 .21-.27로 다른 하위 항목(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이 .33-.42의 상관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즉, 협력성 사회적 기술은 다른 세 가지 사회적 기술(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과 비교하였을 때 화용언어 능력 변인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표 5〉 CPLC 하위항목과 문항수

하위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 협력성	-									
2. 주장성	.46***	-								
SSRS 3. 책임성	.58***	.70***	-							
4. 자기 통제	.51***	.62***	.71***	-						
5. SSRS 합계	.73***	.88***	.89***	.84***	-					
6. 담화 관리	.27***	.36***	.36***	.36***	.40***	-				
7. 상황 조절	.23***	.34***	.34***	.36***	.39***	.89***	-			
CPLC 8. 의사소통 의도	.27***	.38***	.37***	.36***	.42***	.91***	.92***	-		
9. 비언어적 의사소통	.21***	.33***	.33***	.35***	.37***	.85***	.88***	.87***	-	
10. CPLC 합계	.26***	.37***	.37***	.37***	.41***	.95***	.97***	.97***	.92***	-

*** $p < .001$

2. 화용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

화용언어 능력(결과 변수) 네 가지 하위 항목(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용 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각각 개별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설명 변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산분석과 회귀계수 분석 결과를 〈표 6-9〉에 제시하였다.

가. 담화관리

사회적 기술 네 가지 독립변수로 담화관리 화용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협력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65.1,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담화관리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담화관리 총변량의 17%(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담화관리 화용언어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장성($t=4.38$, $p=.000$), 책임성($t=2.64$, $p=.008$), 자기 통제($t=4.24$, $p=.000$)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주장성, 자기 통제, 책임성의 순으로 담화관리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담화관리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분산분석과 회귀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선형회귀분석	6,170.20	4	1,542.55	65.10	.000
잔차	30,851.20	1,302	23.70		
합계	37,021.40	1,06			
R^2 (adj. R^2) = .17 (.16)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협력성	.09	.07	.04	1.33	.182
주장성	.22	.05	.16	4.38***	.000
책임성	.23	.09	.11	2.64**	.008
자기 통제	.34	.08	.16	4.24***	.000
(상수)	23.09	1.06		21.77***	.000

*** $p < .001$, ** $p < .01$

나. 상황 조절과 적응능력

사회적 기술 네 가지 독립변수로 '상황 조절과 적응' 화용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협력성과 책임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주장성, 자기통제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61.05,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담화관리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담화관리 총변량의 1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상황 조절과 적용’ 화용언어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장성($t=4.18$, $p=.000$), 자기 통제($t=5.31$ $p=.000$)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자기 통제, 주장성의 순으로 ‘상황 조절과 적용’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책임성은 상황 조절과 적용 화용언어 능력을 유의수준 .05에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의수준 .1 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7〉 참조).

〈표 7〉 상황 조절과 적용 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분산분석과 회귀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선형회귀분석	9,757.82	4	2,439.45	61.05	.000
잔차	52,028.24	1,302	39.96		
합계	61,786.06	1,306			
R^2 (adj. R^2) = .16 (.16)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협력성	.04	.09		.46	.645
주장성	.27	.06	.02	4.18***	.000
책임성	.22	.11	.16	1.95 ⁺	.051
자기 통제	.56	.11	.08	5.31***	.000
(상수)	32.48	1.38	.20	23.57***	.000

*** α .001, ** α .01, ⁺ α .1

다. 의사소통 의도

사회적 기술 네 가지 독립변수로 의사소통 의도 화용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협력성과 책임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주장성, 자기 통제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69.84,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의사소통 의도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의도 총변량의 1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의사소통 의도 화용언어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장성($t=5.88$, $p=.000$), 자기 통제($t=3.74$ $p=.000$)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주장성, 자기 통제의 순으로 의사소통 의도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8〉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분산분석과 회귀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i>p</i>
선형회귀분석	12,337.60	4	3,084.40	69.84	.000
잔차	57,502.06	1,302	44.16		
합계	69,839.66	1,306			
R^2 (adj. R^2) = .18 (.17)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p</i>
	B	표준오차			
협력성	.14	.10	.05	1.46	.146
주장성	.40	.07	.22	5.88***	.000
책임성	.24	.12	.09	2.07*	.038
자기 통제	.41	.11	.14	3.74***	.000
(상수)	33.54	1.45		23.16***	.000

*** α .001, ** α .01, * α .05, † α .1

라. 비언저적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네 가지 독립변수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협력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54.67,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의사소통 의도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의도 총변량의 1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장성($t=3.79$, $p=.000$), 책임성($t=2.22$ $p=.035$), 자기 통제($t=5.25$ $p=.000$)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자기 통제, 주장성, 책임성의 순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9〉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분산분석과 회귀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i>F</i>	<i>p</i>
선형회귀분석	2,541.68	4	635.42	54.67	.000
잔차	15,133.24	1,302	11.62		
합계	17,674.91	1,306			
R^2 (adj. R^2) = .14 (.14)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협력성	-.012	.05	-.008	-.25	.803
주장성	.13	.04	.14	3.79***	.000
책임성	.13	.06	.09	2.22*	.035
자기 통제	.30	.06	.20	5.25***	.000
(상수)	18.27	.74		24.59***	.000

*** $p < .001$, ** $p < .01$, * $p < .05$, † $p < .1$

IV. 논의 및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학령전 유아기 사회적 기술이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를, 좀 더 세부 하위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6세 때 사회적 기술(협력성,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과 10세 때의 화용언어 능력(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관연구 결과 사회적 기술 세부 항목 모두의 합계점수는 개별 하위 항목 점수에 비하여 화용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변수로써 상관도 .37이상 .42이하, 그리고 유의미도는 .000으로 하위 항목 점수별로 구분된 값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기술 개별 하위 항목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협력성’ 사회적 기술은 상관계수 .21-.27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적 기술에 비하여 화용언어 능력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 사회적 기술은 화용언어 능력 하위 항목과 상관계수 .33-.37로 유사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화용언어 능력(결과 변수) 네 가지 하위 항목(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각각 개별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설명 변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담화관리를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 변수 중 협동성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주장성, 자기 통제, 책임성’의 순으로 담화관리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65.1$, $p < .001$). 그리고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을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 변수 중 협동성과 책임성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기 통제, 주장성’의 순으로 상황 조절 및 적응능력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61.05$, $p < .001$). 의사소통 의도를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 변수 중 협동성과 책임성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주장성, 자기 통제’의 순으로 의사소통 의도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69.84$, $p < .001$).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의사

소통을 예측하는 사회적 기술 변수 중 협동성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기 통제, 주장성, 책임성’의 순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F=54.67$, $p<.001$).

이러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술 4개 하위항목에 대한 합계점수는 화용언어 능력 하위 영역 또는 합계 점수 모두에 가장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적 기술의 한 항목보다는 종합적인 사회적 기술이 화용언어 능력과 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술은 단편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통해서만이 좀 정확한 사회적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둘째, 사회적 기술 중 협력성 사회적 기술은 화용언어 능력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성 사회적 기술이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다,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집안일을 한다, 자발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다,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방을 청소한다, 장난감이나 집안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처럼 타인의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주변 상황에 맞게 행동하여 주변 사람들을 돕는 항목들로 상황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협력성을 화용언어적 측면과 관련을 짓는다면 주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행동하는 것은 좀 더 상위의 메타화용적 측면으로 이러한 부분을 화용언어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 항목과 관련 짓는 것은 좀 더 세심한 화용적 측면을 평가하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후 화용언어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 평가항목에는 이러한 협동성의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사회적 기술 항목 중 또래 관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kowski, Lausen, & Rubin, 2018; McGinnis & Goldstein, 1984; McGinnis, 2012; McGinnis, Sprafkin, Gershaw, & Klein, 2012; Merrell & Gimpel, 2016; Walker, Colvin, & Ramsey, 1995).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K-SSRS; 서미옥, 2004)는 또래 관계라는 항목보다는 주장성(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전화를 적절하게 받는다, 친구를 쉽게 사귀다, 집단 모임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집단 활동에 참여한다, 타인에게 인기가 있다, 가게 점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요청한다)과 자기 통제(부모님의 지시에 따른다, 집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가족 구성원의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허락을 얻는다,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킨다, 부모의 지시에 귀를 기울인다, 게임이나 다른 활동에서 순서를 지킨다)라는 요인 항목으로 또래 관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 주장성과 자기 통제 사회적 기술이 화용언어 능력의 모든 하위 항

목들을 예측하는 설명변수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또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술은 화용언어 및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협력성 이외의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 사회적 기술은 화용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중 책임성은 담화관리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만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K-SSRS(서미옥, 2004)의 책임성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를 공손히 거절한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은 피한다, 부모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한다, 다른 아이와 다룰 때, 감정을 잘 처리한다,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날을 축하한다, 부모와 차분하게 의견 차이를 타협한다.” 등이었다. 이러한 책임성 항목들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타협하는 처리 기술들로, 의사소통 상대자의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의도를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임성 사회적 기술은 주제관리와 대화 차례 주고받기, 의사소통 수정과 같은 담화관리 화용언어 능력과 눈맞춤과 표정 제시처 신체적 접촉 및 거리를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화 상대자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여 반응하고, 상대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미묘한 암시적 의미를 이해하여 그에 맞게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감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SSRS 사회적 기술 척도에서는 책임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기술 평가도구에 따라 그 하위영역을 어떠한 용어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SSRS는 ‘사회적 기술 향상 시스템(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SSIS, Gresham & Elliott, 2007)’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평가지에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성(Cooperation), 주장성(Assertion), 책임성(Responsibility), 공감(Empathy), 약속(Engagement), 자기통제(self-control) 등 7가지 하위영역으로 좀 더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세분화 된 하위 범주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화용언어가 다른 범주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화용언어 능력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연령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발달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를 분류하여 검사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평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 능력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별 평가항목을 구성에 있어 사회성과 언어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문항을 작성하는 것 또한 올바른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또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우선 의

미가 있다. 사회적 소통이 강조되는 근래에 화용언어 또는 사회적 의사소통 역량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폭 넓은 범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 사회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한 답은 없다. 이번 연구는 사회적 기술이 화용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떻게 관련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리고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가 통합된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와 중재 하위항목에 대한 고민에 이번 연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에서의 사회적 기술 평가는 패널이 6세 학년전 아동 때 이루어졌다. 그리고 화용언어 능력은 10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일 때 평가가 된 데이터이다. 연구 구제에서 밝혔듯이 학령전의 사회적 기술이 학령기 아동이 되었을 때 화용언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은 의미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화용언어 능력이 6세 때에도 측정이 되어 시간 경과에 의해 사회적 기술이 화용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지도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참고문헌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언어치료 연구*, 21(2), 111-135.
- 오소정(2018a).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의 타당도 연구. *언어치료연구*, 27(2), 125-134.
- 오소정(2018b).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와 대화관찰 간 상관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3(1), 109-118.
- Adams, C., Baxendale, J., Lloyd, J., & Aldredge, C. (2005). Pragmatic language impairment: Case studies of social and pragmatic language therapy. *Child Language Teaching & Therapy*, 21, 227-250. doi:10.1191/0265659005ct290oa
- Adams, C., Green, J., Gilchrist, A., & Cox, A. (2002). Conversational behaviour of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679-690. doi:10.1111/1469-7610.00056.
- Andersen-Wood, L., & Smith, B. R. (1997). *Working with pragmatics*. London, United Kingdom: Winslow Press.
- Bierman, K. L. (2004).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rocess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New York, NY: Guilford.
- Bukowski, W. M., Laursen, B., & Rubin, K. H. (Eds.). (2018). *Handbook of peer*

- interactions, relations, and groups (2nd ed.)*. NY: The Guilford Press.
-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 265-279.
- Dore, J. (1974). A pragmatic description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4, 343-350. doi:10.1007/BF01068169.
- Ervin-Tripp, S. (1979). Children's verbal turn-taking. In E. Ochs & B. Schiefflin (Eds.), *Developmental pragmatics* (pp. 391-414). New York, NY: Academic Press.
- Furrow, D. (1984). Social and private speech at 2 years. *Child Development*, 55, 355-362. doi:10.2307/1129948.
- Gottman, J. 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2, Serial No. 201). doi:10.2307/1165860.
- Gresham, F. M. (1986). Conceptu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P. S. Strain, M. J. Guralnick, and H. M. Walker (Eds.), *Children's social behavior: Development, assessment, and modification* (pp. 143-179). New York: Academic Press.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 Gresham, F. M., & Elliott, S. N. (2007).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SSIS)*. Pearson, Inc.
- Lee, E. J. (2019). The relation between mental verbs utilization and child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scores in the story retelling task: 6 to 9 aged children.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3), 608-622. <https://doi.org/10.12963/csd.19632>
- Lee, E. J., & Oh, S. J. (2019). Association between pragmatic language competence and emotional/behavioral outcomes of 3rd graders in elemental school.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4), 906-924. <https://doi.org/10.12963/csd.19671>
- Leyden, R., & Shale, E. (2012). What teachers need to know about: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Victoria: ACER Press.
- McGinnis, E. (2012). Skill streaming. The elementary school child: A guide for teaching prosocial skills (3rd ed.). Champaign: Research Press.
- McGinnis, E., & Goldstein, A. P. (1984). Skillstreaming for the elementary-age child.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McGinnis, E., Sprafkin, R. P., Gershaw, J., & Klein, P. (2012). Skill streaming. The

- elementary school child: A guide for teaching prosocial skills (3rd ed.).
Champaign: Research Press.
- McLaughlin, S. (1998). *Introduction to language development*. San Diego, CA: Singular.
- Merrell, K. W., & Gimpel, G. A. (2016).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2nd ed.). NY: Psychology Press.
- Michelson, L., Sugai, D., Wood, R., & Kazdin, A. E. (1983). *Social skills assessment and training with children: An empirical handbook*. New York: Plenum.
- Prutting, C. A., & Kirchner, D. M. (1987). A clinical appraisal of the pragmatic aspects of langu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2), 105-119. doi: 10.1044/jshd.5202.105.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619-700). New York, NY: Wiley.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pp. 571-645). New York: Wiley.
- Searle, J.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MA: University Press.
- Walker, H. M., Colvin, G. R., & Ramsey, E. R. (1995).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setting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Westby, C. E., & Cutler, S. K. (1994). Language and ADHD: Understanding the bases and treatment of self-regulatory deficit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4, 58-76.

• 교신저자: 이은주,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imfedra@naver.com

The Role of Social Skills in Preschool as a Predictor of Pragmatic Language Competence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EunJu Lee

In the present study, Researcher explored how pre-school age social technology relates to the verbal language skills of school-age children, and how they are classified by sub-items of detailed evaluation of more measurement tools,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data were based on the 7th (6 years old) in 2014 and 11th (10 years old) in 2018 during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first sample of the PSKC selected 2,150 children born between April and July 2008 for the initial sample, and a long-term study is underway. The survey on social skills variables applied to this study was conducted when the subjects were 6 years old in kindergarten, and the pragmatic language competence survey was conducted when the subjects were 10 years old in four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only those who were evaluated at both times were applied to the study analysis. A panel sample of 1,338 children, or 62.23% of the 2,150 original samples, participated in both the 7th and 11th panels.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social skills (Cooperation, Assertion, Responsibility, Self-control) at age 6 and pragmatic language's competence at age 10 (Discourse management, contextual adjustment and application, communication intention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Assertion, responsibility, and self-control social skills were related to pragmatic language competence, of which responsibility was a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 that predicted only discourse management and nonverbal communication.

The study found that assertion and self-control social skills were significant as explanatory variables predicting all the sub-scales of pragmatic language competence, which can be understood as meaningful results to confirm that social skills that affect peer relationship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pragmatic language and social communication.

The K-SSRS assessments used in the study included "Gives compliments to other children, Appropriately tells when he thinks you have treated him unfairly, Ends disagreements calmly, Controls temper in conflict with peers, Controls temper in conflicts, Cooperates with family members, Compromise with parents or teachers when we have disagreements" These items of responsibility require processing skills that control and compromise your emotions and others' emotions, and skills that communicate by identifying the verbal and non-verbal intentions of your communication partner. Therefore, these responsible social skills seem to have acted as variables for predicting discourse language skills such as topic management, conversation turn, and communication modification, as well as non-verbal communication through eye contact, facial expressions, gestures, physical contact and distance.

In order to maintain communication with the interlocutor, it is necessary to empathize with the other person's position and understand the subtle implications of non-verbal expressions that the other person does not express in words and understand the language accordingly. This empathy and understanding of non-verbal representations are classified as responsibility on the K-SSRS social skills scale. However, this part may vary depending on the social skills assessment tool, depending on the terms in which the sub-region is classified. Currently, K-SSRS has been revised to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SSIS, Gresham & Elliott, 2007' and revised assessments include communication, cooperation, assertion, empathy, and self-control. In these sub-scales, non-verbal communication will be represented in relation to other categories of social skills. Therefore, rather than evaluating everything perfectly, the most desirable evaluation proposal is to classify social skills and pragmatic language that should be developed most appropriately for age. In addition, questions

with social skills and pragmatic language relevance in constructing individual evaluation items will also be a way to evaluate the correct social communication skills or competence.

This study is a meaningful study that clearly presents how social skills is involved in the pragmatic language and social communication. Since then, the study is believed to have served as a good opportunity to present directions to assess social communication that incorporates social skills and pragmatic languag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consider sub-items of mediation.

- Key words: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Social skills, Practical Language, Social Communication

초등학교 4학년 아동 화용언어 능력 예측 변인으로서 학령전 사회적 기술의 역할

김수진(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6세 때 사회적 기술(협력성, 주장성, 책임성, 자기 통제)과 10세 때의 화용언어 능력(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및 적응능력,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관과 회귀로 그 관계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언어의 총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용언어능력 예측 변수들 중 사회적 기술과의 관련성 살펴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짐작이 될 뿐 사회적 기술이 화용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떻게 관련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등이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용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술과 화용언어가 통합된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와 중재 하위 항목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패널 데이터 수집이 청소년 후기까지 수집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보다 훌륭한 연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궁금한 점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 담았으면 하는 몇 가지 생각할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6세의 사회적 기술은 과연 10세의 사회적 기술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10세에 사회적 기술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평가 결과가 아동패널 데이터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화용능력이 6세에는 없어서 지속되는지 볼 수 없겠지만 5년 뒤 15세 이후에 화용능력의 종단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령별 변수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연구자보다는 아동패널 데이터 기획 단계에 관계자들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세때 조음발달을 보았는데 조음문제가 12세에도 지속되는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구자가 살펴본 변수-사회적 기술, 화용언어 능력-의 종단적 발달도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되었으면 합니다.

2. 논문 내용 안에서 연구방법 기술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형제... 학교설립 유형 등은 패널의 균형잡힌 데이터 임을 전제합니다. 굳이 연구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변인에 대한 요약들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2) 도구: 화용적 기술

응답자가 부모나 잘 아는 사람이 기술했다고 하는데 부모와 교사 중 특정할 필요가 있고,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응답자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10세의 화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6세의 사회적 기술만 있었을까요? 화용언어라는 큰 변수에 대해서 특정 시점의 사회적 기술로만 주제가 한정된 것이 아쉬웠는데, 다른 요인들 중 사회적 기술을 주요 변인으로 본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동패널 자료를 살펴보면 어휘나 구문 문제해결력, 지능 등의 요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화 특히 화용적 성공경험을 계속 제공하게 되면, 학령기 아동의 화용 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패널 데이터는 구슬 상태. 잘 꿰어 보물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분석 방법으로 상관과 회귀로는 현상에 대한 기술에 그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변수들 간에 .3 내외의 상관을 보인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통계방법을 동원한다면 매개 변수 혹은 종단적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개 변수들의 영향력도 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이후 화용 발달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다층성장모형을 통해서 유사한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는 아동들도 다른 화용적 발달의 궤적을 추적하고 그 매개변수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발표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래 연구 변수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과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박원정¹⁷⁾ 정하은¹⁸⁾ 김선영¹⁹⁾

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양육태도)과 양적 특성(양육시간)이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아동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아동패널 조사 4차년도와 8차년도에 참여한 아동과 주 양육자 총 1,2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 질적 특성이 유아기 및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양육 질적 특성이 아동의 표현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 아동 집단과 언어발달지연 집단 간 사회적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자의 양육 특성이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아동 언어발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은 언어발달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언어발달 패턴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언어발달, 사회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양육시간, 종단 연구

1. 서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 이정표 중 하나는 언어발달이다. 언어발달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기본으로서(장보경·이연구, 2009) 인지적 개념의 형성과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되며 삶에 필요한 가치나 태도 등을 학습하도록 돕는다(Mussen, 1990). 또한 아동은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표현하며,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감정 교류 방법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발달지연 문제는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과 같은 여러 발달 영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Hinshaw, 1992; Najman, Aird, Bor, Callaghan, & Williams, 2004; Owens, 2001; 김영태, 2002).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령기 이

17)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18)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19)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후 읽기 수행력(Larney, 2002), 학업 성취도(Bernal & Keane, 2011; Duncan, Dowsett, Claessens, Magnuson, Huston, Klebanov, ... Japel, 2007; Fagan, Holland, & Wheeler, 2007; 김은주·김동일·박경숙·안수경, 2002), 정서·행동적 측면(Baker & Cantwell, 1987) 등 여러 영역에서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른 시기인 유아기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를 조기에 선별하고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Montgomery, Gillam, & Evans, 2021; 천소연·임동선, 2017; 임동선·김영태·양윤희, 2016; Yim & Windsor, 2011; 김소연·정연경·정혜리·김우택·신임희·박정한·김행미·김진경, 2004).

유아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내적 요인으로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대균·김주영·임자영·박지선, 2009; 장유경·이근영, 2006; Bloom, Beckwith, & Capatides, 1998), 인지 능력(Rutter & Mawhood, 1991),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임현주, 2014; Mashburn, Justice, Downer, & Pianta, 2009) 등이 있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출생 순위(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 윤복희·김은영·박혜경·최일선, 2013; 최지현·성현란, 2010), 사회경제적 지위(이지연·이근영·장유경, 2004; Hart & Risley, 1995), 양육태도 등이 있다(공영숙·임지영, 2011; 김연, 2011; 문혁준, 2000; Bullock & Pennington, 1988). 이 중에서 유아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언어발달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ochran-Smith, 1984; Girolametto, Hoaken, Weitzman, & Lieshout, 2000; 성미영, 2003; 이지연 외, 2004). 유아기의 아동은 성인인 주 양육자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아동 자신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성인의 반응을 통해 자연스러운 언어 및 상호작용 발달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일상에서 주 양육자가 보이는 반응 방식과 태도,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 등과 같이 양육 과정에서 보이는 성인의 의사소통 행동 즉, 성인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은 유아의 언어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소현아·김명순, 2010; 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이문옥, 1997; Taylor, 1983; Hart & Risley, 1981).

유아기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으로는 반응적, 온정적, 사회적, 통제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태도 등이 있다(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 1999).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양육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사회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유아의 수용언어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임현주·최항준, 2017). 이와 같이 주 양육자가 보이는 사회적,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이 인지적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공동주의능력 및 언어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권정윤·정미라·이방실, 2015; Raviv, Kessenich, & Morrison, 2004).

사회적 양육태도 뿐 아니라 통제적, 지도적 양육태도 또한 유아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아의 언어발달과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 간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의 합리적 지도 행동이 아동의 전반적 언어발달 및 표현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에서의 합리적 지도 행동은 통제적 양육 특성으로 분류되며,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되지 못할 행동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는 행동 특성을 이룬다(김현, 2010). 반면, 학령전기 일반 및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발달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어머니가 일반 유아에 비해 높은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경우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지옥·김명찬, 2015). 이와 같이, 일련의 선행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해 밝혀왔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양육 질적 특성 뿐 아니라 양적 특성 즉, 주 양육자가 유아와 보내는 시간 또한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홍주·조수경·김미정·최항준, 2014).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보육 유아와 보육시설 재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에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ckerman-Ross & Khanna, 1989). 특히, 부와 모가 자녀의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louri & Buchanan, 2004),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서희·성지현, 2014). 또한, 아버지 양육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아동의 발달 지연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손병덕·허계형, 2017). 이와 같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및 언어발달에 부모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적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양육자의 양육 특성은 유아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향력은 동 시기인 유아기 뿐 아니라 학령기인 아동기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10). 특히, 유아기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진영·장재숙, 2003), 학령 전기에 양육자가 보이는 사회적 양육태도가 이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 수행 적응, 또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정·곽금주,

2013). 마찬가지로, 유아기에 양질의 육아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더 높은 학업 능력, 더 나은 사회적 기술, 교사 및 또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mrud-Clikeman, 2007).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동 시기인 유아기 뿐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아동기의 언어발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이 아동의 언어발달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 특성이 해당 시기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유아기 부모의 양육 특성이 이후 아동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기이자 학령전기에 부모가 보였던 양육 특성이 학령기인 아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부모가 나타내는 양육의 질적 특성 중 사회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그리고 양육의 양적 특성인 양육 참여 시간이 동 시기인 유아기, 그리고 이후 시기인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두 연구 데이터 수집 시점의 언어발달 수준을 기준으로 전체 아동을 일반 아동, 언어발달 지연 아동, 일반 수준 도달 아동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유아기 부모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기 부모의 양육 특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과 유아기 및 아동기의 수용·표현 언어발달 수준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가?
- 2)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 요인은 유아기 및 아동기 수용·표현 언어발달 수준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가?
- 3) 일반 아동 집단,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일반수준 도달 아동 집단 간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과 부모, 가족, 지역사회, 육아지원 정책 등을 다층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한국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종단 연구이며, 2008년에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유아기와 아동기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4차년도(2011년) 데이터와 8차년도(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양육시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4차년도(2011년) 부와 모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였다. 전체 데이터 중 결측치가 없는 전체 1,233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집단별 비교 분석이 실시되었다. 집단 비교를 위해 전체 아동을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s; REVT, 김영태 외, 2009)를 바탕으로 일반 아동 집단,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일반 수준 도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4차년도와 8차년도 모두 수용 또는 표현 언어 능력 백분위 점수가 10%ile 이상이며,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에는 4차년도와 8차년도 모두 수용 또는 표현 언어 능력 백분위 점수가 10%ile 미만인 아동이 포함되었다. 일반 수준 도달 집단에는 4차년도 데이터에서 수용 또는 표현 언어 능력 백분위 점수가 10%ile 미만이었으나 8차년도 데이터에서 수용 또는 표현 언어 능력 백분위 점수가 10%ile 이상인 아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집단 구분에 따라 전체 대상자(N=1,233) 중 일반 아동 집단에 732명,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에 156명, 일반 수준 도달 집단에 135명이 배치되었다. 이후, 분석 과정에는 일반 수준 도달 집단 135명과 성별 및 월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135명,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135명의 데이터가 무선 표집(random sampling)되었다. 전체 아동 및 집단별 아동에 대한 월령(4차년도, 2011년 기준), 성별에 관한 기술 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전체 및 집단별 대상자 기술통계량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전체 (N=1,233)	일반 아동 집단 (n=135)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n=135)	일반 수준 도달 집단 (n=135)
월령(2011년 기준)	38.81(1.36)	38.51(1.46)	38.53(1.38)	38.30(1.43)
성별(명)	남 633, 여600	남77, 여58	남80, 여55	남76, 여59

※ 도표 내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됨

2. 연구 도구

가.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검사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김영태 외, 2009)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대상자의 수용어휘 능력과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 도구는 명사 98개(53.0%), 동사 68개(37.0%), 형용사 및 부사 19개(10.0%) 등의 수용어휘 문항 185개(100%)와 명사 106개(57.3%), 동사 58개(31.3%), 형용사 및 부사 21개(11.4%)의 표현어휘 문항 185개(100%) 총 2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그림 및 목표 어휘 노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표현어휘 검사를 먼저 실시하며 검사자가 아동에게 그림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목표어휘를 산출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용어휘 검사는 네 개의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 중, 검사자가 말하는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아동이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각 문항에는 1점씩 배점되며 원점수에 따른 등가연령 및 백분위 점수가 산출된다. 또한 아동이 취득한 점수가 10%ile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언어발달지연으로 판정하며, 연령에 따라 규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의 학령전기 연령집단의 재검사 신뢰도는 수용언어 .84, 표현언어 .89였으며, 반분신뢰도는 수용언어 .94, 표현언어 .95로 나타났다(김영태 외, 2009).

나. 어머니 양육태도 (사회적·통제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태도 측정에는 Bornstein 외(1996)가 개발한 양육 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을 사용하였다. PSQ는 본래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양육 유형, 가르치는 양육 유형, 한계설정 양육 유형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PSQ의 3개 요인 중 ‘사회적 양육 유형’ 9개 문항만을 발췌하여 조사하였다. ‘사회적 양육 유형’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양육 유형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이 있다. PSQ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사회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태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 측정에는 조복희 외(1999)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양육 행동 척도가 사용되었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본 척도 중 '통제적 양육' 8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통제적 양육 행동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등이 있다. 양육 행동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67로 나타났다.

다. 아버지 양육태도 (사회적·통제적 양육태도)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태도 측정에는 조복희 외(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양육 행동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16 문항으로 온정적 양육 행동 8문항과 통제적 양육 행동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적 양육 행동 문항의 예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등이 있으며, 통제적 양육 행동 문항의 예는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양육태도가 자녀와 관계적인 교환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어머니 양육태도 변인과 동일하게 사회적 양육태도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온정적 양육 행동 척도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와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자녀의 요구에 온정적이고 수용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사회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적 양육행동 척도에서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아동에게 사회적 규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사회적 .883, 통제적 .812으로 나타났다.

라. 부모 양육시간

주 양육자인 부와 모의 양육 참여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강희경·조복희(1998)의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홍성례(1995)의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의 도구를 수정하여 아동패널 검사도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참여 하위 문항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중 및 주말 양육 참여 시간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양육 참여 시간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

접 할애한 주중 및 주말 평균 시간으로, 가정관리와 구분해 식사, 목욕, 놀이, 활동 시간 등 양육에 관련된 일상생활이나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표 2〉 변수 측정방법 (Coding map)

변수	측정 방법
아동 성별	1=남성, 2=여성
주 양육자 사회적 양육행동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주 양육자 통제적 양육행동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주 양육자 양육시간	() 시간
아동 수용 언어발달 검사	원점수 ()점
아동 표현 언어발달 검사	원점수 ()점

3. 자료 분석

먼저,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과 유아기 및 아동기의 수용·표현 언어발달 수준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기(4차년도)에 조사된 부와 모의 양육태도(사회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양육시간(주중, 주말) 데이터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후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시간, 유아기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점수, 아동기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점수에 대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시간이 유아기와 아동기의 수용·표현 언어발달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 집단 간(일반 아동 집단,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일반 수준 도달 집단)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 ver.27(IBM Corp.)을 통해 실시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과 유아기 및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 간 상관관계 분석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사회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과 양육 양적 특성(양육시간)과 유아기 및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표현 언어발달, 수용 언어발달)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유아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과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r=.151$, $p=.000$), 통제적 양육태도($r=.088$, $p=.002$)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유아기 수용 언어발달 수준은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아동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은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r=.106$, $p=.000$), 통제적 양육태도($r=.069$, $p=.016$)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기 수용 언어발달 수준은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r=.090$,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데이터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유아기 주 양육자의 질적·양적 양육태도와 유아기 및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 기술통계량
(Descriptive statistics of qualitative/quantitative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scores)

		전체 (N=1,233)
주 양육자	유아기 사회적 양육태도	62.75(7.24)
	유아기 통제적 양육태도	55.53(6.54)
	유아기 양육시간	28.70(12.15)
아동	유아기 표현언어 점수	30.08(13.60)
	유아기 수용언어 점수	33.14(15.41)
	아동기 표현언어 점수	87.62(13.30)
	아동기 수용언어 점수	85.68(14.15)

※ 도표 내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됨

〈표 4〉 유아기 주 양육자의 질적·양적 양육태도와 유아기 및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qualitative/quantitative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scores)

	사회적 양육태도 (유아기)	통제적 양육태도 (유아기)	양육시간 (유아기)	표현 언어 (유아기)	수용 언어 (유아기)	표현 언어 (아동기)	수용 언어 (아동기)
사회적 양육태도 (유아기)	1	.194***	.061*	.151***	.050	.106***	.090**
통제적 양육태도 (유아기)		1	.020	.088**	.023	.069*	.050
양육시간 (유아기)			1	-.036	-.014	.007	.006
표현 언어 (유아기)				1	.517***	.522***	.468***
수용 언어 (유아기)					1	.369***	.335***
표현 언어 (아동기)						1	.660***
수용 언어 (아동기)							1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 중 유아기 및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 예측 요인 분석

유아기 및 아동기의 표현·수용 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1)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 2) 유아기 주 양육자의 통제적 양육태도, 3)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시간을 독립 변수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시간 중 유아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이며, 사회적 양육태도가 단독으로 입력된 경우 유아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 예측량은 23%($F_{(1,1232)}=28.686$, $p=.0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에 통제적 양육태도를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 유아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 예측량은 26%($F_{(1,1232)}=16.681$, $p=.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기 수용 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시간 중 아동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로 나타났으며, 해당 변인의 아동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 예측량은 11%($F_{(1,1232)}=13.909$, $p=.0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양육시간 중 아동기 수용 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마찬가지로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이며, 예측량은 8%($F_{(1,1232)}=10.133$, $p=.001$)으로 분석되었다.

3. 언어 집단에 따른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 차이 분석

일반 아동, 언어발달지연 아동, 일반수준 도달 아동 집단 간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양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아동을 언어발달 패턴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무선 표집을 토대로 집단 간 사례 수를 일치시켰다. 각 집단별 아동의 성별, 월령, 언어발달 수준 정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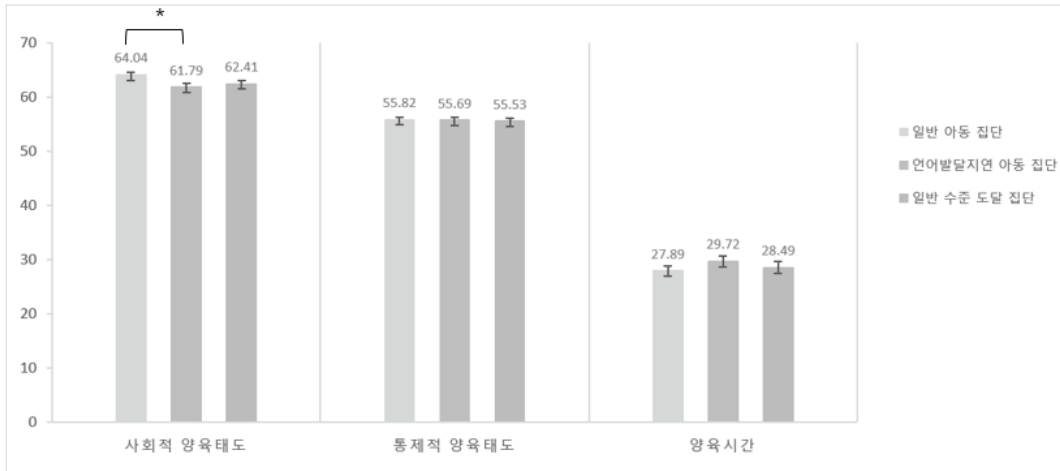
<표 5> 집단별 대상자 기술통계량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by subgroups)

	일반 아동 집단 (n=135)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n=135)	일반수준 도달 집단 (n=135)	F
월령(2011년 기준)	38.51(1.46)	38.53(1.38)	38.30(1.43)	1.02
성별(명)	남77, 여58	남80, 여55	남76, 여59	-
표현언어점수: 4차	38.64(10.41)	13.78(7.82)	15.64(9.58)	297.18***
수용언어점수: 4차	41.50(12.69)	15.53(7.98)	18.55(13.33)	202.99***
표현언어점수: 8차	96.19(12.66)	73.00(9.11)	86.12(6.89)	188.41***
수용언어점수: 8차	95.04(11.83)	69.76(7.58)	86.57(8.50)	248.76***

*** $p<.001$

집단 간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사회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와 양적 특성(양육시간) 차이를 분석을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_{(2,402)}=181.27$, $p=.031$). 그러나, 통제적 양육태도와 양육시간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에 관한 사후 검정 결과, 일반 아동 집단과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05$), 일반 아동 집단과 일반수준 도달 집단, 언어발달지연 아동과 일반수준 도달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5$)(<그림 1>).



* α .05

[그림 1] 사후검정 결과(Results of post-hoc test)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양적·질적 특성이 단기적 측면에서 유아기 언어 발달 수준, 장기적 측면에서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기에 주 양육자가 나타내는 양육 질적 특성 중 사회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양육 양적 특성인 양육시간이 유아기와 아동기의 언어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양육 양적 특성인 양육시간은 어떠한 시기에도 언어발달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이 유아기 및 아동기의 언어발달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기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유아기의 표현 언어발달 수준, 아동기의 표현 및 수용 언어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아기 주 양육자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유아기와 아동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기 및 아동기 언어발달 수준에 대한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의 설명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각 요인간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 양육자의 유아기 사회적 및 통제적 양육태도가 해당 시기인 유아기 표현 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장기적으로는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가 아동기의 표현 및 수용 언어발달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와 언어발달 수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던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수용 언어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임현주 외, 2017), 통제적 양육태도 또한 유아의 표현 언어발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현, 2010).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모두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유아기에 주 양육자인 성인이 보이는 양육태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아동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에 단답식 어법이나 간결한 명령조의 언어적 통제가 아동의 표현 언어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나, 개방적 요청이나 질문을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언어적 통제를 하는 경우 아동의 표현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 양육태도 그리고 통제적 양육태도가 각각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주 양육자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통해서도 유아기에 아동이 일상에서 습득해야 할 언어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남효정·장경은, 2015).

다음으로,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이어지는 아동의 언어발달 패턴에 따라 언어 집단 일반 아동 집단,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일반수준 도달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양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양육태도에서 일반 아동 집단과 언어발달 지연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보인 양육자의 아동들의 언어발달 수준이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인 양육자의 아동들의 언어발달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아지며(Kim, Hu, & Wang, 2019; 김영실·신애선, 2013; 박명희, 2019) 언어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지옥·김명찬,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아동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과 부모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digan, Prime, Graham, Rodrigues, Anderson, Khoury, & Jenkins, 2019).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양육태도의 주 양육자는 아동의 반응과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따른 언어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언어적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수준 도달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일반수준 도달 집단과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 간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이 아동의 언어발달 능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다수의 선행 연구(Laundry, Smith, Swank, 2006; Tamis-LeMonda, Kuchirko & Song, 2014)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수준도달 집단의 언어 능력 향상에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 결과를 통해 일반수준 도달 집단이 아동기에 또래 언어발달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는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지, 사회성, 대·소근육 운동 발달, 감각 등 언어 이외 다른 영역에서는 결함이 없이 언어발달에서만 지연된 경향을 보이는 3세 이전의 아동의 일부는 이후 학령 전기 동안에 언어발달의 회복을 보여 또래 수준에 도달하기도 한다(Roos & Weismer, 2007; Rescorla, Mirak, & Singh, 2000; 이수향·김수진·홍경훈, 2018). 구체적으로는, 2세 때 표현언어발달 지체였던 아동 중 약 70~80%가 차년도에 적절한 언어 기술을 발달시켰으며(Ellis & Thai, 2008), 특히 유아기에 표현언어발달에서만 두드러진 지체를 보인 아동의 약 50%는 학령전기와 학령기에 정상 언어발달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ale, Price, Bishop, & Plomin, 2003; Paul, Hernandez, Taylor, & Johnson,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일반수준 도달 집단은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과 관계없이 다른 아동 내외적 요인을 토대로 아동기에 언어 능력의 향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유아기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 이외에 일반수준 도달 집단의 언어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다른 여러 변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본 종단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기질(Dixon & Smith, 2000), 인지 발달(김민석, 2019)과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Mashburn et al., 2009) 등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보고되었으며, 이와 같은 아동의 내적 요인들이 유아기의 언어발달지연 수준에서 아동기 일반언어발달 수준으로의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특성과 양적 특성 역시 어머니 보고로 측정하였으므로 이들의 양육 특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 등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해 측정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아동의 기질, 인지, 상호작용 능력을 실험 과제로 측정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요인과 아동의 언어발달 패턴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내적 요소들을 평가한다면,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시간과 아동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질적 특성인 사회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요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른 시기의 주 양육자의 양육 특성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아동 언어발달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주 양육자의 질적 특성이 언어발달 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공영숙,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6.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연구*, 53(1), 333-350.
- 김민석. (2019). 영아의 언어발달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457-465.
- 김소연, 정연경, 정혜리, 김우택, 신임희, 박정환, 김행미, 김진경. (2004). 언어발달 지연아의 발달지수와 후기 지능과의 관련성.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47(5), 496-504.
- 김수정, 광금주. (2013). 3 세부터 7 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1-19.
- 김연. (2011). 유아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맞벌이 부부의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1(6), 95-121.
- 김영실, 신애선. (2013).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영아의 이해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157-176.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 서울장애인복지관.
- 김영태. (2002). 아동 언어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은주, 김동일, 박경숙, 안수경. (2002). 한국 장애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연구보고서*, 5.
- 김지옥, 김명찬. (2015). 언어발달지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24(3), 103-120.
- 김현. (2010). 영아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교사 상호작용과 영아 언어능력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 67-93.
- 남효정, 장경은. (2015). 어머니 애착수준 및 언어통제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4), 143-161.

- 문혁준. (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박명희. (2019). 아동의 학업성취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8(2), 113-130.
- 성미영. (2003). 자유놀이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의 대화 양식과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아동학회지*, 24(5), 77-89.
- 소현아, 김명순. (2000). 저소득층 어머니-아동간 책읽기 상호작용. *생활과학논집*, 14, 60-69.
- 손병덕, 허계형. (2017). 아동의 발달지연에 대한 모의 양육 특성과 부모의 양육 참여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75-94.
- 이대균, 김주영, 임자영, 박지선. (2009). *영유아언어교육*. 서울: 공동체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수향, 김수진, 홍경훈. (2018). 말늦은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 종단연구. *언어치료구*, 27(1), 155-163.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131-146.
- 임동선, 김영태, 양윤희. (2016). 언어 장애 아동 판별을 위한 구어 및 시공간적 작업 기억의 효용성 탐색. *언어 청각 장애 연구*, 21, 193-205.
- 임진영, 장재숙.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종단적 분석. *초등교육연구*, 16(1), 379-399.
- 임현주. (2014). 유아의 기질 및 가정환경과 또래 상호작용이 만 3세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83-201.
- 임현주, 최향준. (2017). 유아의 개인변인, 모의 양육변인, 사회적 지원 군집에 따른 유아의 수용-표현언어발달 차이 연구. *유아교육연구*, 37(1), 179-200.
- 임현주, 최향준, 김현정. (2015).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 변인 및 가정환경,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인지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247-264.
- 윤복희, 김은영, 박혜경, 최일선. (2013). *영유아언어교육*. 고양: 공동체.
- 윤서희,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 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5(4), 199-222.
- 장보경, 이연규. (2009).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언어발달과 사회정서발달의 차이. *실천유아교육*, 14(2), 61-77.
- 장유경, 이근영. (2006).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휘습득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63-276.
-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향준. (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678-2688.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333.
- 천소연, 임동선. (2017). 단어목록 회상을 통한 언어발달지체 아동과 일반 아동의 덩이짓기 능력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2(2), 233-244.

- 최지현, 성현란. (2010). 아동 및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 지발달중재학회지*, 1(1), 69-89.
- Ackerman-Ross, S., & Khanna, P. (1989). The relationship of high quality day care to middle-class 3-year-olds' language performa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1), 97-116.
- Baker, L., & Cantwell, D. P. (1987). A prospective psychiatric follow-up of children with speech/language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6(4), 546-553.
- Bernal, R., & M. P. Keane. (2011). Child care choices and children's cognitive achievement : The case of single mothers. *Journal of Labor Economics* 29(3), 459-512.
- Bloom, L., Beckwith, R., & Capatides, J. (1988). Development in the expression of affec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1, 169-186.
- Bradley, R. H., Corwyn, R. F., Mcadoo, H. P., & Coll, C. G. (2001). The home environment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 Variations by age, ethnicity, and property status. *Child Development*, 72(6), 1844-1867.
- Bullock, J. R., & Pennington, D.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erceptions of the family environment and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Child Study Journal*, 18, 17-31.
- Cochran-Smith, M. (1984). *The Making of a Reader. Language and Learning for human Service Professions Monograph Series*. Norwood :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Dale, P.S., Price, T.S., Bishop, D.V.M., & Plomin, R. (2003). Outcomes of early language delay : I. Predicting persistent and transient language difficulties at 3 and 4 yea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3), 544-560.
- Dixon Jr, W. E., & Smith, P. H. (2000). Links between early temperament and language acqui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17-440.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Pagani, L. S., Feinstein, L., Engel, M., Brooks-Gunn, J., Sexton, H., Duckworth, K., & Japel, C.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428-1446.
- Ellis, E. M., & Thal, D. J. (2008). Early language delay and risk for language impairment.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and Education*, 15(3), 93-100.
- Fagan, F. F., Holland, C. R., & Wheeler, K. (2007). The prediction from infancy of adult IQ and achievement. *Intelligence*, 35(3), 225-231.

- Flouri, E., & Buchanan, A. (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141-153.
- Girolametto, L., Hoaken, L., Weitzman, E., & Lieshout, R. V. (2000). Patterns of adult-child linguistic interaction in integrated day care group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1(2), 155-168.
- Hart, B., & Risley, T. R. (1981). Grammatical and conceptual growth in the language of psycho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sychosocial influences in retarded performance*, 2, 181-198.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Brookes Publishing Co.
- Hinshaw, S. P. (1992). Academic underachievement, attention deficits, and aggression: Comorbidity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6), 893-903.
- Kim, M., Hu, Y., & Wang, W. (2019). A Longitudin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3), 457-465.
- Laundry, S. H., Smith, K. E., & Swank, P. R. (2009). New directions in evaluating social problem solving in childhood: Early precursors and links to adolescentsocial compet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9(123), 51-68.
- Larney,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language delay and later difficulties in liter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83-193.
- Madigan, S., Prime, H., Graham, S. A., Rodrigues, M., Anderson, N., Khoury, J., & Jenkins, J. M. (2019).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language: A meta-analysis. *Pediatrics*, 144(4), 1-12.
- Mashburn, A. J., Justice, L. M., Downer, J. T., & Pianta, R. C. (2009). Peer effects on children's language achievement during pre-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80(3), 686-702.
- Semrud-Clikeman (2007).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 Montgomery, J. W., Gillam, R. B., & Evans, J. L. (2021). A new memory perspective on the sentence comprehension deficits of school-ag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implications for theor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52, 449-466.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90).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P. Mussen, J. Conger, J. Kagan y A. Huston,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25-378.

- Najman, J. M., Aird, R. L., Bor, W., O'Callaghan, M., Williams, G. M., & Shuttlewood, G. J. (2004). The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and emotional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8(6), 1147-1158.
- Owens, R. E. (2001).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New Jersey : Pearson.
- Paul, R., Hernandez, R., Taylor, L., & Johnson, K. (1996). Narrative development in late talkers: Early school 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6), 1295-1303.
- Raviv, T., Kessenich, M., & Morrison, F. J. (2004). A mediational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three-year-old language abilities: the role of parenting fact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4), 528-547.
- Rescorla, L., Mirak, J., & Singh, L. (2000). Vocabulary growth in late talkers: Lexical development from 2; 0 to 3; 0. *Journal of child language*, 27(2), 293-311.
- Roos, E. M., & Weismer, S. E. (2008). Language outcomes of late talking toddlers at preschool and beyond.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and education*, 15(3), 119-126.
- Rutter, M., & Mawhood, L. (1991). *The long-term psycho social sequelae of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 of speech and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mis-LeMonda, C. S., Kuchirko, Y., & Song, L. (2014). Why is infant language learning facilitated by parental responsiven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2), 121-126.
- Yim, D. & Windsor, J. (2010). The roles of nonlinguistic statistical learning and memory in language skil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5(3), 381-396.

• 교신저자: 박원정(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thisisforwj@gmail.com)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arenting Behaviors in
Relation to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onjeong Park, Haeun Chung, Sunyoung Kim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caregivers' quantitative involvement (time spent on child-care) and qualitative involvement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Participants were 1,233 pairs of children and mothers and fathers collected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in 2011(4th) and 2015(8th). Caregivers' parenting time, parenting behavior (warm parenting, control parenting) and children's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ability were analyzed in this study. For the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in order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arenting and children's performance on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Then,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parent variables that was strongly related to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also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 children with language delay, and children that reached typical development) in parenting behavior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Quantitative parenting, on the other hand,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Second,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parenting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Longitudinally,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was significantly predicted

by warm parenting. In other words, parenting behaviors was the parent factor tha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nd children with language delay in warm parenting. Findings suggest that parenting behaviors, not the amount of parenting time, have a positive impac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in the long ru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parents' sensitive-responsive and warm parenting supports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nd suggest that parenting behaviors may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 and children with language delay.

- Key words: Language development, Warm parenting, Control parenting, Parenting time, Longitudinal study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과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

오소정(동명대 언어치료청각학과 교수)

아동의 언어발달에서 양육자 요인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양육자의 양육태도나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은 양육자 요인 중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전국적 자료를 바탕으로 3~4세와 7~8세 때의 어휘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보고의 양육태도와 양육시간과 유아기, 아동기 어휘 능력간 상관관계와 어휘 발달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종단적으로 어휘 발달 지연집단이었다가 아동기에는 일반 아동 집단에 포함된 아동들을 포함시켜 분석한 것은 임상적으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 해석이나 논의 상 다소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토론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양육자의 양육특성에 따른 아동의 수용·표현언어발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언어발달 척도는 전체적인 언어발달의 한 부분인 어휘 검사 결과였으므로 전체 언어발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아기 초기의 영유아기 언어발달에서는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수는 바로 아동의 언어수준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아동이 단 단어 수준의 발화기에서 벗어나 낱말을 이어 조합하고 문장을 구성하여 말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아동의 이해, 표현 어휘수는 그야말로 아동의 언어발달 중 어휘 능력, 즉 의미론적 발달 양상을 반영하며 전체적인 언어발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어휘 수준이 양호한 아동이라도 산출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평균발화길이; MLU)가 또래에 비해 짧거나 조사를 생략하거나 오류 사용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고 반대로 어휘는 다소 부족해도 화용론적 영역은 양호해서 상호작용하거나 의사소통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 자료는 대상 아동이 만 3~4세 시기(4차년도 자료)와 만 7~8세(8차년도 자료)는 모두 낱말 조합이상 문장 발화 시기로 어휘 검사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면 양육자의 특성에 따른 ‘수용·표현어휘 발달’에 대한 종단연구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유아기 사회적 태도 뿐만 아니라 통제적 태도 또한 유아기의 표현 언어 발달의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는 더욱더 주의를 요한다. 논의에서 연구자들은 ‘양육자의 통제적 태도 또한 단답식 어법이나 간결한 명령조의 언어적 통제가 아동의 표현언어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나 개방적 요청이나 질문을 사용한다면 표현언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각각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나 바로 이어서 일반아동 집단과 언어발달 지연 아동집단 간에 사회적 양육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양육자의 사회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아지며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언급하여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유아기 통제적 태도와 표현 언어 간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과는 상반되는 해석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보다는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에서 통제적, 사회적 태도를 묻는 설문 문항의 특성이나 세 집단간 양육태도 차이에 따른 어휘능력 분석시 유아기 어휘 검사결과만을 추가하였는지 유아기와 아동기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였는지 등의 여부 등 연구 도구나 방법상의 특성에 기인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셋째, 수용표현어휘력 검사의 경우 %ile 결과보다는 아동 원점수 수행을 표준편차와 비교하여 -1SD 이상인 경우 정상발달, -1~-2SD 사이면 ‘약간 지체, 유의요망’, -2SD 미만이면 ‘어휘능력지체’로 판단하는 것이 지침서 상의 기준인데 특별히 10%ile를 기준으로 한 이유를 밝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ile은 약 -1.25SD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검사 지침서 기준으로 볼 때 어휘능력 지체가 아닌 약간지연 혹은 유의요망 아동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 10%ile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발달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후행적 연구의 특성상 저자들이 논의 마지막에 언급한 아동의 인지나 기질이나 부모보고의 신뢰성 외 아동의 언어치료여부나 부모의 SES 등 어휘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나 언급이 어려웠다는 점 또한 언급하여 결과 해석에 더욱 유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제12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한국 아동 패널 리

학교생활 및 적응

학교생활 및 적응 1

좌장: 박혜원(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전공 교수)

1. 초등학교의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발표자: 김혜란(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

발표자: 이은정(고려대학교 대학정책연구원 연구교수)

최현주(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토론자: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

발표자: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윤예린(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곽나람(서울잠원초등학교 교사)

토론자: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김혜란²⁰⁾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과 전반적 행복감, 문제행동, 학교 적응 간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초기값과 변화율, 문제행동의 초기값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어: 학교생활 느낌, 전반적 행복감, 문제행동, 학교 적응,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1. 서론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통해 교사 또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인성, 가치관, 학습 지식 등을 습득하며 사회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지식전달로만 그치지 않고 타인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더 깊어져 간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신체·정서·심리상의 변화를 경험하며 동시에 불안, 우울, 반항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사회조망 능력 또한 높아져 갈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는 점(정난숙, 천성문, 2016)에서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력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이현민, 이종구, 2006).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며, 예방적 차원으로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학교의 질서와 규범을 따르고, 수업에 참여하며,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여 순조롭고 평탄한 학

20)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교생활을 하고, 개인의 욕구와 규칙 사이에서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김지혜, 1998). 즉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환경과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역동인 것이다. 학교 환경에 맞추어 적절히 변화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또래, 교사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능동적인 학습태도와 적절한 행동 특성을 형성하여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학교의 발전도 돕게 된다고 하였다(Spencer, 1999).

이러한 학교 적응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학생 개인이 느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가 학교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시험을 잘 치길 희망하고 학업에 대한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다. 또는 수업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시험을 잘 못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King & Areepattamannil, 2014). 학교 적응 및 학습에서 이러한 느낌의 역할은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느낌이 학습 과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Aspinwall(1998)은 기분이 좋으면 잠재적으로 유용한 부정적인 정보를 잊고 정보와 상황의 의미 있는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게으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긍정적인 느낌이 비현실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피상적인 정보 처리를 촉진하며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Aspinwall, 1998).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느낌이 학습과 수행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Pekrun et al., 2002).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느낌은 발산적 사고를 강화하고 유연한 문제 해결을 촉진하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Isen, Daubman, & Nowicki, 1987). 긍정적인 느낌이 정교한 정보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Titz, 2001). Pekrun, Elliot과 Maier(2009)는 즐거움, 희망,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인 활성화 감정이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와 학교에서 내재적 동기와 노력의 양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반면 분노, 불안, 수치심, 절망감, 지루함 등의 느낌은 중간고사 점수, 내재적 동기와 노력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학교 상황에서의 느낌이 학업적인 영역뿐 아니라 동기 부여 및 노력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Pekrun et al., 2011). 결과적으로 긍정적 느낌의 빈번한 경험이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확장하고 환경에 대한 보다 적응적인 반응을 촉진하며, 광범위한 인지 및 메타인지 전략과도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King & Areepattamannil, 2014).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인생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그 의미가 크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많은 생활상의 변화가 생기는데, 가정과 유치원에서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다가 이와 다르게 규칙과 집단생활이 더욱 강조

되는 초등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들은 신체, 정서, 사회 영역의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긴장과 불안을 경험한다(김경은, 2012; 김민진, 2008; 황유현, 김창복, 정운정, 2017; 허은하, 김상립, 2021). 입학 초기에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교사와 학급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혼란스럽고 여러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Dunn, 1988; Elkind, 1983).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김선희, 2018; 명소연, 조진옥, 2016) 입학 초반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규칙을 익히는 정도는 1학년뿐 아니라 이후 전반의 학습영역 및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류지현, 임지현, 2008; 성미영, 장영은, 서병태, 2016). 따라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입학 초반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원활한 1학년 생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는 행복감인데, 행복감이란 삶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비롯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로(이진숙, 김은주, 2013; Diener, 2006) 심리적 안정감, 성취와 사회적응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복감을 얻는 것은 생애 발달 전반의 단계에서 추구되는 과제로,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아동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 대인관계 적응이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의 질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Jose, Ryan & Pryor, 2012).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행복감은 전 생애 동안 개인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원이 되므로(전미경, 장재숙, 2009) 그 가치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류주연(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이 낙관적일수록 학습과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교우관계에서도 원만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감정, 태도가 긍정적이기에 대인 관계를 잘 맺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며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형성하여 학생 스스로의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게 된다고 하였다. 정은미(2013)는 행복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 관계, 사회성이 좋고, 자기 만족과 자기효능감 또한 높으며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그 외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초등학생의 행복감이 학교적응에 있어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미영, 2011; 유서령, 2015; 이경은, 2014).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결국 행복과 학교 적응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행복이 증가하면 학교 적응도 긍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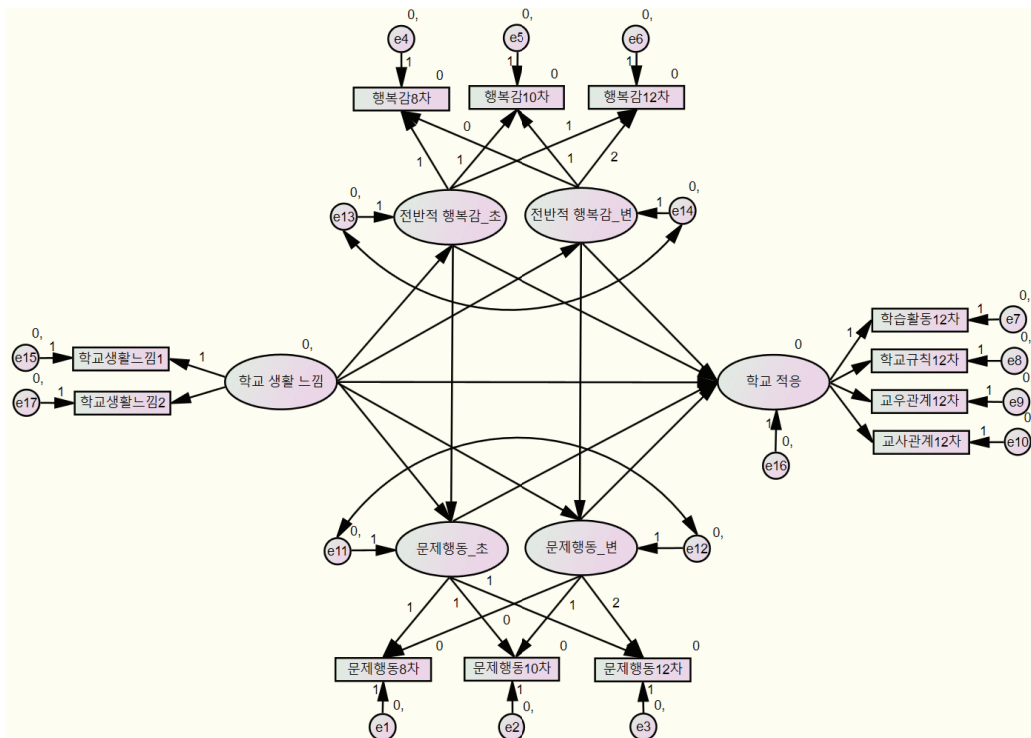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이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최하위권인 것이 보고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보고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비교 연구’에 의하면 총 16개국 중 우리나라는 14위로 나타났으며(한겨레신문, 2017. 5. 1.),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2016 제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연구’에서 OECD 22개국 중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보고되었다(연합뉴스, 2016. 5. 2.). 게다가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떨어져(최미숙, 신혜영, 조성연 외, 2008), 모든 아동이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하며, 다른 나라 아동에 비해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굉장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이서희, 김기민, 2019)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학생 본인이 학교생활에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 적응은 학생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환경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에 자신을 맞추어 학교와 개인의 균형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Bierman, 1994).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학업 경쟁이 심해지며 우울, 불안이나 공격성, 주의력 결핍과 같은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발생하고 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이후 아동의 신체·심리적 건강, 낮은 학습 능력, 사회적 적응과 관련되고, 학령기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McLeod & Kaiser, 2004) 학교 적응을 예측하기 위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행동에 대하여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리하여 살펴본 연구가 많으나(김수진, 전세진, 김현경 외, 2018; 문대근, 문수백, 2011; 오태성, 최나야, 장해진 외, 2020), 문제행동의 두 영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동 발달하는 관계성을 띤다(염정원, 조한익, 2016; Keiley, Bates, Dodge, & Pettit, 2000; Lilienfeld, 2003).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다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재화 문제행동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초점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은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측면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Marshall과 Miles, Stewart(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Ning과 Downing(2010)은 이전의 인지적 왜곡이 이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도식으로 자리 잡아 학교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종단적인 관점에서 관련 변인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을 가지느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의 행복감은 다시 자신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동의 학교적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으로 인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행동적 특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1.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초기치 및 변화율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초기치 및 변화율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1차년도(2008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12차년도(2019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8차년도(2015년), 10차년도(2017년), 12차년도(2019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8차년도에서 12차년도까지 매년 설문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1,122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5년)			N (%)
아동 특성	성별	남아	572(51)
		여아	550(49)
	출생순위	첫째	502(44.7)
		둘째	503(44.8)
		셋째 이상	117(10.5)
	거주지역	서울권	180(16.0)
		경인권	277(24.7)
		대전/충청/강원권	176(15.7)
		대구/경북권	110(9.8)
		부산/울산/경남권	220(19.6)
		광주/전라권	159(14.2)
	전체		1,122(100)

2. 측정도구

가. 학교생활 느낌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 MCS(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꾸러미화를 통해 학교생활 느낌의 하위요인을 학교생활 느낌1은 2문항, 학교생활 느낌2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며, 문항의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즐겁니?’, ‘학교생활이 얼마나 기분이 좋니?’ 등이

있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느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817, 각각 .753, .767로 나타났다.

나. 전반적 행복감

초등학생의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CS(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문항의 예를 들면 '○○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등이 있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차 .679, 10차 .742, 12차 .755이다.

다. 문제행동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외(2010)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는 본 척도는 총 1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이다. 문항의 예를 들면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등이 있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총 문제행동 T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차 .748, 10차 .954, 12차 .929이다.

라. 학교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1991)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하고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문항의 예를 들면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이 있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12차 전체 .900, 학습활동 .729, 학교규칙 .754, 교우관계 .692, 교사관계 .885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고, 아동의 학교 생활 느낌, 전반적 행복감, 문제행동과 학교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한국아동패널에서 각 변인을 측정한 시기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한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관찰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변화모형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인차의 정도와 한 변인에서 나타난 변화와 다른 변인에서 나타난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4).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CMIN)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TLI와 RMSEA, CFI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수백, 2010).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양호, .10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인 것으로 판단되며,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 시점에 따른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별 기술통계

잠재변인	관측변인	<i>M</i>	<i>SD</i>
학교생활 느낌	학교생활 느낌1	3.013	.797
	학교생활 느낌2	3.164	.806
전반적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8차	3.211	.494
	전반적 행복감 10차	3.286	.465
	전반적 행복감 12차	3.330	.469
문제행동	문제행동 8차	50.572	9.312
	문제행동 10차	44.806	10.240
	문제행동 12차	40.400	9.981
학교 적응	학습활동	3.110	.470
	학교규칙	3.184	.462
	교우관계	3.230	.438
	교사관계	3.165	.591

먼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 평균값은 8차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느낌1 3.013, 학교생활 느낌2 3.16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평균값은 8차 3.211, 10차 3.286, 12차 3.330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평균값은 8차 50.572, 10차 44.806, 12차 40.400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제행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교 적응은 12차를 중심으로 학습활동 3.110, 학교규칙 3.184, 교우관계 3.230, 교사관계 3.165로 나타나 교우관계가 학습활동이나 학교규칙, 교사관계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계적 모델의 측정변인 간 상관행렬을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인 간 상관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742***	1										
3	.209***	.272***	1									
4	.300***	.415***	.456***	1								
5	.415***	.474***	.136***	.399***	1							
6	-.258***	-.240***	-.175***	-.191***	-.104**	1						
7	-.143***	-.161***	-.175***	-.227***	-.108***	.565***	1					
8	-.134***	-.143***	-.153***	-.155***	-.131***	.504***	.564***	1				
9	.207***	.279***	.529***	.374***	.224***	-.207***	-.171***	-.188***	1			
10	.198***	.271***	.401***	.327***	.223***	-.179***	-.142***	-.149***	.660***	1		
11	.198***	.268***	.487***	.341***	.164***	-.189***	-.163***	-.161***	.622***	.646***	1	
12	.198***	.247***	.413***	.275***	.161***	-.127***	-.123***	-.163***	.527***	.496***	.500***	1
1. 학교생활 느낌1 2. 학교생활 느낌2 3. 전반적 행복감 8차 4. 전반적 행복감 10차												
5. 전반적 행복감 12차 6. 문제행동 8차 7. 문제행동 10차 8. 문제행동 12차 9. 학습활동												
10. 학교규칙 11. 교우관계 12. 교사관계												

** $p < .01$, *** $p < .00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제행동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문제행동의 분석모형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 간 변화 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기술통계값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 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변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감소하거나 증가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각 시점에서 평균 변화를 살펴본 후, 각 변인에 대한 변화모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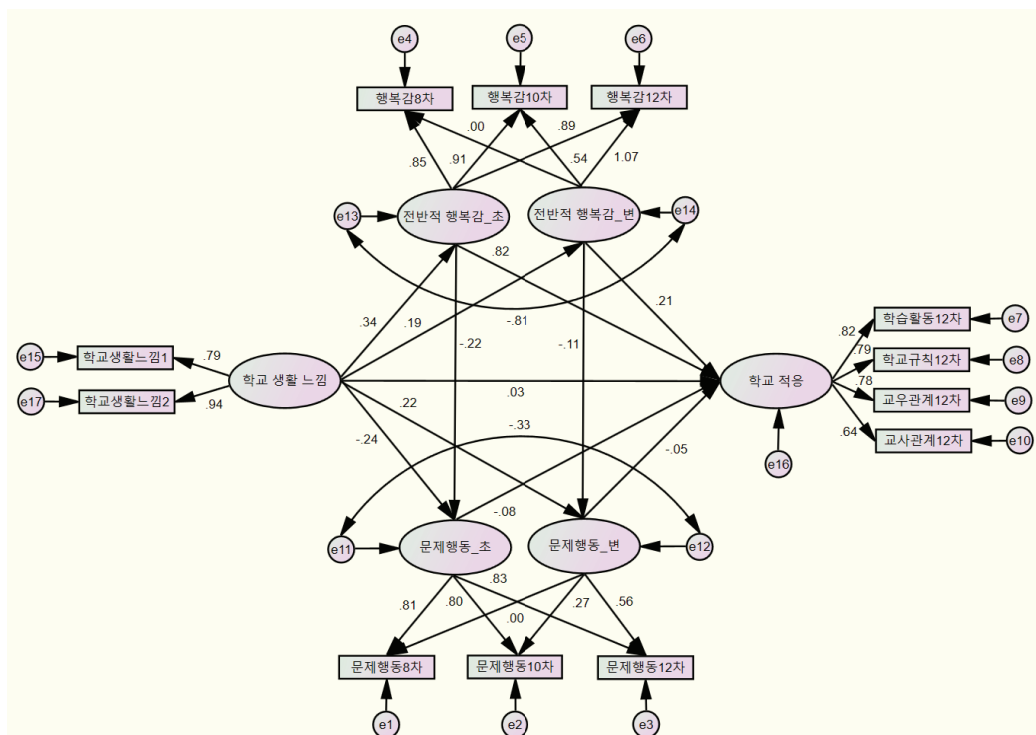
		χ^2	df	p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행복감	무변화	152.513	4	.000	.756	.675	.182	3.279***		.081***	
	선형변화	1.725	1	.189	.995	.998	.025	3.214***	.060***	.178***	.064***
문제행동	무변화	165.306	4	.000	.872	.829	.190	45.109***		407.566***	
	선형변화	1.083	1	.298	1.000	1.000	.009	50.383***	-5.084***	490.638***	53.889***

*** $p < .001$.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두 변인에서 모두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행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선형변화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변인 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MIN = 125.914($df = 45$), TLI = .977, CFI = .984, RMSEA = .040(HI = .048, LO = .032)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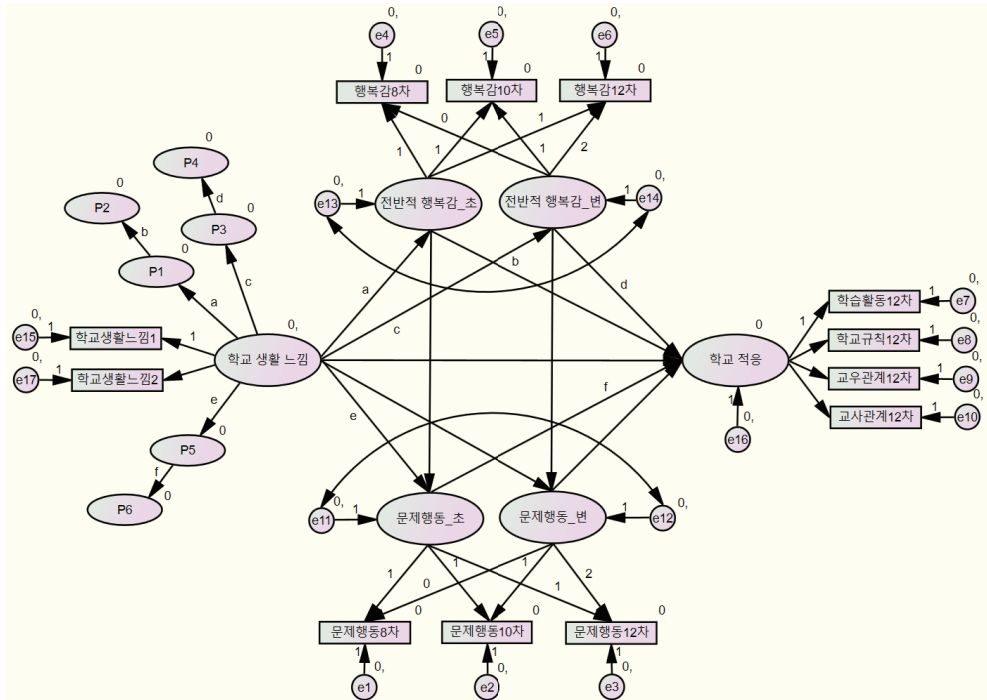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표준화 계수
학교생활 느낌	→	행복감 초기치	.227	.024	9.486***	.340
학교생활 느낌	→	행복감 변화량	.078	.016	4.947***	.195
학교생활 느낌	→	문제행동 초기치	-8.527	1.413	-6.036***	-.240
학교생활 느낌	→	문제행동 변화량	2.681	.694	3.861***	.223
학교생활 느낌	→	학교 적응	.017	.029	.581	.027
행복감 초기치	→	문제행동 초기치	-11.943	2.271	-5.260***	-.224
행복감 초기치	→	학교 적응	.753	.065	11.516***	.815
행복감 변화량	→	문제행동 변화량	-3.447	1.957	-1.761	-.114
행복감 변화량	→	학교 적응	.317	.101	3.134**	.206
문제행동 초기치	→	학교 적응	-.001	.001	-2.346*	-.082
문제행동 변화량	→	학교 적응	-.003	.003	-.985	-.05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이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높고 문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높고 문제행동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교 적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화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학교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종단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Rindskopf(1984)가 제시한 Phantom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최종 모형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학교생활 느낌 → 전반적 행복감 초기치 → 학교 적응	.171**
학교생활 느낌 → 전반적 행복감 변화율 → 학교 적응	.025**
학교생활 느낌 → 문제행동 초기치 → 학교 적응	.012*

* $p < .05$, ** $p < .01$.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은 전반적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초기치 또한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을 결과 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인으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과 전반적 행복감, 문제행동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

동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후, 아동이 1학년일 때 경험한 학교생활 느낌과 아동이 5학년 일 때의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경험한 학교생활 느낌과 초등학교 5학년일 때의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이 좋을수록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높아지고,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높은 학교생활 느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uorinen, Hietajärvi, & Uusitalo(2020)의 연구에서 학생이 학업적인 흥미를 보이는지, 학교생활에 의미를 두는지, 학교생활에 대해 냉소적인지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 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신성철, 2015; 이수미, 오윤자, 2014)를 지지하며,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희중, 2007; 김승윤, 2010; 이수미, 2011)와 맥을 같이 한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급격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한다면 아동이 또래, 교사, 교실 환경에 흥미를 갖고 초등학교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며, 자신들이 몸으로 겪어나가는 학급 생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성을 바탕으로 아동 생활의 전반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을 이어나간다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의 증가 속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전반적 행복감이 높아진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학교 환경 사이에서 적절히 상호작용하며 또래 및 교사와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며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등(김원경, 권희경, 2019; 신성철, 2015) 학교에 대한 적응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경험한 학교생활 느낌과 초등학교 5학년일 때의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초기값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이 좋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낮아진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태상(2013)의 연구에서 문제행동, 학습태도 그리고 학교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결과와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연구결과(김정민, 송수지, 2014;

최은실, 방희정, 2010; 박기원, 2014; 위유라, 노충래,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학교적응이란 자기의 욕구에 따라 학교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변화하기도 하며 자신과 학교 환경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곽수란, 2006; Danielsen, 2009). 그러나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김인경(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혹은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과 학교 환경 사이에 균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김종범, 2009).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학교생활에 대해 형성된 느낌이 부정적일 경우,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결국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발달시키기 어려워지게 되며 이후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을 높이고 문제행동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경험한 학교생활 느낌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은 이후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사와 학부모는 입학 초기에 아동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를 파악하여 아동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환경과는 달리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동의 독립성, 주도성, 자조기술의 습득이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지만 이러한 기술이 왜 필요한지, 초등학교 생활이 유치원 생활과 어떻게 다른지 등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규칙적 생활 습관만이 강조되어 아동들이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여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다. 김민진(2008)의 연구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기본생활 규범을 지도하기 위해 벌과 꾸지람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며, 교사가 초등학교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 아동들에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재촉한다면 아동들은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현진(2005)의 연구에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누적되면 입학초기 분리불안증 등의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아동의 학교생활 느낌 증진을 위해 학교 환경에서는 아동들에게 학교 규칙을 내면화하여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에서는 아동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화 공간이 학교임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를 과보호하여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동을 스트레스 상

황에서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과를 예측해보기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도 하는 것이다. 기민희, 김미숙 (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자녀의 자기 결정력을 기르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수용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지나친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경험한 학교생활 느낌이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인상이, 학년이 올라가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교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 적응에 대해 저학년부터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학교부적응, 사회성 증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시기에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전 학년에 걸쳐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경험한 학교생활에 대한 느낌이 부적응적인 인지 상태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송복순, 2014), 부정적인 편향이 정서적·행동적인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부적응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서적, 행동적 문제 예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과 관련한 변인에 국한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느낌뿐 아니라 유아기 및 아동기의 자아개념(김대욱, 이경진, 2021), 학교 준비도(고은경, 2020; 박정현, 이경님, 2020), 자아존중감(송영주, 2021; 신성철, 2015), 사회적 유능감(이지영, 이상희, 2019) 등 아동 개인적 변인과 가족환경(정근혜, 2019; 민미희, 2018), 교사 변인(장원호, 김민진, 이지영 외, 2018)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 증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한 시점(12차)에서 측정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학교부적응 비율이 청소년기에 높게 나타난다는 점(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5; 이지연, 조아미, 2021; 임선경, 김영근, 2021)을 고려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 개인, 가족, 교사 및 학교의 특성까지 포함하여 살펴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경(2020). 유아기 학교준비도 유형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 : 잠재전이분석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775-793.
- 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 1-26.
- 기민화·김미숙(2014).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585-612.
- 김경은(201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돌봄경험에 따른 일상생활경험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3(6), 51-69.
- 김대욱·이경진(2021). 유아기 자아개념과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초등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9(2), 239-263.
- 김미영(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주관적 행복감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선희(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외현화 행동문제 발달궤적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과 실행기능 곤란. *아동학회지*, 39(6), 41-56.
- 김수진·전세진·김현경·오경자·이주영(2018). 보호관찰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역경, 냉담-무정서 특질, 비행또래 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629-649.
- 김승윤(2010). 청소년의 자기긍정 편향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영화·최보영·이인희(201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원경·권희경(2019).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19.
- 김인경(201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정민·송수지(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종범(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지혜(1998). 청소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희중(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류주연(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교사-학생 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지현·임지현(2008).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요인이 인지전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검증. 교과교육학연구, 12(1), 219-238.
- 명소연·조진옥(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 문대근·문수백(2011).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문제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32(5), 49-65.
- 민미희(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 박기원(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1), 1-15.
- 박정현·이경남(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및 학교준비도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91-110.
- 성미영·장영은·서병태(2016).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학습습관과 정서행동문제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79-102.
- 송복순(2014).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 초등교육학연구, 21(2), 39-55.
- 송영주(2021).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입학 전·후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455-473.
- 신성철(2015).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의 이중 매개효과. 아동교육, 24(2), 265-280.
- 연합뉴스. 2016. 05. 02.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 염정원·조한익(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 오태성·최나야·장해진·최하영·송지연(2020).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긍정적 · 부정적 양육 태도 및 아동의 외현화 · 내재화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42-43.
- 위유라·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서령(2015).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경은(2014). 중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행복감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서희·김기민(2019). 초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921-946.
- 이수미(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수마·오윤자(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4, 186-186.
- 이지연·조아미(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3(1), 55-82.
- 이지영·이상희(2019). 유아개인변인, 또래놀이행동, 사회적 유능감,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3), 171-199.
- 이진숙·김은주(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 이태상(2013).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학습태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627-644.
- 이현민·이종구(2006).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314-315.
- 이현진(2005). 초등학교 1학년 365일. 서울: 예담
- 임선경·김영근(2021). 청소년의 초기부적응도식이 학교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0(1), 215-234.
- 임혜림·김서현·정익중(2018). 가정 및 학교 내 대인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70(2), 145-170.
- 장원호, 김민진, 이지영, 권정아(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8(4), 379-398.
- 전미경·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3), 103-118.
- 정근혜(2019).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주요 변인의 구조적 관계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난숙·천성문(2016).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교육치료연구, 8(2), 157-187.
- 정은미(2013).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미숙·신혜영·조성연·최혜영(2008). 성, 학년, 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행복감 인식 수준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0(4), 223-242.
- 최은실·방희정(2010). 초등학생의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91-110.
- 한겨레신문. 2017. 05. 01. 한국 초등3학년 행복감 '세계 최하위권'

- 허은하·김상림(2021).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아동학회지*, 42(1), 45-60.
- 황유현·김창복·정운정(2017). R 레지오유치원 아이들의 초등학교 1학년 적응과정 이야기. *열린 유아교육연구*, 22(3), 325-355.
- Aspinwall, L. G. (1998). Rethinking the role of positive affect in self-regulation. *Motivation and Emotion*, 22(1), 1-32.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Danielsen, A. G.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18.
- Diener, E.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4), 397-404.
- Dunn, J.(1988). *Normative life events as risk factors in childhood*. In M. Rutter(Ed.), *Studies of psychosocial risk: The poser of longitudinal data* (p. 227-24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kind, D.(1983). *The hurried child*. New York: Management & Music Publish. Inc.
- Isen, A. M., Daubman, K. A., & Nowicki, G. P. (1987). Positive affect facilitates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122.
- Jose, P. E., Ryan, N., & Pryor, J. (2012). Does social connectedness promote a greater sense of well-being in adolescence over tim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2), 235-251.
-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61-179.
- King, R. B., & Areepattamannil, S. (2014). What students feel in school influences the strategies they use for learning: Academic emotions and cognitive/meta-cognitive strategies.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8(1), 18-27.
- Lilienfeld, S. O. (2003). Comorbidity between and within childhoo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disorders: Reflections and dire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85-291.
- Marshall, G. N., Miles, J. N., & Stewart, S. H. (2010). Anxiety sensitivity and PTSD symptom severity are reciprocally related: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physical trauma surviv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1), 143.
- McLeod, J. D., & Kaiser, K. (2004). Childhoo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5), 636-658.
- Ning, H. K., & Downing, K. (2010).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on academic performanc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682-686.

- Pekrun, R., Elliot, A. J., & Maier, M. A. (2009). Achievement goals and achievement emotions: Testing a model of their joint 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1), 115.
- Pekrun, R., Goetz, T., Frenzel, A. C., Barchfeld, P., & Perry, R. P. (2011). Measuring emotions in students' learning and performance: The Achievement Emotions Questionnaire (AEQ).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6(1), 36-48.
- Pekrun, R., Goetz, T., Titz, W., & Perry, R.P. (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91-106.
-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Psychology of an Identity 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Titz, W. (2001). *Emotionen von Studierenden in Lernsituationen [University students' emotions at learning]*. Münster, Germany: Waxmann.
- Vuorinen, K., Hietajärvi, L., & Uusitalo, L. (2020). Students' usage of strengths and general happiness are connected via school-related factor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3.

• 교신저자: 김혜란,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rank09@naver.com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School Adaption
: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Hyeran Kim

Students interact with teachers and peers through the school community, acquire personality, values, and learning knowledge and socialize. Many changes in life occur aft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experience a free and tolerant atmosphere at home and kindergarten, but have to adapt to elementary school where rules and group life are emphasized differently, experience a lot of tension and anxiety due to stress in the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s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nvironment in which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harmoniously adapt to school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what factors affect school adaptation at the beginning of school life.

At this time, one of the variables being studied as a factor influencing school adaptation is the feeling of happiness. The happiness experienced in childhood not only determines a child's learn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but also determines the quality of life after adulthood. It also has a lasting effect on quality. Nevertheless, it is reported that the overall sense of happiness experienced by Korean children is almost at the bottom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level of happiness they feel in life is very low compared to children in other countries, suggesting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epare a plan to enhance the happiness of children in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students feel about school life, but what attitudes they have. In modern society, academic

competition intensifies, and problem behavior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ggression, and lack of attention have been occurring since elementary school. Problem behaviors that appear in childhood are related to the childre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low learning ability, and social adaptation, and can continue to affect not only school age but also adolescence and adulthood, increasing the need for research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to predict school adaptation.

This feeling of school lif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emporarily affects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but it also continuously affects psychological aspects and problem behaviors over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what children feel and experience aft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is established as a schema until they reach high school and affects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eral happiness and problem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life feeling and school adapta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life feeling and school adap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was us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eighth, tenth and twelf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revealed that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eral happiness and the initial value in problem behavior had a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life feeling and school adap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development of a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to promot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continuous research related thereto.

- Key words: school life feeling, general happiness, problem behavior, school adapta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8차년도, 10차년도, 12차년도 설문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느낌이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경험한 학교 생활에 대한 느낌이 부적응적인 인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편향이 정서적·행동적인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본 연구 결과는 학교부적응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서적, 행동적 문제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매개효과 검증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연구변수 중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의 경우 이들 변수의 개인별 변화의 개인 간 변산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 느낌, 전반적 행복감, 문제행동, 학교적응 등의 4가지 연구변수를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측정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성과 참신성이 돋보이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 몇 가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외생변수인 ‘학교 생활 느낌’과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을 이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라고 설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느낌 척도는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즐겁니?’, ‘학교생활이 얼마나 기분이 좋니?’ 등의 문항으로,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학교 생활 느낌이 좋으면 학교적응을 잘 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두 변수에 관한 자료를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종단적으로 수집하셨기 때문에 ‘초1에서의 학교 생활 느낌’은 ‘초5에서의 학교적

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설정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 생활 느낌과 학교적응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가 학술적이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인 근거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1에서의 학교 생활 느낌은 전반적 행복감과 문제행동을 매개로 하여 초5에서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도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학교 생활 느낌(학교 관련 정서)이 행복감(개인 심리 정서)에 영향을 주고 행복감이 학교적응(학교 관련 정서)에 다시 영향을 준다고 설정하신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관련 정서가 개인 심리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설정하거나, 아니면 개인 심리 정서가 학교 관련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설정하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준다고 설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가설로 보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학교 생활 느낌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설정도 다소 비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1]에서 행복감의 개인별 변화가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정을 하셨는데, 행복감의 초기값이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정을 제외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행동 척도가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데, 초1, 초3, 초5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제행동 수준에 급격히 낮아진 것과, 전반적 만족감 척도가 ‘○○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1, 초3, 초5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이러한 결과가 종단자료 수집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에 의한 영향은 아닌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단자료 수집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결측값이 무선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결측값을 가진 학생을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 5〉에 의하면, 학교 생활 느낌이 문제행동 변화량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호와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팬텀변수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인 〈표 6〉에서 ‘학교 생활 느낌, 전반적 행복감 초기값, 문제행동 초기값, 학교적응으로의 이중 매개효과’와, ‘학교 생활 느낌, 전반적 행복감 변화율, 문제행동 변화율, 학교적응으로의 이중 매개효과’ 결과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

이은정²¹⁾ 최현주²²⁾

요약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6차~12차에 참여한 아동 및 보호자 2,15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의집중 문제 6차, 8차, 10차, 12차의 변화궤적을 검토하고,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과 변화율이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12차 학교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의 발달궤적은 부모의 인구배경학적 변인(연령, 학력), 월소득, 아동 성별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통제변인으로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주의집중 문제는 6차에서 12차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선형변화모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12차 학교적응 간 관계는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6세 때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주의집중 문제의 초기값은 낮아지며, 그 결과 12세 때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를 감소시키고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주의집중 문제, 부모-자녀 상호작용, 학교적응,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1. 서론

아동의 전반적 학교적응은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문제행동이란 나이에 적절하지 않거나 문화, 사회적 기대 또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가리키며(김수주, 2002; 손미선, 지은선, 2019; 이미라, 박세정, 2020; Kauffman, 1997).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의 결과이다(김선희, 1998). 그리고 이러한 문제행동은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기분 변화, 불안 및 우울감, 사회적 위축 등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규칙위반, 과잉행동, 주의 결핍 등 외현화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Achenbach

21) 고려대학교 대학정책연구원 연구교수

22)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Edelbrock, 1983).

이처럼 다양한 문제행동 가운데 특히 주의집중 문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권혜진, 정혜옥, 2015). 주의집중 문제란 주변의 다양한 자극과 정보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서보림, 한희수, 김태련, 조진실, 강민주, 2020). 실제로 주의집중력이 낮은 학생은 학업 성취 및 성적이 낮고, 학습 부진과 수업반항 문제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진성, 서만수, 2004; 박춘성, 홍경화, 2011). 더 나아가,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의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정민, 송수지, 2014; 신현숙,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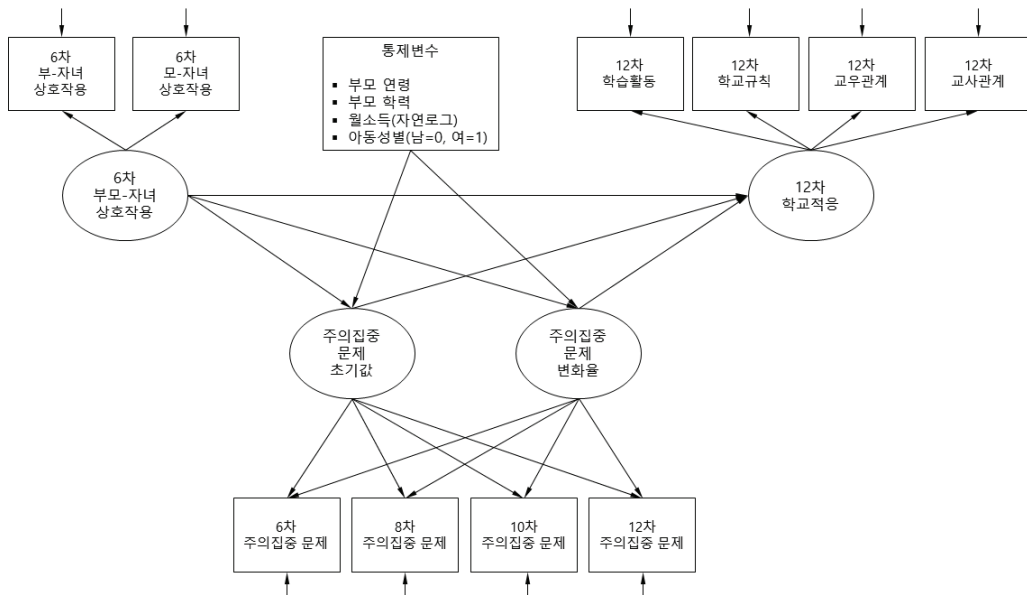
한편, 주의집중력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아기에는 환경 자극에 비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극에 대하여 보다 자기 주도적, 선택적으로 반응하게 된다(Gibson & Rader, 1979; Ruff & Rothbart, 2001). 이는 인지적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어떠한 일이나 목표를 인식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Hill과 Schoener(1996)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주의집중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주의집중력은 개인의 정서 상태, 외부의 물리적 환경 등(신현균, 2002)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이소은, 2007; 이숙희, 200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주의집중 문제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홍주연과 김현희(2013)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연구를 통해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 시작 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던 사례의 아동은 놀이치료를 통해 부모의 반응 행동이 향상되자 주의집중력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한지영, 이내영, 2019), 특히 유년시절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장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우주영, 서영숙, 1999).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주의집중 문제(Ruff & Rothbart, 2001)에 있어 초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제 가능한 요인인 외부적 변인에 초점을 둔다면 추후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인 6세에서 12세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

여 초기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의집중 문제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문제가 6세 때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12세 때 학교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가 부모의 인구배경학적 변인(연령, 학력), 월소득, 아동 성별에 영향을 받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이 정보들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 연구문제2.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 발달궤적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이해하고자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아동, 보호자 등을 설문, 관찰, 면접,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한 종단 데이터이다. 200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년간 진행되고 있는 설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 부, 모 그리고 아동의 6차, 8차, 10차, 12차 응답을 활용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측정 도구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6차)과 자녀의 학교적응(12차) 간 관계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녀 주의집중 문제(6차, 8차, 10차, 12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SPSS21을 사용하여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Mplus8을 활용하여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의 변화 양상을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적용하여 분석한 뒤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주의집중 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때, 부모의 인구배경학적 변인, 가구의 월소득과 아동의 성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이다.

가. 부모-자녀 상호작용

독립변인인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부-자녀 상호작용과 모-자녀 상호작용 2개의 측정 변인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 척도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되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나. 주의집중 문제

매개변인인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응답한 6차, 8차, 10차, 12차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의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였다. CBCL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평가하는 도구로 총 100~119 문항과 다양한 하위요인(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수면 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기타문제,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규칙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6차, 8차, 10차, 12차 주의집중 문제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다. 학교적응

종속변인인 자녀의 학교적응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6문항) 4개의 측정 변인으로 확인하였다. 아동이 응답한 1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문항은 총 21개로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였다.

라. 인구통계학적 정보

통제변인으로는 6차 데이터 중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구의 월소득과 아동의 성별을 사용하였다. 부모 관련 변인으로는 부와 모 각각의 연령과 학력을 포함시켰다.

III. 연구결과

1. 측정 변인 기초 통계 분석 결과

가. 기술 통계치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고 정규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독립변인인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5점 Likert 척도이며, 평균은 부-자녀 상호작용이 3.62(표준편차 0.63)로 모-자녀 상호작용 3.68(표준편차 0.5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개변인인 6차, 8차, 10차, 12차 주의집중문제는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평균은 6차가 43.22(표준편차 26.49)로 4개 연도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8차 44.26(표준편차 26.66), 10차 42.03(표준편차 27.19), 마지막으로 12차 38.40(표준편차 26.28)로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속변인인 12차 학교적응의 경우,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측정변인 모두 4점 Likert 척도인데, 평균은 학습활동이 3.11(표준편차 0.47), 학교규칙이 3.21(표준편차 0.45), 교우관계가 3.25(표준편차 0.43) 교사관계가 3.17(표준편차 0.60)로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6차, 8차, 10차, 12차 주의집중문제, 12차 학교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모두 왜도는 절대값 3을 넘지 않고, 첨도는 10을 초과하지 않아 Kline(2005)이 제안한 바에 따라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통제변인의 경우, 부 연령 평균은 38.56세(표준편차 3.96), 모 연령 평균은 36.09세(표준편차 3.63)였고,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5명(0.7%), 고등학교 졸업이 914명(42.5%), 전문대 졸업이 759명(35.3%), 대학교 졸업이 1,331명(61.9%), 대학원 졸업이 258명(12%)이었다. 나이는 비율변수로 보아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학력은 순위변수로 보아 무학 1점, 중졸 2점, 고졸 3점, 전문대졸 4점, 대졸 5점, 대학원졸 6

점으로 처리하였다. 월소득의 경우, 평균 433만원(표준편차 214.47)이었고, 왜도가 3.02, 첨도가 21.54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091명(50.7%), 여아가 1,059명(49.3%)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연구모형에 투입할 때는 더미변수(남아=0, 여아=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측정 변인 기술통계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독립변인: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6차 부-자녀 상호작용	1543	3.62	0.63	1.00	5.00	-0.20	0.43
6차 모-자녀 상호작용	1614	3.68	0.54	1.83	5.00	-0.08	0.26
매개변인: 주의집중 문제							
6차 주의집중문제	1651	43.22	26.49	18.00	100.00	0.48	-1.18
8차 주의집중문제	1577	44.26	26.66	11.00	100.00	0.28	-1.16
10차 주의집중문제	1461	42.03	27.19	11.00	100.00	0.45	-1.09
12차 주의집중문제	1227	38.40	26.28	11.00	100.00	0.66	-0.75
종속변인: 12차 학교적응							
12차 학습활동	1398	3.11	0.47	1.00	4.00	-0.28	0.64
12차 학교규칙	1398	3.21	0.45	1.00	4.00	-0.07	0.04
12차 교우관계	1398	3.25	0.43	1.00	4.00	-0.18	0.13
12차 교사관계	1398	3.17	0.60	1.00	4.00	-0.52	0.08
통제변인: 부모 연령, 부모 학력, 월소득, 아동 성별							
6차 부 연령	1636	38.56	3.96	24.00	56.00	0.32	0.68
6차 모 연령	1649	36.09	3.63	24.00	53.00	0.29	0.76
6차 부 학력	1636	5.57	1.44	3.00	9.00	1.05	0.84
6차 모 학력	1642	5.29	1.21	1.00	9.00	1.18	2.27
6차 월소득 (만원)	1653	433	214.47	0	3000	3.02	21.54
6차 월소득 자연로그	1650	5.98	0.44	3.40	8.01	-0.07	1.73
아동 성별 (남=0, 여=1)	2150	0.49	0.50	0.00	1.00	0.03	-2.00

〈표 2〉 부모 학력 분포

구 분	아버지		어머니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무학 (1점)	0	0	1	0	1	0
중학교 졸업 (2점)	8	0.4	7	0.3	15	0.7
고등학교 졸업 (3점)	435	20.2	479	22.3	914	42.5
전문대 졸업 (4점)	320	14.9	439	20.4	759	35.3
대학교 졸업 (5점)	701	32.6	630	29.3	1,331	61.9
대학원 졸업 (6점)	172	8.0	86	4.0	258	12.0
무응답	514	23.9	508	23.6	1,022	47.5

나. 변인 간 상관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주의집중 문제(6차, 8차, 10차, 12차)와 부적 상관을 지니고($r=-0.24\sim-0.08$), 12차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0.04\sim0.13$). 또한, 주의집중 문제는 12차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0\sim-0.06$). 주의집중 문제 변화궤적에 대한 통제변인의 경우, 부모 연령은 부적 상관($r=-0.07\sim-0.06$)이거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학력은 부적 상관($r=-0.15\sim-0.10$), 월소득은 부적 상관($r=-0.14\sim-0.06$), 아동 성별은 부적 상관($r=-0.14\sim-0.07$) 혹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독립변인: 부모-지녀 상호작용															
1. 6차 부-지녀 상호작용	1														
2. 6차 모-지녀 상호작용	.32 ^{***}	1													
매개변인: 주의집중 문제															
3. 6차 주의집중문제	-.18 ^{**}	-.24 ^{***}	1												
4. 8차 주의집중문제	-.16 ^{***}	-.22 ^{***}	.44 ^{***}	1											
5. 10차 주의집중문제	-.13 ^{***}	-.17 ^{***}	.38 ^{***}	.55 ^{***}	1										
6. 12차 주의집중문제	-.08 ^{***}	-.17 ^{***}	.35 ^{***}	.48 ^{***}	.52 ^{***}	1									
종속변인: 12차 학교적응															
7. 12차 학습활동	.13 ^{**}	.14 ^{**}	-.11 ^{**}	-.20 ^{***}	-.16 ^{***}	-.19 ^{***}	1								
8. 12차 학교규칙	.04 ^{***}	.07 ^{***}	-.07 ^{**}	-.11 ^{***}	-.11 ^{***}	-.12 ^{***}	.60 ^{***}	1							
9. 12차 교우관계	.08 ^{***}	.12 ^{***}	-.11 ^{***}	-.13 ^{***}	-.13 ^{***}	-.11 ^{***}	.58 ^{***}	.61 ^{***}	1						
10. 12차 교사관계	.09 ^{**}	.04	-.06 [*]	-.06 [*]	-.07 ^{**}	-.10 ^{***}	.48 ^{***}	.46 ^{***}	.46 ^{***}	1					
통제변인: 부모 연령, 부모 학력, 월소득, 아동 성별															
11. 6차 부 연령	.06 [*]	.04	-.06 [*]	.01	-.01	.01	-.04	-.02	-.06 [*]	-.10 ^{***}	1				
12. 6차 모 연령	.03	.07 ^{**}	-.07 ^{**}	-.05	-.04	-.02	.01	.01	.00	-.08 ^{**}	.72 ^{***}	1			
13. 6차 부 학력	.19 ^{***}	.17 ^{***}	-.12 ^{***}	-.15 ^{***}	-.10 ^{***}	-.10 ^{***}	.13 ^{***}	.06 [*]	.04	-.03	.09 ^{***}	.13 ^{***}	1		
14. 6차 모 학력	.14 ^{***}	.16 ^{***}	-.14 ^{***}	-.14 ^{***}	-.12 ^{***}	-.10 ^{***}	.12 ^{***}	.06 [*]	.04	.01	.05 [*]	.11 ^{***}	.56 ^{***}	1	
15. 6차 월소득 자연로그	.09 ^{***}	.12 ^{***}	-.14 ^{***}	-.12 ^{***}	-.06 [*]	-.10 ^{***}	.08 ^{**}	.01	.03	-.05	.12 ^{***}	.13 ^{***}	.28 ^{***}	.35 ^{***}	1
16. 아동 성별 (남=0, 여=1)	.02	.02	-.14 ^{***}	-.04	-.07 [*]	-.01	.04	.11 ^{***}	.08 ^{**}	.03	.01	.01	.01	.02	.03

* $p < .05$, ** $p < .01$, *** $p < .001$.

2. 주의집중 문제의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우선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가 6차에서 12차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값만 포함하는 무변화 모형(unconditional model)과 초기값과 변화율을 포함하는 선형모형(linear model)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주의집중 문제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표 4). 무변화 모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의집중 문제에 변화가 없음을 가정하는 모형이며, 선형모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의집중 문제가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카이제곱(χ^2) 차이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chi^2(3)=74.664$, $p<.001$), 이는 선형모형이 주의집중 문제의 변화궤적을 보다 적합하게 예측함을 뜻한다. 선형모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값 평균은 44.615(표준오차 0.607), 변화율 평균은 -1.713(표준오차 0.260)이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이는 연구대상들이 6세일 때 주의집중 문제의 평균은 44.615이며, 이는 12세까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지남을 뜻한다. 또한, 초기값의 분산(331.334, $p<.001$)과 변화율의 분산(22.312,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6세 주의집중 문제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6세에서 12세까지의 변화궤적 역시 개인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의미한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 간 공분산은 -15.491($p<.001$)로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둔화됨을 알 수 있다. 즉, 6세 때 주의집중 문제를 많이 보였던 아동은 12세까지 주의집중 문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지만, 6세 때 주의집중 문제를 별로 보이지 않았던 아동은 12세까지 주의집중 문제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임을 의미한다.

〈표 4〉 잠재성장모형 검증

구분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평균	초기값 (S.E.)	42.347*** (0.513)	44.615*** (0.607)
	변화율 (S.E.)	-	-1.713*** (0.260)
분산 및 공분산	초기값 (S.E.)	328.698*** (15.659)	331.334*** (24.062)
	변화율 (S.E.)	-	22.312*** (5.300)
	초기값↔변화율	-	-15.491*** (9.334)
모형 적합도	χ^2 (df)	133.603*** (8)	58.939*** (5)
	CFI	0.908	0.960
	TLI	0.931	0.952
	RMSEA	0.095	0.079
	(90% 신뢰구간)	(0.081~0.109)	(0.061~0.097)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주의집중 문제의 발달궤적을 통해 12차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chi^2(82)=332.084$ ($p<.001$), CFI=0.934, TLI=0.915, RMSEA=0.043 (90% 신뢰구간 0.039~0.048)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에는 부적인 영향을($\beta=-0.477$, $p<.001$), 주의집중 문제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beta=-0.47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6세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6세 때 주의집중 문제는 적게 나타났으나, 12세까지 주의집중 문제가 감소하는 비율은 낮았음을 의미한다. 즉, 6세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아동은 12세까지 주의집중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하지만, 6세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아동은 아동은 12세까지 주의집중 문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12차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에서만 유의했고($\beta=-0.211$, $p<.001$),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주의집중 문제의 변화율은 12차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이 높을수록 12세 때 학교적응은 낮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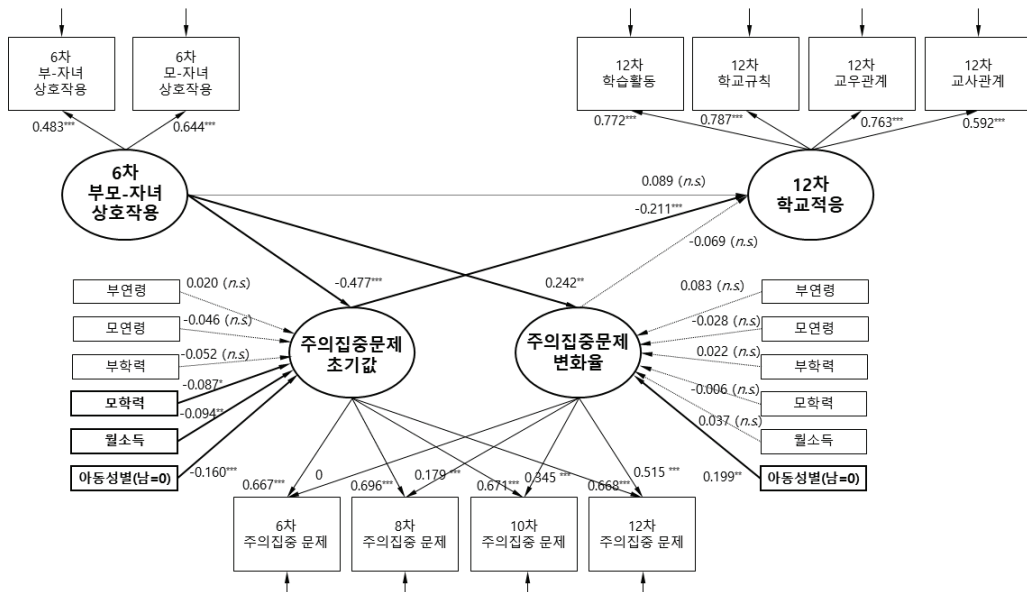
한편, 통제변인 가운데에서는 6차 모 학력($\beta=-0.087$, $p<.05$), 6차 월소득($\beta=-0.094$, $p<.01$), 아동 성별($\beta=-0.160$, $p<.001$)이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학력과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일수록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 성별은 주의집중 문제 기울기도 유일하게 예측하는 통제변인이었다($\beta=0.199$, $p<.01$). 이는 여아 보다는 남아일 때, 주의집중 문제가 빠르게 감소함을 뜻한다.

〈표 5〉 연구모형 검증

경로	B	β	S.E.	C.R.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28.270	-0.477***	3.478	-8.127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3.688	0.242**	1.239	2.976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 12차 학교적응	0.105	0.089	0.073	1.444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 12차 학교적응	-0.004	-0.211***	0.001	-4.171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 12차 학교적응	-0.005	-0.069	0.005	-1.059
6차 부연령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0.089	0.020	0.215	0.416
6차 모연령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0.227	-0.046	0.233	-0.971
6차 부학력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0.650	-0.052	0.502	-1.294
6차 모학력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1.300	-0.087*	0.602	-2.158

경로	B	β	S.E.	C.R.
6차 월소득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3.939	-0.094**	1.476	-2.668
아동성별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5.769	-0.160***	1.191	-4.842
6차 부연령 →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0.097	0.083	0.098	0.999
6차 모연령 →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0.036	-0.028	0.104	-0.344
6차 부학력 →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0.071	0.022	0.224	0.317
6차 모학력 →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0.024	-0.006	0.268	-0.090
6차 월소득 →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0.392	0.037	0.677	0.580
아동성별 → 주의집중문제 변화율	1.835	0.199**	0.542	3.384

* $p < .05$, ** $p < .01$, *** $p < .001$.



주1. 표준화 회귀계수임.

주2. n.s. = non-significant

주3.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12차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주의집중 문제 변화율적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앞선 분석에서 주의집중 문제 변화율과 12차 학교적응의 관계를 검토했을 때, “주의집중 문제 변화율”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의 매개효과만 살펴보았다. 그 결과,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 주의집중문제 초기값 → 12차 학교적응] 경로의 간접효과는 0.12(표

준오차 0.032)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 12차 학교적응]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beta=0.089$, $p>.05$),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은 6차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12차 학교적응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6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주의집중 문제의 초기값은 낮아지고, 그 결과 12세 학교적응은 증가할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주의집중 능력은 집행기능과 같은 상위 인지에 선행하는 기본적 기능으로 아동기에 주의집중 문제를 지나는 경우, 학업성취 및 대인관계에 전반에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문제들이 축적되면 결국 학교적응까지 저하될 수 있다(권혜진, 정혜옥, 2015; 김정민, 송수지, 2014; 박춘성, 홍경화,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의집중 문제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6세 때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12세 때 학교적응 간 관계를 주의집중 문제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의집중 문제가 아동기를 거치며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주의집중 문제의 변화궤적을 규명하고, 이러한 변화궤적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주의집중 문제는 6세에서 12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에 지속 주의력(sustained attention), 재정향(reorientation) 및 억제통제(inhibition control)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의집중 문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집중 문제의 감소율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의집중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 부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천장효과란 이미 충분히 높은 값은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워 그 수준이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에, 남아의 주의집중 문제 초기값이 여아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둘째, 주의집중 문제의 초기값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때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적게 나타나고, 이는 12세 때 학교적응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주의집중 문제의 초기값은 어머니 학력, 월소득, 아동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과 월소득이 높을수록 초기값이 낮았으며, 남아보다는 여아의 초기값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12세 때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6세 때 주의집중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6세 때 주의집중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학력과 월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아보다는 남아인 경우에 주의집중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주의집중 문제 취약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주의집중 문제를 지닌 채 학교에 입학해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주의집중 문제 변화율의 매개효과를 검증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6세 때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주의집중 문제의 감소율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주의집중 문제 감소율이 학교적응을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세에서 12세의 CBCL 주의집중 문제 변화 패턴을 유지(stable low), 증가(low-increasing), 감소(high-decreasing)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던 Robber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Robbers, van Oort, Polderman, Bartels, Boomsma, Verhulst, Lubke, & Huizink, 2011). Robbers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주의집중 문제의 변화 양상은 하위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의집중 문제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이는 변화율에 있어 각기 다른 패턴을 지닌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성장모형 혹은 잠재전이모형과 같은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의집중 문제의 감소율을 더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을 발견한다면, 주의집중 문제 개입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집중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한정짓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포함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주의집중 문제의 발달궤적을 규명함으로써 주의집중 문제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조망할 수 있었으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한편, 지금까지 주의집중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ADHD 진단을 받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임상집단 내에서 주의집중 문제를 지니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이 만나는 아동들은 대부분 비임상 집단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주의집중 문제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바탕으로 주의집중 문제 감소와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중단

적 영향력을 밝혔다. 6세 때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주의집중 문제를 통해 6년 후인 12세 때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6~7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환기로 학교적응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자녀 간 질 높은 상호작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적응 문제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적응 간 종단적 관계를 발견했다. 6세 때 주의집중 문제 수준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매개할 뿐 아니라, 12세 때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주의집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학교적응을 저해함을 뜻한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선별을 통해 주의집중 문제를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서행동검사에서 총점이 높지 않고 주의집중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는 지표로서 주의집중 문제 점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혜진, 정혜옥(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지원연구, 10(4), 79-96.
- 김선희(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수주(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정민, 송수지(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박진성, 서만수(2004). 고등학생의 주의집중력과 학업성적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113-140.
- 박춘성, 홍경화(2011). 집중력이 부족한 중학생의 학업성취발달 분석연구. 학습장애연구, 8(1), 141-166.
- 서보림, 한희수, 김태련, 조진실, 강민주(2020). 취학 전 미디어 노출과 어머니의 우울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주의집중문제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2), 267-278.
- 손미선, 지은선(2019). 알레르기질환 아동의 가정 내 환경요인과 문제행동의 관계: 2015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0(4), 426-436.
- 신현균(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171-187.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우주영, 서영숙(1999). 부모-자녀 초기 상호작용모델에 근거한 놀이치료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 놀이치료연구, 2(0), 35-47.
- 이미라, 박세정(2020).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 자율성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5), 169-191.
- 이소은(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과 주의집중력. 아동학회지, 28(2), 71-89.
- 이숙희 (2001). 가정환경과 아동의 주의집중력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윤,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정승아, 이수진(2016). 학령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 인성과 부모양육의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2), 499-518.
- 홍주연, 김현희(2013). 사례연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17(2), 73-91.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Gibson, E., & Rader, N. (1979). Attention. In Attention and cognitive development. Boston: Springer, .
- Hill, J. C., & Schoener, E. P. (1996). Age-dependent declin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9), 1143-1146.
- Kauffman, J. M. (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NJ: Merrill/Prentice Hall.
- Robbers, S.C.C, van Oort, F.V.A, Polderman, T.J.C, Bartels, M, Boomsma, D.I, Verhulst, F.C., Lubke, G.H., & Huizink, A.C. (2011). Trajectories of CBCL attention problems in childhood.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0(8), 419-427.
- Ruff, H. A., & Rothbart, M. K. (2001). *Attention in early development: Themes and vari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교신저자: 최현주, 울산대학교 조교수, serenhj@ulsan.ac.kr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Attention Problems

Eunjeong Rhee and Hyunju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n children's attention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Data of four-waves(two year apart)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 Education(KICCE) was used. A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confirm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the attention problems of 2,150 children in their age of 6 to 12. The mediating effect of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of attention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child interaction(T6) and the school adjustment(T12) was verified as well. Parents' demographic background variables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and the child's gender were expected to ha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trajectory of the attention problems, so were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as control variables. Results indicated that attention problems decreased from age 6 to 12 years.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child interactions (T6) and school adjustment (T12) was fully mediated by the initial value of the attention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interventions to reduce children's attention problems and improve school adaptation were discussed.

- Key words: Attention Problems, Parent-Child Interactions, School Adjustment, Latent Growth Model, PSKC, KICCE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의 주의집중문제는 여러 발달적 결과와 연관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요소들이 자기조절 및 주의집중을 통해 아동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양질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성장하고, 이는 이후 학령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는 역량으로 기여함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주의집중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미 충분히 우수한 연구논문이지만 보다 나은 연구로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께서 이론적 배경 및 논의를 통해 ADHD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언급하였으나 주의집중의 정의와 범주에 따라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므로, 좀더 넓은 범위의 주의집중능력에 대한 이론 및 연구결과를 정리한다면 더 나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학령전기 연령, 초등학교 시기, 그리고 초기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12세 시기의 시점에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각 변수가 해당 발달단계에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가 모두 부모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 행동에 대한 교사 관찰 응답 변수를 포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초록에는 2,105명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서술하였으나, 실제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1,398명 아동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바라며, 결측치에 대한 통계적 처리에 대한 정보 역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아동패널에는 집행기능곤란 변수가 여러 해에 걸쳐 측정되었으므로 집행 기능곤란 변수와 주의집중문제, 그리고 사회성 관련 척도의 일부 하위 등을 조합하여 변수를 구성하는 방법도 제안하는 바이다.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

김성식²³⁾ 윤예린²⁴⁾ 곽나람²⁵⁾

요약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 맞벌이의 영향과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 시점 학교적응 수준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변화 정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의한 변화를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2수준 모형에는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맞벌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동의 성별, 부모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 여학생은 학교적응을 더 잘 하지만 남학생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부모의 감독적 성향은 이러한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아동 관계, 창의적 학교 환경 등의 학교 변인은 부모 맞벌이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부모 학력, 부모 감독, 부모의 기관생활 관심, 교사-아동 관계, 창의적 학교 환경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점 학교적응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교사-아동 관계의 영향력은 4년 동안의 변화율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벌이 가구 아동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부모 맞벌이, 초등학교 적응, 다층성장모형

1. 서론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은 유아기 아동의 건강한 인지·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그 이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강가영, 2014). 아동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사회 규범 및 가치를 익히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감과 존중감을 지닌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간다. 이러한 맥락에

23)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24) 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25) 서울잠원초등학교 교사

서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하고 또래 및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규칙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정미영·문혁준, 2007).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접하는 학교 환경과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인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은 아동이 유아 교육 단계에서 경험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들은 물리적 환경,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민진, 2008). 이러한 입학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 아동들은 그 이후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이여봉, 2016). 초등학교에서는 아동들이 입학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누리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입학 초기 적응활동 등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기관 생활에 대한 관심, 자녀와의 활발한 상호작용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돌봄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반면, 부모 부재로 인한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 문제는 부모의 직장 재직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로 인한 돌봄에서의 차이가 자녀의 학습활동 적응, 학교규칙 준수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남지영·김재철, 2017; 임혜정·김경근, 2018).

특히 최근에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자녀 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돌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양육을 하면서 스스로 자녀의 성장을 돕는 역할보다는 경제적인 역할에 치우쳐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노은하·송주은·김문선, 2019).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면 돌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또한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업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 사회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근거로,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면서 일과 양육 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희·김대옥, 2020).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일-양육 갈등, 부모의 근로시간 등이 자녀의 성별, 양육태도 및 효능감, 교육적 관여 등을 매개

로 자녀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준호·박현정, 2012; 박인영·유조안, 2015; 연은모·최효식, 2019; 박새롬·홍예지·이강이, 2020). 반면, 자녀의 학교적응에 성별, 부모 최종학력 등의 배경 변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부모 변인, 교사-학생 관계, 교사·친구 지지 등의 학교 변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되기도 했다(김희수, 2003; 이진숙, 2004; 박은주·심우엽, 2005; 이에진·전은옥, 2019).

이처럼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만 맞벌이 요인의 영향력을 탐색하거나, 부모의 맞벌이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서 부모의 맞벌이 변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부모, 학교 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부모, 학교 변인 등은 맞벌이 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변화율에 대해 배경, 부모, 학교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부모 맞벌이 여부를 주요 관심 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돌봄 전념이 실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를 어떠한 배경, 부모, 학교 변인들이 완화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변화율에 대해 배경 변인과 부모 변인, 학교 변인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 셋째, 초등학교 시기 부모의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는 어떠한 배경 변인과 부모 변인, 학교 변인에 의해서 조절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 및 사회참여의 증가, 가족 역할의 변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으로 최근 10년간 맞벌이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강기정·박수선, 2007).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맞벌

이 가구는 전체 유배우 가구 중 약 46%를 차지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1.4%로 그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취학 이전인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중은 44.6%로 가장 낮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4.8%, 중·고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9.5%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관심 저하 등 자녀 돌봄 및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학 예정인 자녀를 둔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일을 잠시 중단하거나 그만두기도 한다. 취학 예정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초등학교가 본격적인 학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보조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준비 및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홍지연·조정주, 2018). 맞벌이로 인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남지영·김재철, 2017; 이재희·김대옥, 2020). 부모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모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을 매개로 자녀의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임혜정·김경근, 2018; 연은모·최효식, 2019; 기쁘다, 2020; 임양미, 2020). 이처럼 부모의 맞벌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육방식, 교육적 관여·지원, 교사-학생 관계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민정, 2004; 박인영·유조안, 2015).

한편에서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의 경우 자기 보호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기학습 통제능력이 길러졌을 수 있고, 맞벌이 여부보다는 배경, 부모, 학교 변인에 의해 아동의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정명경, 2009; 이준호·박현정,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 맞벌이 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고, 개인·가구 특성 및 부모·학교 변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희수, 2003; 이진숙, 2004; 박은주·심우엽, 2005; 이예진·전은옥, 2019).

배경 변인과 부모 변인은 양육환경으로서 유아기 아동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적응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별, 부모 학력과 가구 소득, 양육 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학교적응을 더 잘하고, 그 이후에도 높

은 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충일, 2018; 박성연·강지훈, 2005; 박인영·유조안, 2015; 이귀옥, 2017; 이희정·조윤주, 2009; 정경원·송종원, 2012; Brich & Ladd, 1997). 맞벌이 가구의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소득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 심리적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도 있다(윤광미, 2010; 김남연·임아름, 2018; 임혜정·김경근, 2018).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육 행동을 매개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 행동 중에서는 자녀에 대한 감독, 자녀의 기관 생활에 대한 관심,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이경아, 2004; 정윤미·장영애, 2009; 이영애·정현희, 2016).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강압적이지 않은 부모의 모니터링은 성별, 가구 소득, 맞벌이 여부를 통제한 이후에도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좌현숙, 2012; 최연실·배희분, 2017; 임양미,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모니터링),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자녀 기관 생활에 대한 관심을 부모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사와 친구 지지, 학급 분위기 등의 학교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초등학교에서는 1년 동안 한 학급의 친구들, 담임교사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해당 학년에서의 학업적·사회적 발달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받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아동 관계는 학생의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생들이 입학 초기에 학교적응을 더 잘하며 그 이후에도 학교적응 점수가 증가하거나 높은 학교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 2004; 박은주·심우엽, 2005; 김은설, 2018; 김진미·홍세영, 2019). 이러한 우호적 교사-아동 관계는 맞벌이로 인한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학생의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정·김경근, 2018). 학교 변인 중 아동이 인식하는 학교 환경도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인식하는 학급의 분위기가 허용적인 경우 지시적인 경우보다 아동이 학교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었다(권금진, 2009; 이병환·강대구, 2014; 최현주·정윤미, 2015). 또한 교사와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 분위기는 아동의 수업 참여, 학교생활만족감, 학업성취도 등 아동의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정·주자현·이은영,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생 관계, 교사·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학급풍토 등 아동이 인식하는 학교 환경을 학교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자녀의 학교적응이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더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학생 특성, 부모, 학교 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을 달리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 맞벌이 변인의 영향력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모 맞벌이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학생 성별, 부모 양육행동, 교사-아동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부모 맞벌이 변인의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부모 맞벌이 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부모 맞벌이 변인과 다른 변인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PSKC)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초기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 2,150명으로, 현재 12차년도(2019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그 중 8차년도(초1)부터 11차년도(초4)까지 총 4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종속 변인에 대한 아동의 개인별 성장선을 추정하기 위해 8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중 학교적응 변인에 대해 두 시점 이상 응답한 사례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때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039명이며, 이후 각 분석 모형에 투입되는 사례수의 경우 배경 변인, 부모 변인, 학교 변인에 대한 결측치를 고려하여 2차적으로 선별되었다.

2. 변인 구성

가. 종속 변인

종속 변인으로는 담임교사가 응답한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을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변인은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

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독립 변인 중 교사-아동 관계 변인과의 상관을 고려하여 교사적응을 제외한 3개 하위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에 따라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년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조사 연도의 학교적응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0.968~0.971로 양호하였다.

나. 독립 변인

1) 1수준 독립 변인

1수준 독립 변인으로는 시간 변인과 부모 맞벌이 여부 변인을 사용하였다.

시간 변인의 경우 전체 독립 변인의 조사 시점과 시점별 결측치 등을 고려하여 10차년도(초등학교 3학년) 시점을 0으로 코딩하였으며, 부모 맞벌이 여부 변인의 경우 아동의 부모 모두 직장에 재직 중이라고 응답하였을 때를 1, 이외의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맞벌이 비율은 각각 41.96, 43.48, 48.73, 55.74로, 아동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의 맞벌이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수준 독립 변인 구성

(명, %)

조사 연도		8차년도 (초1)	9차년도 (초2)	10차년도 (초3)	11차년도 (초4)
코딩 값		-2	-1	0	1
맞벌이	1	394 (41.96)	400 (43.48)	423 (48.73)	499 (55.75)
여부	0	545 (58.04)	520 (56.52)	445 (51.27)	396 (44.25)
N		939 (100.00)	920 (100.00)	868 (100.00)	895 (100.00)

2) 2수준 독립 변인

2수준 독립 변인으로는 배경 변인과 부모 변인, 학교 변인을 사용하였다.

그중 배경 변인으로는 10차년도에 조사된 아동의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최종학력 변인을 포함하였다. 또한 부모 변인으로는 8~11차년도에 조사된 부모감독, 기관생활관심 변인과, 8~9차년도에 조사된 부모-자녀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하였으며, 학교 변인으로는 9~11차년도에 조사된 교사-아동 관계 변인과 10~11차년도에 조사된 창의적 학교환경 변인을 포함하였다.

부모 변인과 학교 변인의 경우 2~4년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으며,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2수준 독립 변인들의 문항과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수준 독립 변인 구성

변인	하위 변인	문항 수	대표 문항	신뢰도	척도 (응답자)
배경 변인	성별	1	1=남아, 0=여아로 코딩		
	가구소득(로그)	1	월평균 가구 소득의 로그 값 산출 후 전체 평균 중심화		
	부모 최종학력	2 (각 1)	교육년수(12=대졸, 16=4년제 대졸 등)로 코딩하여 부모 평균값 산출 후 전체 평균 중심화		
부모 변인	부모감독	4	○○(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806~.821	5점 (부모)
	기관생활관심	1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	5점 (교사)
	부모-자녀 상호작용	20 (각 10)	아이와 함께 무엇을 만들거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852~.867	5점 (부모)
학교 변인	교사-아동 관계	15	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879~.906	5점 (교사)
	창의적 학교환경	10	선생님은 ○○(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755~.879	5점 (아동)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수준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을 구성하고 Stata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1수준 모형은 개인 내 모형으로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시간과 맞벌이 여부 변인을 투입하여, 아동 개인별로 나타나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수준(π_{0i}), 4년 동안의 변화율(π_{1i}), 맞벌이 여부 변화에 따른 차이(π_{2i}) 등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2수준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일부가 10차년도(초 3학년)에 조사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변인(year)을 초등학교 3학년 시점이 0이 되도록 설정하여 절편값(π_{0i})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점의 수준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2수준 모형은 개인 간 모형으로 1수준 모형에서 산출된 초기값과 변화율, 맞벌이 여부 변화에 따른 차이를 배경 변인 및 부모 변인, 학교 변인으로 설명하려는 모형이다. 분석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Y_{ti} = \pi_{0i} + \pi_{1i} Year_{ti} + \pi_{2i} \text{맞벌이여부}_{ti} + \epsilon_{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pi_{0i} &= \beta_{00} + \sum_{c=1}^C \beta_{0c} \text{배경변인}_{ci} + \sum_{q=1}^Q \beta_{0q} \text{부모변인}_{qi} + \sum_{s=1}^S \beta_{0s} \text{학교변인}_{si} + \gamma_{0i} \\ \pi_{1i} &= \beta_{10} + \sum_{c=1}^C \beta_{1c} \text{배경변인}_{ci} + \sum_{q=1}^Q \beta_{1q} \text{부모변인}_{qi} + \sum_{s=1}^S \beta_{1s} \text{학교변인}_{si} + \gamma_{1i} \\ \pi_{2i} &= \beta_{20} + \sum_{c=1}^C \beta_{2c} \text{배경변인}_{ci} + \sum_{q=1}^Q \beta_{2q} \text{부모변인}_{qi} + \sum_{s=1}^S \beta_{2s} \text{학교변인}_{si} + \gamma_{2i}\end{aligned}$$

투입 독립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개의 하위 모형을 설정하여 단계별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Ⅰ은 배경 변인만 투입한 모형, 모형Ⅱ는 부모 변인을 추가 투입한 모형, 모형Ⅲ은 부모 변인과 학교 변인을 모두 추가 투입한 모형이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 변인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아동의 학교 적응 정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8차)부터 초등학교 4학년(11차)까지의 학교적응 평균이 각각 3.953, 3.966, 4.121, 4.132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이 되는 시점에 가장 큰 기울기를 나타내며 상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 종속 변인 기술통계

변인		N	M	SD
학교적응	8차년도	905	3.953	0.766
	9차년도	862	3.966	0.746
	10차년도	598	4.121	0.727
	11차년도	650	4.132	0.735
남아		967	0.516	0.500

다음으로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전체 변인 상관분석

	적응_8차	적응_9차	적응_10차	적응_11차	남아	로그소득	부모학력	부모감독	부모관심	부모소통	교사관계	학교환경
적응_8차	1.000											
적응_9차	0.396	1.000										
적응_10차	0.341	0.374	1.000									
적응_11차	0.320	0.322	0.320	1.000								
남아	-0.218	-0.305	-0.246	-0.102	1.000							
로그소득	-0.028	-0.074	-0.031	-0.096	-0.003	1.000						
부모학력	0.074	0.090	0.130	0.064	-0.042	0.287	1.000					
부모감독	0.086	0.098	0.050	0.153	-0.083	-0.096	-0.098	1.000				
부모관심	0.225	0.246	0.307	0.299	0.010	-0.020	0.185	0.154	1.000			
부모소통	-0.023	-0.071	0.014	0.079	-0.015	-0.019	0.005	0.316	0.098	1.000		
교사관계	0.352	0.543	0.625	0.503	-0.204	-0.048	0.065	0.135	0.341	0.101	1.000	
학교환경	0.178	0.304	0.237	0.272	-0.135	0.082	0.056	0.065	-0.009	0.029	0.253	1.000

2. 모형분석

가. 기초 모형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 시기 학교적응 초기값과, 초등학교 1~4학년 시기 변화 정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 모형을 먼저 분석하였다.

<표 5>에 따르면 4년 동안의 변화율(π_{1i})은 0.066으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π_{2i})는 -0.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학생이라도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시기에 학교적응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분산 값에 따르면, 초기치와 변화율, 맞벌이 여부 편차 모두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초 모형 분석 결과

학교적응 (N=1,004)			
고정효과(평균)	계수	SE	
초기치(π_{0i})			
β_{00}	4.086 ***	0.026	
변화율(π_{1i})			
β_{10}	0.066 ***	0.011	
맞벌이여부(π_{2i})			
β_{20}	-0.034	0.032	
무선효과(분산)	계수	SE	신뢰구간(95%)
초기치편차, $Var(\gamma_{0i})$	0.240	0.026	0.195 ~ 0.296
변화율편차, $Var(\gamma_{1i})$	0.013	0.005	0.006 ~ 0.030
맞벌이여부편차, $Var(\gamma_{2i})$	0.101	0.045	0.043 ~ 0.241
1수준오차, $Var(\epsilon_{ii})$	0.286	0.014	0.261 ~ 0.314

나. 분석 모형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를 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배경 변인, 부모 변인, 학교 변인을 순차적으로 통제된 뒤 〈표 6〉의 모형 I ~Ⅲ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모형에 배경 변인을 투입한 모형 I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성별과 부모학력이 학교적응과 관련성을 보였다. 남학생($\beta=-0.310$)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낮았고,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70$).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변화율에 대해서는 남학생($\beta=0.038$)이 여학생보다 완화된 기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학교적응 수준에는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학력에 따른 학교적응의 격차가 특정 시점에 결정된 이후에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π_{2i})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가 맞벌이 할 때 학교적응이 어려운 현상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beta=-0.134$). 한편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은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와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Ⅱ는 부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으로서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에 대한

부모 변인의 영향을 탐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부모 감독 수준($\beta=0.506$)이 높을수록, 아동의 기관 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beta=0.294$)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3학년 시기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수 모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부모 변인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흥미로운 변화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개인 내 차이(π_{2i})에서 나타났다. 부모 감독 변인은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 맞벌이 여부의 영향에 대해서 -0.454 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아동에 대해 높은 감독적 성향을 보이는 부모일수록 맞벌이를 하게 되었을 때 아동의 학교적응에 좀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부모 감독의 정도가 높을 때 여학생($\beta=0.106-0.454$)의 경우 맞벌이로 인해 얻는 학교적응에 대한 이득이 감소하고, 남학생($\beta=0.106-0.156-0.454$)의 경우 맞벌이로 인해 얻는 학교적응에 대한 손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 감독 변인 투입에 따라서 부모 맞벌이 여부 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던 수준에서($\beta=0.035$, 모형 I)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beta=0.106$, 모형 II, $p<0.05$). 이와 함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맞벌이 여부의 영향력 차이가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감독적 성향이 통제되면 맞벌이 여부의 영향이 여학생은 긍정적으로(0.106), 남학생은 좀 더 부정적으로(-0.156)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들에게 부모들의 감독적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아동 성별에 따른 부모감독 성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여학생 부모가 남학생 부모보다 감독적 성향이 약 0.021 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t=2.4090$, $p\text{-value}=0.016$). 즉 여학생들에게 부모의 맞벌이는 오히려 학교적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학생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감독적 성향은 그러한 영향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모형III은 학교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먼저 초 3학년때 학교적응 수준에 대해서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 창의적인 학교환경 등이 관련성을 보였다. 교사와 아동의 관계($\beta=0.901$)가 친밀할수록, 창의적인 학교환경($\beta=0.143$)이 조성되어 있을수록 초등학교 3학년 시기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교적응 변화율($\beta=0.190$)에 대해서는 교사-아동 관계 변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동안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했던 학생의 경우 학교적응의 수준과 변화율 모두 높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형II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변화율(π_{1i})에 대한 부모 기관생활관심 변인의 영향력이 학교 변인을 통제한 뒤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진다는 점이다($\beta=-0.042$, $p<0.05$). 모형III에서 투입된 교사아동관계 변인의 계수가 0.19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아동의 기관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학년 증가

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상승폭이 감소하나($\beta=-0.042$), 이를 교사와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beta=0.190$)가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교 변인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모형Ⅱ) 부모의 기관생활관심에 따른 변화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의 기관생활관심이 높은 아동일수록 아동과 교사의 관계가 친밀한 경향을 보여 기관생활관심의 부적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 6〉 분석 모형 분석 결과

학교적응	모형Ⅰ (배경 변인) N=846		모형Ⅱ (부모 변인) N=843		모형Ⅲ (학교 변인) N=843				
고정효과(평균)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초기치(π_{0i})									
절편	4.241 ***	0.040	4.187 ***	0.038	4.070 ***	0.028			
성별(남)	-0.310 ***	0.055	-0.284 ***	0.051	-0.080 *	0.038			
가구소득(로그)	-0.033	0.061	-0.050	0.057	-0.043	0.041			
부모학력	0.070 ***	0.016	0.048 **	0.015	0.033 **	0.011			
부모감독			0.506 ***	0.121	0.222 *	0.089			
기관생활관심			0.294 ***	0.043	0.127 ***	0.033			
부모상호작용			-0.011	0.081	-0.043	0.058			
교사아동관계					0.901 ***	0.054			
창의적학교환경					0.143 ***	0.038			
변화율(π_{1i})									
절편	0.048 **	0.016	0.041 *	0.017	0.019	0.016			
성별(남)	0.038 †	0.023	0.043 †	0.023	0.062 **	0.022			
가구소득(로그)	-0.006	0.026	-0.007	0.026	0.005	0.024			
부모학력	0.005	0.007	0.005	0.007	0.001	0.006			
부모감독			0.063	0.047	0.038	0.043			
기관생활관심			-0.009	0.019	-0.042 *	0.018			
부모상호작용			0.013	0.035	-0.002	0.032			
교사아동관계					0.190 ***	0.030			
창의적학교환경					0.001	0.023			
맞벌이여부(π_{2i})									
절편	0.035	0.050	0.106 *	0.048	0.086 *	0.038			
성별(남)	-0.134 *	0.067	-0.156 *	0.064	-0.094 †	0.052			
가구소득(로그)	0.013	0.077	0.006	0.074	0.019	0.058			
부모학력	-0.026	0.021	-0.028	0.020	-0.024	0.015			
부모감독			-0.454 **	0.139	-0.220 *	0.107			
기관생활관심			0.044	0.052	0.024	0.043			
부모상호작용			-0.022	0.098	0.002	0.076			
교사아동관계					-0.045	0.071			
창의적학교환경					-0.034	0.053			
무선흉과(분산)	계수	SE	신뢰구간	계수	SE	신뢰구간	계수	SE	신뢰구간
초기치편차	0.213	0.026	.168~.271	0.164	0.023	.125~.215	0.025	0.008	.013~.047
변화율편차	0.011	0.006	.004~.031	0.013	0.006	.005~.031	0.017	0.004	.011~.028
맞벌이여부편차	0.089	0.045	.033~.239	0.098	0.044	.041~.235	0.010	0.012	.001~.108
1수준오차	0.288	0.015	.260~.319	0.285	0.015	.258~.315	0.255	0.011	.234~.27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그에 대한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초등학교 3학년 시점의 학교적응 수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변화율, 그리고 맞벌이 여부 변화에 따른 개인 내 학교적응 차이 정도를 추정하였다. 그런 다음 배경 변인과 부모 변인, 학교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세 가지 추정치들에 대한 변인들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영향을 탐색한 결과,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과 감독, 기관생활 관심, 교사-아동 관계와 창의적 학교환경 변인이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 시기 학교적응 추정치는 약 4.086로, 5점 척도임을 고려했을 때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를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기초통계에서 살펴보았듯 학생들의 학교적응이 2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 상대적으로 큰 기울기를 그리며 상승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초등학교 1~2학년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 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규칙 준수 및 학업,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에 점차 적응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적응 초기값 추정치에 일부 배경 변인 및 부모 변인, 학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일 때,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을 감독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의 기관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일수록, 학교환경이 아동을 존중해주고 창의성을 이끌어줄수록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 시기 학교적응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 변인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 변인의 경우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해당 변인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및 노작 활동의 빈도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부모가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함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학교 행사 및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교 1~4학년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대한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영향을 탐색한 결과, 부모의 기관생활 관심은 학교적응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교사-아동 관계 변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기초 모형을 분석한 결

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율은 0.066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초기값이 여학생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남학생의 학교적응 변화율이 높은 점은 천정 바닥 효과에 의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모형Ⅲ에서 학교 변인을 통제한 뒤 부모 기관생활관심 변인의 변화율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진 부분이다. 이는 앞서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 학교 변인 중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교사-아동 관계 변인과 부모의 기관생활관심 변인,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의 관계성을 통해 설명될 개연성이 있으며, 학교적응 변화율에 대한 부모 기관생활관심 변인의 부적 영향력을 교사와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비록 부모의 적극적인 기관생활관심은 학교적응 변화율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아동-교사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와 같은 부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수 추정치를 비교했을 때, 높은 아동-교사 관계로 얻게 되는 학교적응에 대한 이득이 높은 기관생활관심으로부터 얻게 되는 손해보다 큰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를 둔 아동에 대해서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그 방향성이 교사와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같은 학생이라도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시기에 학교적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배경 변인과 부모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는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맞벌이 변인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의한다(박인영·유조안, 2015; 박새롬·홍예지·이강이, 2020).

특히 성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시기에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의 학교적응 저하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부모의 맞벌이 이후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 관리 및 자기학습 통제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이준호와 박현정(2012)의 연구²⁶⁾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6) 이준호와 박현정(2012)에 따르면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과후 자기보호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남학생들은 여가시간을 증가시켜 자기학습 통제능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여학생들은 여가시간을 감소시켜

성별 이외에도 부모 맞벌이 여부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는 부모감독 변인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높은 감독적 성향을 보이는 부모일수록 맞벌이로 전환했을 때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높은 모니터링 수준을 보여준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그로 인한 규칙적인 생활이나 안정적인 학교적응이 흔들리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부모의 감독적 성향 수준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리 감독에 의해 양육되던 아동들은 부모에 의존하는 성향이 커지고 스스로 관리하고 주도하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부모의 감독과 관리가 줄어들게 되면 학교적응을 스스로 해나가는 데 좀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감독적 성향 수준은 앞서 살펴보았듯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부모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었을 때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이 점이 맞벌이로 인해 여학생들이 얻는 학교적응에 대한 이점을 감소시킨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모형Ⅱ에서 부모 감독 수준을 통제할 경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에 좀 더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여주던 부모감독 변인이 맞벌이로 인해 아동과 절대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결국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들의 어려움을 부모들의 관리 감독적 행동 강화로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돌봄 시설 확충이나 기타 기관과의 연계를 늘려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아동의 충분한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맞벌이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단순히 아동의 귀가 시간이나 연락 횟수를 늘리는 등 감독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아동들의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강가영(2014).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8, 81-110.

자기학습 통제능력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 강기정, 박수선(2007). 국내 맞벌이 부모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4(2), 123-143.
- 권금진(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초등교육학연구, 16(2), 21-40.
- 기쁘다(2020). 취업모의 우울과 일-양육 갈등이 아동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177-197.
- 김남연, 임아름(2018). 부모의 이중빈곤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맞벌이 가구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8, 120-160.
- 김민정(2004). 맞벌이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맞벌이 가정 아동의 복지감 측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27-159.
-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은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1), 19-34.
- 김진미, 홍세영(2019).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 영향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699-719.
- 김충일(201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4), 157-172.
- 김희수(2003). 부모의 맞벌이여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 김재철(2017). 방과 후 부모부재 유형과 학교적응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6), 281-306.
- 노은하, 송주은, 김문선(2019). 부모됨 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맞벌이 부모의 초기양육 경험의 내러티브 탐색. 교류분석상담연구, 9(1), 23-44.
- 박새롬, 홍예지, 이강이(2020).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역량과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3), 165-184.
- 박성연, 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은주, 심우엽(2005).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4(1), 285-310.
- 박인영, 유조안(2015). 가구소득 및 모의 취업 변인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관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157-186.
- 연은모, 최효식(20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효능감, 자녀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61-285.
- 윤광미(2010).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부부갈등과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 간 관계. 미래교육학연구, 23(2), 59-84.

- 윤소정, 주자현, 이은영(201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체계와 학습응집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1(2), 185-207.
- 이귀옥(2017). 성별, 자아탄력성, 학습습관과 부모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295-322.
- 이병환, 강대구(2014).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행동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0(3), 125-148.
- 이여봉(2016). 가족변인의 변화와 청소년의 학교 적응성 변화. 가족과 문화, 28(2), 1-40.
- 이영애, 정현희(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 이예진, 전은옥(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어머니의 취업, 가정환경,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1), 101-121.
- 이재희, 김대옥(2020).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유아 교육학논집, 24(3), 263-283.
- 이정운, 이정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준호, 박현정(2012). 맞벌이의 교육적 기회비용. 아시아교육연구, 13(3), 27-59.
- 이진숙(2004). 취학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 이희정, 조운주(2009).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 제6회 한국청소년 패 널 학술대회 자료집, 35-67.
- 임양미(2020).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 강압적 양육행동, 초등학교 자녀의 미디어기기 의존 및 집행기능 곤란 간의 구조적 관계. 학부모 연구, 7(4), 77-97.
- 임혜정, 김경근(2018). 취업모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교육수준별 교사-학생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2), 223-251.
- 정경용, 송종원(2012). 군집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유형 분류와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32, 119-143.
- 정명경(2009).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유아의 자아개념 및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영, 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윤미, 장영애(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91-102.
- 좌현숙(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최연실, 배희분(2017).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0), 279-307.
- 최현주, 정윤미, 김지원, 이상민(2015).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학생-교사에 착, 학습풍토, 학교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129-149.

홍지연, 조정주(2018). 만 5세 자녀를 둔 취업모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한 이해: '구상의 세계(a figured world)'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3(2), 83-104.

Bri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교신저자: 윤예린, 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yerin1565@gmail.com

The Difference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Dual-Income Parents and Moderating Effect of Background, Parents and School Variables

Sungsik Kim, Yerin Yoon, and Naram Gwa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ngitudinally analyze the effects of dual-income paren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ft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background, parents and school variables. To this end, the level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 elementary school 3rd grade, the degree of change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grade, the degree of change according to whether the parents are dual-income were analyzed using the multi-level growth model, and in the two-level model, background, parents, and school variables were sequentially inpu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ual-income paren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but it was found that they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child's gender and parental supervision. When parents are working dual-income, girls do better in school, but boys have a hard time adjusting to school. On the other hand, School variables such as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reative school environment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dual-income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Meanwhile, 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parent supervision, parents' interest in institutional lif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reative school environmen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on elementary school 3rd grade. And among them, the influence of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was maintained on the degree of change during four yea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mplications for successful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dual-income households were discussed.

• Key words: Dual-Income Parents, School Adjustment, Multi-level Growth Model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 맞벌이의 영향과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초1)부터 11차년도(초4)까지의 4개년도 자료를 2수준 다층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부모의 맞벌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동의 성별, 부모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변인(교사-아동관계, 창의적 학교 환경 등)은 부모의 맞벌이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부모 학력, 부모 감독, 부모의 기관생활 관심, 교사-아동 관계, 창의적 학교 환경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점 학교적응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아동 관계는 4년 동안의 변화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성별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시기에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의 학교적응 저하가 크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고, 높은 감독적 성향을 보이는 부모일수록 맞벌이로 전환했을 때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의에서는 모형Ⅲ에서 학교 변인을 통제한 후 부모 기관생활관심 변인의 변화율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진 부분을 주목하였는데, 학교적응 변화율에 대한 부모 기관생활관심 변인의 부적 영향력을 교사와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부모의 기관생활관심, 교사아동관계 및 학교적응 변인이 모두 교사 응답으로 이루어진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논의에서는 더 나아가 비록 부모의 적극적인 기관생활관심은 학교적응 변화율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교사-아동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와 같은 부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표4>의 전체 변인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관심과 교사관계의 상관관계가 0.341로 나오는데 변인들 간 상관 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기관생활관심이 교사와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논의에서는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를 둔 아동에 대해서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그 방향성이 교사와 아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향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표6>의 모형Ⅲ에서는 맞벌이 여부를 통제할 때 교사-아동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아동관계가 부모의 맞벌이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호적 교사-아동관계가 맞벌이로 인한 방과후 돌봄 공백이 학생의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맞벌이 부모를 가진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교사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결론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여주던 부모감독 변인이 맞벌이로 인해 아동과 절대적으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돌봄 시설 확충 및 기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부모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정책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정책 뿐 아니라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및 적응 2

좌장: 이희선(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아동의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

발표자: 김형석(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정호(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홍혜영(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토론자: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발표자: 이귀옥(울지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토론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

3.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 분석

발표자: 이경희(호서대학교 혁신융합학부 조교수)

박혜영(호서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조교수)

토론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아동의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

김형석²⁷⁾ 이정호²⁸⁾ 홍혜영²⁹⁾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 만족감에 대하여 개인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학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데이터는 한국 아동 패널 연구 10차년도(초등학교 3학년, 2017년), 1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 2018년), 12차년도(초등학교 5학년, 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1,316명을 대상으로 학교 만족감 계층은 '저만족·점진적상승형'(21.6%), '고만족·점진적하락형'(78.4%)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만족감 향상의 예측요인은 개인요인(자아존중감, 끈기, 적은 스트레스), 부모요인(가족과의 시간), 학교요인(친구 지지, 교사 지지, 엄격한 규칙)이 학교 만족감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만족감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학교 만족감, 행복감, 성장혼합모형,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교사의 지지

1. 서론

학교에서 지향하는 21세기 교육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갖춘 행복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공식적인 조직이다(황선영, 노병일, 2015). 초등학교는 아동들이 처음 접하는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허용되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시기이다(장희선, 2020). 아동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장이며, 또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곳으로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선미숙, 2017; 임세희, 김선숙, 2016). 초등학교의 성장 과정에서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며,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그

27)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8)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9)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특히 아동기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 만족감은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데 필수적이며, 추후 청소년기의 행복한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성인 이후의 사회인으로 평생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김희연, 탁하연, 2020; 유민상, 2016).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막 벗어난 3학년부터는 놀이 중심의 교육에서 점차 교과 중심으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달라지며, 교육 환경을 비롯해 또래 환경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범위의 교육적 환경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장희선, 2020). 또래와의 관계성이 중요시되면서 동시에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다. 학교에서 아동들의 삶의 질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친구와의 만족도와 적절한 학업 수행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박삼철, 2007).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 만족감은 자신의 건강과 성적에 만족할수록,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교우 간 신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자신이 사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할수록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현정, 윤지영, 2015).

만족감은 주관적인 정서이며 인지적 결과로 자신의 경험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를 말한다. 학교는 아동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소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 통합적인 공간으로, 학교 만족감은 학교라는 적응 환경에서 지각하는 만족감을 일컫는다(김희연, 탁하연, 2020). 일반적으로 학교 만족감이 높은 아동들은 학교에 대한 태도나 정서가 올바르고 규범과 규칙을 잘 따르며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보인다. 이는 이후의 삶에서도 정상적이고 원만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된다(이진성, 2013; 한정아, 2017; Brady-Amoon & Fuertes, 2011).

초등학생들의 학교 만족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 적응, 학교생활 만족도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권미나, 이진숙, 2020; 장희선, 2020). 학교생활 만족감 역시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학습활동,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 학교행사 및 특별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자영, 2011; 원진욱 2005).

한편,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부모 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이 보고되었다(권동택, 2014; 김나영, 김영식, 2013; 박명국, 2013; 박희경, 손환희, 2019;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8; 조성희, 김희수, 2016). 이처럼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의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관적 행복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항상 긍정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조소연, 2014; Leary & McDonald, 2003).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주로 가족 요인에서 탐색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자율성과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배지아 외, 2016; Offer, 2013).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끈기는 성취목표를 거쳐 학업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어 학교 만족감이 좋다. 끈기가 높은 사람들은 부지런하며 노력을 더 하고 실패로 낙심하지 않으며 목표에 더 집중하고 과제를 완수할 가능성이 높다(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Bazalais, Lemay, & Doleck, 2016).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며 긍정적 사고를 끌어내는 것,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동기화하는 것,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등이 학교 만족감에 포함된다(박영순, 2019).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의 만족감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동이 자신의 삶이나 할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며 성취해 나가는 개인적 차원의 목표 수립 및 성과 달성과의 관련이 있다(전종희, 2021). 아동의 스트레스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아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신혜숙, 2014).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면서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주관적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심리적 불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할 수 있다(Boardman, 2006; Trzesniewski et al., 2006).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상대방이 친밀감 있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정서와 관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사회인식 역량이 필요하다(Denham, 2006; Jones, Bailey, & Jacob, 2014).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매우 중요하다.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충분한 시간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의 삶에 관여할 기회가 주어진다(이주연, 2012; Crouter et al., 2004; Offer, 2013).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 자녀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으며(성순정, 권순자, 2010) 가족과 여가활동을 자주 할수록 아동들이 높은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였다(이주연, 2012). 국외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가족 공유시간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Crouter et al., 2004; Eisenberg et al., 2004; Offer, 2013).

일반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최우선으로 영향을 준다. 부모의 애정적인 보살핌과 부드러운 지도는 아동의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반면 강요적이고 방임적이며 거부적인 양육 태도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공격적인 성향으로 성장하게 한다(Perry, Kusel, & Perry, 1988). 또한 사회 관계성에 문제가 되어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고 반항적으로 될 수 있다(Kerr et al., 2004).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삶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 행동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거부와 강요적인 양육 행동은 자기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아동에게 미치기 쉽다(Crockenberg & Litman, 1990).

양육태도 중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가 아동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게 설정하여 아동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고평가함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압력으로 정의된다(홍영주, 이지연, 2012). 성취압력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 불안 등 자녀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선혜연, 오정희, 2013; 홍세정, 오인수, 2016; Bronstein et al.,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해 감정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이재용, 최준섭, 박성희, 2018; 홍종관, 2016). 친구들의 지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 교사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반에서의 새롭고 엄격한 규칙과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 등은 아동들이 효과적이고 질 높은 교육 활동 수행에 있어 매우 주요한 변인이 됨을 예측할 수 있다(임영미, 정희정, 2016; 김기철, 신애선, 2016).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Diener, Lucas, & Oishi, 2018), 가장 시선을 끈 것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강영하, 2020).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교류를 통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김수정, 2018).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감 요인에는 반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와 학습활동의 즐거움, 심리적 안정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만족하고,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김종백, 김태은, 2008).

아동들이 학교 안과 밖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만족감은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복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만족감 관련 요인들을 크게 개인영역, 부모영역, 학교영역으로 분류하였다(정이나, 2015; Pollard, Hawkins, & Arthur, 1999). 따라서 다양한 영역별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끈기, 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가정 변인으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성취압력을 사용하였다. 학교 변인으로는 친구들의 지지, 교사의 지지, 학급 내 엄격한 규칙을 예측요인으로 학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만족감에 관련한 대다수의 국내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학교 만족도의 정도를 비교하거나 부모나 교사 또는 또래 집단의 관계, 자아존중감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들과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아동의 삶의 만족과 관련한 많은 국내연구는 나이, 학년, 성별 차이 등을 중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횡단적 연구로, 삶의 만족에 대하여 비교 결과를 보고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심리·정서적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아동들의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되어왔다(김용희, 한창근, 2017; 박희경, 손완희, 2019). 자료를 상관관계 분석이나 t-검증, 변량분석, 회귀분석과 같은 관계검증 방법으로 분석하여 연구한 것이 많았다(강영하, 2020). 아동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어떤 요인들이 아동들의 학교 만족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아동의 학교 만족감에 대한 개인별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아동들의 학교 만족감을 지원하는 방안을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 만족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개인별 변화궤적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만족이 부모나 교사에 대한 분노가 전이되어 교사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나(오영은, 2000), 또래 관계에서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등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교우관계와 학습활동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김민주, 도현심, 2017; 이성희, 윤지영, 2016)과의 관련성을 개인별 변화궤적을 추적하여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년 시기별로 만족감과 같은 개인적 심리 요인이나 부모와 교사 관계와 같은 주변 요인 등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감과 관련 있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아동들이 학교에서 만족감 증진을 위한 영향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자료를 시기별로 학교 만족감에 대한 개인별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개인별 변화궤적은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변화궤적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은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가?
- 연구 문제 3.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10차연도(2017년) 초등학교 3학년, 11차연도(2018년) 4학년, 12차연도(2019년) 5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여러 변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응답자 2,150명 중 결측치를 제거하고 남아동 669명(50.8%), 여아동 647명(49.2%), 총 1,3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학교 만족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아동 설문 주요 영역에서 아동의 학교 만족감으로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문항은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추정에 사용되는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학교 만족감 문항의 내적 일치도 분석(Cronbach's α)을 통해 측정된 문항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보편적으로 Cronbach α 계수 값이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교 만족감 5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학교 만족감 하위요인별 측정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측정 문항	Cronbach α		
		초3	초4	초5
학교 만족감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떻니?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떻니?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어떻니?	.797	.790	.710
	학교를 좋아하니?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니?			

나. 예측요인 척도

아동의 학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로는 10차연도(2017년) 초등학교 3학년의 개인 요인에서 자아존중감 5문항, 끈기 8문항, 스트레스 3문항, 부모 요인에서 가족과의 시간 3문항,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9문항, 성취압력 15문항, 학교 요인에서 친구의 지지 3문항, 교사의 지지 3문항, 학급 내 엄격한 규칙 4문항을 사용하였다. 활용한 척도들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학교 만족감 예측요인별 측정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측정 문항(예시)	Cronbach α
개인	자아존중감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외 4문항	.825
	끈기 ○○(이)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내니? 외 7문항	.620
	스트레스 ○○(이)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니? 외 2문항	.787
부모	가족과의 시간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외 2문항	.684
	긍정적 양육태도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외 8문항	.898
	성취압력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외 14문항	.885
학교	친구의 지지 ○○이 친구들은 ○○이 의견을 존중해 주니? 외 2문항	.842
	교사의 지지 선생님은 ○○이를 믿어주니? 외 2문항	.793
	엄격한 규칙 ○○이 반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많이 있니? 외 3문항	.643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를 사용하였으며,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실시하여 학교 만족감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GMM은 개인별 변화궤적을 집단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우선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으로 시간에 따라 표집의 평균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초깃값과 기울기로 이루어진 함수를 산출하였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차년간 3번 반복 측정한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성장모형과 선형적 성장모형을 분석 비교하였다. Meredith와 Tisak(1984)이 정해진 변화궤적의 형태에 따라 요인부하값을 고정하는 모형뿐만 아니라 자료의 형태에 따라 변화궤적을 자유롭게 추정하는 방식도 제안하였다(김수영, 석혜은, 2015에서 재인용). 본 연구모형에서는 첫 번째(초3), 세 번째(초5) 요인 부하 값은 0과 2로 고정하여 기울기 변화요인의 단위를 설정하고 나머지 두 번째(초4) 요인 부하 값을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변화궤적에 따라 추정하도록 하는 추정성장모형(Spline Growth Curve Model)을 추가 검증하였다. 즉, 기울기의 요인부하값에서 두 개(0과 2)를 제외한 두 번째 요인부하값이 고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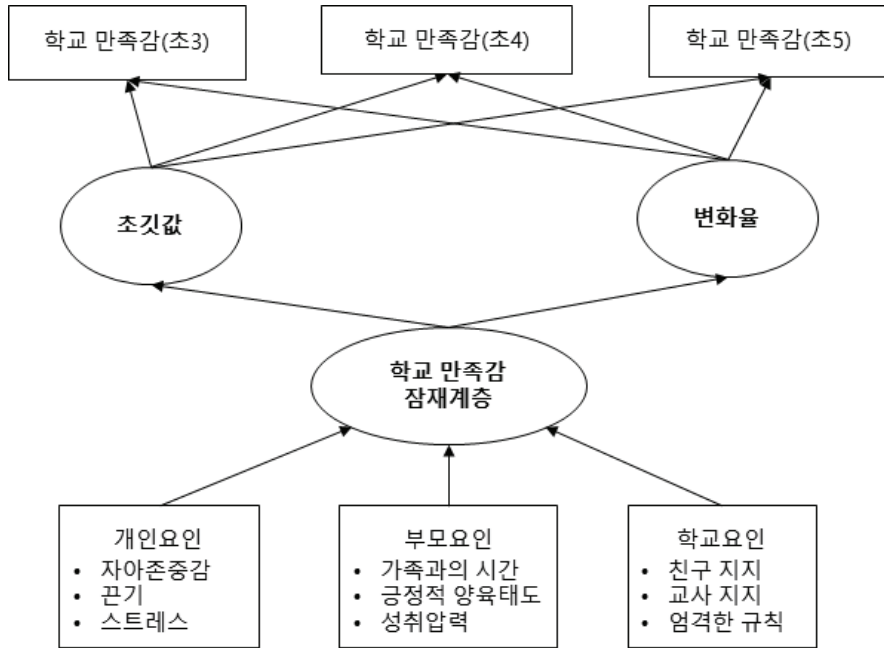
지 않고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통해 잠재계층을 결정하였다. 가장 적합한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LRT, BLRT 등의 결괏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AIC와 BIC 및 Adjusted BIC는 표집의 크기, 추정 모수의 수를 고려하여 모형적합통계(model fit statistics) 값들이 낮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판단하고 있다(Muthén & Muthén, 2000). 개별사례가 선별된 계층에 얼마나 적합하게 분류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Entropy 지수를 고려하였다. Entropy는 추정한 모형 대상들의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이다. Entropy가 0이면 잠재계층의 분류가 임의적인 상황이고, Entropy가 1이면 잠재계층이 완벽하게 분류된 상황을 의미한다(Jung & Wickrama, 2007). LMR-LRT 통계적 결괏값과 BLRT 통계적 결괏값은 잠재계층 수가 $k-1$ 개인 모형과 k 개인 모형 간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5보다 크면 잠재계층의 수를 $k-1$ 개로 정하고,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잠재계층의 수를 k 개로 정한다(Van Horn et al., 2009).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의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교 만족감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부모, 학교 요인으로 나누어 예측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예측요인들이 학교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적은 집단을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각 예측요인의 승산비를 도출하고 상대계층에 속할 확률 변화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4. 연구모형

아동의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을 분류하고 잠재계층의 구조 관계와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1. 주요 요인의 기초분석 자료

학교 만족감 유형을 탐색하기에 앞서 자료의 전반적인 특징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의 학교 만족감 측정요인과 예측요인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 통계치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상관계수는 -0.077 에서 $.531$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일부 하위요인 간 유의하지 않은 상관이 있었으나,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도는 -1.27 에서 $.46$ 사이에 분포하고, 첨도는 $-.45$ 에서 2.40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문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주요 요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 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92**	1										
3	.347**	.499**	1									
4	.321**	.517**	.347**	1								
5	.273**	.397**	.294**	.462**	1							
6	-.148**	-.268**	-.445**	-.232**	-.258**	1						
7	.330**	.245**	.190**	.317**	.233**	-.105**	1					
8	.104**	.127**	.104**	.100**	.144**	-.081**	.120**	1				
9	-.060*	-.091**	-.021	-.077**	-.154**	.166**	-.054*	-.096**	1			
10	.326**	.531**	.343**	.458**	.381**	-.210**	.222**	.099**	-.054	1		
11	.294**	.566**	.297**	.414**	.344**	-.189**	.240**	0.038	-.034	.629**	1	
12	.174**	.359**	.216**	.165**	.281**	-.181**	.057*	.055*	-.305**	.238**	.332**	1
명	1316	1316	1316	1316	1316	1316	1316	1290	1316	1316	1316	1316
최솟값	1	1	1.2	1	1.5	1	1	2.3	1	1	1	1
최댓값	4	4	4	4	5	5	3	5	4.9	5	5	5
평균	3.22	3.18	3.13	3.50	3.41	2.13	2.27	3.96	2.41	3.90	3.91	3.68
표준편차	.58	.57	.51	.46	.56	.85	.38	.46	.69	.88	.78	.70
왜도	-.84	-.66	-.45	-1.27	.22	.46	-.03	-.24	.47	-.63	-.51	-.43
첨도	.57	.22	.24	2.40	.02	-.29	-.45	.11	.10	.08	.13	-.05

1. 학교 만족감(초3), 2. 학교 만족감(초4), 3. 학교 만족감(초5), 4. 자아존중감, 5. 끈기, 6. 스트레스, 7. 가족과의 시간, 8. 긍정적 양육태도, 9. 성취압력, 10. 친구의 지지, 11. 교사의 지지, 12. 엄격한 규칙

* $p < .05$, ** $p < .01$

2.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LGM을 적용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의 학교 만족감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무성장모형의 경우, 적합도에서 CFI는 .90보다 작고, RMSEA는 .10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웠다(CFI=.899, TLI=.924, RMSEA=.121). 다음으로 선형적 성장모형을 가정한 결과, 적합도가 CFI, TLI는 .90 보다 크고, RMSEA는 .05 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FI=1.00, TLI=1.00, RMSEA=.00). 따라서 최종 모형을 선형적 성장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의 평균은 3.216점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1년에 .043($p < .001$)만큼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율 요인의 분산은 .051($p < .001$)로 개인별 변화의 개인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깃값 요인과 기울기 요인 간의 공분산은 $-.055(p<.001)$ 로 부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계적에 관한 선형성장모형 분석결과

독립변수	무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Estimate	SE	Estimate	SE
고정효과				
초깃값	3.169***	.012	3.216***	.016
기울기			-.043***	.009
무선효과				
초깃값 분산	.135***	.008	.211***	.034
기울기 분산			.051***	.007
초깃값과 기울기 공분산			-.055***	.017
$\chi^2(df)$	80.910***(4)		.000***(0)	
CFI	.899		1.000	
TLI	.924		1.000	
RMSEA	.121		.000	

*** $p<.001$

3. 학교 만족감의 잠재계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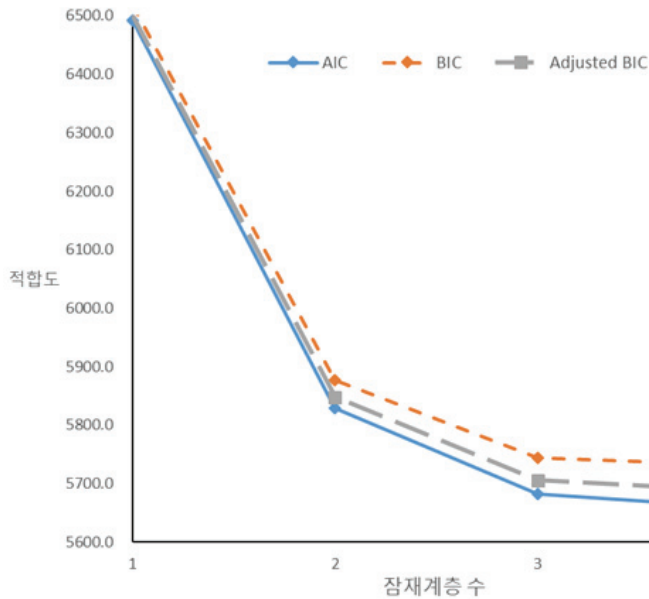
아동의 학교 만족감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LPA를 실시하였다. 잠재계층 수에 관한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정보지수 적합도는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Adjusted BIC 값은 감소하였으며, LMR-LRT, BLRT는 모두 잠재계층 수에서 유의하였다. Entropy 적합도 값이 잠재계층 수가 두 개일 경우 .768이었으며, 잠재계층의 최소계층 비율도 21.6%로 가장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잠재계층 수가 세 개일 경우에는 잠재계층별 초깃값과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계층별 모형적합도와 〈표 6〉과 같이 잠재계층별 초깃값과 변화율이 유의미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두 개 집단을 선택하였다.

〈표 5〉 잠재계층 모형적합도 결과

계층수	AIC	BIC	A-BIC	Entropy	LMR	BLRT	최소계층 비율(%)
1	6492.0	6517.9	6502.1	1.000			
2	5829.6	5876.2	5847.6	.768	640.7***	670.4***	21.6
3	5681.6	5743.8	5705.7	.681	147.1***	153.9***	9.4
4	5658.8	5731.4	5686.9	.662	43.0	45.0***	6.2

***p<.001



[그림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학교 만족감의 계층별 특징을 살펴보고, 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284명(21.6%)로 초등학교 3학년 학교 만족감의 평균 초깃값은 2.54점으로 낮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만족감 변화율이 .071로 상승하고 있어 ‘저만족·점진적상승형’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1,032명(78.4%)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고 초등학교 3학년 학교 만족감의 평균 초깃값은 3.39점으로 높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만족감 변화율이 -.060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만족·점진적하락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학교 만족감에 대한 잠재계층별 비율과 학년별 평균점수는 〈표 7〉과 같다. 잠재계층별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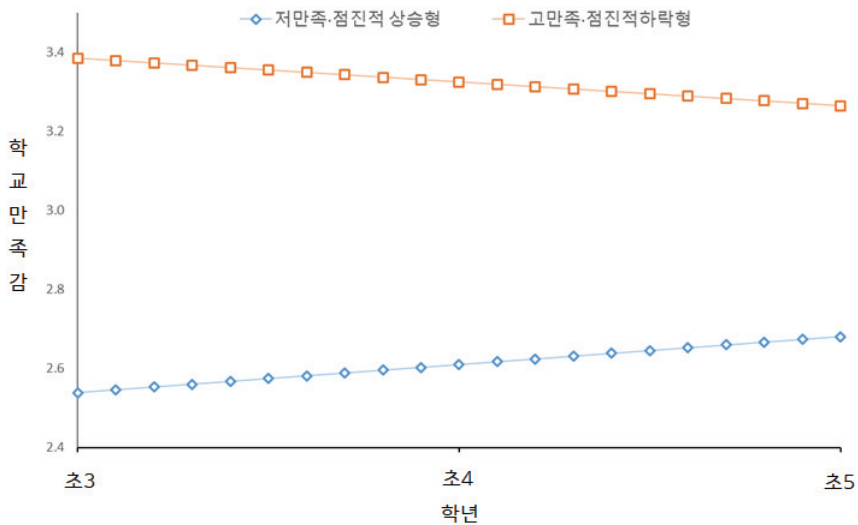
〈표 6〉 학교 만족감 변화궤적의 잠재계층별 초깃값과 변화율

성장 요인	저만족·점진적상승형		고만족·점진적하락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깃값	2.54***	.059	3.39***	.095
변화율	.071***	.017	-.060***	.015

***p<.001

〈표 7〉 잠재계층별 학년에 따른 학교 만족감 평균

학교 만족감	초3		초4		초5		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저만족·점진적상승형	2.54	.54	2.42	.43	2.66	.48	284(21.6)
고만족·점진적하락형	3.40	.43	3.38	.40	3.26	.43	1,032(78.4)



[그림 3] 학교 만족감 변화궤적의 잠재계층별 변화 유형

4. 학교 만족감 잠재계층에 대한 예측요인의 효과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개인 예측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끈기, 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부모의 예측요인으로 가족과의 시간, 긍정적 양육태도, 성취압력을 투입하였다. 학교의 예측요인으로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엄격한 규칙을 투입하였으며 성별로 남아와 여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저만족·점진적상승형’ 계층을 참조집단으로 선정하여 ‘고만족·점진

적하락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학교 만족감과 관련 예측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교 만족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 영역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끈기가 좋을수록 '저만족·점진적상승형'보다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b=.854$, $p<.001$; $b=.548$, $p<.01$).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2.35배, 끈기는 1.73배 순으로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어 '고만족·점진적하락형'보다 '저만족·점진적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을 더 높였다($b=-.419$, $p<.001$).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66배 '저만족·점진적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을 더 높였다. 부모 영역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저만족·점진적상승형'보다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b=.902$, $p<.001$). 가족과의 시간이 많을수록 2.45배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의 성취압력은 유의미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 영역에서는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학급 내 엄격한 규칙이 있을 때 '저만족·점진적상승형'보다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b=.488$, $p<.001$; $b=.594$, $p<.001$; $b=.519$, $p<.001$). 아동에게 친구의 지지가 좋을수록 1.63배, 교사의 지지는 1.81배, 학급 내 엄격한 규칙이 있을 때, 1.68배 증가하여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8> 아동의 학교 만족감 영향요인

영향요인	[참조집단] 저만족·점진적상승형		
	고만족·점진적하락형		
	b	s.e.	exp(b)
개인	자아존중감	.854***	2.349
	끈기	.548**	1.730
	스트레스	-.419***	.658
부모	가족과의 시간	.902***	2.464
	긍정적 양육태도	.007	1.007
	성취압력	.124	1.132
학교	친구의 지지	.488***	1.630
	교사의 지지	.594***	1.812
	엄격한 규칙	.519***	1.681
성별	여아동	-.288	.750

** $p<.01$, *** $p<.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게 되는 학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아동들의 개인별 변화궤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교 만족감에 대한 집단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부모, 학교 특성 중 어떠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 만족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감 변화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의 평균은 1년에 .043 정도씩 낮아지며, 개인별 변화에 대한 개인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학교 만족감의 변화율 값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감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들과 일치하였다(김아영, 이명희, 2009; 조성연 외, 2009; 허유성, 최지영, 남창우, 2011).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 만족감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저만족·점진적상승형’과 ‘고만족·점진적하락형’ 두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잠재계층별 학생 비율은 ‘저만족·점진적상승형’은 21.6%, ‘고만족·점진적하락형’은 78.4%로 확인되었다. ‘저만족·점진적상승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초깃값은 낮았으나 점진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상승하고 있었다. ‘고만족·점진적하락형’은 초깃값은 높았으나 점진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만족감이 하락하고 있었다. 최효식, 이선영(2020)의 연구에서 네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였으나 10% 미만의 계층을 정리하여 두 개의 계층으로 재분류한다면 ‘상수준 감소형 계층’과 ‘중수준 증가형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저만족·점진적상승형’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예측요인을 투입하여 영향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요인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끈기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에게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다. 보편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감과 만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들이 삶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내하며 헤쳐나간다고 볼 수 있다. 끈기가 있는 아동은 본인의 행동을 조절하고 안정적으로 정서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 끈기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성취하려는 목표가 높아지고, 자신감과 행복감이 향상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임효진 외, 2016). 아동들이 학업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작은 목표들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는 끈기와 노력이 학교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육은 경쟁적으로 선행 학습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인하여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조기교육을 위해 방과 후에 학원과 과외 등에서 느끼는 과중한 공부로 인하여 아동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아동들의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아동들의 학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이는 학교 만족감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

넷째, 부모 요인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많을수록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공부에 대한 성취압력은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이 학교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공부에 대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성취압력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아동들의 행복감을 높여 주는 것이 학교 만족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친근감 있는 사회관계 형성과 행복감을 증진 시키는 요인이다(배지아 외, 2016; 엄경주, 윤채영, 2017; 연은모, 최효식, 2021).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충분한 대화시간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아동을 이해하고 자녀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학교 만족감의 긍정적 영향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교 요인에서는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높을 때, 그리고 반에서 엄격한 규칙 있을수록 ‘고만족·점진적하락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가 아동들의 학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는 학교 만족감과 관련성이 높다. 교사가 아동을 인정하는 애착과 지지가 만족감을 높이며(이효주, 2015), 친구의 애착과 지지 또한 학교 만족감을 높여 준다. 이는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만족감과 정신건강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이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황에 맞는 교감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상대방이 친밀감 있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점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회인식 역량이 아동에게 필요하다(Denham, 2006; Jones, 2014). 따라서 아동들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신감을 확장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시기에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불안정한 심리는 성인기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늘 행복한 마음 상태와 자신을 존중하는 심리상태가 중요하다. 아동들이 학교에서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 교사들은 아동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동들의 학교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아동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지속

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교사의 우호적인 사회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학교 만족 수준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대체로 교사와의 관계를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송경오, 2011). 교사의 열정은 아동과의 관계성을 높일 수 있고, 학교생활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충족시켜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과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다(이명희, 김아영, 2008).

또한 교사가 아동을 교실에서 대할 때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와 공정한 일관적인 모습의 교육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학급 내에서 모든 아동이 따를 수 있는 엄격한 규칙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만약 교사의 비일관성이 높으면 불평등한 접근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아동들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하락시킬 잠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자신의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일관적인 정서로 인해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때로는 교사가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충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모습은 아동의 사회적, 학업적,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아동의 학교 만족감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시간 대부분을 보낸다. 아동이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은 아동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의 관점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진정한 성찰과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대안이 요구된다. 교육의 중심은 아동이며, 우리가 교육해 나가는 목적은 아동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행위 주체로서의 학교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아동들의 학교 만족감 증진을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 패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 만족감과 개인, 부모, 학교 요인으로 나누어 학교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학교 만족감에 대한 잠재계층 간의 전이 유형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잠재계층 전이 분석을 통하여 잠재계층 간 변화와 잠재변인 간의 예측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만족감에 대한 변인을 개인, 가정, 학교 외로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아동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문화 배경, 학교 내외 아동의 방과 후 시간 활동, 학교 내 구성된 스마트한 학습 조건과 교내 환경 같은 기타 변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학교 만족감에 대한 제3의 다른 예측요인을 고려하는 연구를 제언해 본다.

참고문헌

- 강영하 (2020). 초등학생의 행복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초등상담연구**, 19(1), 29-47.
- 권동택 (2014).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 및 학교정체성과 학교생활만족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115-130.
- 권미나, 이진숙 (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아동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비교. **아동과 권리**, 24(2), 79-195.
- 김기철, 신애선 (2016). 영아교사의 전문성, 민감성, 행복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관계 및 영향력. **한국보육학회지**, 16(2), 57-82.
- 김나영, 김영식 (2013).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초등학생의 토요일 Sports Day 참여와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1), 147-174.
- 김민주, 도현심 (2017).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 우울 및 비행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아동학회지**, 38(2), 133-148.
- 김수영, 석혜은 (2015). 잠재성장모형의 사용을 위한 표본크기 결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599-617.
- 김수정 (2018).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국내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8(3), 51-64.
- 김아영, 이명희 (2009).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용희, 한창근 (2017). 부모 삶의 만족도와 아동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3), 29-55.
- 김자영 (2011). 무용극흥을 통한 초등학생의 사회성,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도 변화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2), 189-215.
- 김종백, 김태은 (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2(1), 259-279.
- 김희연, 탁하연 (2020). 학교급별 학생의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7), 23-45.
- 박명국 (2013). 주말체육참여 초등학생의 참여 동기와 운동 몰입,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51), 435-448.
- 박삼철 (2007).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의 질(Quality of School Life)을 결정하는 학교변인들의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5(4), 141-162.
- 박영순 (2019).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경, 손환희 (2019). 아동청소년의 부모 학대와 방임,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적응의 발달 궤적 유형과 대응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1193-1223.
- 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2), 111-125.
- 선미숙 (2017). 초중등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선혜연, 오정희 (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4(1), 197-212.
- 성순정, 권순자 (2010). 혼자 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형태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관한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15(2), 206-226.
- 송경오 (2011). 학생 개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탐구. **한국교육**, 38(4), 39-64.
- 신혜숙 (2014).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학교행복에 관한 잠재프로 파일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1), 53-76
- 엄경주, 윤채영 (2017) . 청소년의 부모와 의사소통과 대화시간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595-615.
- 연은모, 최효식 (2021).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 인식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학업적 특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3), 339-351.
- 오영은 (2000). 아동학대와 가정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진옥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유형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민상 (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성희, 윤지영 (2016).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학생의 정서문제와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7), 461-480.
- 이상록, 김윤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8).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자녀의 개인내적, 학교생활, 지역공동체의식의 차이 - 초 4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21-40.
- 이재용, 최준섭, 박성희 (2018). 인성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초등학생용 공감 6단계 프로그램 개발. **교육학연구**, 56(1), 107-132.
- 이진성 (2013). 학교부적응학생이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4), 101-110.
- 이주연 (201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여가활동과 여가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3(2), 21-34.
- 이효주 (2015).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애착과 학교행복감과의 관계에서 학습몰입과 또래유능성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133-164.
- 임영미, 정희정 (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정서노동, 정서표현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77-105.

-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초등학생의 끈기(Grit),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조절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7(3), 43-65.
- 장희선 (2020).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전이와 부모, 교사 예측요인 검증. **교육문화연구**, 26(6), 481-506.
- 전종희 (2021). 중학생의 독서활동, 봉사활동, 수업 상호작용, 규칙 준수와 공동체 의식 사이에서 자기관리, 사회적 자아개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89-116.
- 정이나 (2015).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조성희, 김희수 (2016).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355-376.
- 조소연 (2014). 부모의 지도감독 및 방임과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59-84.
- 조형정, 윤지영 (2015). 초등 고학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1), 167-197.
- 최효식, 이선영 (202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행복감 변화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411-434.
- 황선영, 노병일 (2015). 다문화가족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51-76.
- 한정아 (2017). 정서문제 프로파일의 잠재적 변화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평가연구**, 30(3), 495-519.
- 허유성, 최지영, 남창우 (2011). 행복한 저성취 학생관련 교실수준 변인에 대한 탐색. **아동교육**, 20(4), 109-126.
- 홍세정, 오인수 (2016).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영재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7(1), 73-9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9(1), 161-177.
- 홍영주, 이지연 (201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21(2), 325-342.
- 홍종관 (2016).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공감적 이해에 관한 고찰. **초등상담연구**, 15, 563-577.
- Bazelaïs, P., Lemay, D. J., & Doleck, T. (2016). How does grit impact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science?. *European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4(1), 33-43.
- Boardman, J. D. (2006). Self rated health among U.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401-408.
- Brady-Amoon & J. N. Fuertes, (2011). Self-Efficacy, Self-Rated Abilities, Adjustment,

-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4), 431-438.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 (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575.
- Crocke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61-971.
- Crouter, A. C., Head, M. R., McHale, S. M., and Tucker, C. J. (2004). Family time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sibling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147-162.
- Denham, S. A., & Grout, L.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18). Advances and open questions in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Collabra: Psychology*, 4(1), 1-49.
- Eisenberg, M. E., Olson, R. E., Neumark-Sztainer, D., Story, M., & Bearinger, L. H. (2004). Correlations between family meals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 Jones, S. M., Bailey, R., & Jacob, R. (2014). Social-emotional learning is essential to classroom management. *Phi Delta Kappan*, 96(2), 19-24.
- Jung, T. & Wickrama, K. A. S. (2007).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err, D. C., Lopez, N. L., Olson, S. L., & Sameroff, A. J. (2004). Parental discipline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early childhood: The roles of moral regulation and child gen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4), 369-383.
- Leary, M. R., & McDonald, G.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In M. R. Leary,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401-418.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Offer, S. (2013). Family time activities and adolescents' 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1), 26-41.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Moffitt, T. E., Robins, R. W., Poulton, R.,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81.

Van Horn, M. L., Jaki, T., Masyn, K., Ramey, S. L., Smith, J. A., & Antaramian, S. (2009). Assessing differential effects: Applying regression mixture models to identify variations in the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on academic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98-1313.

Predictors Factor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Individual Change Trajectories by Children's of School Satisfaction: Growth Mixed Model

Hyung-Seok Kim and Jung-Ho Lee and Hye-Young Hong

This study classified the Latent classes of individual change trajectories in elementary school 3rd, 4th and 5th grades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 with predictive factors for children's school satisfaction. Analysis data were used for the 10th and 12th years of research on Korean children's pan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change in school satisfaction from elementary school 3 to elementary school 5 decreased by 0.043 per year.

Second, the latent classes of the school satisfaction change trajectory were classified as "low satisfaction and gradual rise" (21.6%) and "high satisfaction and gradual fall" (78.4%) respectively.

Third,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low satisfaction and progressive escalation' as a reference group identified personal factors (self-respect, persistence, low stress), parent factors (time with family), school factors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strict rules) as significant predictor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chool satisfac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children.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satisfaction, we would like to provide the role of parents and implications for teacher's true reflection and teacher education for children in schools.

• Key words: School Life Satisfaction, Happiness, Growth Mixture Model

아동의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 성장혼합모형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논문은 종단자료인 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의 학교 만족감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추정과 달리, 초등학생 집단 내에서 다양한 변화의 패턴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기존 논문과 차별화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연구모형이나 분석방법 등은 최신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개인중심 접근을 하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논문의 구성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서론

서론 부분에서는 본 논문이 기존 논문과 차별화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학교만족도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변화의 경향성과 더불어 집단 내에서 다양한 변화의 패턴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 논문의 필요성과 강점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만족감’의 개념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들도 지적했다시피, 학교만족감은 학교적응, 학교생활만족도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포함되기도 하고,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만족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측정방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서론에 포함된 문헌검토 부분에서는 양적 연구논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모형의 실증적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해당 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존감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와 자존감 간의 관계,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와 심리적 불안과의 관계 등이 두서없이 제시되어 논문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각의 독립변인과 학교만족감 간의 관계를 밝힌 실증적인 연구들을 연구모형과 일관되게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

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본 논문에는 끈기와 학교만족도 간의 관계, 스트레스와 학교만족도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문제1과 2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서 통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II. 연구방법

예측요인으로 사용된 변인들 외에 성별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학교성적 등 기본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변인들 중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적절히 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구모형에 통제변인을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의 <표 4>에 대한 설명에서 ‘변화율의 분산은 .051($p < .001$)로 개인별 변화의 개인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변화율의 분산은 유의수준 .05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개인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이후 개별적인 변화패턴을 찾기 위한 시도나 독립변인을 투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 문장에서 ‘초기값 요인과 기울기 요인 간의 공분산은 부적인 관계로 확인되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공분산의 관계가 부적인 것과 개인 간 차이가 있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재계층분석 결과에서 잠재계층의 수를 2개로 결정한 근거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집단 수의 결정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 관계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제시된 두 가지 집단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결과이며, 보다 다양한 집단을 구분하여 밝혔더라면 연구결과가 더 흥미로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재계층의 수를 2개로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 ‘잠재계층 수가 세 개일 경우에는 잠재계층별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게 확인되었다’(13쪽)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잠재계층모형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본 연구의 강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성장모형분석 결과, 평균적으로는 ‘감소’하는 선형모형이었지만 그 안에 다양한 변화의 패턴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큰 강점입니다. 이 점을 연구결과해석 및 논의 및 제언에서 부각시키기 바랍니다.

IV. 논의 및 제언

논의 및 제언에서 학교만족감의 영향요인, 학교만족감에 대한 집단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만족감 변화’의 영향요인 및 ‘학교만족감’ 변화에 따른 집단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용어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학교만족감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 및 학교만족감 변화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관련 선행연구들이 서론에서도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아동들이 대체로 교사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송경오, 2011)’라고 인용문을 제시하고 있는데(19쪽),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관계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규칙의 엄격성이 학교만족감을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규칙의 엄격성을 규칙의 일관성과 동일하게 보고, 교사의 비밀 관성이 문제인 것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규칙의 일관성과 엄격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의 엄격성을 인식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성향을 가진 아동들이 높은 학교만족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은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으나 연구모형의 이론적 근거가 미흡한 점, 연구결과의 해석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못한 점 등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러한 점이 보완된다면 좋은 논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이귀옥³⁰⁾ 이미리³¹⁾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4학년생이 되기까지 4년간의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가 학교적응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1598명으로 한국아동패널 8~11차년도(2015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의 4년간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을 측정한 문항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수준은 4학년까지 증가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은 학교적응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각 시기에 미디어 사용시간의 학교적응 수준에 대한 영향을 자아존중감 수준이 매개하였다. 이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의 기능을 종단적으로 가짐을 시사한다.

■ 주제어: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매개효과

1. 서론

학교라는 공간은 아동기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모두 보내게 되는 곳인 것과 동시에 이곳에서 배운 많은 내용과 활동이 이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의무 교육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닌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규칙과 질서를 익히고, 또래 친구, 선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협동심과 작은 사회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일에 대한 처리능력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회성 형성 등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다(김준호, 2014). 의무교육 과정 중 가장 오랜 기간 다

30) 을지대학교 아동학과

31)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나는 초등학교 시기는 1학년을 시작으로 하여 2학년 아들은 여아 이면서 건강이 좋은 아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며, 5학년 아들은 또래 애착 관계가 좋을 때 학교적응을 잘 하였다(이귀옥, 이미리, 2013). 이처럼 아들은 각 학년별로 주어진 새로운 과업과 상황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런 상황이 충족될 때 각 시기별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다(이영민, 2006).

이렇게 중요한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부적 요인 중 하나는 최근 기계의 발달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사용이다(변희숙, 권순용, 2014). 미디어는 TV, 핸드폰, 태블릿, 인터넷을 연결한 PC를 들 수 있으며, 이런 미디어는 우리 일상 속 필요한 요소로 점차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미디어 사용에는 어린 연령부터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TV를 시작으로 하여, 부모로부터 접하게 되는 핸드폰과 태블릿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터넷을 연결한 PC 등이 있다(이귀옥, 2020). 최근 사회는 미디어 종류의 다양화와 발달로 아주 어린 연령부터 미디어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도남희, 2014),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활용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황정혜, 박인우, 2015). 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는 결국 미디어 중독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디어 중독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박용한, 2014; 변희숙, 권순용, 2014, 안수빈, 강보람, 이강이, 2017). 이귀옥(202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중단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디어 사용 시간은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미디어 사용시간은 그 해 바로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 미디어 사용시간이 해마다 증가하는 폭이 커질수록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증가폭도 커졌다. 이는 단기와 장기 모두 미디어 사용 시간은 학교적응에 장기적으로 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의 연령까지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미디어와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osenberg, 1979; 한수정, 2021에서 재인용). 이처럼 자신에 대해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은 또래, 학교 선후배와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는 곳에서 그들과 다르게 느끼는 차이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을 돕는 긍정적인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많이 선정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들은 자신을 잘 수용하여 학교적응을 잘 하였고(김정미, 2019; 성성진, 이재신, 2000; 신성철, 2015; 조성희, 김희수, 2016; 차유림, 2020; 최내리, 조혜진, 2014).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학업 수준, 학업성취도 높여주는 변수로

보고 있다(신성철, 2015; 최희철, 김옥진, 김병석, 김지현, 2010).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주로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독립변수를 돕는 변수로도 사용되었다(이복희, 2014; 이혜진, 이소연, 2021;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19; 한수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을 학교적응을 돕는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춘기나 기타 요인으로 변화하는 속성임을 확인하고자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익중, 2007). 미디어 사용시간과 학교시간을 매개하는 횡단적 연구는 많지만 장기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한수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학교적응의 부정적 요인인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궤적이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영향을 줄 때 학교적응의 긍정적 요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매개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사용 교육과 학교적응 교육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연령 증가에 따른 미디어 사용 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2.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궤적이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 영아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 실시하였으며, 현재 1차(2008년)~12차(2019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8차(2015년)~11차(2018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동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N(%)			
아동	성별	여	781(48.9)		
		남	817(51.1)		
		합계	1598(100)		
	월령	평균 월령	87.98	평균연령	7.3세
부모	연령	어머니	26~30세	27(1.7)	
			31~35세	386(24.3)	
			36~40세	800(50.3)	
			40세 이상	377(23.7)	
			합계	1590(100)	
	연령	아버지	26~35세	169(10.8)	
			36~40세	644(41.1)	
			41세 이상	755(48.2)	
			합계	1568(100)	
	학력	어머니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3(29.3)	
			전문대 졸업	435(20.2)	
			대학교 졸업	599(27.9)	
			대학원 졸업	93(5.8)	
			합계	1590(100)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7(26.6)	
			전문대 졸업	316(20.2)	
			대학교 졸업	658(42.0)	
			대학원 졸업	175(11.2)	
			합계	1566(100)	
	가구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1(0.1)	
			101 ~ 300만원	369(23.3)	
			301 ~ 600만원	977(61.9)	
			601 ~ 900만원	178(11.3)	
			901이상	54(3.4)	
			합계	1579(100)	

〈표 1〉과 같이 아동의 성별은 여아 781명(48.9%), 남아 817(51.1%)로 전체 1598명이었다. 평균월령은 87.98개월수로 평균 연령 7.3세였다. 부모 변인으로 어머니 연령은 36~40세가 800명(50.3%)로 가장 많았고, 31~35세 386명(24.3%), 40세 이상 377명(23.7%), 26~30세 27명(1.7%)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41세 이상이 755명(48.2%)이 가장 많았고, 36~40세 644명(41.1%)와 26~35세 169명(10.8%) 순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99명(2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3명(29.3%), 전문대 졸업 435명(20.2%), 대학원 졸업 93명(5.8%) 순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58명(4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7명(26.6%), 전문대 졸업 316명(20.2%), 대학원 졸업 175명(11.2%) 순이었다. 가구 근로소득은 301~600만원 사이가 977명(61.9%)로 가장 많았고, 101~300만원이 369명(23.3%), 601~900만원은 178명(11.3%), 901만원 이상은 54명(3.4%), 100만원 미만은 1명(0.1%) 순이었다.

2. 측정도구

가. 미디어 사용시간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은 측정도구는 2015~2018년도 아동패널 면접용 조사지에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미디어와 관련된 질문으로 미디어 종류별로 주중과 주말로 구분된 질문은 주중과 주말의 평균 시간을 내서 사용하였고, 각 문항별 응답방식은 '0은 활동안함', '0.5는 30분', '1.0은 1시간', '1.5는 1시간 30분' 등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 최대 11.5인 11시간 30분까지 표기할 수 있다. 미디어 사용시간은 하루 동안 미디어 관련 제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전체 시간의 합계를 조작적 정의하여 사용하였고, 각 연도별 미디어 사용시간의 하위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미디어 사용시간

구분	내용
8차 년도 (2015년)	1. TV 시청시간의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2. 인터넷, 게임기, 휴대폰, 태블릿 PC 사용한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9차 년도 (2016년)	1. TV 시청시간의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2. 스마트폰, PC를 사용한 1일 평균 시간
10차 년도 (2017년)	1. 인터넷 수업 등 통신 교육 시간의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2. TV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의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3.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 콘솔 등을 통한 게임 시간의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4. 스마트폰, PC 사용 1일 평균 시간
11차 년도 (2018년)	1. 인터넷 수업 등 통신 교육 시간의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2.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 ^L 의 주중과 주말 평균시간 3.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 콘솔 등을 통한 게임 시간의 주중과 주말 평균 시간 4. 스마트폰, PC 사용 1일 평균 시간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MCS (2008)에서 인출하고, Rosenberg(1965)에서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까지 구성된다. 1점에서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초등1학년 .77. 초등 2학년 .75. 초등 3학년 .76. 초등 4학년 .83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아존중감 문항

구분	내용
자아 존중감	1.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2. ○○(이)는 좋은 면이 많니? 3. ○○(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니? 4.. ○○(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5. ○○(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지성애, 정대현(2006)에 사용된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으로 총 35문항이고, <표 3>에 각 문항을 제시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초등1학년 .95. 초등 2학년 .95. 초등 3학년 .96. 초등 4학년 .96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적응 문항

구분	내용	비고
학교생활적응	1.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역채점
	2.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3.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4.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5.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6.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역채점
	7.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8.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9.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10.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는다.	
	11.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학업수행적응	12. 매사에 의욕적이다.	
	13.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14.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15.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16.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17.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1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9.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20.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1.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22.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또래적응	23.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24. 친구를 잘 도와준다.	
	25.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26.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27.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8.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29.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30.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교사적응	31.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역채점
	32.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33.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34.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35.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모든 변수를 SPSS 2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인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4년간 변화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AMOS 23.0을 사용하여 종단자료 변화를 살펴보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하였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은 개인차의 유의미한 변화와 변인간 변인 상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모형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고, 결측치는 결측치 자료에 효과적인 방법인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LML)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13). 4년간의 각 변화궤적의 적합도를 판별하기 위해 무모형, 선형모형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분석하였고,(정익중, 2007). 모형의 적합도는 χ^2 , 절대 적합지수인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중분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여 크기에 민감하고 모형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른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RMSEA 지수의 경우 0.05~0.08의 범위일 때 수용할 수 있으며, NFI와 CFI는 0.90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보며, .80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본다(배병렬, 2007; 홍세희, 2013).).

셋째, 연구문제 2는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궤적은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을 매개변인으로,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을 종속변인으로 AMOS 23.0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의 매개효과를 계산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가. 주요변인 기술통계

주요 요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했을 때, 왜도의 절대값은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본 자료의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05).

〈표 5〉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변수	학년	N	M	SD	Skewness	Kurtosis
미디어 사용시간	1학년	1598	2.20	1.11	0.59	0.96
	2학년	1525	2.54	1.21	0.81	1.33
	3학년	1484	3.91	1.69	0.74	1.14
	4학년	1509	4.30	1.87	0.81	1.39
자아 존중감	1학년	1560	3.44	0.50	-1.09	1.70
	2학년	1496	3.46	0.45	-0.94	0.95
	3학년	1480	3.47	0.44	-1.27	2.50
	4학년	1428	3.49	0.46	-1.25	2.25
학교적응	1학년	1031	3.99	0.68	-0.73	0.32
	2학년	930	3.97	0.69	-0.61	-0.12
	3학년	633	4.10	0.69	-0.92	0.60
	4학년	709	4.13	0.68	-1.12	1.54

〈표 5〉 결과를 확인해보면, 미디어 사용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2.20으로 2시간 12분, 초등학교 2학년 시점에 2.54는 2시간 29분, 초등학교 3학년 시점에 3.91은 3시간 54분,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4.30는 4시간 20분으로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3.44, 초등학교 2학년 시점에 3.46, 초등학교 3학년 시점에 3.47,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3.49로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3.99, 초등학교 2학년 시점에 3.97, 초등학교 3학년 시점에 4.10,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4.13으로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나. 주요 변인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수	학년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미디어 사용 시간	1학년	1											
	2학년	0.56***	1										
	3학년	0.49**	0.48**	1									
	4학년	0.46**	0.43**	0.55**	1								
자아 존중감	1학년	-0.15**	-0.14**	-0.14**	-0.15**	1							
	2학년	-0.14**	-0.15**	-0.11**	-0.12**	0.35**	1						
	3학년	-0.08**	-0.09**	-0.07**	-0.10**	0.27**	0.38**	1					
	4학년	-0.06*	-0.07*	-0.04	-0.08**	0.23**	0.31**	0.50**	1				
학교 적응	1학년	-0.14**	-0.11**	-0.13**	-0.14**	0.15**	0.16**	0.17**	0.14**	1			
	2학년	-0.11**	-0.15**	-0.19**	-0.18**	0.17**	0.22**	0.20**	0.14**	0.45**	1		
	3학년	-0.10*	-0.08	-0.13**	-0.16**	0.10*	0.12**	0.14**	0.12**	0.35**	0.42**	1	
	4학년	-0.15**	-0.13**	-0.08*	-0.10**	0.10**	0.16**	0.11**	0.13**	0.32**	0.47**	0.34**	1

* $p < .05$, ** $p < .01$

2.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변화궤적

본 연구에서 위해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4년간의 자료를 각각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 무성장과 선형모형 결과 비교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변수	모델	χ^2	df	NFI	CFI	RMSEA
미디어 사용시간	무성장	2413.23***	8	-0.44	0	0.37
	선형	268.64***	5	0.84	0.84	0.16
	비선형	137.80***	1	0.92	0.92	0.25
자아 존중감	무성장	105.65***	8	0.88	0.89	0.08
	선형	10.97	5	0.99	0.99	0.02
	비선형	0.28	1	1.00	1.00	0.00
학교적응	무성장	60.89***	8	0.87	0.88	0.06
	선형	19.73***	5	0.96	0.97	0.04
	비선형	6.35*	1	0.99	0.99	0.05

*** $p < .001$

<표 7>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변화궤적 모형은 무성장, 선형, 비선형 모형 3개를 비교하였다. 미디어 사용시간은 무성장 χ^2 값이 2413.23(df=8, $p < .001$), 선형모형 χ^2 값이 268.64(df=5, $p < .001$), 비선형 모형 χ^2 값이 137.80(df=1, $p < .001$)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NFI, CFI 값은 무성장보다 선형일 때 0.84이며, 비선형일 때 0.92로 1에 가까웠고, RMSEA인 절대적 적합도 지수 점수도 무성장보다 선형일 때 0.16과 비선형일 때 0.25로 0에 가까웠다. 적합도 지수만 볼 때는 비선형이 모형이 더 적합해 보일 수 있으나, 비선형모형의 변량의 변화율이 음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최종 선정 모형은 선형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모형은 무성장모형 χ^2 값이 105.65(df=8, $p < .001$), 선형모형 χ^2 값이 10.97(df=5, $p > .05$), 비선형 모형 χ^2 값이 0.28(df=1, $p > .001$)로 나타났다.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NFI, CFI 값이 무성장모형보다 선형과 비선형모형이 0.99와 1로 나타나 1에 가깝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도 무선형 모형보다 선형과 비선형 모형의 점수가 0.02와 0으로 0에 가까웠다. 적합도만으로는 비선형모형의 점수가 더 좋았으나 비선형 모형 평균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최종 모형은 선형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생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 모형은 무성장모형 χ^2 값이 60.89(df=8, $p<.001$), 선형모형 χ^2 값이 19.73(df=5, $p<.001$), 비선형 모형 χ^2 값이 6.35(df=1, $p<.05$)로 나타났다.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NFI*, *CFI* 값이 무성장 모형보다 선형과 비선형 모형이 0.96~0.99로 1에 가깝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도 무선형 모형보다 선형과 비선형 모형의 점수가 0.04와 0.05로 0에 가까웠다. 적합도만으로는 비선형모형의 점수가 더 좋았으나 비선형 모형 평균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선형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대한 초기값(ICEPT)과 변화율(SLOPE)을 추정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선형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

변수	Mean		Variance		Covariance
	ICEPT	SLOPE	ICEPT	SLOPE	ICEPT ↔ SLOPE
미디어 사용시간	2.13***	0.70***	0.72***	0.09***	0.40
자아 존중감	3.44***	0.12***	0.09***	0.01***	-0.02***
학교적응	3.96***	0.05***	0.23***	0.01*	-0.02

*** $p<.001$

<표 8>의 결과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평균의 초기값은 2.13($p<.001$), 변화량은 0.72($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1차년도 값이 개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미디어 사용시간은 평균은 2.13을 시작으로 1년마다 0.70씩 4년간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변화율의 변량도 0.90($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율의 증가에 있어 유의미한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 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0.40($p>.05$)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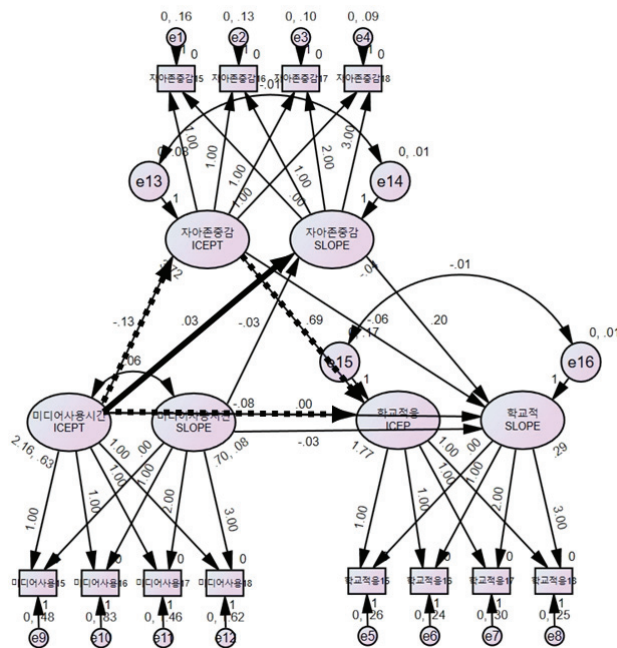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균의 초기값은 3.44($p<.001$), 변화량은 0.09($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1차년도 값이 개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평균은 3.44를 시작으로 1년마다 0.12씩 4년간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변화율의 변량도 0.01($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아존중감 변화율의 증가에 있어 유의미한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 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0.02($p<.001$)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초등학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가 완만하게 진행된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아존중감 감소가 더욱 빠

르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평균의 초기값은 $3.96(p<.001)$, 변화량은 $0.23(p<.001)$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1차년도 값이 개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학교적응 평균은 3.96을 시작으로 1년마다 0.05씩 4년간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변화율의 변량도 $0.01(p<.05)$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교적응 변화율의 증가에 있어 유의미한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 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0.20(p>.05)$ 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미디어 사용시간이 학교적응의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디어 사용시간 변화궤적이 학교적응 변화궤적 영향에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선정하였고, 매개효과 모형에 따른 잠재성장모델 적합도는 <표 9>에 제시하였고, 매개효과 변인 간 경로계수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고, 마지막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10>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미디어 사용시간이 학교적응 영향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그림에서 →, ⇨ 유의미한 통계 선 표시

〈표 9〉 매개효과 잠재성장모델 적합도

χ^2	df	NFI	CFI	RMSEA
346.96***	54	0.90	0.91	0.06

*** $p < .001$

〈표 9〉에 의하면 미디어 사용시간과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은 *NFI*와 *CFI*값이 0.9를 넘고, *RMSEA* 값이 0.06으로 양호하여 적합하다고 본다.

〈표 10〉 다변량 잠재성장모델의 변인간 모수추정치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 자아존중감 초기	-0.36***	-0.13	0.17	-7.94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 자아존중감 변화	0.24***	0.03	0.01	3.59
미디어 사용시간 변화→ 자아존중감 변화	-0.08	-0.03	0.03	-1.03
자아존중감 초기→학교적응 초기	0.42***	0.69	0.10	7.00
자아존중감 초기→학교적응 변화	-0.17	-0.06	0.05	-1.34
자아존중감 변화→학교적응 변화	0.21	0.20	0.11	1.78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학교적응 초기	-0.14*	-0.08	0.03	-2.48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학교적응 변화	0.00	0.00	0.02	0.02
미디어 사용시간 변화→학교적응 변화	-0.08	-0.03	0.06	-0.56

* $p < .05$, *** $p < .001$

〈표 10〉에 의하면 초등학생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초기값에 부적으로 ($\beta = -0.36$, $p < .001$), 학교적응 초기값에 부적으로 ($\beta = -0.14$, $p < .05$)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1차년도 미디어 사용시간이 많을 경우 초기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점수가 떨어지며, 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학교적응 초기치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42$, $p < .001$).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24$, $p < .001$).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치와 학교적응 초기치 영향에 자아존중감 초기치의 매개효과를 Sebel Test로 검증한 결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다변량 잠재성장모델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	Sobel통계량(Z)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 자아존중감 초기→학교적응 초기	-0.132 X 0.684	-5.05***

*** $p < .001$

〈표 11〉에 의하면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치는 자아존중감 초기치를 매개하여 학교적응 초기치에 부분 매개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5.05$, $p<.001$)하였다. 즉 초등학교 1학년 미디어 사용시간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을 매개하여 학교적응 초기값에 영향을 주었다. 즉 미디어 사용시간의 초기치가 증가하면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떨어지고,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떨어지면 학교적응 초기치도 떨어진다. 반면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율이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하여 학교적응 변화율에 주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변화 궤적의 변화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변화궤적이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영향을 줄 때,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매개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연구문제 순서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점수, 학교적응 점수는 각각 증가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 사용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이귀옥(2020)과 최은실, 서미정(2016)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이귀옥(2020)의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은실, 서미정(2016)의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대상으로 하였다. 두 선행연구와 모두 연구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1학년부터 4학년과 그 이상까지 미디어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박미영(2008)의 연구에서 태블릿과 인터넷 PC 등이 초등학교부터 게임 목적으로 사용하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 양이 증가한다는 연구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미디어 사용 시간의 증가는 미디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용한, 2014; 변희숙, 권순용, 2014) 학년별 증가의 원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 시기부터 미디어 중 스마트폰 소유와 함께 미디어 사용시간이 증가되며, 그 사용 용도도 만 8세 아동의 경우 학습, 정보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순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였고, 만 9세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정보검색, SNS 이용 순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였다(이귀옥, 2021). 단순히 사용시간 증가만 살펴보기 보다는 활용 용도와 사용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미디어 사용 안내에 도움이 될 수 있다(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초등학교 3학년의 미디어 사용패턴을 분석한 결과에서 다목적 활용형, 학습추구형, 소극적 활용형, 고이용 소셜오락 추구형, 오락 편중형, 소셜오락 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고이용 소셜오락 추구형이 가장 미디어 사용시간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

디어 중독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즉 미디어 이용자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미디어 증가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결론적으로 미디어 사용 시간은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미디어 종류와 활용의 다양화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면이 성숙하여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증가한다는 김시현(2020)과 정익중(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만 김시현(202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익중(2007)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즉 두 연구의 연관 점을 살펴본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주영하, 정익중, 김영일, 2019), 중1, 중3, 고1까지 자아존중감이 떨어진다는 연구(김민수, 이현지, 2019)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연결선 상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은 증가하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은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고학년부터는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이기 보다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사춘기가 시작되어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생겨서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박광숙, 이영희, 고성희, 2012).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올라가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는 자아존중감이 안정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박상현, 2019). 이처럼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박상현, 2019), 이런 것이 반영될 때 고학년 이후 시기의 자아존중감도 안정될 수 있을 거라 예측해 본다.

학교적응 점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증가하였다는 결과는 이귀옥(2020)의 결과와는 일치한 결과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이 떨어졌으나(이귀옥, 2017,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이 포함되었음에도 학교적응이 올라간 것에 대해 저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저학년부터 계속적인 단체 생활이 몸에 익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발달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사료된다. 다만 고학년인 5학년 이후 학교적응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변화궤적이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영향을 줄 때,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매개효과를 주었다. 이는 초등학교 아동이 미디어 사용을 많이 하면 초기 자아존중감을 떨어트려서 초기 학교적응도 떨어트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디어 이용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떨어트린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김종민, 최은아, 2019).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중독 간에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김영미, 박윤조, 2021; 이경남, 2021). 미디어 사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학교적응을 낮추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여 학교적응을 낮춘다는 결과가 모두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나를 존중하는 태도인데, 미디어 사용을 많이 할수록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쳐 학교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기 때문에 미디어 사용에 개인의 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초기치가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즉 아동의 초기 미디어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활용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임정훈, 김상홍, 2013)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또한 이 귀옥(2021)의 연구에서처럼 초등학교시기부터 늘어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정보검색, SNS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활용이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사용 용도의 활용화로 생활의 만족이나 즐거움이 높아져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다. 미디어 사용시간의 초기치는 자아존중감 초기치에 부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인 영향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다.

본 연구의 제언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도구는 5문항으로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특성을 잘 나타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후 패널 연구의 도구 선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변인에 아동 변인인 미디어 사용과 자아존중감 만을 사용하였으나, 아동의 다른 변인이나 부모의 변인이 같이 고려된다면 풍성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계를 성장모형을 통해 매개관계를 살펴보고 싶었으나 연구결과 초기값에서만 관계가 나타나 성장모형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을 통해 성장모형에서 밝히지 못한 종단적 시기별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사용, 학교적응,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많지 않아 논의의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에는 이와 관련 부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수, 이현지(2019). 청소년이 인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복지상답교육연구*, 8(2), 153-173.
- 김시현(2020). 성별,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교육문화연구*, 26(6), 423-440.
- 김영미, 박윤조. (2021).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7), 480-487.
- 김정미(2010).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7(8), 79-10.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201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청구논문.
- 도남희. (2014). 영유아의 생활시간 사용과 시사점. *육아정책포럼*, 40, 27-37
- 박광숙, 이영희, 고성희. (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춘기 체험. *질적연구*, 13(2), 79-91.
- 박미영(2008).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몰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상현(2019). 초등학생 자존감의 단기 종단적 안정성: 자존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초등교육연구*, 32(3), 271-296.
- 박용한(2014). 중학생의 미디어이용, 정서행동문제,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역할. *교육심리연구*, 28(4), 691-710.
- 변희숙, 권순용 (2014). 초등학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03-317.
- 성선진, 이재신(200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학교생활연구*, 22, 51-89.
- 성은모.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미디어 활용능력 요인과 교과태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1(2), 215-243.
- 신성철. (2015).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의 이중 매개효과. *아동교육*, 24(2), 265-280.
- 안수빈, 강보람, 이강이. (2017).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38(2), 191-204.
- 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패턴에 따른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사용패턴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스마트 기기 중독. *아동학회지*, 41(1), 47-60.
- 이경님. (2021).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925-949.
- 이귀옥(2020).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궤적과 학교적응 궤적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05-124.
- 이귀옥(2021).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와 성차에 대한 종

- 단 연구. 아동과 권리, 25(3), 379-400.
- 이귀옥, 이미리(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복희(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한국가정관리학회, 57-74.
- 이혜진, 이소연. (2021). 부모의 공동양육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34(1), 221-243.
- 임정훈, 김상홍 (2013). 스마트러닝 기반 개별학습 및 협력학습이 학업성취도, 자기주도학습 및 사회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1), 1-24.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47호, 127-166.
- 조성희, 김희수(2016).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에 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355-376.
- 주영하, 정익중, 김영일 (2019). 한부모가족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21(1), 135-164.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차유림(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최내리, 조혜진(2014).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4(10), 131-153.
- 최은실, 서미정. (2016).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가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4(2), 17-35
- 최희철, 김옥진, 김병석, 김지현(2010).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담학연구, 11(1), 283-301.]
- 한수정(2021).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6), 595-618.
- 홍세희(2013).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21: 종단자료 분석을 위한 잠재성장 모형. 서울: S&M 리서치그
- 황정혜, 박인우. (2015). 2-7 세 영유아 자녀의 IPTV 동영상 시청 행태와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9(4), 419-430.
- Kline, R. B. (2019).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옮김. 서울: 학지사.

• 교신저자: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meeryl@knsu.ac.kr

Abstrac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Child Self Esteem on the Effects of Media Time Uses on School Adjustment from 8 to 11 Years Old

Lee, Kwiook and Lee, Meery

This study investigated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child self esteem on the effects of media time uses on school adjustment from 8 to 11 years old. The subjects were 1598 elementary freshmen who participated in the 8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The longitudinal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the subjects from 2015 to 2018 were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on the effects of media time use on school adjustment were evaluated. Finding were as follows: first, levels of media time uses, self esteem, and school adjustment were increased from 8 to 11 years old. Second, media time uses affected school adjustment negatively. Finally, levels of self esteem mediated the effects of media time uses on school adjustment from 8 to 11 years old. The findings suggest that self esteem contributes as a longitudinal protective factor on the negative effects of media time uses on school adjustment in early elementary school ages.

• Key words: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Media time uses, Self esteem, School adjustment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

‘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 → 미디어 중독 → 학교부적응’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연구는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 시간변수와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고려했고 그 유의미성을 발견했다는 점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면 원격교육을 수행하면서, 한편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도 양날의 검처럼 안고 있었다. 이 연구의 전제인 학교부적응에 대한 우려도 같은 맥락을 지닌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조금 내려놓게 한다.

먼저 아동의 학년이 올라가며, 미디어의 사용시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점수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Commonsense의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니, 전세계적으로 연령과 미디어 이용시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은 미디어 이용 외에도 다양한 변인과 관련성을 지닌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변인도 있으나, 또래관계, 교사와 성인과의 관계 등 단순히 연령의 증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이용 과의존(중독)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에는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디어 이용 과의존은 아동이 지닌 사회문화적자본과도 연계되며, 다양한 변인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미디어 이용시간만으로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원격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 등 미디어 이용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이 부정적 미디어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게임을 통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전략적 사고를 배우는 최근 학생들에게 있어 미디어 이용시간 만으로는 부정적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동의 초기 미디어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킨다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할 결과일

것이라 여겨진다. 미디어 이용시간은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는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 이야기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학습을 위한 기본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의 단순 이용시간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 본다.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아동들에게 미디어는 다른 생활세계와 유사한 놀이와 학습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걸러지지 못하는 유해한 사이트도 있지만,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도 예전에 비해 많이 등장했고, 실제 교수학습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미디어의 역기능과 그 안에 담긴 가치에 대해서는 성인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함께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뿐만 아니라 이용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아동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비판하며, 또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 분석

이경희³²⁾ 박혜영³³⁾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중 12차년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계층적 군집화분석(K-means),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기기 의존과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력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기기의 의존도가 높은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학생이 안전군의 학생과 비교해 학교적응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위험군의 학생이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군의 학생과 비교해 학업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지원과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 상담 지원 같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초등학생, 스마트기기 의존,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한국아동패널(PSKC)

1. 서론

디지털 매체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스마트기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동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 검색과 학습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하고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이어간다. 또한, 학업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정진영 외, 2013).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의 이면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일상화로 인해 초등학생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스마트기기 중 가장 접하기 쉬운 스마트폰의 초등학생 보급률은 2012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0년 기준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7.7%이다. 6학년의

32) 호서대학교 혁신융합학부 조교수

33) 호서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조교수

보유율은 92.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을 소유한 학생이 증가하였으며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10세~19세 사이 아동과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비중은 35.8%로 전 연령 대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몰입으로 인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스마트기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성, 접근용이성, 이동성, 즉 시성과 같은 장점이 과도한 사용을 촉진해 자기조절력이 약한 아동의 과의존 경향성을 높이게 되었다(김동일 외, 2012; 박종연, 2013)

학령기는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활동적인 시기이며, 스스로 알아내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Freud, 1914; Erikson, 1993). 이 시기 아동은 청소년기로 전이하면서 상급 학교로의 진학 및 새로운 사회체계에 대한 적응을 경험하며 발달한다(조운주, 2019). 특히 학령기 후기 아동은 발달 특성상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또래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아동은 충동성과 참을성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과의존에 취약하다(Gilmore & Mersand, 2018). 따라서 이 시기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하다(조주현, 2020).

초등기는 가정생활 중심이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학교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며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또래 집단의 비중이 커지는 시기이다. 더불어 유아기의 자기중심성은 사라지고 인지 발달과 함께 자아개념이 발달한다(김미경, 2011).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학교생활은 학령기 아동들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더 나아가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정현영, 2006).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학업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접할 수 있는 사회에서의 적응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생활은 발달과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수행 능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예방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유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SKC)의 자료를 본 연구에 맞도록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SKC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 표집된 신생아는 2,150명이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2차년도인 2019년에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295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한국아동패널(PSKC)에서 사용한 설문이다. 이 설문에서 스마트기기 의존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추출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도구 자료는 <표 1>과 같다.

가. 스마트기기 의존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기기 의존 측정용 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도구이다. 과의존 요인을 살펴보면 현저성(Salience)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조절실패 .744, 현저성(폭력) .554, 문제적 결과 .459로 나타났다.

〈표 1〉 스마트기기 의존,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하위변인과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 번호	응답	Cronbach's α
스마트기기 의존도	조절실패	ECh19mid018,22,26,29,32	4점 Likert 척도	.744
	폭력	ECh19mid020,24,27*,30	전혀 그렇지 않다(1)~	.554
	문제적결과	ECh19mid021,25,28*,31	매우 그렇다(4)	.459
학교적응	학습활동	JCh19adj001~05		.725
	학교규칙	JCh19adj006~10	4점 Likert 척도	.757
	교우관계	JCh19adj011~15	전혀 그렇지 않다(1)~	.683
	교사관계	JCh19adj015~21	매우그렇다(4)	.887
학업수행 능력	국어	LCh19acs030~32		.929
	영어	LCh19acs044		-
	수학	LCh19acs034,35,37,45,46	5점 Likert 척도	.961
	사회·과학	LCh19acs049,50	'하위 20% 이내(1점)' ~	.921
	예체능	LCh19acs041~43	'상위 20% 이내(5점)'	.704
	전반	LCh19acs039		-

*역코딩 문항

나.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 측정 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민병수 (1991)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보완에 사용한 도구이다. 학교적응 척도는 한국아동패널에서 12차년도에 처음 조사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683~.887로 나타났다.

다. 학업수행능력

학업수행능력 측정용 도구는 이은혜 외 7명(2008)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아동의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1문항으로 구성된 영어와 전반을 제외한 학업수행능력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04~.96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tata 14 I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Stata 14 I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고 스마트기기 의존,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기기 의존도 전체 뿐 아니라 각 요인의 의존도를 반영해 학생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군집화하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화(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에 따른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성 범위는 ($p < .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스마트기기 의존 분석 결과

가. 스마트기기 의존,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

스마트기기 의존의 하위변인인 조절실패, 현저성(폭력), 문제적 결과와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학업수행능력의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몇 개의 학업능력수행의 하위변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스마트기기 의존의 하위변인과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력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스마트기기 의존,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조절실패	1.000															
몰력	.670**	1.000														
문제적결과	.685**	.581**	1.000													
스마트기기	.912**	.855**	.854**	1.000												
학습활동	-.124**	-.123**	-.127**	-.142**	1.000											
학교규칙	-.144**	-.125**	-.145**	-.158**	.476**	1.000										
교우관계	-.104**	-.092**	-.092**	-.110**	.452**	.462**	1.000									
교사관계	-.074*	-.094*	-.068*	-.090*	.419**	.461**	.402**	1.000								
학교적응	-.137**	-.138**	-.132**	-.155**	.706**	.769**	.695**	.843**	1.000							
국어	-.166**	-.145**	-.163**	-.182**	.179**	.115*	.117*	.059	.135**	1.000						
영어	-.165**	-.128**	-.158**	-.174**	.199**	.118*	.112*	.043	.132**	.808**	1.000					
수학	-.162**	-.116*	-.147*	-.165**	.155**	.091*	.070	.021	.092*	.746**	.767**	1.000				
사회·과학	-.142**	-.120**	-.150**	-.158**	.189**	.123*	.098*	.056	.134**	.837**	.777**	.808**	1.000			
예체능	-.077	-.109*	-.135**	-.121*	.190**	.165**	.178**	.137**	.207**	.615**	.563**	.522**	.580**	1.000		
전반	-.175**	-.159**	-.157**	-.189**	.224**	.149**	.129**	.089*	.174**	.853**	.797**	.829**	.870**	.620**	1.000	
학업수행	-.166**	-.143**	-.171**	-.184**	.205**	.138**	.127**	.071	.157**	.911**	.867**	.913**	.912**	.740**	.924**	1.000

스마트기기 의존 하위변인과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력의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이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기기 의존의 하위변인인 조절실패와 학업수행능력의 하위변인인 예체능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 간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의존과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나. 집단 간 스마트기기 의존도의 차이

한국아동패널은 스마트기기 하위요인의 요인별 문항의 합산 점수로 27점 이하를 일반 사용자, 28점 이상에서 29점 이하를 잠재적 위험 사용자, 30점 이상을 고위험 사용자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3〉 집단 간 스마트기기 의존도 차이

변인	집단	인원(명)	평균	SD	F(Scheffé)
조절실패	일반군	336	6.077	1.007	1759.50*** 고위험군> 잠재위험군>일반군
	잠재위험군	444	7.288	1.279	
	고위험군	515	10.689	1.240	
	전체	1,295	8.327	2.311	
현저성 (폭력)	일반군	336	5.182	1.112	1009.03*** 고위험군> 잠재위험군>일반군
	잠재위험군	444	7.473	1.099	
	고위험군	515	9.072	1.410	
	전체	1,295	7.514	1.975	
문제적 결과	일반군	336	4.711	0.889	911.04*** 고위험군> 잠재위험군>일반군
	잠재위험군	444	6.505	1.169	
	고위험군	515	8.315	1.418	
	전체	1,295	6.759	1.883	
스마트기기 의존도	일반군	336	15.970	1.817	2596.17*** 고위험군> 잠재위험군>일반군
	잠재위험군	444	21.266	1.818	
	고위험군	515	28.076	2.860	
	전체	1,295	22.600	5.403	

*p<.05, **p<.01, ***p<.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계층을 두지 않고 스마트기기 의존도 전체와 각 요인별 의존도의 유사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 K-means 군집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하위요인에서 각 요인별 의존도가 가장 낮은 집단을 일반군, 평균 의존도의 집단을 잠재적 위험군,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집단을 고위험군으로 명명하였다.〈표 3〉에 따르면 연구대상 1,295명 전체의 스마트기기 의존의 평균은 22.600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연구대상 구성비와 의존도를 살펴보면 일반군 336명(25.95%)의 의존도 평균은 15.970, 잠재적 위험군 444명(34.29%)의 의존도는 21.266, 고위험군 515명(39.77%)의 의존도는 28.076로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과 사

후검증에 결과, 집단 간 스마트기기 의존도는 유의한 차이($F=2596.1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변인인 조절실패, 현저성(폭력), 문제적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학교적응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사로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학교적응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10.64$, $p<.001$)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스마트기기 의존 일반군의 학교적응($M=65.854$, $SD=6.978$)이 잠재적 위험군의 학교적응($M=64.378$, $SD=7.318$), 고위험군의 학교적응($M=63.540$, $SD=7.136$)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학습활동과 교사관계는 일반군이 고위험군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규칙과 교우관계는 일반군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변인	집단	인원(명)	평균	SD	F(Scheffé)
학습활동	일반군	336	15.033	1.654	7.35*** 일반군>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14.752	1.714	
	고위험군	515	14.575	1.726	
	전체	1,295	14.754	1.712	
학교규칙	일반군	336	16.568	2.249	13.00*** 일반군> 잠재위험군·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16.025	2.196	
	고위험군	515	15.771	2.270	
	전체	1,295	16.065	2.260	
교우관계	일반군	336	14.801	1.762	5.57** 일반군> 잠재위험군·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14.489	1.718	
	고위험군	515	14.404	1.729	
	전체	1,295	14.536	1.740	
교사관계	일반군	336	19.452	3.517	3.45* 일반군>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19.113	3.617	
	고위험군	515	18.790	3.680	
	전체	1,295	19.073	3.623	
학교적응	일반군	336	65.854	6.978	10.64*** 일반군> 잠재위험군·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64.378	7.318	
	고위험군	515	63.540	7.136	
	전체	1,295	64.428	7.212	

* $p<.05$, ** $p<.01$, *** $p<.001$

3.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스마트폰 의존도에 따른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와 사후검사로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학업수행능력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7.04$, $p<.001$)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스마트기기 의존 일반군의 학업수행능력($M=65.312$, $SD=10.386$)과 잠재적 위험군의 학업수행능력($M=64.442$, $SD=9.913$), 고위험군의 학업수행능력($M=61.256$, $SD=12.504$)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예체능의 경우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및 전반에서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고위험군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업수행능력에 차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변인	집단	인원(명)	평균	SD	F(Scheffé)
국어	일반군	336	12.943	2.354	6.88** 일반군·잠재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12.824	2.450	
	고위험군	515	12.041	2.882	
	전체	1,295	12.547	2.633	
영어	일반군	336	4.234	0.961	6.82** 일반군·잠재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4.181	1.004	
	고위험군	515	3.863	1.188	
	전체	1,295	4.070	1.081	
수학	일반군	336	22.766	3.638	6.49** 일반군·잠재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22.583	3.450	
	고위험군	515	21.420	4.628	
	전체	1,295	22.174	4.035	
사회·과학	일반군	336	8.660	1.629	4.88** 일반군·잠재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8.573	1.600	
	고위험군	515	8.151	1.855	
	전체	1,295	8.429	1.723	
예체능	일반군	336	12.340	2.423	2.44
	잠재위험군	444	12.015	2.284	
	고위험군	515	11.772	2.459	
	전체	1,295	12.002	2.395	
전반	일반군	336	4.369	0.865	7.44*** 일반군·잠재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4.266	0.855	
	고위험군	515	4.009	1.027	
	전체	1,295	4.191	0.939	

변인	집단	인원(명)	평균	SD	F(Scheffé)
학업수행 능력	일반군	336	65.312	10.386	7.04** 일반군·잠재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444	64.442	9.913	
	고위험군	515	61.256	12.504	
	전체	1,295	63.413	11.231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앞당겨짐에 따라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의 최초 발생 시기 역시 유아와 초등학교 시점으로 빨라지고 있다. 박성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된 논문의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문제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집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적응에서는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은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학생이 안전군의 학생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으며 학업수행능력에도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군이 잠재적 위험군과 안전군의 학생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생활과 학업이 중요시되는 학령후기의 학생을 위해 스마트기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스마트기기 의존을 낮추는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김영미(2015)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부모와의 대화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자기통제력,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는 사용 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조윤주(2019)은 학령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학령후기 아동이 학습수행을 잘할수록, 학교 규칙을 준수할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낮았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 우울이 심화할수록 컴퓨터나 게임기 이용이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수록 그리고 애정적, 비일관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의 초깃값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박창선(2016)은 아동의 학교 환경요인인 친구, 교사의 지지가 친밀하고 적극적일 때 스마트폰 중독을 낮췄으며 친구, 교사의 지지가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일 때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 적응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 스마트폰 중독을 낮췄고 엄격한 규칙으로 학교생활이 소극적이고 거부적일 때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든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 조절력을 길러줄 수 있다면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강은비, 정여주 (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미경 (2011).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 김영미.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은, 임선아. (2016).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0(3), 497-534.
- 박종연 (2013).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극복하라. 서울: 혜성출판사.
- 박창선. (2017). 아동의 환경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윤주 (2019). 학령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40(6), 49-62.
- 조주현 (2020). 학령기 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또래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집단 기반의 놀이와 미술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결과. 경인교육대학교.
- Erikson, E. H. (1993). Childhod and society. W. W. Norton & Company.
- Freud, S. (1914).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through (Further recommendations o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I). Standard edition, 12, 145-156.

• 교신저자: 박혜영, 호서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조교수, hypark@hoseo.edu

Analysis of the Differenc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by Dependence on Smart Devices

KyungHee Lee and Hye-Yo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methods to prevent and improve smart device over-dependence problems by analyzing differences in school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children's dependence on smart devices. For this, the data of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12th year were extracted and utilized from Panel Survey of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non-hierarchical cluster(K-means)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dependence on smart devices,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have a negative correlation. Second, students in potential and high-risk groups who are highly dependent on smart devices have significantly lower school adaptation compared to those in the safety group. Third, high-risk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ademic performance compared to those in the potential risk group and general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rely on smart devices, various learning support and national efforts such as counseling for school life adaptation are needed.

-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endence on smart devices, school adaptation, academic performance, PSKC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 분석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과의존성이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입증함 점에서 연구 목적과 의의가 분명하다. 더욱 발전된 연구가 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K-means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과의존성의 유형을 일반군(336명), 잠재위험군(444명)과 고위험군(515명)으로 선별한 점이 강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제목에 “스마트기기 의존도 군집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제시된다면 연구의 내용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K-means 군집분석결과 선별된 일반군,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서의 차이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을 활용한 추가 분석이 실시된다면 각 집단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성별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고위험군에 속한 아동들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의 평균점수($M=28.076$)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이 평균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인지 아니면 5학년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정상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스마트기기 의존도의 측정과 관련하여 하위영역 중 Cronbach's α 이 현저성은 .554, 문제적 결과는 .469로 비교적 낮은 값이 보고되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2019년 12차 년도의 횡단적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발달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2차 년도 이전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세 군집을 예측해주는 아동의 개인 및 가정환경, 부모양육 등 환경 변인의 예언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추후에 다양한 주제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 아동들이 변화되는 양상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발달로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감소되는 회복집단과 함께 연령의 변

화에 상관없이 의존도가 유지 또는 상승되는 집단을 선별하고 두 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해볼 수 있다. 또한 이후 발달과정에서 고위험군 아동들의 부적응 문제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과 더불어 이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을 탐색한다면 중재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2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한국 아동 패널 연구

부모양육

부모양육

좌장: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1.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심으로

발표자: 정윤미(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오세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현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가족지원연구팀장)

2. 부모의 심리적특성과 양육적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발표자: 김현주(대구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 수료)

임영진(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토론자: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3.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발표자: 성정혜(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

김춘경(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토론자: 강수정(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심으로

정윤미³⁴⁾ 오세현³⁵⁾ 강현아³⁶⁾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그 유형에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 연구에 참여한 가구 중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맞벌이 538가구 부모 1,076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일-가정 부모 이점',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일-가정 부모 갈등'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느끼고 주변인으로부터 양육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수록 다른 집단 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부의 자녀 학교 행사 참여는 '일-가정 부모 이점'이나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었다. 부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경우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었다. 부 회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많을수록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가 현재 재직 중일 경우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 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보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서론

일-가정 양립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정책과 국민의 인식 모두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주제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로드맵(2018)에서 2019년부터 일보다 생활에 비중을 두고자하는 정책적 포부를 밝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요성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인식 또한 일이 우선이라는 인식보다 일과 가정이 둘 다

34)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3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6)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비슷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을 정도로(통계청, 2019a)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과 국민의 인식이 모두 높은 상황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개인의 경우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이나 이점을 경험하게 된다.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두 영역 모두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일-가정 갈등’, 일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 수행이 개인의 성장과 지원의 원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가정 이점’이라고 한다(하문선, 2018). 이와 같이 직장과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갈등원 혹은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하문선, 2018).

일-가정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이 가족 구성원 간 관계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점과 갈등을 구분하여 분석해왔다. 그러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동시에 경험될 수 있는 독립적 개념으로 둘 다를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하문선, 2018).

또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부와 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와 모 중 한 쪽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집중되어 왔다(김소영, 김선미, 이기영, 2011; 김선미, 2005; 예지은 외, 2010). 그러나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부부의 역할과 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부와 모 모두의 개인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육아를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가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한 의견이 각 80.9%, 76.4%에 이르는 등(이윤경 외, 2020) 국민 인식의 변화가 존재하는 반면, 그런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의 75.5%는 어머니이고 아버지는 24.5%에 불과하여(통계청, 2021) 여전히 돌봄노동의 경우 여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에서 부모 역할 수행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자녀가 유아에서 초등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아동에게도 수행해야 할 역할과 상황이 모두 변화하는 시기이지만, 부모에게도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전환점이므로(염지숙, 2017)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초등 전환기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수희, 2019), 특히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수행 적응, 또래적응을 크게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복, 이신영, 2013; 이하정, 2020;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7). 이 때문에 자녀의 학습준비를 위하여 다양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자녀의 또래관계 형성을 돕고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녀의 같은 반 어머니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이하정, 2020). 이에 따라 기존의 자녀 돌봄 외 교육봉사, 학부모모임 등 학교와 관련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등 부모로서 추가적인 역할이 요구된다(홍예지, 이강이, 2020).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아동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주어져 부모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초등 저학년의 학교 시간은 영유아기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시간보다 이를 수 있고 초등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마다 이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별도의 이용자격 기준이 없으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2016년 영유아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68.3%인 반면 초등학생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12.5%에 불과하였다(교육부, 2018).

취업모는 돌봄공백에 우려 외에도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 부족, 여건상 학교와의 협력에 제한이 따르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며(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김창복, 김신영, 2013), 학부모의 무리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한다(이하정, 2020).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취업모가 학교의 학부모 상담,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는 비율은 영유아기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증가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행사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 참여율은 영유아기부터 고등학생 시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정, 황원경, 2019).

이러한 취업모들의 불안과 갈등은 초등 저학년기 취업모의 정규직 노동시장 이탈, 근로조건 변경으로 이어지는 등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며(소효종, 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상용직 취업확률 등 근로조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재희·김근진, 2019). 실제로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퇴사나 이직을 고민한 시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임신,

출산, 어린이집 입학 시보다 ‘초등학교 입학 시’ 퇴사 또는 이직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현정·황원경, 2019). 즉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가 자녀의 학교적응, 학습 지원, 방과후 돌봄을 위해 자신의 경제활동 변화나 중단을 고려하는 시기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자(손서희·이재림, 2014), 일-가정 양립 시의 이점과 갈등의 유형을 파악함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에 기혼 여성에게는 가사시간과 육아가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기혼 남성은 일-가정 양립에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혼 남성은 과거에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이현아, 김선미, 2019) 여전히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기혼 남성의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 문제에 대해 여성보다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화윤, 마지순, 안라리, 2011). 맞벌이 가구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019년 54분으로 2014년에 비해 13분 정도 증가하였으나 1시간 미만이며, 맞벌이 부부의 전체 가사·육아시간이 아내가 남편보다 2시간 13분 더 많다(통계청, 2019b). 또한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비율이 평일, 주말 모두 92% 내외였으나 남성의 경우 평일의 60.8%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b). 기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이현아, 김선미, 2019), 실제 연구 결과 아버지의 주당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주중 가사노동 시간이 많아지고(이현아, 김선미, 이승미, 2016), 자녀 양육 참여가 늘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숙현, 권영인, 2009). 기혼 남성은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가정 친화적인지에 따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가정을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자신의 일을 바꾸거나 그 만드는 것을 고민한다. 이처럼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에 초점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초등 전환시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요인, 가족요인, 직장요인, 정책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요인과 관련하여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지고(정영금, 2005),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마경희, 2008) 일-가정 갈등이 감소하였다. 소득의 경우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처자원이 많지만, 동시에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 부담이 높아 일-가정 갈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김성경, 2011; 김준기, 양지숙, 2012; 장재윤, 김혜숙, 2000, 하문선, 2018).

가족요인 중 자녀와 관련하여 모의 경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

로 인해 일-가정 균형 만족이 낮게 나타나지만(김효진 외, 2019),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의 자녀수는 일-가정 양립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아, 김선미, 2019, 하문선, 2018). 그러나 첫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일보다 가정 혹은 가정과 일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였다(이현아, 김선미, 2019). 또한 초등 전환기에 어머니가 자녀들의 학교적응을 염려하는 것을 고려할 때(김창복, 이신영, 2013; 이하정, 2020;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7) 학교적응이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들도 자녀가 정서행동문제가 있거나 학업성적이 낮을 경우 일-가정 갈등 집단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하문선, 2018).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 또한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아이를 돌봄에 있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선민정, 2020)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김선희, 2010; 김승희, 김선미, 2013; 손영빈, 최은영, 2009).

직장요인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하는 요인이다(마경희, 2008, 박홍주, 이은아, 2004, 임효창, 이봉세, 박경규, 2005). 또한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일-가족 양립이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이현아, 김선미, 2019, 이숙현, 권영인, 2009, 임효창, 이봉세, 박경규, 2005), 정시에 퇴근하는지 여부도 일-가정 양립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현아, 김선미, 2019). 조직이 가족 친화적 분위기일 경우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을 덜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현, 권영인, 2009).

정책요인으로는 가족친화정책이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며(안은정, 2013; Kim & Wiggins, 2011; Lee & Hong 2011; Saltzstein et al., 2001) 직장 내 가족 친화적 정책은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참여를 높이는 요인이다(이숙현, 권영인, 2009). 또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혁준, 2003; 도미향, 이소희, 2000).

일-가정 양립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관심을 받게 된 만큼(안은정, 신은종,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요인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최근 기혼 남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에서 여전히 둘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돌봄 외 부모의 역할이 증가하는 시기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유형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유형에 개인 요인, 가족요인 외에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이들의 성장과 발달,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자료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김은설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구축된 패널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8차년도(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8차년도에 조사된 1,598 가구(김은설 외, 2020) 중 당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600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응답한 538가구의 부모 1,07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대상인 부모의 연령은 평균 40.37세이며, 모의 연령은 평균 37.92세로 확인되었으며, 부는 40대 이상이 56.7%로 많았으며, 모의 경우 20~30대가 74.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부가 55.8%, 모가 50.6%으로 부모 모두 절반 이상이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부와 모 모두 상용직 비율(부: 76.8%, 모: 66.0%)이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도 부 103명(19.1%), 모 119명(22.1%)으로 확인되었다. 종사상 지위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임시직 및 일용직 비율(부:4.1%, 모11.9%)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530.11만원이며, 자녀 수는 2.16명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076)

대상	변인	N	%	M(SD)
연령	20~30대	233	43.3	평균연령(세) 40.37(4.05)
	40대 이상	305	56.7	
	평균연령(세)			
학력	고졸이하	120	22.3	
	대학 졸업	118	21.9	
	대학교 졸업 이상	300	55.8	
부	상용직	413	76.8	
	임시직	10	1.9	
	일용직	12	2.2	
종사상지위	종업원을 둔 고용주	44	8.2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6	10.4	
	무급가족종사자	3	0.5	

대상	변인	N	%	M(SD)
모	연령	20~30대	385	74.6
		40대 이상	153	28.4
	평균연령(세)			37.92(3.55)
	학력	고졸이하	115	21.4
		대학 졸업	151	28.1
		대학교 졸업 이상	272	50.6
	종사상지위	상용직	355	66.0
		임시직	57	10.6
		일용직	7	1.3
		중업원을 둔 고용주	28	5.2
		중업원 없는 자영업자	65	12.1
		무급가족종사자	26	4.8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530.11(201.20)
가구	자녀수(명)			2.16(0.63)

2. 측정도구

가.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은 Marshal과 Barnett(1993)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4개 하위 영역(일-가족 이점, 일-가족 갈등, 일-양육 이점, 일-양육 갈등)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위 영역은 일-가족 이점(7문항)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 일-가족 갈등(9문항)은 일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다중역할 갈등을 의미한다. 일-양육 이점(4문항)은 일과 양육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 일-양육 갈등(6문항)은 일과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갈등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부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신뢰도는 .778이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일-가족 이점 .933, 일-가족 갈등 .869, 일-양육 이점 .883, 일-양육 갈등 .847이다.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신뢰도는 .828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일-가족 이점 .905, 일-가족 갈등 .904, 일-양육 이점 .820, 일-양육 갈등 .881이다.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부와 모의 직장 내 육아제도 시행 여부를 살펴보고 한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로는 여성의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시행, 대체인력활용,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직장 내에서 위의 제도들이 몇 개 시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와 모 각각의 사내 육아지원 프로그램 유무의 합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크게 부모 및 가구 특성, 자녀특성, 근로특성 및 자녀 학교생활지원과 양육 관련 사회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부모 및 가구 특성은 부와 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았으며, 부와 모의 학력은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대학 졸업', '3=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응답 값이 클수록 학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자녀 특성은 전체 자녀 수,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교 적응을 포함하였다. 자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주관적 건강상태로 '1=전혀 건강하지 않음'에서 '5=매우 건강함'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녀의 학교 적응 역시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학교 적응으로 '1=전혀 적응하지 못함'에서 '5=매우 적응을 잘함'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근로특성은 부와 모의 종사상 지위와 모의 재직 여부를 살펴보았다. 부와 모의 종사상 지위 중 '1=상용직', '0=그 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모의 재직 여부는 '1=재직', '0=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부와 모가 자녀에 학교의 행사에 참여 한 적이 있는지를 '1=참여하였음', '0=참여 한 적 없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변인 양육 도움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적 지원이라는 척도 문항 중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녀양육 또는 돌봄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두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두 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에 따른 이점과 갈등의 계층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s Analysis)을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응답자 중심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으로(신택수, 2010), 응답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적 방법이다(Goodman, 1974, Lazarsfeld & Henry, 1968, Christain, 2019 재인용).

잠재프로파일의 잠재 집단 분류의 적합도는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a), 모형 간 비교 검증, 분류의 질 및 잠재프로파일의 잠재집단비율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노

언경, 2019). 정보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값을 확인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다(Christain, 2019, 채명아, 2019). 모형 간 비교 검증은 LM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와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의 p값으로 확인한다. LMRT는 K계층과 K-1 계층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고, 비교한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K 계층이 K-1계층보다 더 나은 모형 적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Christain, 2019). BLRT는 부트스트랩으로 K계층과 K-1계층 모델들의 Likelihood Ratio 차이를 계산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LR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K계층이 K-1보다 더 나은 모형적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Christain, 2019). 분류의 질은 Entropy 값을 사용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hristain, 2019). 잠재집단비율은 특정 잠재계층의 최소비율로, 최소비율이 1~5%이상이면 계층별로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채명아, 2019).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및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은 다수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를 분석할 때 활용되는 분석법으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은 선택이 서로 배타적이며, 선택 가능한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선택의 대안이 유한하여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우석진, 2013).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특정 잠재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잠재집단기준에 속할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항로지스틱 분석 후 최종적으로 남은 두 집단에 대해서는 두 집단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다항로지스틱 및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위해 Mplus 6.11과 STATA 12 버전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초통계

주요 변인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가정 양립 이점과 일-가정 양립 갈등은 서로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과 일-양육 양립 이점, 일-가정 양립 갈등과 일-양육 양립 갈등은 각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21**	-.309**	-.066	.481**	.159**	-.313**	-.052	.066	.037	.077	.189**	.084
2		1	-.099*	-.304**	.145**	.504**	-.133**	-.289**	.113**	.194**	.245**	.106*	.147**
3			1	.140**	-.307**	-.102*	.680**	.113**	-.098*	-.051	-.084	-.008	.038
4				1	-.112**	-.299**	.102*	.747**	-.117**	-.150**	-.175**	-.003	-.004
5					1	.077	-.358**	-.142**	.019	-.013	.080	.174**	.040
6						1	-.091*	-.251**	.118**	.140**	.233**	.063	.058
7							1	.128**	-.088*	-.053	-.140**	-.092*	.017
8								1	-.070	-.144**	-.144**	-.022	.023
9									1	.274**	.139**	.011	.046
10										1	.139**	.090*	.129**
11											1	.017	.061
12												1	.111**
13													1
평균	3.75	3.75	2.50	2.70	3.75	3.49	2.29	2.81	4.32	4.43	3.85	1.75	1.78
표준편차	.64	.58	.61	.72	.68	.62	.72	.72	.63	.63	.69	1.98	2.04
사례수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538

*p<.05, **p<.01, ***p<.001

1. 부 일-가정 양립 이점, 2. 모 일-가정 양립 이점, 3. 부 일-가정 양립 갈등, 4. 모 일-가정 양립 갈등, 5. 부 일-양육 양립 이점, 6. 모 일-양육 양립 이점, 7. 부 일-가정 양립 갈등, 8. 모 일-가정 양립 갈등, 9. 아동 주관적 건강, 10. 아동 학교 적응, 11. 주변인 양육 도움, 12. 부 사내 육아지원 프로그램 수, 13. 모 사내 육아지원 시행 프로그램 수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은 전반적으로 3.49~3.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 갈등은 2.29~2.81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은 4.32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적응도 4.43으로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주변인 평균은 3.85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와 모 회사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 수는 1.75 및 1.78로 총 6개 프로그램 중 2개 이하로 나타났다.

2. 부모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가.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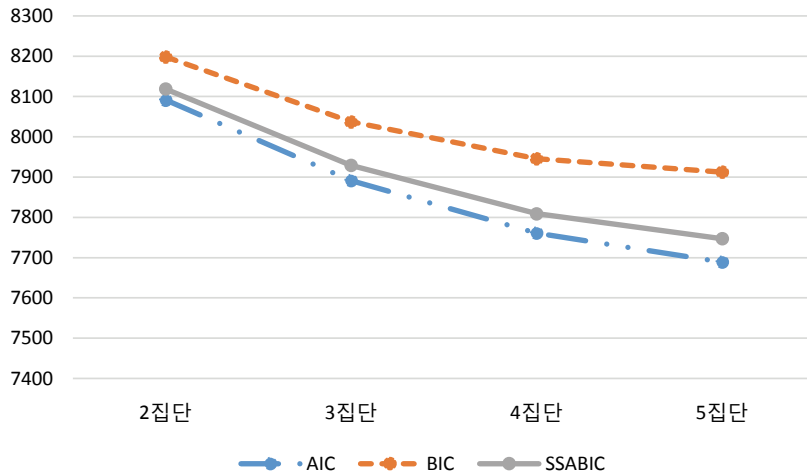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어떤 유형의 집단으로 나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2집단에서 5집단까지 집단을 증가시키면서 각 계층별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정보지수인 AIC와 BIC, SSABIC는 2집단에서 집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집단에서 3집단으로 갈 때 크게 감소한다. Entropy 값은 5집단이 0.758로 가장 높고, 2집단이 0.677로 가장 낮으나 전체적으로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LMRT와 BLRT는 3집단과 5집단에서만에서만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집단과 5집단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AIC와 BIC, SSABIC의 값이 3집단에서 급격히 감소(<그림 1> 참조)하였으며, 추후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잠재집단 분류율 및 사례수를 확인 한 결과 5집단에 5.8%인 집단이 나타났으며, 이는 비율상으로는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나 해당 집단에 속한 사례수가 30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반적인 모형적합도 검토 결과 3개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모형적합도

(n=538)

	AIC	BIC	SSABIC	LMRT(p)	BLRT(p)	Entropy	잠재집단 분류율				
							1	2	3	4	5
2 집단	8090.917	8198.114	8118.755	p=0.5631	p=0.0000	0.677	56.1	43.9			
3 집단	7891.171	8036.958	7929.031	p=0.0052	p=0.0000	0.722	26.6	33.1	40.3		
4 집단	7760.961	7945.339	7808.842	p=0.0795	p=0.0000	0.741	23.4	21.0	21.0	34.6	
5 집단	7689.082	7912.051	7746.985	p=0.0391	p=0.0000	0.758	26.2	20.6	21.9	25.9	5.4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

나. 잠재프로파일 집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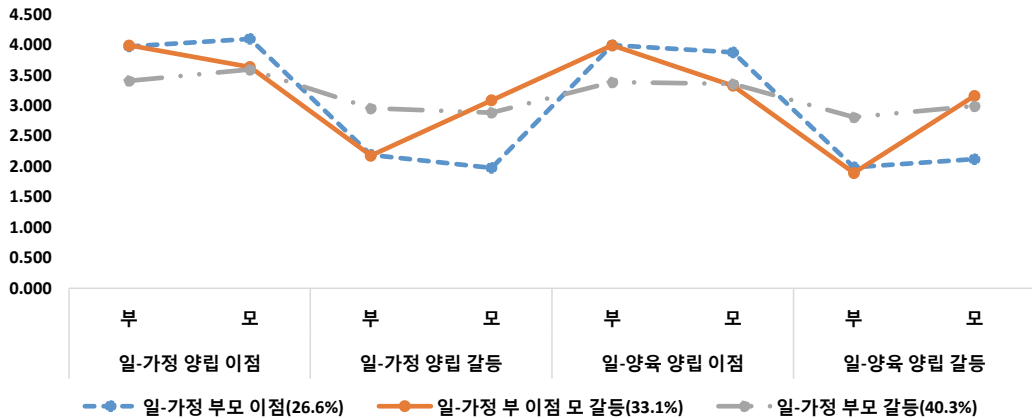
[그림 2]를 통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잠재집단을 살펴보면, 집단 1은 부와 모 모두 일-가정 양립과 일-양육에 대한 이점이 높고, 갈등은 낮게 나타나 ‘일-가정 부모 이점’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부의 일-가정 양립 및 일-양육 이점은 높으나 모의 일-가정 및 일-양육 갈등이 높은 집단으로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부모 모두 일-가정 및 일-양육 이점은 낮고 갈등은 높은 집단으로 ‘일-가정 부모 갈등’으로 명명하였다.

‘일-가정 부모 갈등’ 집단이 4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이 33.1%, ‘일-가정 부모 이점’ 26.6%의 순으로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은 부의 일-가정 및 일-양육 이점은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과 유사하나 일-가정 모 갈등은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집단별 일-가정 양립 하위요인 평균

	일-가정 양립 이점		일-가정 양립 갈등		일-양육 양립 이점		일-양육 양립 갈등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일-가정 부모 이점(26.6%)	3.979	4.101	2.194	1.979	3.998	3.879	1.989	2.122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33.1%)	3.994	3.638	2.179	3.090	3.994	3.330	1.895	3.165
일-가정 부모 갈등(40.3%)	3.411	3.595	2.958	2.888	3.389	3.361	2.812	2.995



[그림 2] 부모 일-가정 양립 유형

3. 일-가정 양립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가정 양립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및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항 로지스틱 분석 시 일-가정 부모 갈등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으며, 이후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및 가구 특성은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녀특성 중 학교적응과 근로 특성 중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자녀 학교 행사에 아버지의 참여 여부, 양육 관련 주변인 도움, 회사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 아버지 회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을 한다고 인식하고, 어머니에게 주변인의 양육 도움이 있을수록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 할 경우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고,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 할 경우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에 속할 가능성이 낮으며, 아버지 회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많을수록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이항 로지스틱 분석 한 결과 자녀가 학교 적응을 잘한다고 느끼고, 어머니가 현재 재직상태이며, 어머니가 주변인으로부

터 양육 관련 도움이 있다고 느낄수록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일-가정 양립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일-가정 부모 이점 vs 일-가정 부모 갈등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vs 일-가정 부모 갈등	일-가정 부모 이점 vs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부모 및 가구 특성	부 학력	.300 (.195)	.242 (.175)	.076 (.214)
	모 학력	.026 (.201)	-.049 (.180)	.095 (.214)
	월 평균 소득(로그)	1.306 (.814)	.203 (.723)	.957 (.818)
자녀 특성	자녀 수	-.042 (.188)	-.280 (.170)	.198 (.195)
	자녀 주관적 건강	.187 (.197)	.214 (.174)	-.087 (.206)
	학교적응	.562 (.211)**	-.125 (.169)	.681 (.227)**
부모 근로특성	부 종사상 지위 (상용직)	-.202 (.296)	-.554 (.260)*	.390 (.304)
	모 종사상 지위 (상용직)	-.308 (.271)	.155 (.247)	-.376 (.286)
	모 재직 (재직)	1.073 (.616)	-.209 (.426)	1.451 (.628)*
자녀 학교 행사 참여	부 참여	-.703 (.278)*	-.614 (.251)*	-.043 (.275)
	모 참여	1.006 (.885)	-.078 (.608)	.978 (.974)
주변인 양육 도움		.855 (.187)***	.094 (.157)	.773 (.197)***
회사 일- 가정 양립 지원	부 회사 지원제도	.104 (.064)	.170 (.058)**	-0.055 (.065)
	모 회사 지원제도	.022 (.063)	-.096 (.061)	.095 (.070)
상수		-12.649 (2.708)***	-.374 (2.203)	-11.793 (2.730)***
N		538		321
LR χ^2		98.93***		48.68***
Pseudo R^2		0.08		0.11
Log likelihood		-533.92		-196.24759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맞벌이 가구의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패널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응답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맞벌이 538가구 부모 1,07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유형을 잠재프로파일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 3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집단은 크게 부와 모가 모두 일-가정 및 일-양육 양립 이점이 높고 갈등이 낮은 ‘일-가정 부모 이점’(26.6%)과 부와 모 모두 일-가정 및 일-양육 이점이 낮고 갈등이 높은 ‘일-가정 부모 갈등’(40.3%)집단 그리고 부의 일-가정 및 일-양육 이점은 높고 갈등은 낮으나 모의 일-가정 및 일-양육 이점이 낮고 갈등이 높은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33.1%)으로 구분되었다.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집단이 부와 모가 함께 갈등을 경험하거나 함께 이점을 경험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부와 모가 일-가정 양립 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집단이 있으며, 이 경우 모의 갈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지원 시 할 때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에 맞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및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 시 ‘일-가정 부모 갈등’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일-가정 부모 이점’,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 및 가구 요인은 일-가정 양립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요인 중 학교 적응이 잠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생각할수록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 전환기에 자녀의 학교 적응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자녀의 학교 적응에 부모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수록 ‘일-가정 부모 갈등’ 집단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이점’을 매개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을 낮춘다는 결과(심현숙, 박경빈, 2021)를 지지한다. 부모 근로와 관련한 특성에서는 아버지의 일자리가 상용직일 경우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에 속할 가능성에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 학교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아버지가 학교 활동에 참여 할 경우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과 ‘일-가정 부모 이점’에 속할 가능성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나 아버지의 자녀 학교 활동 참여 경험이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에 있어 스트레스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회사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가 많을수록 ‘일-가정 부모 갈등’보다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부의 회사가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친화적 조직 분위기일 경우 부의 자녀 양육 참여나 일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를 뒷받침 한다(이숙현, 권영인, 2009, 이현아, 김선미, 2019).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을 준거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 잘 하고, 어머니가 재직 상태이고, 양육을 지원해주는 주변 사람이 있을 경우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보다 ‘일-가정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과 관련하여 주변의 도움이 있으며,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 할 경우 일-가정 양립 시 모의 이점이 높다. 또한 모가 현재 재직 중일 경우 모의 이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적절한 근로가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갈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초등전환기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부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일-가정 부 이점 모 갈등’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육아 휴직, 가족돌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으로 2019년 대비 6.5% 증가(2019년 105,165명)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대비 159.7%(2019년 5,660명, 2020년 14,698명)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2020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였을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기업과 사회가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경험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부터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 금융기관 이용 시에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출입국 우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이현아, 안재희, 이재춘, 2020). 그

리나 가족친화인증제 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만 측정되며,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인증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증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강민정, 문지선, 임희정, 2018). 또한 기업 특성에 따라 활용되는 기업 인센티브 수요가 다르나 기업 참여를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기업의 특징에 맞게 제공되지 못하고 실제 기업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사용이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다(강민정, 문지선, 임희정, 2018, 이현아, 안재희, 이재춘, 2020).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사용 및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 기존에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를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평가 지표를 모성보호 중심에서 남녀 모두 일과 가정 생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표를 검토 및 수정 할 필요가 있다(강민정, 문지선, 임희정, 2018). 그리고 인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 및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둘째, 초등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한성민(2021)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근로 참여와 주당 근로 시간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수업이 1~2시 사이에 끝나는데(한성민, 2021) 이후 시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 방과 후 아동을 돌봐 줄 시설이나 대상이 없을 경우 일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모의 일-가정 양립에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의 황혼육아라는 단어가 익숙할 만큼 일-가정 양립에서 조부모나 친인척과 같은 사회적 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다. 초등돌봄 서비스라는 공적 돌봄서비스가 있음에도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는 2019년 전체 초등학교생 2,747,219명 중 290,358명이 이용해 10.6%의 이용률로 절대적으로 적은 학생만이 이용하고 있다(교육부, 2019; 교육부, 2020). 초등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돌봄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김영란 외, 2018) 아이돌보미의 경우 학대와 같은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어 조부모와 같은 친인척에게 아이 돌봄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이윤진, 권미경, 김승진, 2015). 가족과 이웃 등의 지지체계는 일-가정 양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초등전환기에 공적 자원을 더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향상하여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돌봄 정책 대상이 영유아 중심인 것에서 초등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한성민, 2021).

셋째, 아버지가 아동을 돌보는데 있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일-가정 제도가 일-가정양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아버지의 학교 활동이 부모 모

두에게 일-가정 갈등 집단에 속하게 한다는 것은 학교 활동에 참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자체에 대한 갈등과 동시에 육아하는 아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아버지의 육아휴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아버지가 대낮에 아버지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노는 아빠'로 인식된다. 게다가 또래 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육아하는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데 부담을 느낀다(김진옥, 권진, 2015). 이는 초등전환기의 부모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특히 초등전환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의 같은 반 어머니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기이다(이하정, 2020). 이런 시기에 아버지가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과 편견을 마주해야하고 어머니의 경우 중요한 시기에 아동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은 육아하는 아버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정책 수용률이 개인의 의식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북유럽 사례를 참고하여(허민숙, 2018) 우리나라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한다. 남성 육아휴직자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으나(고용노동부, 2021) 여전히 절대적인 수와 비율에 있어서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에 부담을 지고 있다. 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정시퇴근, 유연근무 확산 제도 마련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녀가 동일하게 풀타임 근무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이 많으며, 맞벌이의 경우도 50% 이상이 아내가 자녀 양육을 담당한다는 결과도 있다(권미경, 2021).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경우에만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점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일과 가정 양립 시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이점을 높여야 하지만, 동시에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균형도 중요하다. 이에 모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아버지의 가사참여와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아동에서 취학아동이 되는 경우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안수미, 2013) 자녀가 초등전환기인 아버지도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여 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을 낮추고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일-가정 양립 분석 시 부와 모를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을 함께 연구하였으며, 어떠한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와 모 이점이 높거나 갈등이 높은 등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비슷하게

분류되는 집단도 있었으나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점 및 갈등이 서로 상반되게 분류되는 집단도 존재하였다.

또한 부모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양육과 관련하여 도와주는 주변인이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 부모 이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전히 양육에 있어서 친인척 혹은 이웃 등 가까이에 있는 지지체계의 존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요인 중 아버지의 직장 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지원 제도가 많을수록 아버지가 일-가정 양립 시 이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회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 경험이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구 대상 시기는 초등 학령기로 실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있으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패널조사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선행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근로시간 및 근로 여건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부와 모의 실제 가사와 육아 시간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정·문지선·임희정(2018). 가족친화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고용노동부(2021).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2.11.).
- 교육부(201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교육부 보도자료(2018.05.04.).
- 교육부(20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1.07.28일 접속
- 교육부(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 권미경(2021).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 이슈페이퍼 3호.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가정과삶의 질연구*, 23(6), 105-116.
- 김선희(2010). 공공조직에서 여성의 일-가정 (WFC) 결정요인 분석.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
- 김성경(2011). 기혼 취업여성의 특성이 일-가족의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69-94.
- 김소영·김선미·이기영(2011).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의 양상과 조화로운 양립의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93-116.
- 김승희·김선미(2013). 맞벌이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3), 355-370.
- 김영란·조선주·선보영·배호중·김진석·정영모(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김은설·배윤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준기·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0.
- 김진욱·권진(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265-302
- 김창복·이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 연구*, 12(3), 319-350.
- 김효진·김지원·홍세희(2019). 기혼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일-가정균형만족 변화 연구. *조사연구*, 20(2), 85-113.
- 노언경(2019).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재 (콜로키움 자료집 19-S3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도미향·이소희(2000).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가족복지감에 미친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1), 1-16.
- 마경희(2008). 맞벌이 가구 젠더체제 유형과 여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 *가족과 문화*, 20(1), 131-160.
- 문혁준(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24(5), 59-75.
- 박흥주·이은아(2004).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여성학*, 20(2), 141-178.
- 박화윤·마지순·안라리(2011).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 유아 자아개념 및 리더십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1(6), 75-94.
- 선민정(2020). 영유아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 경험과 둘째 자녀 출산의지의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여성학연구*, 30(1), 77-111.
- 소효종(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손서희·이재림(2014).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57-177.
- 손영빈·최은영(2009). 맞벌이 부부의 가정과 직장 간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개인특성 및 가족과 직장지원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9-60.
- 신수희(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6), 21-40.
- 신태수(2010). 종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심현숙·박경빈(2021).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기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일-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559-572.
- 안은정(2013).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연구: 가정친화조직, 직무특성, 역할관여 및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1(2), 75-120.
- 안수미(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은정·신은중(2010).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무성과와 여성의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0(4), 177-216.
- 염지숙(2017).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농촌지역 어머니들의 취학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4, 1-21.
- 예지은·진현·조현국·백성욱·이민훈·박준·강우란·이병하(2010).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오현정·황원경(2019).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서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우석진(2013).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서울: 지필미디어.
-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 이윤경·변수정·김은정·진화영·주보혜·남궁은하·김주현·정윤경(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김근진(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647-65.
- 이하정(2020).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들의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실제적 준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281-305.
- 이현아·김선미(2019).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유형과 일·가정양립 양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75-88.
- 이현아·김선미·이승미(2016).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231-261.

- 이현아·안재희·이재춘(2020).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센티브 활용 실태 및 인센티브 수요 분석. *한국가족경영학회지*, 24(4), 1-20.
- 임효창·이봉세·박경규(2005). 기혼직장인의 직장-가정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4(5), 1417-1443.
- 장재윤·김혜숙(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우리나라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23-4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정영금(200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3-122.
- 차영숙·유희정·강민정(2017).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과정에서 어머니 경험에 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1-27.
- 채명아(2019). 청소년의 건강행위 유형 잠재계층 분석: 지역적 특성에 따른 비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21).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
- 통계청(2019a). 2019년 사회조사.
- 통계청(2019b). 생활시간조사
- 하문선(2018). 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대한 잠재프로파일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학업성적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127-147.
- 한성민(2021).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KDI FOCUS*, 107, 1-8.
- 허민숙(2018).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이슈와논점*, 1427
- 홍예지·이강이(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육아정책연구*, 14(1), 97-120.
- Christian Geiser.(2019). 『MPLU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김진현, 한지나 공역. 서울: 학지사.
- Goodman, L. A.(1974). Exploratory latent structure analysis using both identifiable and unidentifiable models. *Biometrika*, 61(2), 215-231.
- Kim, J. & Wiggins, M.(2011). Family-Friendly Human Resource Policy: Is It Still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5), 728-739.
- Lazarsfeld, P.F., & Henry, N.W.(1968). *Latent structure analysis*. Boston: Houghton Mill.
- Lee, S. & Hong, J.(2011). Does Family-Friendly Policy Matter? Testing Its Impact on Turnover and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6), 870-879.
- Marshall, M. L., & Barnett, R. C.(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Saltzstein, A. L., Ting, Y., & Saltzstein, G. H.(2001). Work-Family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Attitudes of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452-467.

- 교신저자: 정윤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수료, whandym@nypi.re.kr

Analysis of Parents' Classification of the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Focusing on the work-family balance support system

Yun Mi Jung and Sehyeon Oh and Hyunah Kang

This study used latent profile analysis (LPA) to distinguish group types for categorizing parents' work-family balance issues, as well as multinomial logit and binary logit model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uch group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076 dual-income par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eighth wav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hich was carried out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hree groups include "work-family parental gains," "work-family father's gains and mother's strains," and "work-family parental strains." Second, when compared to other groups based on the "work-family strains" group, it was found that if the child adjusts well to school life and support in child-rearing is available from the people around, the subject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work-family parental gains" group than to the "work-family parental strains" group, while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s school events makes it less likely for the subjects to fall under the "work-family parental strains" than the "work-family parental gains" and "work-family father's gains and mother's strains" groups. When the father is a full-time worker, he is less likely to fall into the "work-family father's gains and mother's strains" than to the "work-family parental strains" group. The mor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at are in place at the father's workplace, the more likely he is to fall into the "work-family father's gains and mother's strains" group. Third, in assessing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the "work-family parental gains" group based on

“work-family father’s gains and mother’s strains,” it was found that if a child adjusts well to school, a mother is employed, and child-rearing support is offered from the people around, then there is a better chance of the subject falling into the “work-family parental gains” than the “work-family father’s gains and mother’s strains” group. In light of such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e implication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or parents encountering work-family balance concerns as their child transitions from preschool to elementary school.

- Key words: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ork-family balance, work-family balance support system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심으로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가족지원연구팀장)

정부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나아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육친화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지원정책 대부분이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구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과거와는 달리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정부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육아지원을 위한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 외에도 실질적인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구에게는 비용(현물) 및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정책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OECD 회원국의 수준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지만, 향후 이들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시간정책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여성은 장시간 근로와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가사노동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와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특히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자녀의 모(母)와 부(父) 간에 발생하는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의 차이점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자녀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에 있어서 자녀의 모(母)와 부(父) 간에 공통된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공통된 변수가 자녀

의 모(母)와 부(父)의 자녀돌봄시간에 주는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자녀 부(父)의 경우보다 자녀의 모(母)의 경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자녀 부(父)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시간정책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므로 시간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남성의 시간정책 활용 시의 소득보장(지원)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자녀 부(父)의 경우 시간정책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있어서 평균 근로시간, 직장 유형, 근로시간형태 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자녀 모(母)의 분석결과와 달리, 자녀 부(父)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형태, 평균월소득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부(父)에 대하여 자녀돌봄시간 증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돌봄 외 부모의 역할이 증가하는 시기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유형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유형에 개인 요인, 가족요인 외에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앞서 언급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괄적인 정책 제공보다는 해당 집단별 특성을 나누어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버지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일-가정 제도가 일-가정양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 준 것은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버지의 직장과 남성의 육아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심리적특성과 양육적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김현주³⁷⁾ 임영진³⁸⁾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적 특성, 양육스트레스를 반복 측정하고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을 실시해 이 세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부모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첫 시점에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온정적 양육행동은 1년 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고, 두 번째 시점에서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1년 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체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 증가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은주, 서영희, 2012). 부모는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잘 성장하고 또한 사회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일상 생활적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일터에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 역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이제림, 손서희, 2013; 이인정, 김미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심리적 특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성격, 정서적 특성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끼친다(임희수, 2001; Ponnet, Wouters, Goedemé, et al., 2013).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정적 상호작용의 결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 심리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신희선, 김정미, 2010).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볼 때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37) 대구대 상담학과 박사과정수료

38)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

미치게 된다(최효식, 연은모, 2014; 김현옥, 2015). 또한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위축하게 만들어서 우울이나 불안감을 높인다(문인영, 2012).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며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다(문영경, 2012; 이윤주, 김진숙, 2012;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이처럼 우울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을 잘 지켜나갈수 있는 힘이 자아존중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도 하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이다(남인숙, 2008).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우울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자녀의 기질, 행동과 언어, 성격,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곽금주, 2008; 신은경, 문혜련, 2013).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발달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수진, 이지영, 2017; Sowislo & Orth, 2013). 이에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한정원, 이한나, 2017).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우울, 자아존중감은 심리특성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서로 상반된 변인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낮아질수록 불안, 우울의 부정적 측면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다(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김윤나, 박옥식, 2009; 박선영, 2005; Fujita & Diener, 2005; Gilman & Huebner, 2006). 조춘범과 김동기(2010)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서로 쌍방향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며 그 외의 연구들에서도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양종국, 김충기, 2002; 최은영, 최인령, 2012). Cowan & Cowan(2010)은 부모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며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관계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부모의 심리상태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삶과 일상생활 및 자녀양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윤혜미, 최문정, 2006;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서우경, 김도연, 2013).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Tan, Camras, Zhang, et al.,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의존적, 통제적일수록 자녀는 내재화(McKee, Roland, & Coffelt, 2007)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enstein, Granic, Stoolmiller, et al., 2004), 온정적이고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문제행동의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미희, 2017; 남기원, 변유미, 2018).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인숙, 양혜정, 2015; Wake, Nicholson, Hardy, et al., 2007).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다(Huth-Bocks & Hughes, 2008; Stone, Mares, Otten, et al., 2016). 양육과정에서 유발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역할에 대한 부모의 낮은 유능감을 나타낸다(문영경, 2009; Reitman, Currier, & Stickle, 2002).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부모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이희정, 2014; 황성온, 황지온, 2015).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처벌적인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자녀와 더 적은 상호작용을 한다(김영미, 송하나, 2015).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미, 도현심, 2004).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아동패널 자료를 통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최효식, 연은모, 2014).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종단 자료에 기초해 세 변인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음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세 시점에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적 특성, 양육스트레스를 반복 측정하고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을 실시해 이 세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부모대상으로 5차에서 7차까지 제공된 자료이다. 수집된 자료들 중 5차(2012년), 6차(2013년), 7차(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모 1,420명, 부 1,292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2. 측정 도구

가. 부모의 심리적 특성변인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변인으로 우울(5차~7차), 자아존중감(5차~7차)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우울(5차~7차)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K6(Kessler et al., 2002)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도구로,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5차~7차)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89)가 개발한 도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상균(1999)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양육적 특성변인

부모의 양육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변인으로 양육행동(5차~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ronstein 등(1996)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양육스타일(PSQ) 척도로,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통제적,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 각각 6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다. 양육스트레스 (5차~7차)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SPSS 18.0과 Mplus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인구학적 변인과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세 시점에 걸쳐 측정한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모의 경우, 1차에 측정한 변인과 2차에 측정한 동일변인의 상관계수의 값은 $-.50 \sim .73$ 이었고, 2차에 측정한 변인과 3차에 측정한 동일변인의 상관계수의 값은 $-.50 \sim .74$ 이었다. 부의 경우, 1차에 측정한 변인과 2차에 측정한 동일변인의 상관계수의 값은 $-.38 \sim .56$ 이었고, 2차에 측정한 변인과 3차에 측정한 동일변인의 상관계수의 값은 $-.40 \sim .55$ 이었다.

〈표 1〉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59**	1													
3	.07**	.02	1												
4	.46**	-.33**	.13**	1											
5	-.57**	.55**	.04	-.56**	1										
6	.70**	-.46**	.07**	.41**	-.46**	1									
7	-.41**	.55**	.04	-.26**	.39**	-.54**	1								
8	.09**	.03	.58**	.14**	.03	.11**	.01	1							
9	.33**	-.21**	.04	.64**	-.39**	.40**	-.24**	.22**	1						
10	-.47**	.46**	.05**	-.43**	.68**	-.59**	.55**	-.01	-.44**	1					
11	.68**	-.46**	.04	.41**	-.46**	.74**	-.41**	.06**	.36**	-.50**	1				
12	-.44**	.55**	.03	-.27**	.40**	-.48**	.57**	-.02	-.23**	.43**	-.59**	1			
13	.05	.21	.56**	.08**	.04	.06**	.03	.58**	.07**	.02	.07**	.01**	1		
14	.38**	-.26**	.05	.60**	-.41**	.38**	-.25**	.08**	.59**	-.43**	.46**	-.33**	.13**	1	
15	-.48**	.44**	.02	-.44**	.63**	-.49**	.43**	-.02	-.38**	.66**	-.58**	.56**	.06**	-.54**	1
M	36.69	11.76	20.20	21.98	30.07	36.73	11.62	20.98	22.10	29.15	37.27	11.61	20.75	21.79	28.33
SD	5.771	4.513	3.118	3.241	7.205	5.770	4.436	3.045	3.251	6.816	6.117	4.517	2.902	3.241	6.855

*** $p < .001$ ** $p < .01$ * $p < .05$

- | | | | |
|-----------------|-----------------|----------------|----------------|
| 1. 1차 자아존중감 | 2. 1차 우울 | 3.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4.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 5. 1차 양육스트레스 | 6. 2차 자아존중감 | 7. 2차 우울 | 8.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 9.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10. 2차 양육스트레스 | 11. 3차 자아존중감 | 12. 3차 우울 |
| 13. 3차 통제적 양육행동 | 14. 3차 온정적 양육행동 | 15. 3차 양육스트레스 | |

〈표 2〉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50**	1													
3	.05	.00	1												
4	.34**	-.24**	.17**	1											
5	-.47**	.46**	.01	-.47**	1										
6	.56**	-.36**	.06**	.29**	-.38**	1									
7	-.31**	.44**	.02	-.23**	.32**	-.5**	1								
8	.08	-.02	.48**	.10**	.01	.13**	-.06**	1							
9	.21**	-.16**	.02	.52**	-.32**	.35**	-.28**	.21**	1						
10	-.35**	.31**	.08**	-.33**	.54**	-.52**	.49**	.02	-.45**	1					
11	.52**	-.34**	.03	.28**	-.36**	.55**	-.34**	.05	.23**	-.40**	1				
12	-.33**	.43**	.03	-.20**	.32**	-.34**	.44**	-.01	-.17**	.33**	-.53**	1			
13	.05	-.03	.48**	.06**	.05	.07**	-.04	.50**	.03	.05	.08**	-.02	1		
14	.27**	-.17**	.04	.48**	-.29**	.32**	-.24**	.06**	.52**	-.36**	.42**	-.30**	.14**	1	
15	-.38**	.35**	.05	-.33**	.52**	-.39**	.36**	.03	-.30**	.57**	-.54**	.50**	.05	-.52**	1
M	37.66	11.18	19.50	21.27	26.39	38.14	10.98	20.56	21.72	26.82	38.16	11.22	19.81	21.06	26.20
SD	5.312	4.045	3.613	3.536	6.568	5.231	3.962	3.575	3.786	6.631	5.593	4.455	3.362	3.517	6.571

*** $p < .001$ ** $p < .01$ * $p < .05$

- | | | | |
|-----------------|-----------------|----------------|----------------|
| 1. 1차 자아존중감 | 2. 1차 우울 | 3.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4.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 5. 1차 양육스트레스 | 6. 2차 자아존중감 | 7. 2차 우울 | 8.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 9.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10. 2차 양육스트레스 | 11. 3차 자아존중감 | 12. 3차 우울 |
| 13. 3차 통제적 양육행동 | 14. 3차 온정적 양육행동 | 15. 3차 양육스트레스 | |

2.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

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자아존중감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공분산을 보였고($\beta = -.555$, $p < .001$),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공분산을 나타내었다($\beta = -.409$, $p < .001$; $\beta = -.330$, $p < .001$). 1차 자아존중감은 2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고($\beta = -.132$, $p < .001$), 2차 자아존중감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beta = -.127$, $p < .001$), 1차 자아존중감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001$, ns).

〈표 3〉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모)

경로	B	β
1차 자아존중감 → 2차 자아존중감	.672	.637***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자아존중감	-.064	-.071**
1차 자아존중감 → 2차 양육스트레스	-.145	-.132***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524	.556***
1차 자아존중감 → 3차 자아존중감	.216	.189***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자아존중감	-.008	-.008
2차 자아존중감 → 3차 자아존중감	.659	.607***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자아존중감	-.019	-.018
1차 자아존중감 → 3차 양육스트레스	.001	.001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204	.216***
2차 자아존중감 → 3차 양육스트레스	-.133	-.127***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395	.395***
1차 자아존중감 ↔ 1차 양육스트레스	-25.877	-.555***
2차 자아존중감 ↔ 2차 양육스트레스	-10.703	-.409***
3차 자아존중감 ↔ 3차 양육스트레스	-8.298	-.330***

*** $p < .001$ ** $p < .01$ * $p < .05$

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자아존중감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공분산을 보였고($\beta = -.434$, $p < .001$),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공분산을 나타내었다($\beta = -.387$, $p < .001$; $\beta = -.367$, $p < .001$). 1차 자아존중감은 2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고($\beta = -.094$, $p < .01$), 2차 자아존중감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beta = -.072$, $p < .05$), 1차 자아존중감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037$, ns).

〈표 4〉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부)

경로	B	β
1차 자아존중감 → 2차 자아존중감	.470	.388***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자아존중감	-.183	-.177***
1차 자아존중감 → 2차 양육스트레스	-.115	-.094**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482	.463***
1차 자아존중감 → 3차 자아존중감	.174	.136***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자아존중감	-.004	-.004
2차 자아존중감 → 3차 자아존중감	.607	.574***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자아존중감	-.093	-.088**
1차 자아존중감 → 3차 양육스트레스	-.044	-.037

경로	B	β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191	.188***
2차 자아존중감 → 3차 양육스트레스	-.071	-.072*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410	.420***
1차 자아존중감 ↔ 1차 양육스트레스	-17.366	-.434***
2차 자아존중감 ↔ 2차 양육스트레스	-14.617	-.387***
3차 자아존중감 ↔ 3차 양육스트레스	-10.997	-.367***

*** $p < .001$ ** $p < .01$ * $p < .05$

3.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

모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우울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공분산을 보였고($\beta = .534$, $p < .001$),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공분산을 나타내었다($\beta = .400$, $p < .001$; $\beta = .393$, $p < .001$). 1차 우울은 2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고($\beta = .126$, $p < .001$), 2차 우울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beta = .061$, $p < .05$), 1차 우울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025$, ns).

〈표 5〉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모)

경로	B	β
1차 우울 → 2차 우울	.475	.478***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우울	.063	.101**
1차 우울 → 2차 양육스트레스	.191	.126***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530	.562***
1차 우울 → 3차 우울	.243	.236***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우울	-.002	-.004
2차 우울 → 3차 우울	.406	.392***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우울	.041	.060
1차 우울 → 3차 양육스트레스	.037	.025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206	.218***
2차 우울 → 3차 양육스트레스	.093	.061*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422	.421***
1차 우울 ↔ 1차 양육스트레스	18.164	.534***
2차 우울 ↔ 2차 양육스트레스	8.268	.400***
3차 우울 ↔ 3차 양육스트레스	8.148	.393***

*** $p < .001$ ** $p < .01$ * $p < .05$

부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우울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공분산을 보였고($\beta = .436, p < .001$),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공분산을 나타내었다($\beta = .367, p < .001$; $\beta = .342, p < .001$). 2차 우울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beta = .061, p < .05$), 1차 우울은 2차 양육스트레스($\beta = .028, ns$), 1차 우울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025, ns$).

〈표 6〉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부)

경로	B	β
1차 우울 → 2차 우울	.405	.388***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우울	.075	.116**
1차 우울 → 2차 양육스트레스	.046	.028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512	.492***
1차 우울 → 3차 우울	.286	.261***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우울	-.026	-.038
2차 우울 → 3차 우울	.333	.317***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우울	.086	.132***
1차 우울 → 3차 양육스트레스	.077	.047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189	.186***
2차 우울 → 3차 양육스트레스	.096	.061*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419	.429***
1차 우울 ↔ 1차 양육스트레스	12.681	.436***
2차 우울 ↔ 2차 양육스트레스	8.931	.367***
3차 우울 ↔ 3차 양육스트레스	7.492	.342***

*** $p < .001$ ** $p < .01$ * $p < .05$

4.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통제적 양육행동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분산을 보이지 못했고($\beta = .032, ns$),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분산을 나타내지 못했다($\beta = .013, ns$; $\beta = .039, ns$). 1차 통제적 양육행동은 2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했고($\beta = -.001, ns$), 2차 통제적 양육행동 또한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으나($\beta = .020, ns$), 1차 통제적 양육행동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beta = -.057, p < .05$).

〈표 7〉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모)

경로	B	β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2차 통제적 양육행동	.477	.490***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통제적 양육행동	.000	.000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003	-.001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593	.629***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244	.254***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018	-.044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365	.369***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023	.054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127	-.057*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220	.233***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044	.020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456	.455***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1차 양육스트레스	.738	.032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186	.013
3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544	.039

*** $p < .001$ ** $p < .01$ * $p < .05$

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통제적 양육행동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분산을 보이지 못했고($\beta = -.013$, *ns*),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분산을 나타내지 못했다($\beta = .005$, *ns*; $\beta = -.010$, *ns*). 1차 통제적 양육행동은 2차 양육스트레스를($\beta = .017$, *ns*), 2차 통제적 양육행동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beta = .029$, *ns*), 1차 통제적 양육행동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했다($\beta = .012$, *ns*).

〈표 8〉 통제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부)

경로	B	β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2차 통제적 양육행동	.388	.402***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통제적 양육행동	-.004	-.007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032	.017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525	.504***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204	.211***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009	.018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329	.328***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통제적 양육행동	.024	.048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054	.029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215	.212***

경로	B	β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023	.012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443	.454***
1차 통제적 양육행동 ↔ 1차 양육스트레스	-.338	-.013
2차 통제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106	.005
3차 통제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174	-.010

*** $p < .001$ ** $p < .01$ * $p < .05$

5.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온정적 양육행동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분산을 보였고($\beta = -.515$, $p < .001$),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분산을 나타내었다($\beta = -.294$, $p < .001$; $\beta = -.275$, $p < .001$). 1차 온정적 양육행동은 2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beta = -.076$, $p < .01$), 2차 온정적 양육행동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고($\beta = -.033$, ns), 1차 온정적 양육행동 또한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036$, ns).

〈표 9〉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모)

경로	B	β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2차 온정적 양육행동	.574	.580***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온정적 양육행동	-.008	-.017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148	-.076**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557	.590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191	.190***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004	-.007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433	.425***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044	-.085**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071	-.036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200	.212***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064	-.033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441	.440***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1차 양육스트레스	-13.500	-.515***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4.510	-.294***
3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4.250	-.275***

*** $p < .001$ ** $p < .01$ * $p < .05$

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 교차지연패널모형의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차 온정적 양육행동과 1차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공분산을 보였고($\beta = -.413$, $p < .001$), 2차와 3차에서도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공분산을 나타내었다($\beta = -.291$, $p < .001$; $\beta = -.275$, $p < .001$). 1차 온정적 양육행동은 2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beta = -.092$, $p < .01$), 2차 온정적 양육행동은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고($\beta = -.014$, ns), 1차 온정적 양육행동 또한 3차 양육스트레스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013$, ns).

〈표 9〉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교차지연패널모형 (부)

경로	B	β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2차 온정적 양육행동	.481	.481***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온정적 양육행동	-.027	-.047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164	-.092**
1차 양육스트레스 → 2차 양육스트레스	.485	.466***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202	.197***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014	.023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422	.412***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온정적 양육행동	-.064	-.111**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022	-.013
1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209	.205***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024	-.014
2차 양육스트레스 → 3차 양육스트레스	.438	.448***
1차 온정적 양육행동 ↔ 1차 양육스트레스	-11.285	-.413***
2차 온정적 양육행동 ↔ 2차 양육스트레스	-6.179	-.291***
3차 온정적 양육행동 ↔ 3차 양육스트레스	-5.774	-.309***

*** $p < .001$ ** $p < .01$ * $p < .05$

I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지만, 종단 자료에 기초해 세 변인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세 시점에서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적 특성, 양육스트레스를 반복 측정하고 교차지연패널모형 분석을 실시해 이 세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가설대로 첫 시점에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온정적 양육행동은 1년 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고, 두 번째 시점

에서 측정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1년 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은 1년 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게 함께 나타났다. 통제적 양육행동을 줄이는 개입만으로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어렵고, 온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개입이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모듈에 포함되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방식을 촉진시키고,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채영문, 2010).

첫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온정적 양육행동이 1년 후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온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개입이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윤혜미, 최문정, 2006;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서우경, 김도연, 2013). 본 연구의 또 다른 결과로 두 번째 시점에 측정한 우울이 1년 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우울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요인과 관련되며 양육스트레스의 부모영역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문영경, 2012; 이윤주, 김진숙, 2012;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양육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우울이 결과가 되는 연구는 쉽게 관찰할 수 있었지만,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것이다. 우울이 어떤 기제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이끄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울 상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무력감과 활력저하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나,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형 설문지만을 사용한 만큼, 인터뷰 형식의 보다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특성과 양육적 특성에 대한 개입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곽금주(2008). 아동의 행복1.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4, 15-28.

- 권수진, 이지영(2017).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가족 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 9(4), 121-141.
- 김영미, 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윤나, 박옥식(2009). 청소년 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자아존중감, 직업성숙도, 학업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은주, 서영희(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경험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3.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현옥(2015).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과 비빈곤가족 영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비교. **아동교육**, 24(1), 119-139.
- 남기원, 변유미(2018).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자녀의 식습관 및 수면시간 간의 단기 종단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2(1), 389-413.
- 남인숙(2008). 파도림 예방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유용성. **한국사회이론학회**, 33, 135-161.
- 문영경(2009). 어머니의 정서적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민미희(2017).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97-117.
- 박민지, 하은혜(2020). 정신장애 영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아동영역 및 부모영역 양육스트레스의 이중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3(1), 1-21
- 박선영(2005).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3), 71-92.
- 서우경, 김도연(2013).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21-136.
- 서주현, 김진경(2011).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11, 171-172.
- 신은경, 문혜련(2013). 부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아탄력성.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20(3), 89-112.
- 신희선, 김정미(201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위험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아동문제행동 간의 관계분석. **대한간호학회지**, 40(3), 453-461.
- 양종국, 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윤혜미, 최문정(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인정, 김미영(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제림, 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이희정(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조준범, 김동기(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 채영문(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117-132
- 최은영, 최인령(201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최효식, 연은모(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 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8(6), 5-30.
- 한인숙, 양혜정(2015).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 문제행동의 종단적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3), 287-317.
- 황성운, 황지온(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6(4), 163-176.
- Cowan, C. P., & Cowan, P. A. (2000). Associations between father-daughter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academic engagement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 girls: Self-esteem as a mediator?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5(4), 495-516.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293-301.
- Hollenstein, T., Granic, I., Stoolmiller, M., & Snyder, J. (2004). "Rigidity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6), 595-607.
-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 Jahromi, L. B., Guimond, A. B., Umaña-Taylor, A. J., Updegraff, K. A., & Toomey,

- R. B. (2014). Family Context, Mexican-Origin Adolesce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Children's Subsequent Developmental Outcomes. *Child development, 85*(2), 593-609.
- Lisanne L. Stone, Suzanne H. W. Mares, Roy Otten, Rutger C. M. E. Engels, & Jan M. A. M. Janssens (2016). The Co-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 76-86.
- McKee, L., Roland, E., Coffelt, N., Olson, A. L., Forehand, R., Massari, C., ... , & Zens, M. S. (2007). "Harsh discipline and child problem behaviors: the roles of positive parenting and gend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4), 187-196.
- Koen Ponnet, Edwin Wouters, Tim Goedemé, & Dimitri Mortelmans (2013) Family Financial Stress,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4*(4), 574-597.
- Reitman D., Currier R. O., & Stickle T. R. (2002).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 in a head star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 384-392.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 213-240.
- Stone, L. L., Mares, S. H. W., Otten, R., Engels, R. C. M. E., & Janssens, J. M. A. M. (2016). The co-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1), 76-86.
- Tan, Camras, Zhang, Deng, & Lu (2012). Family stress, parenting styles,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age adopted Chinese gir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1), 128-136.
- Wake, M., Nicholson, J. M., Hardy, P., & Smith, K. (2007). Preschooler obesity and parenting styles of mothers and fathers: Australian national population study. *Pediatrics, 120*(6), 1520-1527.

• 교신저자: 임영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메일: yjlim0109@naver.com

Longitudinal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Stres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yeonju Kim and Yeongjin Lim

In this study, there are many studies on parental psychological and nurtur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but no studies have so far examined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sides based on profile dat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eatedly measur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urturing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stress of parents at three points over three years and to conduct cross-delay panel model analysis to identify the end-to-e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variabl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udy question sought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parent on parenting stress and the effect of the second parent on parenting stress.

The subjects of this study used the 5th and 7th data for parents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 Measurements of depression (from 5th to 7th) and self-respect (from 5th to 7th) have been used as variable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as a variable to identify parental characteristics, we used data on parenting behavior (from 5th to 7th) to identify controlled and sympathetic parenting behaviors. Finally, data on parenting stress (from 5th to 7th) were used. It was analyzed using SPSS 18.0 and Mplus 7.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roduced demographic variables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each scale and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using Pearson correlations. Cross-delay panel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ccording to the study's hypothesis, self-respect and compassionate parenting behavior measured at the first time predicted parenting stress after a year, and self-respect and depression measured at the second time predicted parenting stress after a year. On the other hand,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 did not predict parenting stress after a year, and these results were accompanied by par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that reduce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 alone are difficult to reduce parenting stress, and that interventions that increase benign parenting behavior are included in the module for reducing parenting stres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showed that self-respect and paternal parenting behavior at the first point affected parenting stress after a year,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involvement focused on self-respect and paternal parenting has a positive impact on parenting stress.

As another result of this study, depression measured at the second time predicted parenting stress after a year.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interventions targeting parental depression that can reduce parenting stress. While studies in which parenting stress is the cause and depression is the result were easily observab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which depression is the cause of parenting stress are meaningful to reveal that it is new. However, whil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and nurturing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stres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variables using a more objective measure of interview format, as onl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re used to measure parental psychological and parenting stress.

- Key word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parenting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부모의 심리적특성과 양육적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흥미로운 교차지연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모형 내에 아동의 특성(성별, 기질, 행동특성 등)과 발달과업이 부모에게 주는 영향, 서비스이용의 영향, 추가자녀 출생양육에 따른 영향, 부모의 연령 및 신체건강적 상황과 노동특성, 가구의 소득계층 등이 전혀 고려(통제)되지 않아, too general 하고 다소 도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7세의 경우, 자녀가 학교 갈 준비를 해야하고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응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연령인데, 순전히 7세이전 부모의 심리양육적 특성만으로 인과구조를 구성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울 역시 기질적 우울정서와 생활상 발생하는 우울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우울과 스트레스의 인과구조가 혼동스러운 상황입니다.

심리적 특성과 양육적 특성이 완전히 개념적으로 독립된 domain인지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육효능감” 같은 변수가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용적·실천적 함의도 도출하고 의미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분석에 활용된 N수가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sub group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차이를 정교히 추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전체집단 분석은 집단 간 의미있는 variation을 희석시켜 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위집단 분석을 할 경우 가설도 추가되고 group별 기초분석 결과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술논문으로서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가 더 논리적으로 더 충실히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제언드린 sub group 분석을 할 경우, 어떤 지점에 상답이나 지원이 개입하고 어떤 대상에게 더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가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성정혜³⁹⁾ 김춘경⁴⁰⁾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의 1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을 통해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 및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아동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 주제어: 정서충격 수준,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1. 서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신체적·인지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청(2020)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년~2019년) 동안 촉법소년은 31.5%가 증가하였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52.6%), 폭력(25.0%), 강간·추행(4.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연도별 증가율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폭력(53.5%)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39)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시간강사(sjhye@knu.ac.kr)

40)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kckyung@knu.ac.kr)

(절도 20.67%, 강간·추행 14.8%). 이는 아동의 폭력성이 심각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이 가진 폭력적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한다는 점(Tremblay et al., 1999)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폭력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폭력성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손상을 가져오는 공격적인 행동과 사회가 정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기에는 주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설명되어 진다(Olweus, 1994). 외현화 문제행동은 통제가 부족하고 외부로 뚜렷이 드러나는 행동 문제로,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이 이에 해당된다. 규칙위반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공격행동은 언어적·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응이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벌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위해 자녀의 연령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을 제공한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에게 가지는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기대보다 높아 자녀가 학업에 대한 통제와 압력감을 느끼는 것으로(홍은자, 2001), 학업에 대한 자녀의 내적 동기를 격려하기보다는 우수한 학업성취 결과만을 강요하게 되는 부모의 태도로 작용하게 된다. Erikson(1968)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근면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자율성과 독립심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사회성 등의 감소와 함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지영과 김지신(201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높은 성취압력은 아동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에 대한 것으로,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은 학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부모의 성취압력이 지나치다고 느끼는 아동은 목표에 대한 부모와의 갈등, 성적에 대한 압박감, 완벽함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부모의 성취에 대한 높은 압력으로 인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아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게 되고,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감정이나 행동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지현, 박경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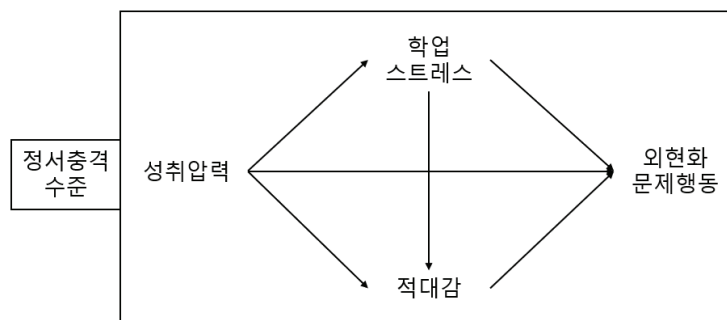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리를 유발하면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박봉석, 2011). 적대감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냉소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Spielberger et al., 1985). 임연옥 등(2020)의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신체화, 불안, 적대감 등 부적응적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민주와 이동귀(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가 사회적 행동을 좌절시키게 되면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적대감은 불쾌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키게 된다(Buss & Perry, 1992). 이와 관련하여 De Castro 등(2002)의 연구에서 아동의 적대감과 문제행동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적대감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19,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정서적 충격에 쉽게 노출된다. 정서충격(trauma)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나 공포, 무력감 등을 초래하는 사건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Briere & Scott, 2014), 과거에는 외상을 특수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면, 최근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설명되고 있다(임혜나, 2016).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기에는 인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시기로, 외부의 자극에 의해 더욱 큰 충격을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인지·정서·행동·심리·신체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해린(2015)의 연구에서 과보호와 방임과 같은 학대 경험이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승민과 박재연(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 아이는 학교에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세진과 김교현(2005)은 아동의 외상 경험이 적대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이현정과 장희순(2014)은 외상 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무력감과 부적응적 대처방식을 형성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공격적 행동과 비행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이 경험한 사건들로 인한 정서적 충격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의 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각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다집단 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 충격 수준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0세 유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12차(2019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12차(초등학교 5학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181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비율 %)	
		정서충격 높은 집단	정서충격 낮은 집단
성별	남아	95(46.8)	510(52.1)
	여아	108(53.2)	468(47.9)
출생순위	첫째	85(41.9)	463(47.4)
	둘째	86(42.3)	416(42.5)
	셋째	24(11.8)	94(9.6)
	넷째 이상	8(4.0)	5(0.5)
	부모+자녀	171(84.2)	867(88.7)
가구 구성 형태	조부모+부모+자녀	20(9.9)	72(7.3)
	부모+자녀+친척	2(1.0)	6(0.6)
	조부모+부모+자녀+친척	9(4.4)	32(3.3)
	기타	1(0.5)	1(0.1)
거주지역	서울권	31(15.3)	106(10.8)
	경인권	45(22.2)	250(25.4)
	대전/충청/강원권	32(15.8)	167(17.1)
	대구/경북권	13(6.4)	113(11.6)
	부산/울산/경남권	39(19.2)	205(21.0)
	광주/전라/제주권	43(21.2)	137(14.0)
사교육 여부	이용함	188(92.6)	914(93.5)
	이용하지 않음	15(7.4)	64(6.5)
아버지 연령	30대	22(10.8)	96(9.8)
	40대	156(76.8)	781(79.9)
	50대 이상	25(12.4)	101(10.3)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28.6)	256(26.1)
	2~3년제 대학 졸업	43(21.2)	206(21.3)
	4년제 대학교 졸업	74(36.4)	397(40.5)
	대학원 졸업	28(13.8)	119(12.1)
어머니 연령	30대	42(20.7)	236(24.1)
	40대	154(75.9)	709(72.5)
	50대 이상	7(3.4)	33(3.4)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26.6)	252(25.7)
	2~3년제 대학 졸업	61(30.1)	287(29.4)
	4년제 대학교 졸업	71(34.9)	376(38.5)
	대학원 졸업	17(8.4)	63(6.4)
전체		203(100)	978(100)

2. 측정도구

가. 정서충격 수준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안현의와 안창규(2017)가 표준화한 NEO 성격검사이다. 정서충격은 트라우마(외상)와 관련된 것으로, 어릴 때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과 상처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서충격의 T점수를 기준으로 나눈 5가지(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의 수준을 토대로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부모의 성취압력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강영철(2003)이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 태도 검사와 김경옥(1992)의 양육행동 척도를 토대로 개발하고, 이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총 1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Hau와 Marsh(2004)에 따르면 측정 문항을 모두 관측변수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므로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얻기 위해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성취압력의 측정변수에 대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성취압력 1과 성취압력 2라는 2개의 꾸러미변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91(성취압력 1 .841, 성취압력 2 .794)로 나타났다.

다. 학업 스트레스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개발하고, 이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아동에 맞게 의문문으로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80으로 나타났다.

라. 적대감

아동의 적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안현의와 안창규(2017)가 표준화한 NEO 성격검사이다. 적대감은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화를 내거나 복수하고 공격하고 싶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과정을 통

해 변환된 T점수를 기준으로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마.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오경자와 김영아(2010)이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이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에는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T점수를 기준으로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를 위해 5가지(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수준에 따라 F 검증(일원배치분산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F 검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분류된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 집단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집단에서는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아동이 없어 집단에서 제외하였으며, '매우 높음'의 경우 아동의 수(42명)가 적어 '높음'과 함께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을 3집단('낮음', '보통', '높음 및 매우 높음')으로 분류하여 F 검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변인	M(SD)			F	Scheffe
	낮음(a)	보통(b)	높음(c)		
성취압력	2.205(.662)	2.344(.646)	2.769(.819)	50.083*	a, b < c
학업 스트레스	1.816(.765)	2.160(.717)	2.866(.998)	130.959*	a < b < c
적대감	43.15(7.602)	49.07(7.253)	55.92(8.375)	224.084*	a < b < c
외현화 문제행동	47.08(9.195)	48.37(8.955)	49.27(9.160)	5.135*	a, b < c
규칙위반	52.98(5.080)	53.53(4.942)	54.23(5.206)	4.826*	a, b < c
공격행동	52.38(4.829)	52.88(4.681)	53.66(5.428)	5.261*	a, b < c

* $p < .05$

a : 낮음 b : 보통 c : 높음 및 매우 높음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서충격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규칙위반, 공격행동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은 ‘낮음’, ‘보통’, ‘높음’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압력과 외현화 문제행동,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는 ‘낮음’과 ‘보통’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을 높은 집단(높음 및 매우 높음)과 낮은 집단(낮음 및 보통)으로 분류하여 집단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변수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왜도(-.152 ~ 1.668)와 첨도(-.747 ~ 3.052)는 정상분포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측정변수 간 상호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 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1	1	.950*	.947*	.625*	.531*	.221*	.399*	.396*
2	.929*	1	.800*	.589*	.531*	.244*	.403*	.396*
3	.935*	.738*	1	.597*	.477*	.175*	.352*	.355*
4	.480*	.455*	.441*	1	.467*	.235*	.430*	.372*
5	.312*	.323*	.259*	.374*	1	.231*	.391*	.396*
6	.201*	.193*	.182*	.204*	.249*	1	.680*	.720*
7	.208*	.199*	.189*	.198*	.250*	.745*	1	.674*
8	.218*	.230*	.202*	.245*	.277*	.836*	.657*	1
왜도	.002	.147	-.049	-.046	-.152	.530	1.274	1.668
첨도	-.652	-.541	-.747	-.738	-.007	.756	1.187	3.052

* $p < .05$

1. 성취압력 2. 성취압력1 3. 성취압력2 4. 학업 스트레스 5. 적대감
6. 외현화 문제행동 7. 규칙위반 8. 공격행동

Note. 대각선 위는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이며, 아래는 정서충격 수준이 낮은 집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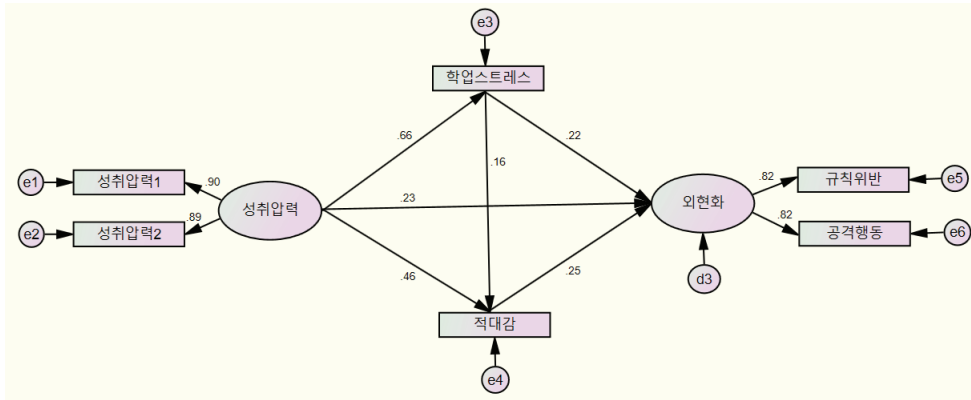
3.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을 통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각 변수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hi^2(df = 12) = 13.983$, $TLI = .998$, $CFI = .999$, $RMSEA = .012$],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경로계수는 〈표 4〉, [그림 2],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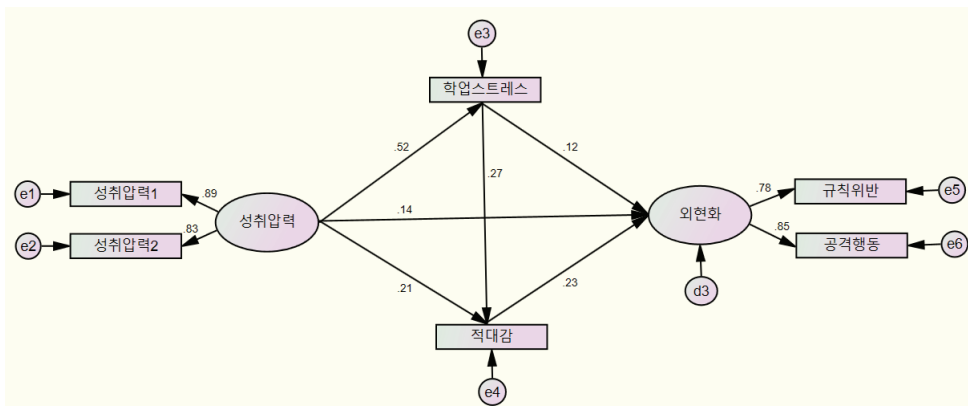
〈표 4〉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모수 추정치

모수		정서충격 수준 높음		정서충격 수준 낮음	
		$B(S.E.)$	β	$B(S.E.)$	β
성취압력	→ 학업 스트레스	.837*(.077)	.662	.641*(.041)	.518
성취압력	→ 적대감	4.945*(.946)	.457	2.660*(.495)	.206
성취압력	→ 외현화 문제행동	1.241*(.591)	.229	.889*(.285)	.141
학업 스트레스	→ 적대감	1.404*(.701)	.164	2.791*(.368)	.268
학업 스트레스	→ 외현화 문제행동	.952*(.402)	.222	.593*(.213)	.116
적대감	→ 외현화 문제행동	.123*(.042)	.246	.114*(.019)	.233

* $p < .05$



[그림 48] 정서충격 수준 높은 집단의 모수 추정치



[그림 49] 정서충격 수준 낮은 집단의 모수 추정치

그 결과,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대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

〈표 5〉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 간 차이 비교

모수		Δdf	$\Delta \chi^2$	p	ΔTLI	ΔCFI
성취압력	→ 학업 스트레스	1	5.366	.021	.004	.002
성취압력	→ 적대감	1	4.665	.031	.003	.001
성취압력	→ 외현화 문제행동	1	.287	.592	-.001	.000
학업 스트레스	→ 적대감	1	3.074	.080	.002	.001
학업 스트레스	→ 외현화 문제행동	1	.613	.434	-.001	.000
적대감	→ 외현화 문제행동	1	.041	.840	-.001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13.057	.042	.004	.003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chi^2(df = 1) = 5.366, p < .05$]와 성취압력이 적대감에 미치는 경로[$\chi^2(df = 1) = 4.665, p < .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2가지의 경로는 〈표 4〉를 통해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종경로는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에 이르는 경로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2가지 경로(부모의 성취압력 →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성취압력 → 적대감)의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정서충격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 및 적대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해져 가고 있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유의미한 차이를 토대로 집단에 따른 변인들 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서충격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

압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은숙 등(2006)이 학대와 방임 경험이 학령기 아동에게 학업에 대한 압력을 더욱 큰 심리적 갈등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충격 사건은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면 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아이를 조정하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녀에게 죄의식이나 불쾌감, 정서적 고통을 불러일으키게 된다(Barber & Harmon, 2002). 이로 인해 부모가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감을 표현할 때 정서적 충격 수준이 낮은 아동에 비해 정서적 충격 수준이 높은 아동이 이러한 행동을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로 느낄 수 있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이 부정적 정서에 해당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김은정과 김진숙(2008)의 연구에서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아동의 정서적 충격 사건은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학령기 아동에게 공부나 성적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충격 사건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다고 느끼게 되어(심두경, 백용매, 2019)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믿지 못하는 적대감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김재엽과 최권호(2012)의 연구에서 외상 경험이 있는 아동이 외상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공격성과 문제행동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을 높게 되는 외상 경험은 기능적인 심리적·정서적·인지적 체계를 붕괴시키게 되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역기능적인 대처전략을 활용하게 되면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더욱 높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안지영과 김지신(201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에 대해 높은 압력을 받는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부모의 관심이나 기대에 대한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Reed, Goldstein, Morris, & Keyes, 2008), 이를 부모에게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등 부모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표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욕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아동의 교육에 대해 격려할 수 있도록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수연과 강지현(2013)의 연구에서 아동의 수업이나 성적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공부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학업성적과 연관시키게 되고,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여 아동에게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다(석말숙, 2017).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동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언어적·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정옥분, 2002).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써 학업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데,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규칙위반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국가 및 학교 차원에서 학업에 대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동의 적대감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해진과 유미숙(2018)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적대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가지고 분노감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정서적인 태도를 내포하기도 한다(Spielberger et al., 1985).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미성숙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할 경향성이 높아(Smith, Ruiz, & Uchino, 2004)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인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적대감은 타인에 대해 가지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이는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완정, 정혜진, 2010).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문제행동이 더욱 심각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아동의 적대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은 부모의 교육 기대와 학업관여 행동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김종백과 김준엽(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억압과 부담을 느끼게 되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정서적 충격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이전이나 현재에 정서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심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아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Clark & McManus, 2002), 부모가 자신의 학업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느끼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학업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어 성적이나 좋은 학교로의 진급 등에 집착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고자 하지만 학업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자신에 대해 부모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거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고은지, 김진숙, 2018), 이러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학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황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의 성취압력이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자녀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더욱 높게 지각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는 오아름(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정서적 충격 수준이 높은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학업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정서적 충격 수준이 낮은 아동에 비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모의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을 높게 인식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

하여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적대감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집단 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나 적대감의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학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개인적 요인으로서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외상을 경험하여 현재 정서적 충격 수준이 높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중학교로의 진급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부모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심은 없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러한 학업에 대한 태도를 압력이 아닌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가진 하나의 관심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신의 기대와 관심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학습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대감이나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동기 이후에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적대감과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정서적 충격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전염병의 유행이나 붕괴 사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외상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아이들의 정서적 충격 수준을 주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또 다른 외상 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 후, 이를 토대로 차이검증과 다집단 분석을 통해 각각의 변인에서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차이와 변인들 간 인과관계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아동이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나 관심을 압력으로 느끼는 정도가 더욱 높았으며, 높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서충격 수준에 상관없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부모님의 양육태도(김현아, 장혜인, 2017; 이영애, 2021)와 심리적 통제(전숙영, 2007; 최태산, 김자경,

2015) 등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부모님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벌주의 사회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조기교육에 대한 열풍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변인들 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재난 사건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같이 정서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다양해지고 심각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충격 사건의 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외상 사건 유형에 따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적대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역기능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인간의 심리적 체계를 살펴보면, 인지행동치료(CBT)에서는 인지와 정서,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인지적 왜곡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와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철(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찰청(2020).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고은지, 김진숙(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 부과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73-102.
-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주, 이동귀(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69-89.
- 김세진, 김교현(2005). 아동의 외상경험에 대한 자기노출이 분노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

학회지: 건강, 10(1), 47-65.

김은정, 김진숙(2008).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9(4), 1505-1520.

김재엽, 최권호(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김종백, 김준엽(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 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 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김준호, 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현,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김현아, 장혜인(2017).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1), 41-62.

나은숙, 정익중, 이봉주, 김예성, 김광혁(2006).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2006, (3), 187-193.

문수연, 강지현(201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질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6), 3323-3339.

박봉석(2011). 부모의 성취압력이 고등학생들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 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석말숙(2017).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성향과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6(1), 77-104.

심두경, 백용매(2019). 아동기의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의 우울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5(1), 17-37.

안지영, 김지신(2014). 어머니 성취압력과 아동 공감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역할. 청소년학연구, 21(7), 217-242.

안현의, 안창규(2017). NEO 성격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오경자, 김영아(2010).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오아름(2017). 부모학업성취압력이 학습자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31(3), 409-435.

이승민, 박재연(2020).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삶에 대한 이해: 생애사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4), 279-310.

이영애(2021). 학령기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9(1), 205-227.

이완정, 정혜진(2010). 아동청소년기 폭력노출경험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아동과 권리, 14(3), 385-407.

이현정, 장희순(2014).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 부적응

- 도식의 매개효과. 한국인지 행동치료 학회, 14(1), 39-51.
- 임연옥, 홍윤표, 김경민, 이영림, 임명호(2020).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정신건강, 부모의 성취 압력, 학업과다의 관계. 스트레스 연구, 28(2), 61-67.
- 임혜나(2016). 심리적 외상 경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심리치료 메타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6), 101-111.
- 전혜진, 유미숙(2018).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대한 잠재성장모형과 모의 특징 및 유아 문제 행동의 구조관계. 육아정책연구, 2(1), 75-98.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해린(2015). 과보호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대인관계 발달에 관한 혼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최태산, 김자경(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363-384.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iere, J. N., & Scott, C. (2014).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A guide to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DSM-5 update)*. Washington DC: Sage Publications.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lark, D. M., & McManus, F. (2002).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Biological Psychiatry*, 51(1), 92-100.
- De Castro, B. O., Veerman, J. W., Koops, W., Bosch, J. D., & Monshouwer, H. J. (2002). Hostile attribution of intent and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73(3), 916-93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Hau, K. T., & Marsh, H. W. (2004). The use of item parc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Non-normal data and small sample siz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7(2), 327-351.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 Reed, T. J., Goldstein, S. E., Morris, A. S., & Keyes, A. W. (2008). Relational aggression in mothers and children: Links with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adjustment. *Sex Roles*, 59(1-2), 39-48.
- Smith, T. W., Ruiz, J. M., & Uchino, B. N. (2004). Mental Activation of Supportive Ties, Hostility,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to Laboratory Stress in Young Men and Women. *Health Psychology*, 23(5), 476-485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 5-30). New York: Hemisphere.
- Tremblay, R. E., Japel, C., Perusse, D., McDuff, P., Boivin, M., Zoccolillo, M., & Montplaisir, J. (1999). The search for the age of 'onset' of physical aggression: Rousseau and Bandura revisited.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9(1), 8-23.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among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tress, Hostility,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according to the Trauma level in children

Junghye Sung and Choonkyung Kim

The study's purpose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tress, hostility,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according to the children's trauma level. For this purpose, the 12th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as used. Using the data of 1,181 valid responses from the 12th data, the F-test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variable according to the trauma level of children. Also based on this,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influence according to the trauma level of children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trauma level of childre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tress, hostility,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It was found that the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tress, hostility, and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were higher in the group with the high level of trauma than the group with the low level of trauma.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structur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ll variables was significant regardless of the children's trauma level.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tress, and hostility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by children on academic stress and hostility according to children's trauma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influ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traum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in the modern society, where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psychologically traumatized and wounded by various events. Based on this,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al shock caused by past trauma can be a factor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t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counseling and programs to prevent and reduce the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of children.

- Key words: Trauma Level,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tress, Hostility,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분석

강수정(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 논문은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현대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열된 학업 경쟁 및 소년범 범죄율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의 범죄가 31.5%나 증가했다는 통계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예방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이 성취압력을 포함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 연구는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라 상기한 변수들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아동이 보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나 스트레스 수준 및 성격과 같은 아동 개인의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서충격 사건까지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제안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 속에서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논문을 읽으면서 독자로서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던 궁금증은 연구대상 아동들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정서충격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한 정서충격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학대나 방임과 같은 정서충격 경험은 이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들에 대해 각기 다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즉, 후자의 경우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충격 경험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게도 측정에 사용된 연구 도구가 아동이 경험한 정서충격 경험의 종류에 대해서까지 다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후속 연구에서 정서충격 경험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전달하는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정서충격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성취압력이 학업스트레스 및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적대감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적대감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자들께서는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12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한국 아동 패널 리

미디어

미디어

좌장: 조성연(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홍예지(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토론자: 이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 및 영향 요인

발표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윤미라(대전대흥초등학교 교사)

토론자: 김경은(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3.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

발표자: 조민규(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김춘경(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토론자: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예지⁴¹⁾

요약

이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0, 11, 12차 데이터에서 스마트 기기 중독 척도에 응답한 아동 98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는 2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며, ‘중간수준 유지형’ 및 ‘저수준 증가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의 하위요인 중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통제 곤란 및 부주의가 스마트 기기 중독 잠재집단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초등학생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이들의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높을수록 유지형보다 완만한 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스마트 기기 중독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변화의 개인차를 확인한 결과이며, 이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스마트 기기 중독,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 집행기능 곤란, 성장혼합모형

1. 서론

‘2021 청소년 통계’는 2020년 기준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35.8%)이 스마트폰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한 과의존 위험군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30.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 또한 학령 전환기(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129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여성가족부, 2020)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에 비해 초·중등학생의 과의존 위험군은 증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20년 전년대비 증감 비율이 가장 높아 스마트폰 과의존의 저연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1)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

미디어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의존 또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미국정신의학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Task Force, 2013)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 IGD)라는 진단명을 제안하여 병리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인터넷 게임 장애에서 서술하고 있는 현저성, 자기조절력 감소 및 문제적 행위를 미디어 기기 과의존, 중독을 설명하기 위하여 차용해 왔고, 이에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미디어 기기의 영향을 행위 중독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의존과 중독을 혼용하거나 학자마다 개념적으로 다르게 정의하고(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미디어 기기의 정의 역시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으로 다르다(박보경, 노지운, 2019; 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홍예지, 2021b; Zhen, Li, Liu, & Zhou, 2020). 아동의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는 유, 무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내 상호 연동된 기기를 통해 사용자와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컴퓨팅 수행이 가능한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이 있다(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Silverio-Fernández, Renukappa, & Suresh, 201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중독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에 주목하고자 한다.

스마트 기기 중독은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부적응이나 일탈을 경험하고,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여 점차 사용의 빈도를 더 높여야 만족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 불안함을 보이는 등 금단과 내성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휴대가 용이하고,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통신수단으로써 스마트 기기의 현저성이 증가함에 따른 이용 조절력의 감소는 미디어 기기의 의존 또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기는 성장기 아동의 신체발달(Maisch, 2003), 언어·인지발달(김은지, 전귀연, 2020; Beland & Murphy, 2014) 및 심리·정서발달(홍예지, 2021a; Kardefelt-Winther, 201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 이용의 저연령화와 과의존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반영하여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초점을 맞추거나(박보경, 노지운, 2019),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 중기는 가족 외 구성원과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기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율적 사용이 가속화되는 시기이며(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 정의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10대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을 스마트 기기 중독의 중단적 변화 유형을 확인하는 초기 시점으로 설정하여 관련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초기 개입 및 예방 지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매체체계 의존이론(Ball-Rokeach & DeFleur, 1976)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이때 매체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유용하다면 개인은 특정 매체와 지속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심화된 매체 의존은 개인에게 특정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Kim, Jung, Cohen, & Ball-Rokeach, 2004; Tai & Sun, 2007). 즉, 아동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의 목적 등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스마트 기기 중독은 심화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의존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있다(구현영, 김은정, 2015; 김경민, 조은영, 송지은, 2018; 박보경, 노지운, 2019; 장유진, 홍예지, 2019; 조윤주, 2019; Bae, Choi, & Kim, 2020; Seo & Choi, 2018). 예를 들어, 조윤주(2019)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가율은 완만하다고 하였고, 김경민, 조은영과 송지은(2018)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7년여간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양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며, 이러한 변화에 의미있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Seo와 Choi(2018)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아동의 휴대전화의존의 초기치는 낮으나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저수준증가집단’,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유지하는 ‘중간수준유지집단’, 초기치는 높으나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고수준감소집단’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또한 장유진과 홍예지(2019)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이 ‘중간수준유지집단’, ‘급변화집단’, ‘저의존증가집단’, ‘고의존 감소집단’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의존은 모두 선형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이질적인 변화의 잠재집단을 사람 중심 접근 방법을 통해 구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을 초기로 한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종단적 변화는 앞서 상술한 선행연구보다 스마트 기기 중독의 초기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시간이 흘러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선행연구와 비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종단적 변화 유형에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에 따라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서미정, 2016; 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Arora, Singh, & Taneja, 2016; Nguyen et al., 2016)는 스마트 기기의 실질적 사용과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스마트 기기 보급 초기에는 정보를 얻거나 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도구적 목적과 개인 간 소통을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주로 이용된 반면, 보편화 이후에는 점차 게임 및 오락 중심으로도 스마트 기기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서미정, 2016). 이밖에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사진 촬영 등의 여가 활동의 목적 또는 가족 및 또래와의 소통의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이용된다(전상민, 2015).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스마트 기기의 이용목적을 확인한 Bian과 Leung (2015)은 검색엔진 사용이나 뉴스 검색과 같은 정보추구, 업무일정 기록이나 이메일 확인 등으로의 유용성, 비디오 시청, 음악감상 및 게임 등의 재미 추구, 전화나 텍스트 주고 받기 등의 사교성의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에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김기태, 이현주와 문신일(2016)은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에 정보추구,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으나 학습이나 게임 목적에 따른 이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서미정(2016)과 전상민(2015)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이용 목적을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및 오락용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학습자로서 아동의 학습이나 정보검색 등으로 활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목적에 포괄적으로 아우르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오소정, 김윤경과 박주희(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에 구분하여 이에 따른 스마트 기기 중독의 종단적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행연구(구현영, 2013; 서미정, 2016; 오소정, 김윤경, 박주희, 2020; 전상민, 2015)는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스마트 기기 이용양상 즉, 변화 궤적, 의존, 이용시간 등과의 관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서미정(2016)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휴대전화 이용목적별 휴대전화 이용의 변화 궤적을 확인한 결과, 가족소통용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고, 친구소통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오락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전상민(2015)은 초등학교 6학년의 휴대전화 이용목적 중 가족연락용은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친구연락용 및 개인오락용은 휴대전화 의존에 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소정, 김윤경과 박주희(2020)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과 이용목적에 아울러 잠재집단을 분류한 결과, ‘고이용·소셜오락추구형’, ‘오락편중형’, ‘다목적활용형’, ‘소셜·오락추구형’, ‘학습추구형’ 및 ‘소극적활용형’으로 분류하였다. 상술한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의 스마트 기기의 개념과 이용목적의 하위 유형은 연구마다 상이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초등학생이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등의 재미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때와 학습이나 소통 또는 정보검색을 위한 목적일 때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종단적 변화 유형에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집행기능 곤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행기능은 고차원적 인지능력(Denckla, 1996)으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상위기능(Jurado & Rosselli, 2007)에 가깝다. 이에 통합적 인지처리과정(Cicerone et al., 2000)관점에 따르면 집행기능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처리 및 인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 및 일상의 적응적이고 사회적 행위 등 지각, 사고, 정서, 행동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른다(McCloskey & Perkins, 2012). 특히 집행기능은 뇌의 전두엽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Anderson & Reidy, 2012), 전두엽은 만 5세 전후에 구체적인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뇌의 영역 중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발달을 거친다(민미희, 2020). 예를 들어, 이명주와 홍창희(2006)는 집행기능 중 정서, 행동 및 주의 통제 등의 억제 능력은 만 7~10세경, 작업기억은 만 7~9세경, 전환능력은 만 8~9세경에 급격한 향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언급한 시기는 대부분 학령전기로 아동에게 학교라는 변화된 생활 환경 속에서 특정 활동에의 작업기억 유지 및 주의집중 능력, 정서 및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등 자기조절적 능력의 발휘가 요구된다(Carlson, Moses, & Claxton, 2004; Gioia, Isquith, & Guy, 2001).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의 과다 사용과 아동의 집행기능은 관련이 있음(오선화, 하은혜, 2014; Kuss & Griffiths, 2012; Weng et al., 2013)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비디오 게임이 집행기능 중 주의 전환 및 주의 통제와 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인 연구(Buelow, Okdie, & cooper, 2015; Stockdale, Morrison, Palumbo, Garbarino, & Siltan, 2017)도 소수 존재한다. 그러나 전두엽 기능의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 특히 성인보다 스마트 기기의 중독으로 인한 역기능의 영향이 더 크고(이혜민, 한유진, 2020),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고, 인지적 유연성이 낮으며, 자기조절에 실패하는 경향이 높아 미디어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집행기능 곤란을 논하고 있다(정은화, 이현아, 이지영, 이강이, 2019; Kuo et al., 2018). 이처럼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은 집행기능 곤란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지만,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밝힌 연구(민미희, 2020; 박라진, 2016; 이혜민, 한유진, 2020)도 몇몇 존재하여 두 변인 간의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다. 나아가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을 사고, 정서, 행동 등으로 나누어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제

적 행동으로 대표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 간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요인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학령기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에 역기능적 역할을 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집행기능 곤란을 파악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과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 연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이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 및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스마트 기기 중독 10차 년도(2015년), 11차 년도(2018년) 및 12차 년도(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측요인은 모두 10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 중 10, 11, 12차 년도에서 모두 스마트 기기 하루 평균 시간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거나 예측요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여 총 980명 아동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은 평균 10차 년도 77.4분(최소 1시간에서 최대 6시간 사용), 11차 년도 92.4분(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 사용), 12차 년도 109.8분(최소 1시간에서 최대 6시간 사용)이었다.

10차 년도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112.534개월(대략 만 9세 5개월)이며, 성별은 남아 497명(50.7%), 여아 483명(49.3%)이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나 학업 병행 중이 52.1%이고, 미취업 및 미학업이 46.4%에 해당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9.83세($SD = 3.61$)이며, 36세 이상 40세 이하가 5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1세 이상에서 45세 이하 33.0%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36.8%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30.1%, 고졸 이하 26.8%, 대학원졸 5.8% 순이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하 15.4%,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44.6%,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23.1%,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6.9%, 1,000만원 초과 1.7%에 해당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980)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아동성별	남아	497 (50.7%)
	여아	483 (49.3%)
어머니 취업상태	취업 중(휴직 중 포함)	478 (48.8%)
	취업/학업 병행 중	32 (3.3%)
	미취업/미학업	455 (46.4%)
	결측값	15 (1.5%)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93 (9.5%)
	36~40세	496 (50.8%)
	41~45세	323 (33.0%)
	46세 이상	65 (6.4%)
	결측값	3 (0.3%)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3 (26.8%)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295 (30.1%)
	4년제 대학교 졸업	361 (36.8%)
	대학원 졸업	57 (5.8%)
	결측값	4 (0.4%)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51 (15.4%)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437 (44.6%)
	50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226 (23.1%)
	7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68 (6.9%)
	1,000만원 초과	17 (1.7%)
	결측값	81 (8.3%)

2. 주요 변인

가. 스마트 기기 중독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관찰자용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으로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원척도는 1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3 요인인 금단, 4 요인인 내성으로 구성된대(박보경, 노지운, 2019). 각 하위요인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장애는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PC,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등 5문항, 금단은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PC, 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등 4문항, 내성은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 스마

트폰을 사용한다”,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등 4문항으로 구성된다.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고, 전체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10차 년도 .80, 11차 년도 .81, 12차년도 .81이다.

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은 한국아동패널연구 면접조사로 확인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목적을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음악 및 동영상 감상 등) 및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고, 어머니의 보고로 4점 Likert 척도(전혀 사용하지 않음:1점~ 매일 사용함:4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목적별로 스마트 기기를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다. 집행기능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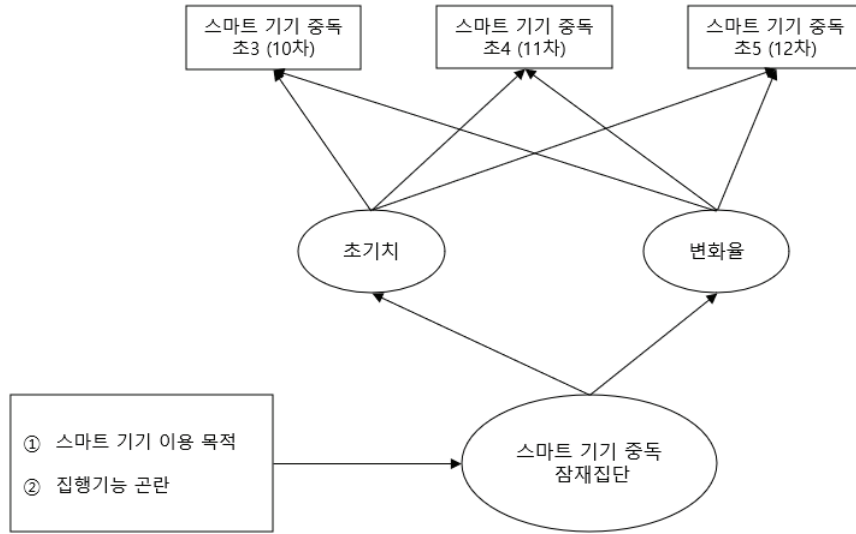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송현주(2014)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집행기능 곤란 척도를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로 총 4개의 하위요인 4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인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계획·조직화 곤란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등 11문항, 행동통제 곤란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등 11문항, 정서통제 곤란은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등 8문항, 부주의는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등 10문항으로 구성되며, 3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점~ 자주 그렇다:3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집행기능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 곤란 .88, 행동통제 곤란 .83, 정서통제 곤란 .91, 부주의 .91이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에 단일 집단이 아닌 다수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결합된 모형으로 동일 집단 내에서 이질적 성장 특성을 보이는 하위 집단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Jackson, Sher, & Schulenberg, 2005). 모든 개인이 하나의 모집단에 속한다는 가정으로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과 다르게 이는 집단 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질적 변화 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별로 각각 다른 성장요인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를 유형화하고, 변화 유형화의 원인을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적의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BIC를 이용하였으며,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하는데 대략 0.8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χ^2 차이검증 즉, LMR과 BLRT을 살펴보았다.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p 값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p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류된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Vermunt(2010)의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변인이나 결과변인이 지표변인과 함께 모형에 포함될 경우, 잠재집단 분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개발되었다(Asparouhov & Muthén, 2014). 따라서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할 경우, 집단 분류의 변화에 미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단계 접근법의 1단계에서는 잠재집단 지표를 이용해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어진 잠재집단의 사후분포를 이용해 가장 확률이 높은 변인을 생성하고, 3단계에서는 분류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2단계에서 생성된 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Asparouhov & Muthén, 2014).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에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분석을 위해 Mplus 8.4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평균은 20.19점(SD = 4.89)이며, 초등학교 4학년 21.08점(SD = 5.25) 및 초등학교 5학년 22.65점(SD = 5.27)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 기기 중독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게임이 2.58점(SD = 1.01), 엔터테인먼트 2.58점(SD = 1.02), 정보검색 2.12점(SD = .83), 학습 2.03점(SD = 1.01), SNS 1.87점(SD = 1.01) 순이었다. 집행기능 곤란 하위요인의 평균은 계획·조직화 곤란이 1.66점(SD = .43)으로 가장 높았고, 부주의 1.55점(SD = .45), 정서통제 곤란 1.44점(SD = .45), 행동통제 곤란 1.27점(SD = .30)이었다. 연구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적절한 값을 보여(왜도<2, 첨도<4), 본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초등학교 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은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의 하위요인 중 정보검색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15 \sim .25$, $p < .05$, $p < .01$, $p < .001$), 집행기능 곤란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20 \sim .33$,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스마트 기기 중독 10차	13-47	20.19	4.89	.91	.99
스마트 기기 중독 11차	13-46	21.08	5.25	.71	.29
스마트 기기 중독 12차	13-46	22.65	5.27	.21	-.39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학습	1-4	2.03	1.01	.68	-.64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정보검색	1-4	2.12	.83	.47	-.25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게임	1-4	2.58	1.01	.02	-1.12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엔터테인먼트	1-4	2.53	1.02	-.01	-1.13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SNS	1-4	1.87	1.01	.92	-.34
집행기능 곤란_계획·조직화 곤란	1.00-3.27	1.66	.43	.57	-.06
집행기능 곤란_행동통제 곤란	1.00-2.73	1.27	.30	1.52	2.56
집행기능 곤란_정서통제 곤란	1.00-3.00	1.44	.45	1.08	.89
집행기능 곤란_부주의	1.00-3.00	1.55	.45	.76	.20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8***	1										
3	.49***	.55***	1									
4	-.15***	-.12***	-.13***	1								
5	-.01	.01	-.01	.27***	1							
6	.25***	.22***	.20***	-.17***	.22***	1						
7	.19***	.13***	.12***	-.06	.27***	.33***	1					
8	.09**	.06*	.07*	-.01	.32***	.31***	.43***	1				
9	.31***	.25***	.26***	-.15***	-.08**	.15***	.05	.01	1			
10	.33***	.27***	.24***	-.10**	-.09**	.15***	-.01	-.06*	.65***	1		
11	.28***	.20***	.22***	-.10**	-.06	.07*	.04	-.01	.42***	.54***	1	
12	.30***	.23***	.25***	-.06	-.00	.11**	.05	-.03	.56***	.54***	.37***	1

주. 1 = 스마트 기기 중독 10차, 2 = 스마트 기기 중독 11차, 3 = 스마트 기기 중독 12차, 4 =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학습, 5 =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정보검색, 6 =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게임, 7 =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엔터테인먼트, 8 =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_SNS, 9 = 집행기능 곤란_계획·조직화 곤란, 10 = 집행기능 곤란_행동통제 곤란, 11 = 집행기능 곤란_정서통제 곤란, 12 = 집행기능 곤란_부주의.

* $p < .05$, ** $p < .01$, *** $p < .001$

2.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가. 잠재집단의 결정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0차에서 12차까지 3개 시점의 무변화 모형($\chi^2=12.584$, $df=2$, $CFI=.987$, $TLI=.981$, $RMSEA=.073$, $SRMR=.062$)과 선형변화 모형($\chi^2=6.678$, $df=1$, $CFI=.993$, $TLI=.979$, $RMSEA=.076$, $SRMR=.017$)을 각각 적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값 차이 검증을 보완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와 TLI는 .90이상이고(홍세희, 2000), RMSEA와 SRMR은 .08이하(Browne & Cudeck, 1993)를 양호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최적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을 탐색하였으며,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 Entropy, LMR 및 BLRT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잠재집단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인 AIC, BIC 및 sBIC값이 감소하였으며, Entropy값은 두 잠재집단의 수에서 양호한 분류의 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비교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LMR과 BLRT는 잠재집단의 수를 3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다. 또한 각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전체 표본 수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잠재집단 분류율 기준(Jung & Wickrama, 2008)을 고려하였을 때,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이 통계적 검증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잠재집단 분류 기준 (N=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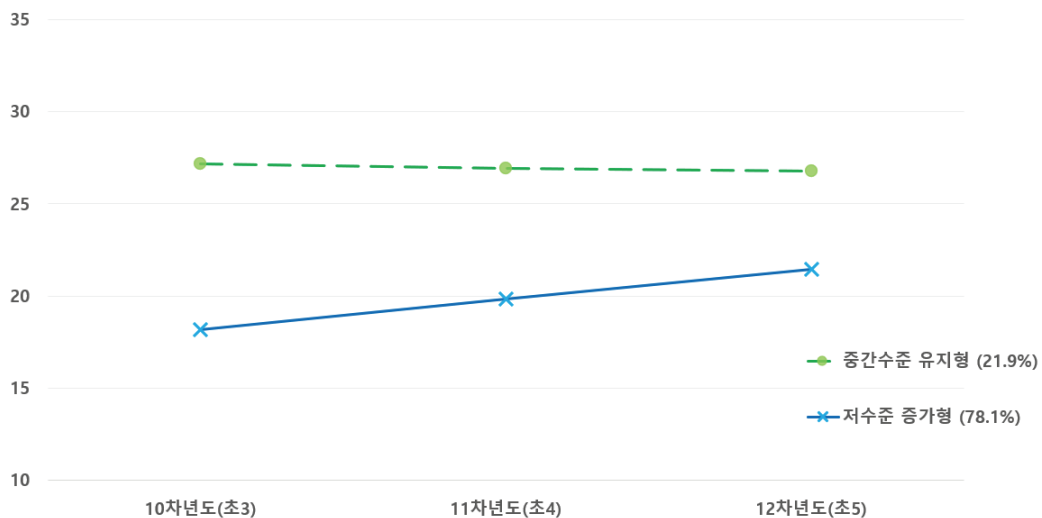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정보지수	AIC	17033.436	16979.955
	BIC	17087.199	17048.381
	sBIC	17052.263	17003.917
모형비교검증	LMR	$p < .01$	$p < .05$
	BLRT	$p < .001$	$p < .001$
분류의 질	Entropy	.800	.880
분류율(%)	1	21.92	22.83
	2	78.08	76.96
	3		.21

나. 분류된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

분류된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초기치가 이후 2년의 시간 동안 중간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중간수준 유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21.9%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초기치가 낮고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으로 ‘저수준 증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78.1%를 차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양상은 [그림 2]와 같다.

<표 4> 잠재집단별 명칭, n (%) 및 함수 (N=980)

잠재집단	n (%)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중간수준 유지형	215 (21.9%)	절편	27.177	.408	.000
		일차함수	-.345	.274	.01
2 저수준 증가형	765 (78.1%)	절편	18.161	.171	.000
		일차함수	1.649	.104	.000



[그림 2] 스마트 기기 중독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

3. 스마트 기기 중독 잠재집단에 대한 예측요인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에 미치는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잠재집단 간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잠재집단에 미치는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 및 집행기능 곤란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표 5>에 제시한 추정치는 준거집단에 비해 해당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의미한다.

먼저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을 살펴본 결과, 학습, 정보검색 및 SNS는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스마트 기기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집행기능 곤란과 관련하여 계획·조직화 곤란과 행동통제 곤란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 및 집행기능 곤란의 영향 (N=980)

변인		중간수준 유지형 vs. 저수준 증가형 계수(표준오차)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	학습	-.073 (.122)
	정보검색	-.181 (.146)
	게임	.551 (.118)***
	엔터테인먼트	.285 (.130)*
	SNS	.020 (.118)
집행기능 곤란	계획·조직화 곤란	.461 (.354)
	행동통제 곤란	.945 (.530)
	정서통제 곤란	.521 (.253)*
	부주의	.826 (.29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유형을 확인하고,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유형에 미치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잠재집단은 '중간수준 유지형'과 '저수준 증가형'으로 구분되었다. 2년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 기기 중독이 중간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간수준 유지형'(21.9%)보다 스마트 기기 중독의 초기치가 낮지만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저수준 증가형'(78.1%)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기기 의존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한 국내·외 선행연구(김경민, 조은영, 송지은, 2018; 구현영, 김은정, 2015; 박보경, 노지운, 2019; 장유진, 홍예지, 2019; 조윤주, 2019; Bae, Choi, & Kim, 2020; Seo & Choi, 2018)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아동의 휴대전화의존이 '저수준증가집단'(70.6%), '중간수준유지집단'(26.1%) 및 '고수준감소집단'(3.3%)으로 분류된다고 한 Seo와 Choi (2018)와 유사한 결과를 할 수 있다. 특히 두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잠재집단에 '저수준증가형'과 '중간수준 유지형'이 포함되고, 이러한 잠재집단에 속한 해당 아동의 비율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Seo와 Choi (2018)에서는 3.3%로 소수의 '고수준감소집단'의 유형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Seo와 Choi (2018)가 설정한 아동의 초기 시점이 4학년으로 연령이 더 높고, 종료 시점이 중학교 2학년으로 더 길어 장기 종단연구를 적용한 데에 따른 차이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집중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 중독 관련 연구대상의 연령을 낮추어 초등학교 3학년에 초점을 맞춘 종단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초기 연구로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간이 흐른 후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 유형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일 경우에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경우,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휴대전화를 오락용으로 이용할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빈도의 변화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준 서미정(2016)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을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SNS로 상세히 나누어 아동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를 많이 이용할 경우 '소셜·오락추구형'으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는 많이 이용하지만 SNS는 적게 이용할 경우 '오락편중형'으로, 학습이 가장 많고, 게임과 SNS는 적게 이용할 경우 '학습추구형'으로 구분한 오소정, 김윤경과 박주희(2020)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목적이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오락용인 경우에 SNS를 위한 사교용이나 학습용 또는 정보검색용인 경우와 상이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강렬한 자극과 즐거

음, 재미를 경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이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가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가 점차 발전하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이용목적이 세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 및 의존에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습과 교육을 위한 정보검색을 위한 도구로는 데스크탑 컴퓨터 등과 같은 대체기기를 더 많이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보다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생이 스마트 기기를 학습이나 정보검색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목적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를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미미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집행기능의 하위요인은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였다. 즉,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높을수록 스마트 기기 중독은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상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아동의 전반적인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민미희, 2020; 박라진, 2016; 이혜민, 한유진, 2020)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유형 구분이 집행기능의 하위요인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행기능 곤란 중 계획·조직화 곤란 또는 행동통제 곤란에 비해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를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즉, 집행기능 곤란 하위요인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기분 변화가 심한 것과 같은 정서통제 곤란과 주변이 정돈되지 못하거나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정리정돈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부주의는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를 계획하고, 순서대로 일을 조직하고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어려움으로 대표되는 계획·조직화 곤란과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는 데 어려움을 의미하는 행동통제 곤란에 비해 주변환경의 즉각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강렬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의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아동이 정서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부주의가 높을수록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의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증가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써 집행기능 하위요인이 상이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실제로 지각, 사고, 정서, 행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집행기능이 스마트 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집행기능이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보호요인으로써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확인한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과 이용목적 및 집행기능 곤란은 모두 어머니 보고를 통해 측정된 것이다. 어머니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양상 및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관찰자이지만 사용자 본인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자료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아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패널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스마트 기기 이용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 아동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부모, 또래 등의 가정 및 사회 요인을 검토하여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을 스마트 기기 중독의 초기 시점으로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청소년 중기나 후기까지의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특히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생 때부터 점차 증가하여 중학생 때에 정점을 찍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감소 양상을 보인다는 여성가족부(2020)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전이 과정을 아우르는 장기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차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현영(2013).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사정을 위한 부모용 도구 개발.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1), 29-38.
- 구현영, 김은정(2015).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영향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1), 55-63.
- 김경만·조은영·송지은(2018).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1), 7-32.
- 김기태·이현주·문신일(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4), 5-40.
- 김은자·전귀연(2020).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이 인지과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 중독 경향성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지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1), 13-29.

- 민미희(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 박라진(2016). *유아의 실행기능 및 부모중재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노지운(201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3), 87-103.
- 서미정(2016).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7(4), 239-261.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오선화·하은혜(2014). 아동의 실행기능 및 ADHD 증상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1), 17-35.
- 오소정·김윤경·박주희(2020). 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패턴에 따른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사용패턴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스마트 기기 중독. *아동학회지*, 41(1), 47-60.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육아정책연구소(2017, 2018, 2019). *한국아동패널연구 10, 11, 12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명주·홍창희(2006). 실행기능의 차원과 영역별 발달. *한국심리학회:임상*, 25(2), 587-602.
- 이은정·이정애·이화조·정익중(2012).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4), 189-214.
- 이혜민·한유진(2020).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5), 85-98.
- 장유진·홍예지(2019).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 및 영향요인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0(1), 71-94.
- 전상민(2015).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3(10), 471-482.
- 정은화·이현아·이지영·이강이(2019). 초등학교 3학년의 미디어기기 이용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4), 523-534.
- 조운주(2019). 학령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40(6), 49-62.
- 통계청, 여성가족부(2021). *2021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 한국정보화진흥원(2006). *200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홍예지(2021a).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휴대전화의존도 간의 잠재전이분석: 자아정체감과 휴대

- 전화의존도의 유형 및 유형 간 전이의 예측요인 검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2(2), 515-536.
- 홍예지(2021b).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의 변화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3), 341-35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Task Force.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5th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nderson, P. J., & Reidy, N. (2012). Assessing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s. *Neuropsychology Review*, 22(4), 345-360.
- Arora, N., Singh, N., & Taneja, P. (2016). Smartphone usage pattern: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and Practices*, 4(2), 31-36.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e, E., Choi, E. K., & Kim, H. (2020). Factors associated with media addiction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1-13.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eland, L.-P., & Murphy, R. J. (2014). *Ill Communication: Mobile phones & student performance*.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Bian, M., & Leung, L. (2015). Linking loneliness, shynes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and patterns of smartphone use to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61-7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elow, M. T., Okdie, B. M., & Cooper, A. B. (2015). The influence of video games on executive functions in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228-234.
- Calson, S. M., Moses, L. J., & Claxton, L. J.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ing and theory of mind: An investigation of inhibitory control and planning a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7(4), 299-319.
- Cicerone, K. D., Dahlberg, C., Kalmar, K., Langenbahn, D. M., Malec, J. E., Bergquist, T. F.,...Morse, P. A. (2000). Evidence-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1(12), 1596-1615.

- Denckla, M. B. (1996). A theory and model of executive function: A neuropsychological perspective. In G. R. Lyon & N. A. Krasnegor (Eds.), *Attention,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pp. 263-278).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 Gioia, G. A., Isquith, P. K., & Guy, S. C. (2001). Assessment of executive functions in children with neurological impairment. In R. J. Simeonsson & S. L. Rosenthal (Eds.),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ssessme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ronic conditions* (pp. 317-356). The Guilford Press.
- Jackson, K. M., Sher, K. J., & Schulenberg, J. E. (2005). Conjoi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young adult alcohol and tobacco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612-626.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Jurado, M. B., & Rosselli, M. (2007). The elusive nature of executive functions: A review of our current understanding. *Neuropsychology Review*, 17(3), 213-233.
- Kardefelt-Winther, D. (2014).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internet addiction research: Towards a model of compensatory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31, 351-354.
- Kim, Y., C., Jung, J. Y., Cohen, E. L., & Ball-Rokeach, S. J. (2004). Internet connectedness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2001. *New Media and Society*, 6(5), 611-631.
- Kuo, S.-Y., Chen, Y.-T., Chang, Y.-K., Lee, P.-H., Liu, M.-J., & Chen, S.-R. (2018).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executive function and learning attention in Taiwanese school-aged children.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54, 495-500.
- Kuss, D. J., Griffiths, M. D. (2012). Internet and gaming addic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neuroimaging studies. *Brain Sci*, 2(3), 347-374.
- Maisch, D. (2003). Children and mobile phone... is there a health risk? The case for extra precautions. *Journal of the Australasian College of Nutri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2(2), 3-8.
- McCloskey, G., & Perkins, L. A. (2012). *Essentials of executive functions assessmen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guyen, N. C., Bosch, O. J. H., Ong, F. Y., Seah, J. S., Succu, A., Nguyen, T. V., & Banson, K. E. (2016). A systemic approach to understand smartphone usage in Singapore. *Systems Research and Behavioral Science*, 33(3), 360-380.
- Seo, M., & Choi, E. (2018). Classes of trajectory in mobile phone dependency and the effects of negative parenting on them during early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9(2), 156-169.
- Silverio-Fernández, M., Renukappa, S., & Suresh, S. (2018). What is a smart device?: A conceptualisation within the paradigm of the internet of things. *Visualization in Engineering*, 4(1), 1-10.
- Stockdale, L., Morrison, R. G., Palumbo, R., Garbarino, J., & Silton, R. L. (2017). Cool, callous, and in control: Superior inhibitory control in frequent players of video games with violent content.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869-1880
- Tai, Z., & Sun, T. (2007). Media dependencie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e case of the 2003 SARS epidemic in China. *New Media and Society*, 9(6), 987-1009.
- Weng, C.-B., Cian, R.-B., Fu, X.-M., Lin, B., Han, X.-P., Niu, C.-S., & Wang, Y.-H. (2013). Gray matter and white matter abnormalities in online game addiction.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82(8), 1308-1312.
- Zhen, R., Li, L., Liu, X., & Zhou, X. (2020). Negative life events, depress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left-behind adolescents in rural China: An interpersonal perspec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9, 104688.

The Effects of Smart Device Usage Purpose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the Typology of Changes in Their Smart Devices Addiction

Yea-Ji Ho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of the smart device addiction changes among children in 3rd grade to 5th grade and to test the antecedents of the classes. To achieve these goals, a growth mixture model (GMM) was conducted, using 10th to 12th wave of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of the children's smart device addiction were identified as two latent classes: a mid-level stable group, and a low-level steady increasing group. Second, children's smart device usage purpose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In other words, as children use smart devices for the purpose of gaming and entertaining, and as they have difficulties in emotional control and inattention, the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a low-level steady increasing group rather than a mid-level stable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smart device addiction, smart device usage purpose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Growth mixture Model(GMM)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이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예지 교수님의 발표 논문은 시의적절한 주제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학부모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사용과 중독에 관한 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토론을 준비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제출한 논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문 사항들과 보완 및 제안 사항들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초등학생(3~5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응답입니다. 이전 연구들에 대한 리뷰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고학년인 4~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점을 근거로 연구자는 3학년을 시작점으로 대상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연구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주장을 보완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와 과업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학령 전 아동부터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전체, 더불어 학령 전 아동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 결과가 아동의 자기보고식이 아닌 부모,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대상자는 아동이 아닌 어머니입니다. 토론자가 받은 발표 논문에서는 변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의 인식에 기반한 응답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아동과 어머니의 인식은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에 이미 상당 기간 노출되었고 기기 사용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어머니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한 자료만을 가지고 수행한 것은 연구의 커다란 제한점입니다. 향후 학술지 게재를 고려한다면 제목과 연구문제에 “어머니의 인식이나 지각”에 기반했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 포함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을 리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관점에서 자녀의 스마트 기기 이용과 중독을 다루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도 아동의 스마트 기기 중독과 같은 주제에 부모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아동이 아닌 부모(예:

어머니)의 인식이 이전 연구들에서 어떻게 다루어졌고 아동 인식과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감(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은 본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변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이들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어린 아동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이들을 급기야 중독 상황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가정 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연구 대상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임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 리뷰가 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 중 집행기능곤란척도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척도임에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평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검사 문항을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수준은 아동 스스로가 가장 잘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동이 가정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어머니보다 교사가 학교에서 아동을 관찰하면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정도를 잘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관련해서 척도의 문항 전체를 부록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연구자는 성장혼합모형을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연구 결과의 기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중독)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기술 방식도 실제로 중간수준 유지형과 저수준 유지형 집단 간 차이를 주로 논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1)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목적과 (2)집행기능곤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 주된 결과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스마트 기기 이용 목적과 집행기능곤란이 잠재집단분류에 미치는 영향으로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변인들 간 논리적인 가정과 관련성이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가 관계성과 차이를 다루고 있지 변인들 간의 방향성을 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연구자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 중독을 지칭하는 경우, 중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중독이란 정량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구분한 두 가지 집단인 중간수준 유지형과 저수준 유지형이 어떤 기준(예: 비교 집단과 수치)으로 중간 수준과 저수준으로 명명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 및 영향 요인

김재철⁴²⁾ 윤미라⁴³⁾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을 분류하고,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과 개인, 가정, 학교 요인간의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조사(PSKC)의 10차년도(2017년)부터 12차년도(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 1161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의 미디어기기중독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증감의 정도는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은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고수준 유지형',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의 3가지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셋째, 미디어기기중독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요인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일수록 '고수준 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감독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사 관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및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래애착과 집단괴롭힘 등의 친구요인은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에 따라 사이버폭력, 학교적응, 문제행동, 학업수행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미디어기기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미디어기기중독, 잠재성장모형, 영향요인, 결과요인

1. 서론

현대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손안으로 들어온 시대를 살게 되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자기 위해 눈을 감기 전까지 매순간 미디어기기에서 손과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

42)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43) 대전대흥초등학교 교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와 재미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미디어기기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시간을 많이 보내며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반려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어려워지고 원격수업으로 학습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휴대폰이나 미디어기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기 조작이 더욱 간편해짐에 따라 청소년과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기기의 과몰입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중독이 아동 발달을 저해한다(최명애, 2009)는 연구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까지 제정되었다.

미디어기기 중독이란 미디어기기에 의존하여 점점 미디어기기 이용시간이 많아지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등 개인의 전반적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발생하는 것이다(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 미디어기기에 중독 정도가 높은 초등학생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고(최권오, 2015),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변희숙, 권순용, 2014; 최권오, 2015)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행태에 대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여 81.2%로 나타났으며, 초등저학년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45분인데 비해 초등고학년생은 하루 평균 1시간 45분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시간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2.5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보고됨에 따라 이 시기의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과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2021)에서 실시한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년 대비하여 3.3%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유아동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청소년은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만 3~9세 아동의 2019년 22.9%에서 27.3%로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과의존 위험에 취약하고 세부 연령별로는 6~9세가 3~5세보다 과의존 위험에 취약하며, 부모의 맞벌이 가정의 유아동이 외벌이 가정의 유아동보다 과의존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의존위험군은 일반군보다 각 콘텐츠별 이용률이 높으며, 특히, 영화, TV, 동영상, 메신저, 관심사(취미) 검색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과의존위험군의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 시 이용량이 증가한 콘텐츠는 영화, TV, 동영상

시청과 음악, 학업/업무용 검색이 늘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및 또래 관계 요인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개인 심리적 요인과 연관해서는 개인의 우울(김경호, 최용호, 2018), 공격성(백원대, 서경현, 2019), 자아존중감(김종민, 최은아, 2019; 우수정, 2013), 스트레스(이신숙, 이영선, 2017)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더불어 아동의 성별(이경남, 2004; 박은영, 김진옥, 2018; 유은정, 2014)이 미디어 매체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연구되었고, 게임의 경우 남학생이 중독 위험군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및 중독 위험군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은혜 등, 2016)고 연구되고 있다.

아동의 가정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부부갈등(안경희, 2007; 양명숙, 조은주, 2011), 부모자녀 의사소통(김미현, 곽현석, 2019), 양육행동(이운경 외, 2020), 양육태도(어주영, 김형빈, 이난희, 2019) 등의 요인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로 가정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으며(이미라, 박세정, 2020), 특히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요 가정환경요인으로 미디어기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안경희, 2007), 아동의 적응에 다른 가족 요인보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양명숙, 조은주, 2011). 미디어 중독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고위험 사용자간에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미디어 중독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났고 미디어중독 수준별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김종민, 최은아, 2019).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고 부모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미디어중독 수준이 낮고(이충효, 2015), 자녀에 대한 학대,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미디어 의존에 영향을 미치며(우수정, 2013), 어머니의 거부와 방임, 과보호와 허용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미디어중독 위험을 증가시킨다(남경희, 2018)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학교, 부모, 가구 특성 등 생태체계 맥락이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있었다(김대응, 김창숙, 박윤현, 2019; 주석진, 조성심, 2015; 황재원, 2011)고 밝히고 있다. 학교에서의 교사-아동관계는 아동 행복감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나타났고(박천진, 정혜원, 2019), 강희양과 손정락(2007)이 수행한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29편의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 관련 변인과 함께 교사 지지 및 교사 관계를 포함한 학교 관련 변인이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미디어기기 중독의 영향으로 인터넷 및 게임중독은 폭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서술한 연구가 많았다.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일 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폭력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민, 박영주, 2012). 특히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아동은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조절과 통제력이 부족하여 중독의 위험이 크며(김병년, 최홍일, 2013), 수면부족, 건강 악화,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력 저하 등과 같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김보경 외, 2016; 박정아, 정지나, 2015; 정송화 외, 2019).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미취학 아동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미디어기기중독의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미디어기기중독 변화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여 분류하고 미디어기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 미디어기기중독이 다른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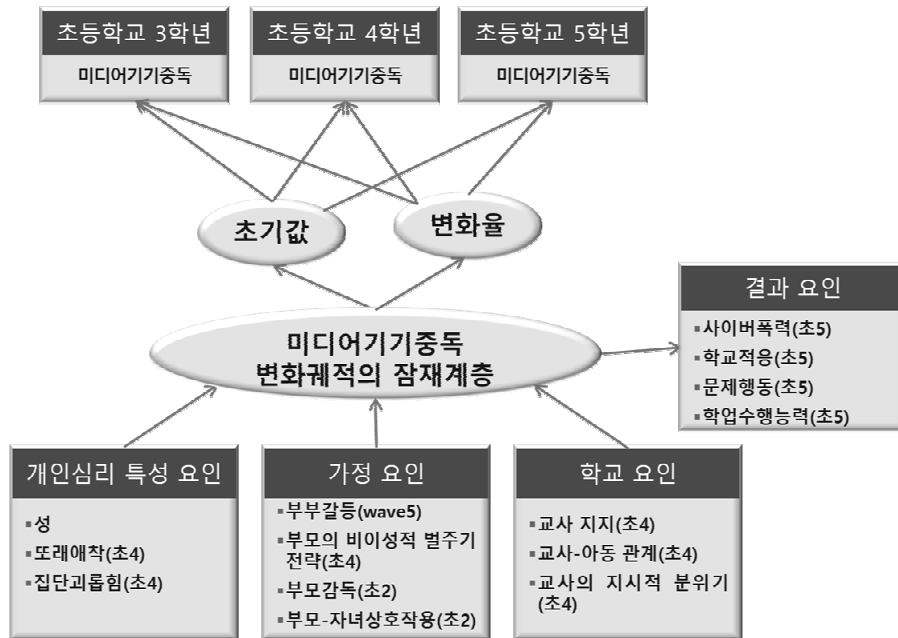
첫째,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은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가?

셋째,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 잠재계층에 대한 개인심리 특성 요인[성, 또래애착(초4), 집단괴롭힘(초4)], 가정 요인[부부갈등(wave5), 부모의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초4), 부모감독(초2), 부모-자녀상호작용(초2) 등], 학교 요인[교사지지(초4), 교사-아동 관계(초4),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초4) 등]의 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 잠재계층에 따라 사이버폭력(초5), 학교적응(초5), 문제행동(초5), 학업수행능력(초5)은 어떻게 다른가?

이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종단데이터인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 2017년에 초등학교 3학년에 진급한 아동을 대상으로 5학년까지의 3년간 수집한 자료 중 연구변수와 관련된 것이다. 3번의 반복 측정 중 한 번 이상의 결측을 보인 피험자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은 남학생 594명(51.2%), 여학생 567명(48.8%) 총 1,161명이었다.

2. 연구 도구

가. 미디어기기중독

본 연구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관찰자용 'K-척도(인터넷중독진단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원척도는 3가지 요인 각각을 1요인, 3요인, 4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1요인을 일상생활장애(5문항), 3요인을 금단(4문항), 4요인을 내성(4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장애

의 경우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 스마트폰을 한다.’, 금단의 경우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내성은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기에 아동이 각각의 미디어기기 중독 하위요인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미디어기기중독(초3)은 .904, 초(4)는 .907, 초5는 .905로 나타났다.

나. 개인심리 특성 요인

집단 괴롭힘(피해)을 측정하기 위해 Olweus(1993)의 Bully/Victim Questionnaire와 Olweus (1991)의 Junior Questionnaire를 안정만(2001)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을 김옥귀(2013)가 그대로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없다(0점) ~ ‘일주일에 여러번(5점)’으로 각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58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일부만을 사용한 척도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의 하위영역은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56으로 나타났다.

다. 가정 요인

부부갈등(만5세)을 알아보기 위하여 Markman, Stanley와 Bliumberg(1994, 2001)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α 는 .934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미숙 외 (2013)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는 허모연(2004)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주 양육자의 응답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 방식인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측정 도구는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사용한 것이다. 본 척도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등을 포함하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동안 4점 범위 안에서 전혀 하지 않음(1점), 1-2번(2점), 3-6번(3점), 매일함(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47로 나타났다. 부모의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71로 나타났다.

라. 학교 요인

교사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창의적 학교 환경에 관한 김미숙 외(2012)의 창의역량 측정지표 및 도구개발 연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 중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영역의 3문항으로 아동이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 =.798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 문항은 4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α =.884로 나타났다.

교사-아동 관계 변인은 Pianta(2001)의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아동패널연구 설문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교사가 지각한 아동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아동의 친밀(Closeness) 7문항과 갈등(Conflict) 8문항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교사-아동 관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 결과 요인

사이버폭력(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피해경험, 1번의 ①,⑥번 문항을 활용하였다. 아동은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의 2 문항에 대하여 ① 전혀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 매일에 응답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94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측정도구는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초등학교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학교적응척도(35문항)는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습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소속 담임교사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에 따라 평정하였다. 학교

적응 Cronbach's α 값을 살펴본 결과 .902로 양호하였다.

문제행동 척도는 오경자, 김영아(2010)의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활용하였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으로 구성되며, 9개의 하위 척도 1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의 응답으로 학교 적응 7점 Likert 척도(1: 훨씬 못하다~:훨씬 낫다)와 학업수행 5점 Likert 척도(1: 부진-하위 20%이하~5: 매우 잘함-상위 80~100%)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28로 나타났다.

학업수행능력 중 교과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해, 김면순, 전해정 외 5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국어 4문항, 수학 5문항, 전반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듣고 이해하기, 수학은 수세기, 덧셈, 뺄셈, 비교, 분류, 전반은 학업수행 전반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아동의 담임교사가 '하위 20% 이내(1점)' ~ '상위 20% 이내(5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52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수들의 문항 수 및 Cronbach α 계수

변수	문항 수	Cronbach α 계수
미디어기기중독(초3)	13	.904
미디어기기중독(초4)	13	.907
미디어기기중독(초5)	13	.905
부부갈등(만5세)	16	.934
부모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초4)	12	.771
부모감독(초2)	4	.779
부모자녀상호작용(초2)	9	.847
또래애착(초4)	9	.756
집단괴롭힘(초4)	7	.758
교사지지(초4)	3	.798
교사아동관계(초4)	15	.884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초4)	4	.647
사이버폭력(초5)	2	.794
학교적응(초5)	21	.902
문제행동(초5)	119	.928
학업수행능력_교과(초5)	7	.952

〈표 1〉는 측정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West, Finch 및 Curran(1995)에 의하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 미만일 경우 정규성(normality)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면, 부모감독, 집단괴롭힘, 사이버폭력, 문제행동은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여 정규성 가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

연구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미디어기기중독(초3) 1)	1																
미디어기기중독(초4) 2)	.641**	1															
미디어기기중독(초5) 3)	.554**	.616**	1														
성 4)	-.195**	-.177**	-.115**	1													
부부갈등(인5세) 5)	.175**	.155**	.204**	.027	1												
부모 비이성적 발주기 전략(초4) 6)	.233**	.327**	.245**	-.023	.236**	1											
부모감동(초2) 7)	-.133**	-.173**	-.138**	.056	-.050	-.080**	1										
부모자녀상호작용(초2) 8)	-.195**	-.184**	-.162**	.059*	-.125**	-.097**	.089**	1									
포레예척(초4) 9)	-.134**	-.115**	-.096**	.095**	-.114**	-.115**	.014	.037	1								
집단괴롭힘(초4) 10)	.106**	.117**	.105**	-.144**	-.007	.031	-.059*	-.013	-.193**	1							
교사지지(초4) 11)	-.090**	-.071*	-.080**	.120**	-.021	-.023	.021	.010	.451**	-.177**	1						
교사이동관계(초4) 12)	-.205**	-.184**	-.185**	.210**	-.084*	-.061	.085*	.090*	.201**	-.054	.269**	1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초4) 13)	.116**	.141**	.095**	-.199**	.089**	.098**	-.056	-.030	-.283**	.155**	-.334**	-.160**	1				
사이버폭력(초5) 14)	.076*	.116**	.080**	-.033	.014	.050	-.020	.063*	-.036	.079**	.008	-.013	.002	1			
학교적응(초5) 15)	-.161**	-.189**	-.177**	.105**	-.109**	-.116**	.009	.082**	.386**	-.118**	.325**	.180**	-.253**	-.047	1		
문제행동(초5) 16)	.207**	.221**	.271**	-.117**	.136**	.156**	-.059	-.089**	-.123**	.119**	-.035	-.137**	.129**	.018	-.122**	1	
학업수행능력_교과(초5) 17)	-.215**	-.221**	-.184**	.141**	-.126**	-.117**	.076	.046	.130**	-.063	.088*	.160**	-.172**	.026	.185**	-.200**	1
최소값	1.00	1.00	1.00	0.00	1.00	1.00	1.75	1.00	1.44	1.00	1.00	2.67	1.00	1.00	1.29	0.00	1.14
최대값	3.62	3.92	3.38	1.00	4.75	4.00	5.00	3.80	4.00	6.00	5.00	5.00	5.00	5.00	4.00	1.97	5.00
평균	1.48	1.56	1.69	0.49	2.07	2.02	4.86	1.92	3.16	1.15	3.91	4.41	2.32	1.09	3.20	0.10	4.18
표준편차	0.44	0.47	0.46	0.50	0.67	0.47	0.32	0.36	0.45	0.41	0.78	0.47	0.70	0.42	0.40	0.12	0.80
왜도	0.97	0.77	0.22	0.05	0.62	0.72	-3.45	0.63	-0.33	5.31	-0.50	-1.07	0.43	7.20	-0.09	4.99	-1.10
첨도	0.65	0.25	-0.73	-2.00	0.24	0.95	17.34	1.30	0.10	40.41	0.10	1.05	-0.02	58.57	0.17	54.60	0.77

*p≤.05 **p≤.01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3년 동안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이 어떠한 패턴을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은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종단자료분석을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 선형적 잠재성장모형(Laten Growth Linear Model), 측정간격 추정 성장모형(Spline Laten Growth Curve Model)을 분석·비교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3년 동안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LM)은 잠재성장모형과 혼합모형의 알고리즘을 병합하여 개인별 변화궤적을 소수의 하위 잠재계층(latent class)으로 유형화하는 분석방법이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는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Entropy, 계층별 사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먼저, AIC, BIC, Adjusted BIC는 그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LMR-LRT와 BLRT 검증은 잠재계층의 수가 $k-1$ 개인 모형과 k 개인 모형 간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잠재계층의 수를 k 개로 정한다. Entropy는 추정된 모형이 대상을 각각의 잠재계층에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정도로서,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각 잠재계층에 분류된 상황임을 의미한다(Jung & Wickrama, 2007).

셋째,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 잠재계층에 대한 개인심리 특성 요인[성, 또래애착(초4), 집단괴롭힘(초4)], 가정 요인[부부갈등(wave5), 부모의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초4), 부모감독(초2), 부모-자녀상호작용(초2) 등], 학교 요인[교사지지(초4), 교사-아동관계(초4),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초4) 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넷째,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 잠재계층에 따라 사이버폭력(초5), 학교적응(초5), 문제행동(초5), 학업수행능력(초5)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선배치 일원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SPSS를,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위해 Mplus(Muthén & Muthén, 2016)를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의 패턴 결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3년 동안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의 패턴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의 개인별 미디어기기중독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무성장모형의 경우, 적합도가 CFI<.90, TLI<.90, RMSEA>.10인 것으로 보아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선형적 성장모형을 가정한 결과, 적합도가 CFI>.90, TLI>.90, RMSEA<.10로써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측정간격 추정 성장모형은 개인별 변화가 꺾은선 모양을 이룰 것이라는 가정 하에 측정간격을 추정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다만, 측정간격 추정 성장모형은 자유도가 0이므로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본 연구의 경우, 선형적 성장모형도 그 적합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서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의 패턴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선형적 성장모형 분석결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3년 동안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의 평균은 1년에 .103($p<.01$)만큼 상승하며, 개인별 변화의 분산은 .020($p<.01$)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에 관한 선형성장모형 분석결과

독립변수	무성장모형		선형적 성장모형		측정간격 추정 성장모형	
	b	SE	b	SE	b	SE
고정효과						
mean(I), β_{00}	1.568**	.012	1.480**	.013	1.485**	.013
mean(S), β_{10}			.103**	.006	.077**	.011
무선효과						
var(I), τ_{00}	.125**	.007	.151**	.011	.143**	.009
var(S), τ_{11}			.020**	.004	.012**	.004
cov(I, S), τ_{01}			-.019**	.005	-.011**	.004
$\chi^2(df)$	292.468**(4)		7.801**(1)		.000**(0)	
CFI	.760		.995		1.000	
TLI	.827		.984		1.000	
RMSEA	.249		.077		.000	

단, I : 초기값, S : 기울기, mean : 평균, var : 분산, cov : 공분산

** $p<.01$

2.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의 유형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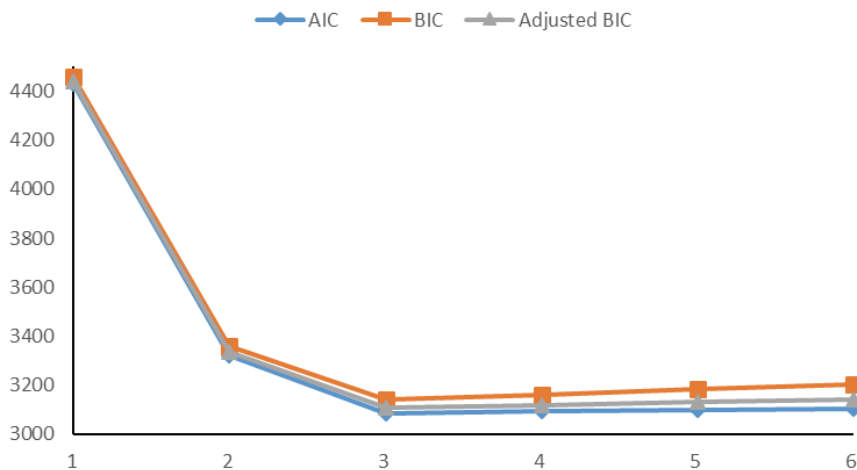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이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4〉는 미디어기기중독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수를 1개에서 6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적합도 결과를 추정해본 것이고, [그림 2]는 AIC, BIC, Adjusted BIC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AIC, BIC, Adjusted BIC의 값은 3개의 잠재계층에서 가장 작았다. 그리고, LMR-LRT와 BLRT의 유의확률을 보면, 2개의 잠재계층과 3개의 잠재계층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만, 3개의 잠재계층과 4개의 잠재계층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검증 결과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의 개인별 변화궤적에 대한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3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4〉 미디어기기중독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결과

잠재계층 수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LRT	BLRT	최소 계층 비율(%)
1	4432.0	4457.3	4441.4	-	-	-	100.0
2	3319.0	3359.5	3334.1	0.834	1068.5**	1118.9**	30.0
3	3084.6	3140.2	3105.2	0.752	229.6**	240.5**	15.0
4	3090.6	3161.4	3116.9	0.804	0.0	0.0	0.0
5	3096.6	3182.5	3128.5	0.831	-75.4	-79.0	0.0
6	3102.6	3203.7	3140.2	0.848	0.0	0.0	0.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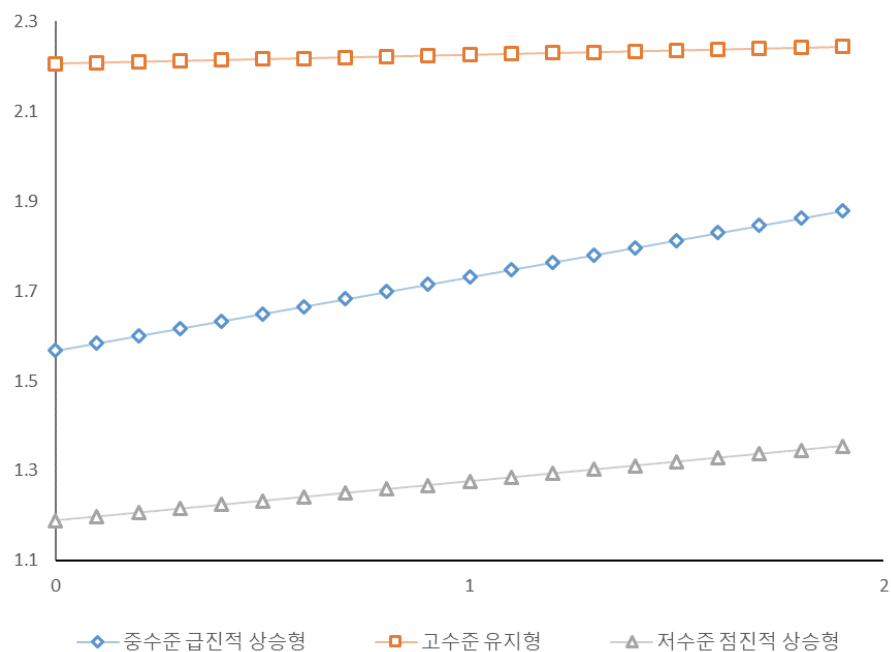
[그림 2] 미디어기기중독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잠재계층별 미디어기기중독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5>과 같고, [그림 3]은 잠재계층별로 시점에 따라 선형적 성장모형 회귀식을 이용해 산출한 미디어기기중독 변화궤적의 평균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표 6>은 잠재계층별 미디어기기중독의 학년별 평균 결과이다. 이들을 종합하여 3가지 잠재계층에 대해 각각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고수준 유지형’,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5> 미디어기기중독 변화궤적의 잠재계층별 초기값과 변화율

잠재계층	초기값		변화율	
	b	SE	b	SE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1.567**	0.066	0.164**	0.026
고수준 유지형	2.206**	0.053	0.020	0.023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1.189**	0.013	0.087**	0.018

* $p \leq .05$ ** $p \leq .01$



[그림 3] 미디어기기중독 변화궤적의 잠재계층별 변화 유형

〈표 6〉 잠재계층별 미디어기기중독의 학년별 평균 결과

잠재계층	미디어기기중독 (초3)	미디어기기중독 (초4)	미디어기기중독 (초5)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1.59	1.74	1.92
고수준 유지형	2.23	2.26	2.25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1.19	1.23	1.37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과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7〉과 같았고 이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보다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및 ‘고수준 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b=-.479$, $p<.05$; $b=-.860$, $p<.01$).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이 높은 학생일수록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보다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및 ‘고수준 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b=.384$, $p<.05$; $b=1.315$, $p<.01$; $b=.570$, $p<.05$; $b=1.915$, $p<.01$). 반면 부모감독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높은 학생일수록 ‘고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및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b=-1.079$, $p<.05$; $b=-2.086$, $p<.01$; $b=-.818$, $p<.05$; $b=-1.623$, $p<.01$).

셋째, 또래애착과 집단괴롭힘 등의 친구요인은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교사요인 중에는 교사아동관계가 높은 학생일수록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과 ‘고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b=-.489$, $p<.05$; $b=-.879$, $p<.01$). 그러나, 교사지지와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는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수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a		고수준 유지형 ^a		고수준 유지형 ^b	
	b	s.e.	b	s.e.	b	s.e.
절편	-0.102	2.469	3.980	2.988	4.082	2.724
GENDER ⁹	-0.479*	0.208	-0.860**	0.297	-0.381	0.290
부부갈등 (만5세)	0.384*	0.167	0.570*	0.224	0.186	0.212
부모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초4)	1.315**	0.260	1.915**	0.341	0.600	0.312
부모감독 (초2)	-0.262	0.402	-1.079*	0.445	-0.818*	0.390

독립변수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a		고수준 유지형 ^a		고수준 유지형 ^b	
	b	s.e.	b	s.e.	b	s.e.
부모자녀 상호작용(초2)	-0.463	0.291	-2.086**	0.464	-1.623**	0.451
또래애착(초4)	0.069	0.265	0.368	0.371	0.299	0.356
집단괴롭힘(초4)	0.568	0.320	0.472	0.420	-0.095	0.351
교사지지(초4)	-0.028	0.160	0.228	0.226	0.256	0.216
교사아동관계(초4)	-0.489*	0.237	-0.879**	0.302	-0.390	0.277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초4)	0.123	0.166	0.236	0.228	0.113	0.221

*p<.05 **p<.01

[참조집단] a :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b :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g : 남학생

〈표 8〉 잠재계층에 따른 결과 요인들의 평균 비교

결과 요인	잠재계층	N	M	SD	F	Scheffé
사이버폭력(초5)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M)	402	1.12	0.46	4.749**	H=M, M=L, H>L
	고수준 유지형(H)	174	1.14	0.50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L)	585	1.05	0.35		
학교적응(초5)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402	3.14	0.37	20.294**	H=M<L
	고수준 유지형	174	3.08	0.40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585	3.27	0.40		
문제행동(초5)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402	0.12	0.12	33.235**	H>M>L
	고수준 유지형	174	0.16	0.14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585	0.07	0.11		
학업수행능력(초5)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402	4.08	0.80	13.601**	H=M<L
	고수준 유지형	174	3.84	0.99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585	4.34	0.71		

*p<.05 **p<.01

단, 부등호 :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함

무선배치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에 따라 사이버 폭력, 학교적응, 문제행동, 학업수행능력 평균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이에 의하면,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에 따라 사이버 폭력, 학교적응, 문제행동, 학업수행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과 문제행동의 평균은 ‘고수준 유지형’에서 가장 높았고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의 평균은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에서 가장 높았고 ‘고수준 유지형’에서 가장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의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 사이버폭력, 학교적응,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기기중독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횡단적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학업수행능력, 사이버폭력, 학교적응,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어려웠고, 특히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기기중독 변화궤적의 개인 간 차이를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의 미디어기기중독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증감의 정도는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기기에 노출 시기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른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김환남 외, 2014)와 그 같은 결과이다.

둘째, 미디어기기중독의 변화궤적은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고수준 유지형’,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의 3가지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는 저수준으로 측정된 3학년에서의 학생은 점진적으로 미디어기기중독이 상승하고, 중수준으로 측정된 학생은 급진적으로 미디어기기 중독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 또한 고수준으로 측정된 학생군이 계속 미디어기기 중독 현상이 고수준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셋째, 미디어기기중독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보다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및 ‘고수준 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아동이 성별의 경우 미디어기기중독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이경남, 2004), 게임의 경우 남학생이 중독 위험인 높은 것으로 연구(강희양, 박창호, 2012; 고은혜, 2016; 박은영, 김진욱, 2018)되었다.

부모의 부부갈등과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이 높은 학생일수록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보다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 및 ‘고수준 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면 부모감독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높은 학생일수록 ‘고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 및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래애착과 집단괴롭힘 등의 친구요인은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중재(김형지, 정세훈, 2015), 부모 애착(양난미, 이지연, 2007), 부부갈등과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양명숙, 조은주, 2011), 부모의 강요(이미라, 박세정, 2020)과 같은 요인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교사요인 중에는 교사아동관계가 높은 학생일수록 ‘중수준 급진적 상승형’과 ‘고수준 유지형’보다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교사지지와 교사의 지지적 분위기는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아동 관계가 미디어기기중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박천진, 정혜원, 2019)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교사-아동 관계 및 높은 아동 행복감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유의한 부적효과를 보였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교사-아동관계는 아동 행복감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적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넷째, 미디어기기중독 변화의 잠재계층에 따라 사이버폭력, 학교적응, 문제행동, 학업수행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과 문제행동의 평균은 ‘고수준 유지형’에서 가장 높았고,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에서 가장 낮았던 반면,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의 평균은 ‘저수준 점진적 상승형’에서 가장 높았고 ‘고수준 유지형’에서 가장 낮았다.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미디어기기 중독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은설, 2020)는 연구에서 보듯이, 미디어기기중독은 유아동기 초기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사이버비행이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 ICT중독 수준과 아동의 ADHD 성향과의 연구(최진오, 2011)에서 보듯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중독 비율이 높아지고,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그룹이 중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그 모든 변인을 다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가정, 학교요인 중 일부 변인을 투입하였으나 아동의 아동의 개인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는 우울, 불안이나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변인을 투입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이라는 현상이 아동의 행동으로 발현되기 전에 심리적 환경적 상황에서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미디어기기중독을 나타내는 지표나 척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역기능적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 19 현상으로 경험하였듯이, 다양한 미디어기기 활용이 생활속에 뿌리잡고 있으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와 연관해서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 포함으로써 따라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활용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변인에 관한 연구도 후속연구로써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희양·박창호(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강희양·손정락(2007). 인터넷 및 게임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2(4), 745-759.
- 고은혜(2016).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 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6), 451-47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경호·최용호(2018). 초등학교생의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11), 211-218.
- 김대응·김창숙·박윤현(2019). 공공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이용 편리성, 양육스트레스, 유아 미디어 이용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18.
- 김미현·곽현석(2019). 초등학교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주관적 행복감, 게임중독 간의 구조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371-389.
- 김병년·최홍일(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보경·백용매·허창구(2016). 애착과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483-502.
- 김은설(2020).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사이버비행 감수성, 조기 대처가 답. 육아정책연구소, 83, 1-4.
- 김종민·최은아(2019).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 김형자·김정환·정세훈(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

- 니케이션학보, 29(4), 55-93.
- 김형자·정세훈(2015).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심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1), 87-120.
- 김환남·이선애·이은경·천재현·김성희(2014). 스마트미디어 노출 환경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127-153.
- 남경희(201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3(1), 117-137.
- 박은영·김진욱(2018). 부모의 장시간근로와 게임여가가 중학생자녀의 게임시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명연구, 49, 103-140.
- 박정아·정지나(2015). 초등학교생의 자기통제력 및 사회적 지지가 휴대전화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6), 769-781.
- 박천진·정혜원 (2019).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교사-아동 관계와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아동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열린유아교육, 24(5), 69-86.
- 백원대·서경현(2019). 초기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와 온라인 게임중독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3), 225-244.
- 변희숙·권순용(2014). 초등학교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03-317.
- 안경희(2007). 초등학교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갈등 변인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남미·이지연(2007). 남, 여 초등학교생의 부모애착, 컴퓨터게임 중독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8(2), 639-655.
- 양명숙·조은주(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1-13.
- 어주영·김형빈·이난희(2019).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211-228.
- 우수정(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 유은정(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2004).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99-118.
- 이미라·박세정(2020).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 자율성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5), 169-191.
- 이신숙·이영선(2017).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7), 627-634.
- 정송화·이정은·김미정(2019). 스마트폰 중독 초등학교생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메타분석. 한국산학

기술학회논문지, 20(2), 144-152.

정승민·박영주(2012). 가정 및 학교환경과 인터넷 중독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인터넷 중독 매개효과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3), 271-300.

주석진·조성심(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충동성, 교우관계, 모의 권위주의형 부모양육태도, 학교부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97-118.

황재원(2011). 학령기 아동경험과 부모 및 주변환경이 향후 청소년기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489-1508.

Jung, T. & Wickrama, K. A. S.(2007).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Muthen, L. K. & Muthen, B. O.(2016).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Muthen & Muthen.

• 교신저자: 윤미라, 대전대흥초등학교 교사, ymr74@hanmail.net

Classification of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by individual change trajectories and Influencing Factors; Applying Latent Growth Model

Jae Chul Kim and Mi Ra 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latent class according of changes in media devices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the third grade to fifth grade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media devices addiction.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KICCE) were analyzed from the 10th year(2017) when the subject is 10 years old to the 12th year(2019) when the subject is 12 years old, and a Latent Growth analysis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160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edia device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3-5 increased linearly.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increase or decrease differs between individuals.

Second, the change trajectory of media device addic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potential classes: 'mid-level radical rising type', 'high level maintenance type', and 'low level gradual rising type'.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media addiction,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han female students to be included in 'mid-level radical ascending type' and 'high level maintenance type' than 'low level gradual ascending type'. Students with higher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irrational punishment strategies were more likely to be included in the 'mid-level radical ascent type' and 'high level maintenance type' than the 'low level gradual ascent type'. On the other hand, students with high parent-child interaction with parent supervision were more likely to be included in 'low level gradual ascending type' and 'intermediate level

radical ascending type' than 'high level maintenance type'. Friends factors such as peer attachment and group bullying did not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the latent class of media device addiction change. Among the teacher factors, students with a high teacher-child relationship were more likely to be included in the 'low level gradual ascending type' than the 'middle level radical ascending type' and 'high level maintenance type'. However, it was found that teacher support and teacher's directive atmosphere did not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the latent class of media device addiction change. Fourth, it was found that cyberbullying, school adaptation, problem behavior, and academic performance differed according to the potential class of media device addiction change. The average of cyberbullying and problem behavior was the highest in the 'high level maintenance type' and the lowest in the 'low level gradual ascending type', whereas the average of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was the highest in the 'low level gradual ascent type' and the lowest in the 'high level maintenance type'.

- Key words: Media Devices Addiction, Latent Growth Model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개인별 변화궤적 분류 및 영향 요인

김경은(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등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미디어기기중독 발달궤적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미디어기기중독 잠재계층을 구분한 후,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러한 잠재계층에 따라 아동의 학업 및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동의 미디어기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미디어기기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 미디어기기 중독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발달궤적을 밝히고 이러한 발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적,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에 있어 부모 및 교사 지원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이후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예방프로그램 구성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이후 미디어기기중독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유아 및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각 연구들마다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미디어기기 중독, 과의존, 과몰입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제시되어 있으나, 서론 전체적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이라는 용어와 과몰입, 과의존 등의 용어가 상호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어 미디어기기 중독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아동 미디어기기중독, 과몰입, 과의존 개념 간의 차이점이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학습의 증가로 인해 미디어기기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디어기기 활용시간을 과의존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교육에서도 VR, AR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기기 활용시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미디어중독 및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기기 이용 시간만이 아닌 어떤 목적에서 미디어기기를 활용하는지,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 미디어기기중독 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점 기준 혹은 평균 기준 몇 점까지를 미디어기기 중독으로 보는지, 혹은 심각도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잠재계층의 평균이 1-2 범위에 있는데, 이들을 미디어기기중독의 ‘중수준’ 혹은 ‘고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자께서 연구의 한계점으로 변화된 사회에서의 아동 미디어기기 중독 지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 미디어기기중독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유아, 아동기 등 발달단계별 미디어기기 중독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패널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미디어기기 중독 관련 변인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심리적 요인(또래요인 포함), 가정요인, 학교요인을 미디어기기 중독 잠재계층의 영향 요인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 변인의 측정 시기(만 5세-초4)가 각기 달라 영향력의 차이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본 연구는 미디어기기 중독의 발달적 변화에 있어 영향 요인과 결과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된 너무 많은 변인들을 다루다보니 논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논의 부분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 발달 궤적에 대한 국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아동의 발달궤적과의 차이 혹은 공통점을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하여 또래가 주요한 영향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

조민규⁴⁴⁾ 김춘경⁴⁵⁾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 미치는 영향력 검증에서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조사(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군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교사-아동 관계와 삶의 만족도에서 더 높은 평균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은 더 낮은 평균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군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아동 간 갈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잠재적 위험군 집단은 일반군 집단에 비해 교사-아동 간 갈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육아정책연구소,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미디어중독 수준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코로나19 문제의 장기화 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은 원격수업과 야외 활동 제한 등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미디어 중독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안정태, 2021). 미디어 중독이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감, 초조,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형연, 김민주,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

44)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sjhye@knu.ac.kr)

45)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kckyung@knu.ac.kr)

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과의존 위험군은 전년도 보다 5.6% 증가한 35.8%에 이르고 있으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이와 더불어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7만2천981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2020년에 비해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13.2%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처럼, 미디어 중독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미디어 이용이 초등생 때부터 증가해 중학생 시기 정점을 찍으며, 미디어 중독 문제가 최근 4~5년 동안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측면(연합뉴스, 2021)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중독 관련 예방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아동기 미디어중독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Hawi & Samaha, 2017).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겪게되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미디어 과의존 증상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박정경, 2021). 즉, 생활사건 속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지만, 스마트폰 사용빈도가 증가될수록 더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자기통제력이 나타나 더 깊은 수준의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미디어 중독은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결여시켜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게 하는 것이다(Błachnio et al., 2019).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7년에는 10점 만점에 7.27점이었으나 2020년은 6.93점으로 하락하였음을 발표하였다(송은경,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수 결과 또한 OECD평균인 6.5점에 비해 한국이 5.9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OECD, 2017), 특히 한국의 아동들은 성인보다도 더 낮은 행복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동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이명숙, 2013).

아동기 미디어중독은 교사-아동 관계를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학교생활을 통해 아동은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검색, 채팅, 게임 등 인터넷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지각, 수업 중 잠을 자는 등의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 교사와의 갈등을 유발시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디지털중독연구회, 2015). 후기 아동기는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정서적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로 정서적 불안정, 충동성, 공격성 등의 증상이 나타나 교사와의 잦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적응적 행동은 미디어중독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는 점(조민자, 2010; Milani, Osualdella., & Di Blasio, 2009)에서 교

사-아동 관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온라인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대인관계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온라인 대인관계에 대한 의존은 오프라인 대인관계를 줄여줄게 하는 문제를 유발시켜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 감소와 갈등을 유발시키게 되어 온라인 대인관계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손경문, 2013). 온라인 대인관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덜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빠져들기 쉽다는 Kalkan(2012)의 연구결과는 미디어 중독이 오프라인 상 교사와 아동간 관계를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행동, 정서 등 다양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지만, 인터넷에 과의존 성향을 보이는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 활용에 몰두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어 뇌 발달의 불균형, 감정조절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서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신의진, 2013). 이로 인한 단편적인 소통은 아동의 사회기술 발달을 저해하여 사회적 위축, 고립감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Kato, Shinfuku., & Tateno, 2020). 또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하는 후기아동기 시기에 나타나는 인터넷 과몰입은 불안정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 거부민감성 및 고립감,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 정서문제를 유발시킨다(Hsieh et al., 2018). 나아가 인터넷 과의존을 통한 가상공간의 의존은 현실과 가상에서의 혼란을 초래하여 현실적 자아를 회피하고 망각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자기상 및 정서문제를 강화시키게 된다(정경아, 2001; Hawi, Samaha, & Griffiths, 2019). 이처럼, 아동기 미디어중독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사회적 위축을 유발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및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교사-아동 관계와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는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변인 간 인과관계 또한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 교사와 아동 간 긍정적 관계는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김소희, 2019). 교사는 부모 외에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주요 성인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격려와 지지와 같은 친밀감의 표현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남희, 김종백, 2011). 이에 반해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은 학업능력 저하 및 낮은 신뢰감, 삶의 만족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홍명숙, 이수영, 2017; 현의숙, 황혜정, 2019; Ruvalcaba-Romero et al., 2017)에서 아동기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아동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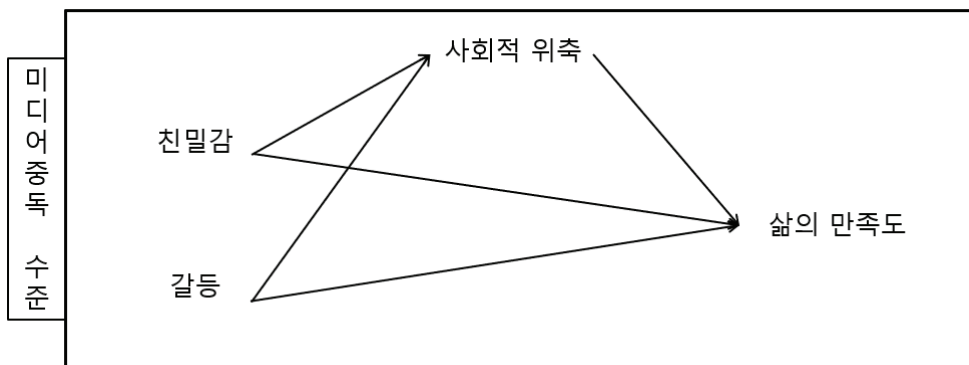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는데, 사회적 위축을 비롯한 내면화 문제행동은 수줍음과 불안감, 낮은 사회활동 등의 소극적 행동, 자신에게 과잉 통제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역할을 야기시켜 고립감을 향상되며,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게 된다(김민서 등, 2018).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두려움과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어 대인관계에서의 자기표현의 결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이운경 등, 2018).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원인변수로 사회적 위축을 선정하여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동기 개인 내적 특성인 사회적 위축은 교사-아동 관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조혜영, 오민아, 2020). 학생들에게 사회환경은 학교와 가정으로 국한되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제한된 지지망을 가지는데, 특히 교사는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남영옥, 2017). 친밀한 교사와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그들의 문제행동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 갈등적 관계는 그들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이동훈 등, 2010). 교사와 친밀감이 낮고 갈등이 높을수록 내·외현화 문제가 높아질 수 있지만,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교사의 충분한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이애선 등, 2009; Myers & Pianta, 2008)에서 사회적 위축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아동 간 긍정적 관계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교사-아동 관계와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각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고, 이러한 변인 간 차이를 토대로 집단 별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인과관계에서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미디어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미디어중독 관련 연구에서는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정의하여 결과변수로 선택한 후 인과관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포괄하는 개념인 미디어중독 요인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독립변수로 미디어중독 문제를 선정하여 중독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자료 탐색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교사-

아동 관계에서의 긍정적 측면인 친밀감과 부정적 측면인 갈등을 동일선상에 두고 관련 변인 간 인과관계 및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을 함께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치료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필요하다. 끝으로, 변인 간 인과관계 검증을 비롯한 미디어중독 수준 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를 활용한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여 인과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오차를 고려한 AMOS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결과 도출에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연구분석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지역 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선별하였다는 측면 또한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선행연구 및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최종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와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시작으로 전국 0세 유아 1,8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12차(2019년도)까지 자료수집이 완료되었다. 2019년 수집된 자료들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65명의 유효 응답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비율 %)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거주지역	서울권	29(10.6)	18(6.2)
	경인권	50(18.3)	66(22.6)
	대전/충청/강원권	52(19.0)	56(19.2)
	대구/경북권	39(14.3)	47(16.1)
	부산/울산/경남권	56(20.5)	59(20.2)
	광주/전라/제주권	47(17.2)	46(15.8)
아동 성별	남아	141(51.6)	163(55.8)
	여아	132(48.4)	129(44.2)
선생님 성별	남성	83(30.4)	98(33.6)
	여성	190(69.6)	194(66.4)
선생님 연령(만)	20대	76(27.8)	99(33.9)
	30대	93(34.1)	91(31.2)
	40대	87(31.9)	84(28.8)
	50대 이상	17(6.2)	18(6.2)
아버지 연령(만)	30대	34(12.5)	38(13.0)
	40대	212(77.7)	229(78.4)
	50대 이상	27(9.9)	25(8.6)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6(27.8)	101(34.6)
	2~3년제 대학 졸업	58(21.2)	70(24.0)
	4년제 대학교 졸업	105(38.5)	95(32.5)
	대학원 졸업	34(12.5)	26(8.9)
어머니 연령(만)	30대	78(28.6)	77(26.4)
	40대	183(67.0)	209(71.6)
	50대 이상	12(4.4)	6(2.1)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3(26.7)	86(29.5)
	2~3년제 대학 졸업	81(29.7)	96(32.9)
	4년제 대학교 졸업	101(37.0)	96(32.9)
	대학원 졸업	18(6.6)	14(4.8)
전체		273(100)	292(100)

2. 측정도구

가. 미디어 중독 수준

아동이 지각한 미디어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 중 한가지 요인 이상에서 기준점수를 넘을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며 세가지 요인에서 기준점수를 넘을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565명의 대상자들 중 총점 30점 이상의 중독수준을 가진 아동은 9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AMOS를 활용한 구조분석의 경우 관측변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최소 20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Jöreskog & Sörbom, 1989). 이에 따라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대상을 분류한 후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교사-아동 관계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ianta(2001)가 개발한 교사-아동 관계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친밀감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 요인과 갈등 각각의 요인이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두 요인 각각에 대한 문항꾸러미화를 실시하여 지표변수화 하였다. 측정 문항을 관측변수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변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Hau & Marsh, 2004). 반복주축분해법과 직교회전을 활용하여 친밀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은 1, 5, 6, 9번 문항(.554 ~ .826), 요인2는 3, 7, 15번 문항(.522 ~ .788)으로 구성되었다. 갈등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은 2, 4, 8, 10, 14번 문항(.402 ~ .657), 요인 2는 11, 12, 13번 문항(.624 ~ .755)으로 구성되었다. .3 이상이면 해당요인과 상관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을 친밀1, 친밀2, 갈등을 갈등1, 갈등2로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으며, 총합 값이 높을수록 교사와 아동 간 친밀감 혹은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친밀감 요인의 경우 .861(친밀1 .809, 친밀2 .720), 갈등 요인의 경우 .865(갈등1 .838, 갈등2 .773)로 나타났다.

다. 사회적 위축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현의와 안창규(2017)가 표준화한 NEO 성격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는 표준화 과정

을 통하여 변환된 T점수를 활용하였다. 표준화 도구의 경우 검사자의 총합 값을 T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문항에 대한 꾸러미화가 진행될 수 없어 지표변수가 아닌 관측변수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총합 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삶의 만족도

아동이 지각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지경과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변량 정규성 확보와 적합도 확보를 위해 문항꾸러미화를 실시하였다. 반복주축분해법과 직교회전을 활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764 ~ .911)로 나타남에 따라 지표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관측변수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으며, 총합 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1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변인들 간 영향력 및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집단 차이 검증을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인과관계에서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전,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

변인	M(SD)			F	Scheffe
	일반군(a)	잠재적 위험군(b)	고 위험군(c)		
친밀감	26.048(6.245)	24.025(7.721)	24.474(7.015)	5.320*	a > b, c
갈등	9.153(3.399)	10.477(4.646)	9.790(4.116)	6.296*	a < b, c
사회적 위축	45.770(6.877)	48.61(7.775)	48.73(8.234)	9.662*	a < b, c
삶의 만족도	6.546(1.759)	6.208(1.858)	6.377(1.794)	2.318*	a > b, c

* $p < .05$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군 아동은 잠재적 위험군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친밀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낮은 갈등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를 활용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잠재적 위험군 집단과 고위험군 집단이 동일집단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집단을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변인 별 집단 간 차이 값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중독 수준을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 및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변수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왜도, 첨도를 〈표 3〉을 통해 살펴보았다. Hong과 Malik, Lee(2003)가 제안한 정상분포조건의 경우 왜도 2, 첨도 7보다 작을 경우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결과는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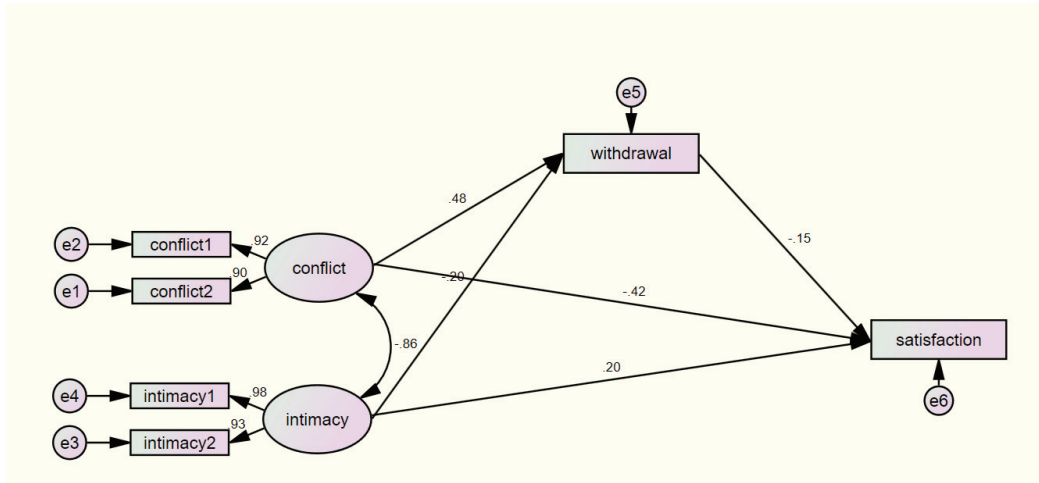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측정변인	갈등1	갈등2	친밀감1	친밀감2	사회적위축	삶의만족도
갈등1	1	.828*	-.782*	-.721*	.570*	-.630*
갈등2	.872*	1	-.748*	-.708*	.625*	-.621*
친밀감1	-.812*	-.809*	1	.875*	-.604*	.633*
친밀감2	-.739*	-.743*	.832*	1	-.554*	.607*
사회적위축	.722*	.672*	-.732*	-.720*	1	-.544*
삶의만족도	-.811*	-.773*	.777*	.781*	-.752*	1
왜도	.954 (1.211)	1.017 (.947)	-.718 (-.433)	-.515 (-.220)	-.228 (.102)	-.430 (-.745)
첨도	-.535 (.306)	-.230 (-.492)	-.772 (-1.258)	-.816 (-1.005)	-.432 (.105)	-1.476 (-.650)

* $p < .05$

Note1. 대각선 아래는 일반군 집단이며, 위는 잠재적 위험군 집단임

Note2. ()안의 왜도와 첨도는 잠재적 위험군의 수치임



[그림 3] 잠재적 위험군 집단의 모수 추정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관계없이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반면, 교사-아동 간 갈등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낮아지는 반면, 교사-아동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5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5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

〈표 5〉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 간 차이 비교

모수			Δdf	$\Delta \chi^2$	ΔTLI
친밀감	→	삶의 만족도	1	2.450	-.001
갈등	→	삶의 만족도	1	.330	-.002
사회적 위축	→	삶의 만족도	1	2.450	-.001
친밀감	→	사회적 위축	1	3.350*	.000
갈등	→	사회적 위축	1	4.958*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5	24.463	.005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친밀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Delta x^2(df = 1) = 3.350, p < .05$]와 갈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Delta x^2(df = 1) = 4.958, p < .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2가지의 경로는 〈표 4〉를 통해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최종경로는 친밀감이 사회적 위축에 이르는 경로, 갈등이 사회적 위축에 이르는 경로로 나타났다. 즉, 잠재적 위험군 집단은 일반군 집단에 비해 교사-아동 간 갈등이 사회적 위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군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 집단에 비해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사회적 위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집단 특성에 따른 변인 간 인과관계 및 인과관계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군 아동이 잠재적 위험군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친밀감과 더 낮은 갈등을 보일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에 빠질수록 높은 충동성 및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력이 감소하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권정혜(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인터넷 중독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와의 더 높은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인터넷 이용시간이 적은 학생과는 교사관계가 긍정적일 수 있으며, 학교생활 내 상호작용 또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덕희, 2005; 이덕례, 2002)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해결 능력과 부정적 의사소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신만의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또한, 인터넷 게임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력이 상실하게 되고 충동적 행동 또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충동성은 갈등행위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Davis & Van Wormer, 2012). 이처럼, 중독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간 부정적 관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교사와 아동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위험군 아동이 일반군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위축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위축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효숙(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그들의 사회적 위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김미선(2017)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될수록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 및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Van Wormer & Davis, 2016). 즉 스마트폰 사용이 중단되거나 줄었을 때 정신적인 초초와 불안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이해경, 2008). 이러한 의존적 행동은 사회성 발달을 저해시켜 우울, 사회적 위축, 불안, 자살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한다(Akin & Iskender, 2011).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군 아동이 잠재적 위험군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에 중독된 정도가 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김은희(2012)의 연구결과와 적절한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만 과도한 게임노출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이상철, 김남희와 서용호(2003)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강한 집착행동과의존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상적 활동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행위를 통해 삶 속에서 만족감이 증가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배성만, 2015). 하지만, 미디어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이 자기조절능력이 감소되어 점차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시간확보 및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 삶의 만족도는 감소되게 된다(Błachnio et al, 2019). 적절한 수준의 미디어 노출은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소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Longstreet & Brooks, 2017), 중독 수준의 과다노출은 일상생활 장애를 유발 및 자기조절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Varma, Cheaskul., & Poonpol, 2018)에서 미디어중독 예방을 위한 자기조절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미디어중독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구분을 하지 않고 각각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는 높

아지고, 갈등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김진아와 한귀례(2014)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유형에서 친밀감을 토대로 학생을 지지하고, 학생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율성을 인정해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조관순(2020)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를 지지한다.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감은 상대방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친밀한 표현은 그들의 행복감을 높아지게 하여 삶의 만족도가 향상하게 된다는 측면(Hofer, Chasiotis., & Campos, 2006)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아동 간 친밀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반해,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시킨다는 김안나와 김효진(2018)의 연구결과와 교사와의 갈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이현정(2020)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는 정서적 안정감 결여와 불안감은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저해시키게 되므로(Ma & Huebner, 2008), 갈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아동 간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김인(2021)의 연구결과와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한 이래혁과 장혜림(2020)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 경우 삶의 목표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한 장수빈(2019)의 연구 또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사회적 위축이 높을 경우 새로운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움츠러듦, 긴장, 초조, 회피 등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Suldo & Huebner, 2004). 즉, 위축행동이 반복될 경우 타인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타인들의 긍정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Powdthavee & Vignoles, 2008).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을 낮추기 위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고립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높아지면 사회적 위축은 낮아지고, 갈등이 높아

지면 사회적 위축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교사와 아동 간 친밀한 관계는 교사와 학생 간 온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발하여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력 증가와 위축행동은 감소될 수 있다는 Biggs, Vernberg와 Wu(2012)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에 반해, 교사와의 갈등 관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약화시키며, 공격성, 위축 등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Howes, Hamilton과 Matheson(1994)의 연구결과와 교사와의 갈등은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는 Mantzicopoulos(2005)의 연구결과는 교사와 학생 간 갈등관계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경우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 스트레스, 위축행동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Rubin, Chen., & Hymel, 1993). 이러한 위축행동의 시작은 더욱 심각한 고립을 유발시키고 결국 대인 공포증, 불안,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측면(Rubin, Bowker., & Gazelle, 2010)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돕기 위한 사회성 훈련 및 교육적 접근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이 사회적 위축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간 친밀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군 집단 아동은 잠재적 위험군 집단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중독에 노출될 경우 대인관계 과정 중 친밀감 형성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게 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위축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친밀감이 높아질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여 사회적 위축 및 고립감이 감소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종훈, 신유림, 2011; 우성범, 권정혜, 양은주, 2014; Alimoradi et al, 2019)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미디어중독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온라인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오프라인 속 관계에서의 대인 간 친밀감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높은 사회적 위축을 겪을 수 있지만, 일반아동의 경우 미디어중독에 노출된 아동에 비해 교사-아동 간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Cerniglia et al, 2017; Li & Wong, 2015). 따라서, 교사-아동 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축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간 갈등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위험군 집단 아동은 일반

군 집단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갈등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과다노출 될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성 및 갈등해결방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온라인 중독문제를 활성화 시켜 사회적 고립 및 위축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유은희, 하은혜, 2009; 정혜선, 금정화, 2019; Keane, 2004)는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미디어 중독에 많이 노출될수록 현실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학습할 가능성 및 실행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한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아동 간 갈등유발 및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Arthy et al, 2019; Celikkalp et al, 2020). 이러한 교사-아동 간 관계의 어려움은 아동을 더욱 움츠리게 하여 더 깊은 고립감과 위축을 유발시키는 것이다(Bowker, Stotsky., & Etkin, 2017; Li & Wong, 2015). 이처럼, 미디어중독에 노출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교사-아동 간 더 깊은 갈등을 동반하여 더욱 심각한 사회적 위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디어중독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중독으로 인한 교사-아동 간 갈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치료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인관계 회복을 위한 접근일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논문의 의의 및 추후 논문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소속된 아동을 선정하여 논문을 진행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오차를 고려한 도구인 AMOS를 활용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매우 유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 중 일부를 잠재변수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AMOS를 활용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F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매개 및 종속변인을 잠재변수화 할 수 있는 설계를 실시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중독을 집단변수로 두고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중독예방을 위한 실제적 자료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독수준 별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인과관계에서 중독유무에 관계 없이 교사와 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독구분 이전에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 교사-아동 관계 및 아동이 가진 사회적 위축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 미디어 중독 분류 중 고위험군의 사용자 선정에서 적절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Scheffe를 활용한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잠재적 위

험군과 고위험군이 동일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인원을 확보하여 세 집단 별 인과관계 검증을 실시하여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 개입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사-아동 관계를 친밀감과 갈등 각각의 요인 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잠재적 위험군 아동의 경우 일반군 아동에 비해 더 높은 갈등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회적 위축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일반군 아동은 잠재적 위험군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회적 위축은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중독수준에 따라 교사-아동 관계 요인과 사회적 위축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재화 요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위축 외에 외현화 요인 및 가정 환경적 요인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중독문제에 따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권정혜(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267-280.
- 김남희, 김종백(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5(4), 763-789.
- 김덕희(200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2017). 청소년의 자존감과 외로움이 사회적위축에 미치는 영향-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4(2), 1-22.
- 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2018).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1), 1-9.
- 김소희(2019). 청소년이 지각하는 담임교사-학생관계가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안나, 김효진(2018).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이행기 (초 5~ 중 2)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가족과 문화*, 30(3), 70-94.
- 김은희(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불안, 삶의 만족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

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2021).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 및 부모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 681-690.

김중훈, 신유림(2011).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또래거부의 관계에서 어머니-유아 및 교사-유아 친밀감의 중재효과. 생애학회지, 1(2), 17-29.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아, 한귀례(2014).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김형연, 김민주(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김효숙(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요인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영옥(2017).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통제력, 교사지지의 구조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9(3), 165-186.

디지털중독연구회(2015). 인터넷 중독의 특성과 쟁점. 서울: 시그마프레스.

박정경(2021). 아동·청소년 코로나 블루 심각... 극단적 선택 생각 3배로 증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0301071003022001>

배성민(2015). 성별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련 요인. 청소년학연구, 22(8), 385-405.

손경문(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에 따른 온/오프라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은경(2021). 코로나 이후 아동들 우울·불안... 극단선택 생각 3배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2054300004>

신의진(2013).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서울: 북클라우드.

안정태(2021). 경기도“코로나19로 늘어난 스마트폰 사용량, 건강한 스마트폰 습이 필요해”. <http://www.mediatoday.asia/322663>

안현의, 안창규(2017). NEO 성격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발표. 서울: 여성가족부.

연합뉴스(2021). 코로나19 속 인터넷 중독 고위험 청소년 13.2% 증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저연령화 추세 지속.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코로나19-속-인터넷-중독-고위험-청소년-13-2-증가/>

우성범, 권정혜, 양은주(2014). 청소년의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의 친밀감 형성: 자기개방과 반응성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111-125.

유은희, 하은혜(2009).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친구관계: 게임, 채팅, 음란물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2), 5-29.

이덕례, 남미애(2002).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훈, 이정화, 이애선, 박원모(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부적응행동에 미

- 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9(1), 185-205.
- 이래혁, 장혜림(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121-144.
- 이명숙(2013).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가족기능 및 진로 정체감의 영향: 한국-중국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51-174.
- 이상철, 김남희, 서영호(2003).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몰입과 중독이 사용자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2(5), 1479-1501.
- 이애선, 서윤정, 진현, 이정화, 이동훈(2009).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188-189.
- 이운경, 윤기봉, 박보경, 도현심(2018). 사회적 위축 및 부모의 과잉간섭과 지역사회 인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6(2), 205-217.
- 이해경(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이현경(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와 그릿의 이중매개효과.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빈(2019).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삶의 목표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6(2), 107-139.
- 정경아(2001). 게임중독 청소년의 특성분석: 개입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선, 금정화(2019).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 공감, 대인관계 유능성, 갈등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601-610.
- 조관순(2020). 부모양육태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민자(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절 변인 탐색. *청소년시설환경*, 8(3), 29-42.
- 조혜영, 오민아(2020).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571-590.
-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2012).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K 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5), 1005-1015.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스마트미디어중독 특성 및 중독 해소 개입전략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현의숙, 황혜정(2019). MMTIC 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 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287-1312.
- 홍명숙, 이수영(201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4(1), 183-211.
- Akin, A., & Iskender, M. (2011). Internet addiction and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3(1), 138-148.

- Alimoradi, Z., Lin, C. Y., Imani, V., Griffiths, M. D., & Pakpour, A. H. (2019). Social media addiction and sexual dysfunction among Iranian women: The mediating role of intimac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8(2), 318-325.
- Arthy, C. C., Effendy, E., Amin, M. M., Loebis, B., Camellia, V., & Husada, M. S. (2019). Indonesian version of addiction rating scale of smartphone usage adapted from smartphone addiction scale-short version (SAS-SV) in junior high school. *Open access Macedoni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7(19), 3235.
- Biggs, B. K., Vernberg, E. M., & Wu, Y. P. (2012). Social anxiety and adolescents' friendships: The role of social withdrawa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2(6), 802-823.
- Błachnio, A., Przepiorka, A., Benvenuti, M., Mazzoni, E., & Seidman, G. (2019). Relations between Facebook intrusion, Internet addicti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 study in Italy and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7(4), 793-805.
- Bowker, J. C., Stotsky, M. T., & Etkin, R. G. (2017). How BIS/BAS and psycho-behavioral variables distinguish between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merging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9, 283-288.
- Celikkalp, U., Bilgic, S., Temel, M., & Varol, G. (2020). The smartphone addiction levels and the association with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and medic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8(3), e93.
- Cerniglia, L., Zoratto, F., Cimino, S., Laviola, G., Ammaniti, M., & Adriani, W. (2017).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Neurobiological, psychosocial and clinical issue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76, 174-184.
- Davis, D. & Van Wormer, K. (2012). *Addiction treatment*. Cengage Learning.
- Hau, K. T., & Marsh, H. W. (2004). The use of item parc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Non-normal data and small sample siz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7(2), 327-351.
- Hawi, N. S., & Samaha, M. (2017). The relations among social media addict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5(5), 576-586.
- Hawi, N. S., Samaha, M., & Griffiths, M. D. (2019). The digital addiction scale for childr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2(12), 771-778.
- Hofer, J., Chasiotis, A., & Campos, D. (2006). Congruence between social values

- and implicit motives: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across three cultur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4), 305-324.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sieh, Y. P., Shen, A. C. T., Wei, H. S., Feng, J. Y., Huang, S. C. Y., & Hwa, H. L. (2018). Internet addiction: A closer look at multidimensional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mental health.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1(12), 768-773.
- Jöreskog, K. G., & Sörbom, D.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Chicago, IL: SPSS.
- Kalkan, M. (2012). Predictiveness of interpersonal cognitive distortions on university students' problematic Internet us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7), 1305-1308.
- Kato, T. A., Shinfuku, N., & Tateno, M. (2020). Internet society, internet addiction, and pathological social withdrawal: the chicken and egg dilemma for internet addiction and hikikomori.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3(3), 264-270.
- Keane, H. (2004). Disorders of desire: Addiction and problems of intimacy.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25(3), 189-204.
- Li, T. M., & Wong, P. W. (2015). Youth social withdrawal behavior (hikikomori):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9(7), 595-609.
- Li, T. M., & Wong, P. W. (2015). Youth social withdrawal behavior (hikikomori):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9(7), 595-609.
- Longstreet, P., & Brooks, S. (2017). Life satisfaction: A key to managing internet & social media addiction. *Technology in Society*, 50, 73-77.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Mantzicopoulos, P. (2005). Conflictual relationships between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teachers: Associations with child and classroom context variabl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3(5), 425-442.
- Milani, L., Osualdella, D., & Di Blasio, P. (2009). Qu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in adolescence. *CyberPsychology & Behavior*, 12(6), 681-684.

- Myers, S. S., & Pianta, R. C. (2008). Developmental commentary: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3), 600-608.
- OECD(2017).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 Pianta, R. C. (200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Odessa, FL: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 Powdthavee, N., & Vignoles, A. (2008). Mental health of parents and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 within-family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3), 397-422.
- Rubin, K. H., Bowker, J. C., & Gazelle, H. (201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131-156.
- Rubin, K. H., Chen, X., & Hymel, S. (1993).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of 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518-534.
- Ruvalcaba-Romero, N. A., Fernández-Berrocal, P., Salazar-Estrada, J. G., & Gallegos-Guajardo, J. (2017). Positive emotion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Behavior, Health & Social Issues*, 9(1), 1-6.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165-195.
- Van Wormer, K., & Davis, D. R. (2016). *Addiction treatment*. Cengage Learning.
- Varma, P., Cheaskul, U., & Poonpol, P. (2018).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on academic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ai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by Internet addiction and self-regulation: A path model. *Journal for Leadership and Instruction*, 17(2), 13-24.

Structural Analysis of Children's Teacher-Child
Relationship,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Media Addiction

Minkyu Cho and Choonkyung Kim

The study's purpose is to examine how teacher-children relationship and social withdrawal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how these variables were related to media addiction level.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Korea Children's Panel Survey (12th year)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The spss and amos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5.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er-children relationship, social withdrawal,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media addiction. That is, the general group showed higher average values in teacher-children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e potential risk group, and the general group showed lower average values of social withdrawal compared to the potential risk group. Second, the influence of teacher-children intimacy on social withdrawal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media addictio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general group lowered the effect of teacher-child intimacy on social withdrawal compared to the potential risk group. Third, the influence of teacher-children conflict on social withdrawal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media addictio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potential risk group had a higher effect on social withdrawal of the teacher-child conflict than the general group.

- Key word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Children Relationship, Social Withdrawal, Life Satisfaction, Level of Media Addiction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디어문화연구실장)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202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년까지 전체 인구의 30% 미만에 지나지 않던 것이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93.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의 편재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미디어 이용 시간의 전반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오프라인 사교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텔레비전, 유튜브, SNS 등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있어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의 이용시간 증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집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2020년 기준 미취학 및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45분 증가하여 하루 평균 2시간가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중고 재학생들의 경우 유튜브와 같은 비실시간 영상 시청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미취학 및 초등학생은 1시간 19분, 중고등학생은 1시간 16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게임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전년도에 비해 2020년에 대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0).

이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편재와 미디어 이용 시간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과의존, 인포데믹(infodemic), 사이버폭력 등 미디어 이용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민규 교수님과 김춘경 교수님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은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소위 미디어이용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부작용 중 하나로 미디어의 오남용이 아동과 교사 간의

관계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위축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노출이 본격화되는 아동 시기부터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다보니 분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일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분류, 잠재평균분석 대신 F검정으로 대신하는 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것이 본 논문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하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디어학자인 토론자의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은 우리 사회가 미디어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위 '미디어의 과장된 영향력'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체 특성에 따라 폭력성을 배양하거나 자존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연구들이 있고, 이에 대한 논증은 구체적입니다. 예로, 게임 유저들의 반복된 폭력적 콘텐츠 노출이 폭력성을 배양·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밝힌 아동의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으로 소위 미디어 중독이 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단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배상률 외, 2020)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애착,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정지도 적절성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자녀의 미디어 오남용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관심이나 사회성 결여가 아이를 미디어 오남용으로 이끈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 간의 사후검증 결과 동일집단으로 나온 것이 역설적으로 미디어의 중독이 상술한 관계성에 있어 핵심 요인 또는 근본 요인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조민규, 김춘경 교수님의 고견을 구하고자합니다. 미디어의 편재와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SES가 낮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미디어 오남용이 높은 현실에서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현실에서 아동의 특성과 성장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을 통해 느낀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좋은 논문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2020).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I: 초등학교생》(연구보고 20-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2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Tel. 02-398-7790 www.kicce.re.kr